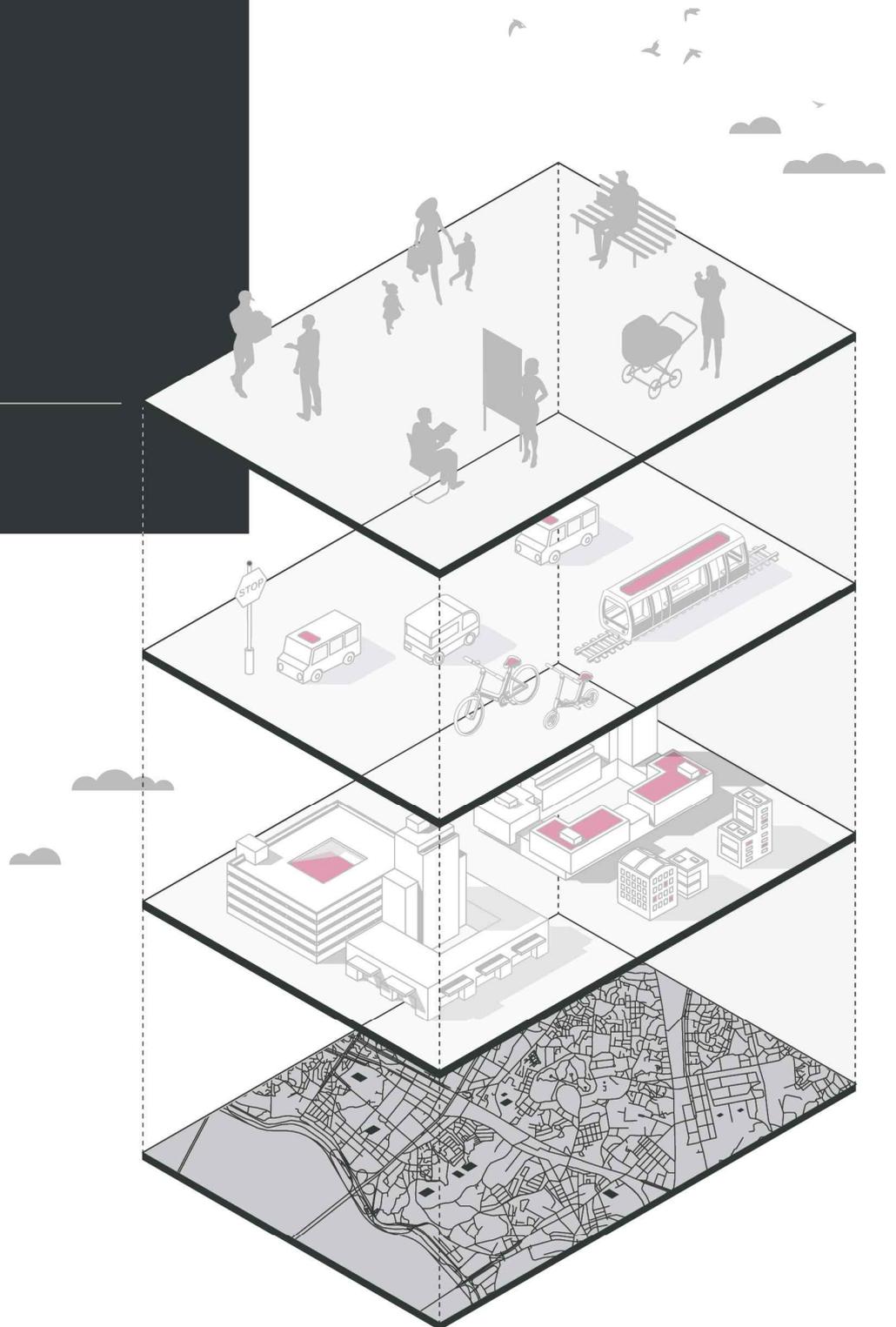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 연구책임

맹다미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

## 연구진

김묵한 서울연구원 경제경영연구실장

유정민 서울연구원 탄소중립센터장

윤서연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상연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강지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송경민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신은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장원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원

# 01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개요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진단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계획 수립과정의 효율성 제고,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성과 점검, 도시 여건 변화 진단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구성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서울 도시변화 진단’,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으로 구성된다.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서울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집, 추세 진단을 통하여 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도시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여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한 여건을 탐색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도시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의 지속적 수행을 지원한다. 또한 이를 전문가, 시민과 공유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서울 도시변화 진단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호보완적 진단체계

 <b>기본 진단</b>	 <b>심층 진단</b>
서울의 기초현황 파악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침 상 기초조사 수행	주제나 공간단위에 대하여 유연하게 운영

###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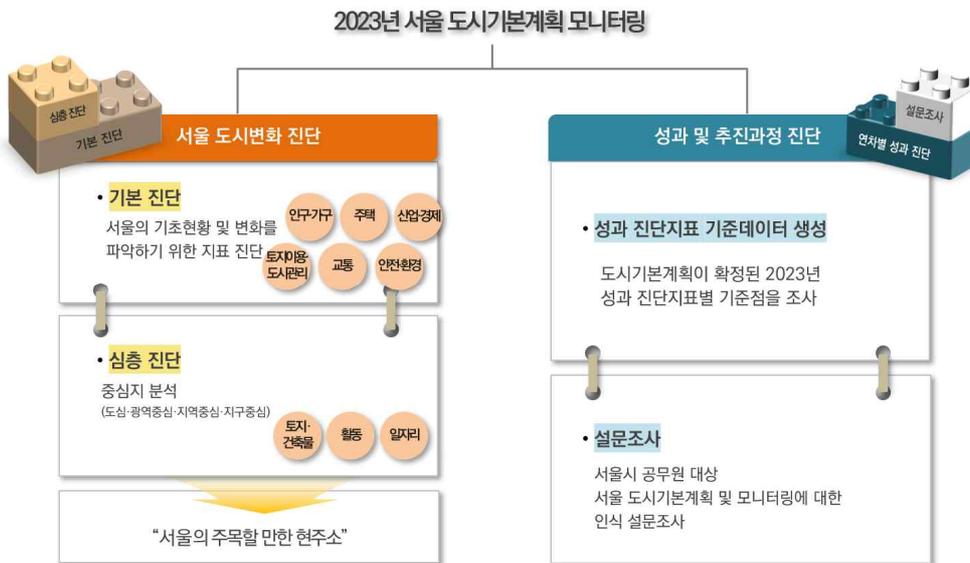
계획구조에 대응하는 진단체계

<b>성과 진단지표</b>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지표체계 구성, 추진 방향 점검
<b>계획추진 정성분석</b>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에 대한 추진과정 중간 점검
<b>공간정책 모니터링</b>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책 맥락 파악, 향후 재정비 방향성 검토

#### 모니터링 구성체계

## 2023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2023년 모니터링 리포트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23년 1월에 확정·고시된 이후 첫 모니터링이다.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서울의 기초현황을 파악하는 기본 진단과 중심지에 대한 심층 진단으로 구성하였다.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지표를 보완하는 틀을 마련하고 기준년도(2022년)의 지표별 기준치를 조사하였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의 현황,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인지도 및 실현가능성, 모니터링에 대한 인지도 등을 설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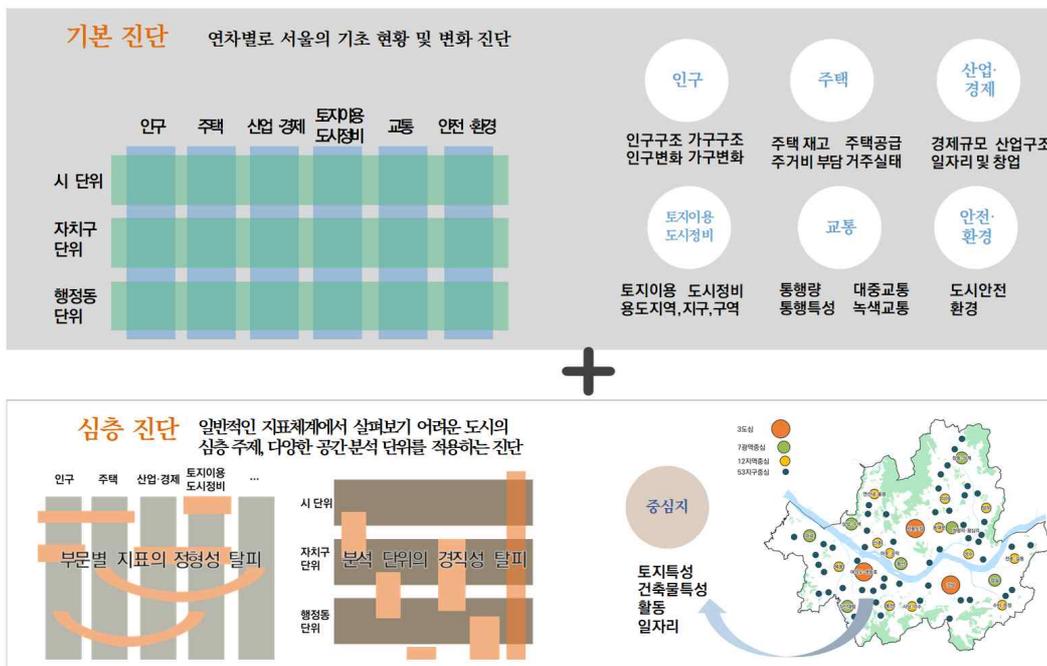
#### 2023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구성

## 02 서울 도시변화 진단

###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구성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기본 진단'과 '심층 진단'으로 구성되어 서울의 다양한 현황과 변화를 담고자 하였다. 기본 진단에서는 서울의 인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도시정비, 교통, 안전·환경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부문별 현황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도시의 수요-공급의 불균형, 도시 기능의 지역 간 격차, 수단 간 균형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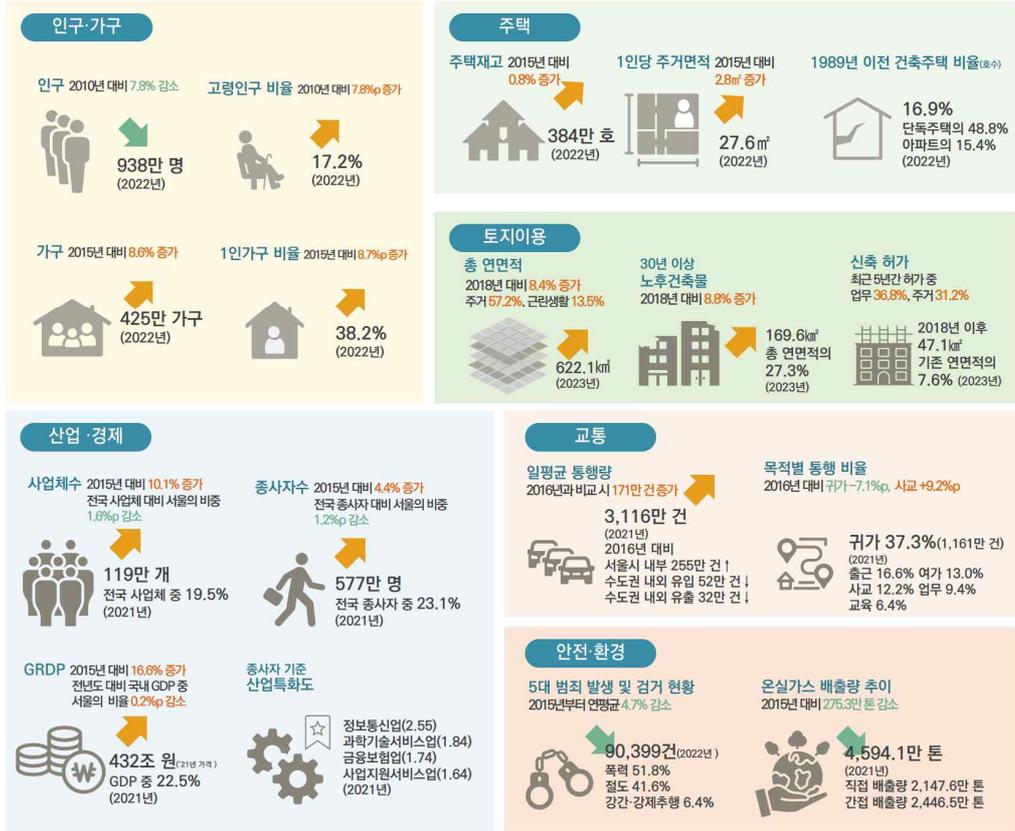
심층 진단은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중심지(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에 대한 특성을 토지-건축물-활동-일자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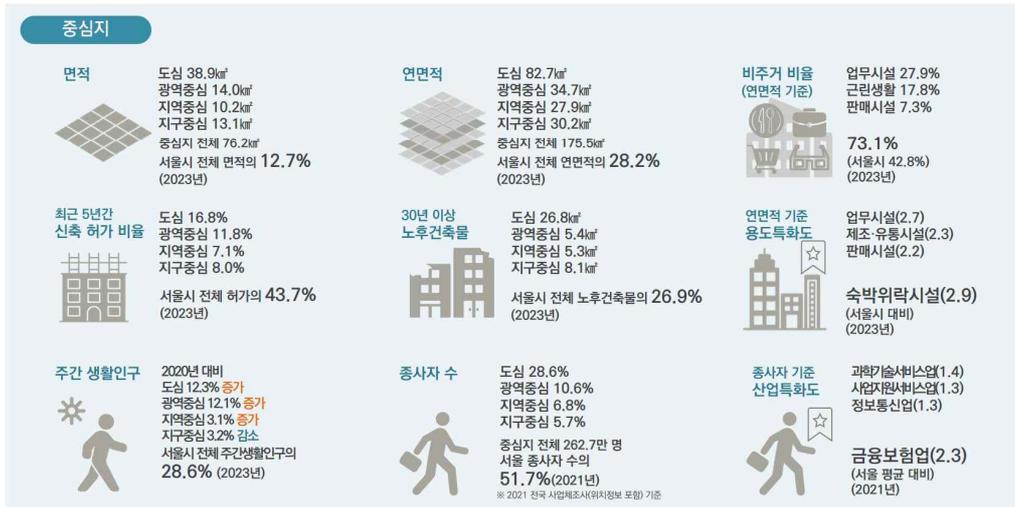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구성

# 간단히 보는 도시변화 진단 결과

## 기본진단



## 심층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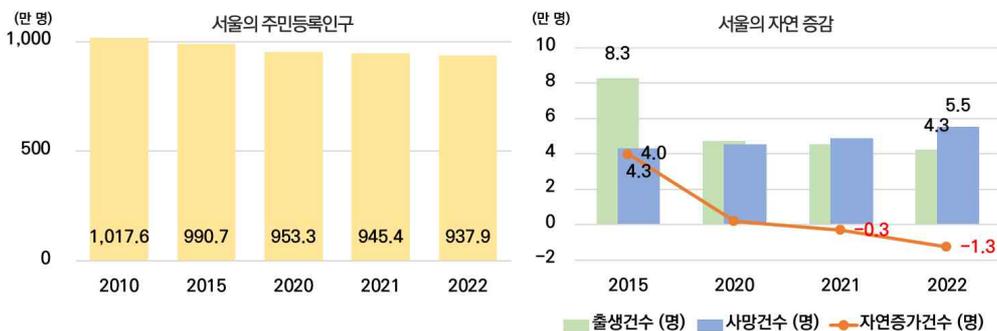


픽토그램 © MattWasser, BradAvison, Vectplus, farias, Adrien Coquet(인구·가구), SetyoAri Wibowo, Adrien Coquet(주택), Alice Design, Oksana Latysheva, gilbertbages, UmerYounas(산업·경제), SBTS, Llisole, Eucalyp, VectorsLab(토지이용), Adrien Coquet, Candra (교통), Topicons(안전·환경), Bakunetsu Kaito, ircham, iconsphere, Mohamed ArifPrasetyo, VectorsLab, Llisole, UmerYounas, gilbert bages, GhiyatsMujtaba, SetyoAri Wibowo, ircham, iconsphere, Mohamed ArifPrasetyo, Adrien Coquet, Stephen Plaster (심층진단) @ Noun Project

## 서울의 주목할만한 현주소

### 저출생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서울인구는 '자연 감소' 전입-전출 모두 감소, 순전출 규모는 전년 규모의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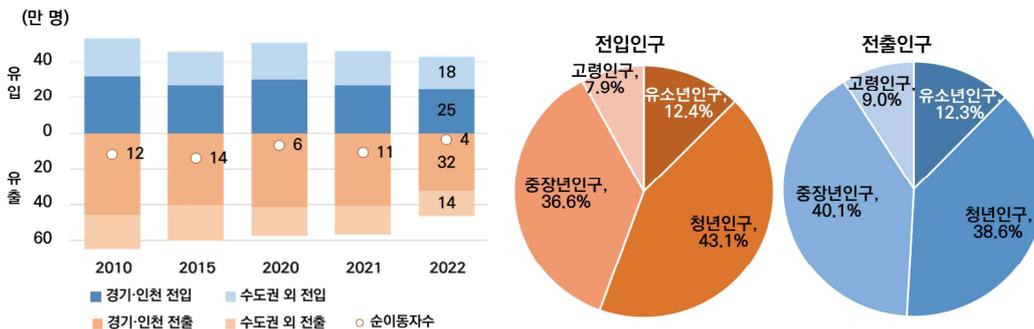
서울 인구는 2022년 937.9만 명으로, 2010년 1,017.6만 명에 비해 7.8%, 2021년에 비하여 0.8%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처음으로 서울 인구가 자연감소(0.3만 명)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사망자 5.5만 명, 출생아 4.3만 명으로 1.3만 명이 감소하였다. 출생아는 전년 대비 6.4% 감소, 사망자는 전년에 비하여 13.3% 증가하여, 출생아의 감소와 사망자의 증가 추세는 전년보다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서울의 사망자 수 증가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따른 2022년의 사망자는 4,785명으로 2021년 1,823명에서 162.5% 증가하였다. 서울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은 전체 사망의 8.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사망자 증가분의 73.5%를 차지한다.



#### 서울의 인구나 자연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2022

서울 인구의 사회적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유출인구는 크게 줄었다. 2022년의 전입과 전출에 따른 순전출은 3.5만 명으로 2021년 10.6만 명의 33.3%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전출인구가 가장 적었다. 2022년 서울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의 전출인구는 46.6만 명으로 전년에 비하여 17.9% 감소하였고,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전입인구는 43.0만 명으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으로 7.2만 명이 순전출, 수도권 외 지역에서 3.7만 명 순전입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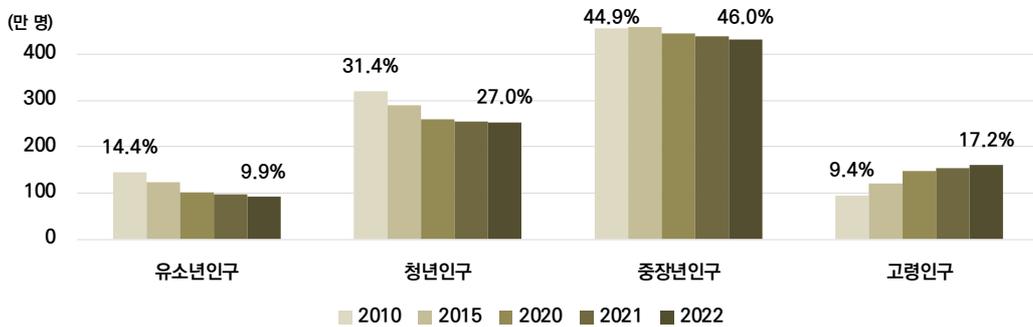
#### 서울 전입·전출인구의 추이와 연령대별 구성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2022

서울에서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한 사유는 가족(29.5%)-주택(27.3%)-직업(25.2%) 순으로 주택을 이동 사유로 꼽은 비율은 2021년보다 4.8%p 감소하였고 순위가 바뀌었다.<sup>i</sup> 전출인구는 중장년인구 40.1%, 청년인구 38.6%, 유소년인구 12.3%, 고령인구 9.0%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사유는 직업(38.7%)-가족(22.1%)-주택(16.0%) 순이었으며, 전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이유로 이동한 비율은 전년보다 2.8%p 감소하였다.<sup>ii</sup> 전입인구는 청년인구 43.1%, 중장년인구 36.6%, 유소년인구 12.4%, 고령인구 7.9%로 나타났다.

출생아의 감소, 중장년층의 사회이동으로 서울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유소년인구는 크게 줄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60.9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17.2%에 해당하며, 2010년에 비하여 68.6%가 증가하였다. 강북구(22.0%), 도봉구(20.8%), 중구(19.9%), 종로구(19.2%) 등에서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거나 근접하고 있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92.8만 명으로 서울 인구의 9.9%를 차지하며, 2010년에 비하여 36.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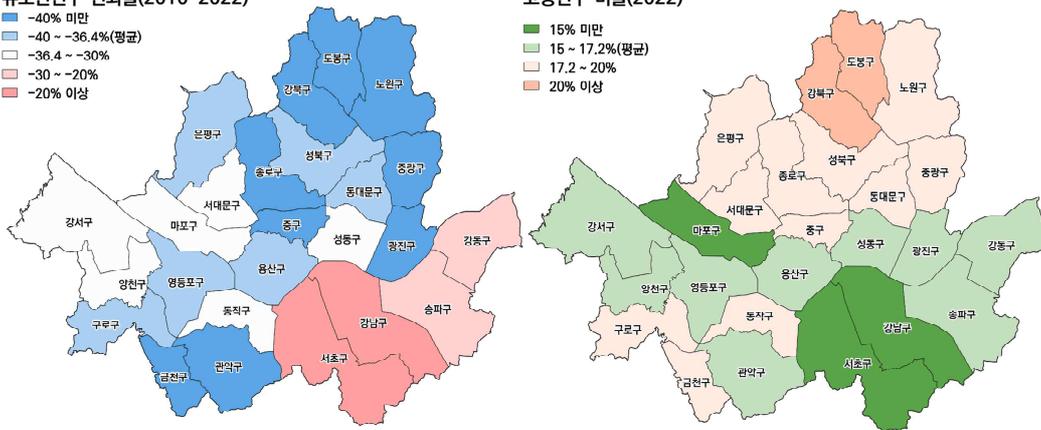


유소년인구 변화율(2010~2022)

- -40% 미만
- -40 ~ -36.4%(평균)
- -36.4 ~ -30%
- -30 ~ -20%
- -20% 이상

고령인구 비율(2022)

- 15% 미만
- 15 ~ 17.2%(평균)
- 17.2 ~ 20%
- 20% 이상



**서울의 연령대별 인구 추이와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0~2022

● ● ● ●

<sup>i</sup> 서울에서 서울 바깥으로 나가는 인구는 2021년 18.2만 명에서 2022년 12.7만 명으로 30.1% 감소하였음. 2020년 임대차 보호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보임, 2021년 서울에서 서울 외 전출 사유는 주택(32.1%)-가족(27.7%)-직업(23.7%) 순

<sup>ii</sup> 2021년 서울 외에서 서울 전입 사유는 직업(37.4%)-가족(22.7%)-주택(18.7%) 순

## 가구 수 증가, 신축 주택 감소 등으로 주택보급률 감소

2022년 주택보급률은 93.7%로, 2015년 대비 2.3%p 감소하였다. 주택 재고는 2015년 363.3만 호에서 2022년 384.0만 호로 5.7% 증가하였으나, 가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가구는 2022년 409.9만 가구로, 2015년에 비해 34.1만 가구(8.3%)가 증가하였다.<sup>iii</sup> 이런 추세는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2015년 2.5명, 2022년 2.2명)를 동반하고 있다. 2022년 서울의 1-2인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약 64.4%를 차지하며, 2015년 이후 29.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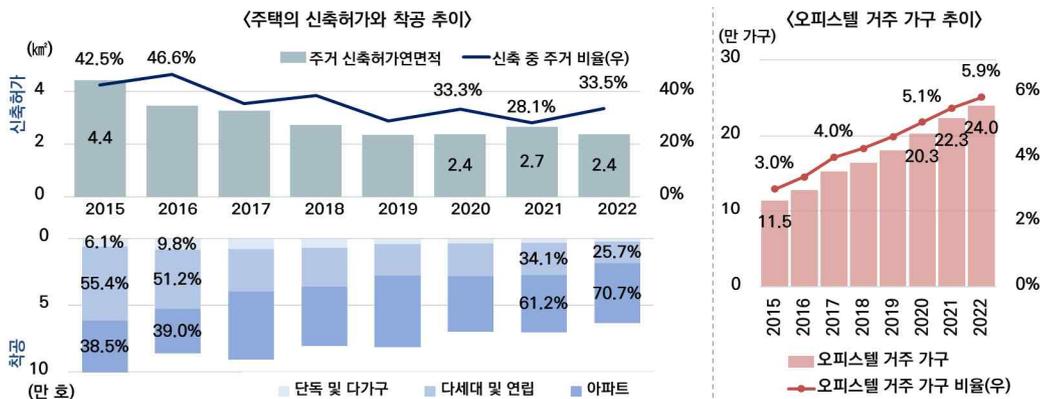


가구 및 주택 수, 주택보급률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010~2022

서울의 주택 착공량은 2022년 6.4만 호로 2015년 10.1만 호에서 36.6% 감소했으며, 주거용 신축 허가 연면적도 2021년 2.4km<sup>2</sup>로 2015년 4.4km<sup>2</sup>에서 46.7% 줄어들었다. 서울시 전체 신축 중 주거용 연면적의 비율도 2015년 42.5%에서 2022년 33.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가구 중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은 2022년 8.3%로 2015년 대비 3.2%p 늘어났다. 특히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2022년 24.0만 가구(일반가구 기준)로 추산되며, 2015년 11.5만 가구에서 10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명으로 오피스텔이 소형가구의 주택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신축허가·착공 및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2015~2022; 서울특별시, 건축허가통계, 2015~2022;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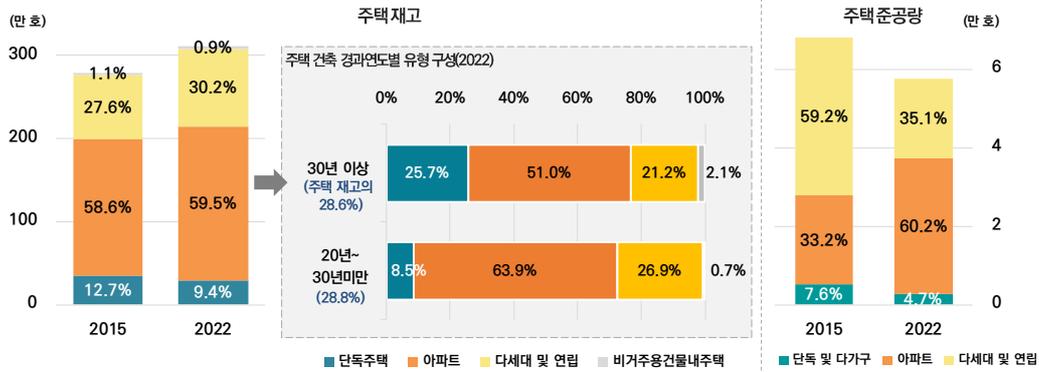
<sup>iii</sup>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집단가구(6인 이상 비혈연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는 제외

## 공동주택으로 주택 유형의 획일화

2022년 서울의 전체 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은 89.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59.5%로 2015년과 비교할 때 0.9%p, 다세대·연립주택은 30.2%로 2.6%p 증가하였다. 반면, 단독주택의 비율은 9.4%로 동일 기간 3.3%p 감소하였다.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에서는 공동주택 비율이 95% 이상이며, 종로구(72.9%), 용산구(81.7%), 강북구(81.8%), 관악구(82.5%), 광진구(82.6%) 등에서는 평균보다 공동주택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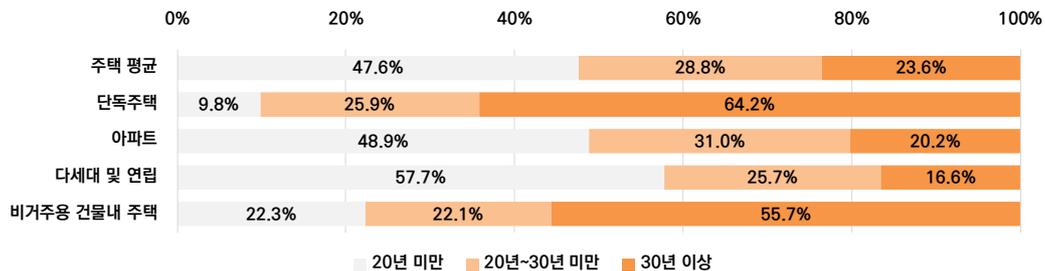
2022년 주택 재고 중 30년 이상 건축물이 23.6%, 20년~30년 미만 건축물은 28.8%를 차지하고 있다. 30년 이상 주택은 아파트 51.0%, 단독주택 25.7%, 다세대·연립주택 21.2%로 구성되어 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 중 아파트는 63.9%, 다세대·연립주택 26.9%, 단독주택 8.5% 등으로, 30년 이상 주택과 비교하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은 18.6%p 많고 단독주택은 17.2%p 적은 양상을 보였다. 단독주택 중 20년 미만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9.8%로 신규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량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지는 추세이다. 2022년에 준공된 주택 중 단독주택 비율은 4.7%에 불과하며,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60.2%, 35.1%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준공된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p 증가했으며, 다세대·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4.1%p 감소한 반면, 아파트의 신축이 27.0%p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 주택유형별 재고 및 준공량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2022



### 주택유형별 건축연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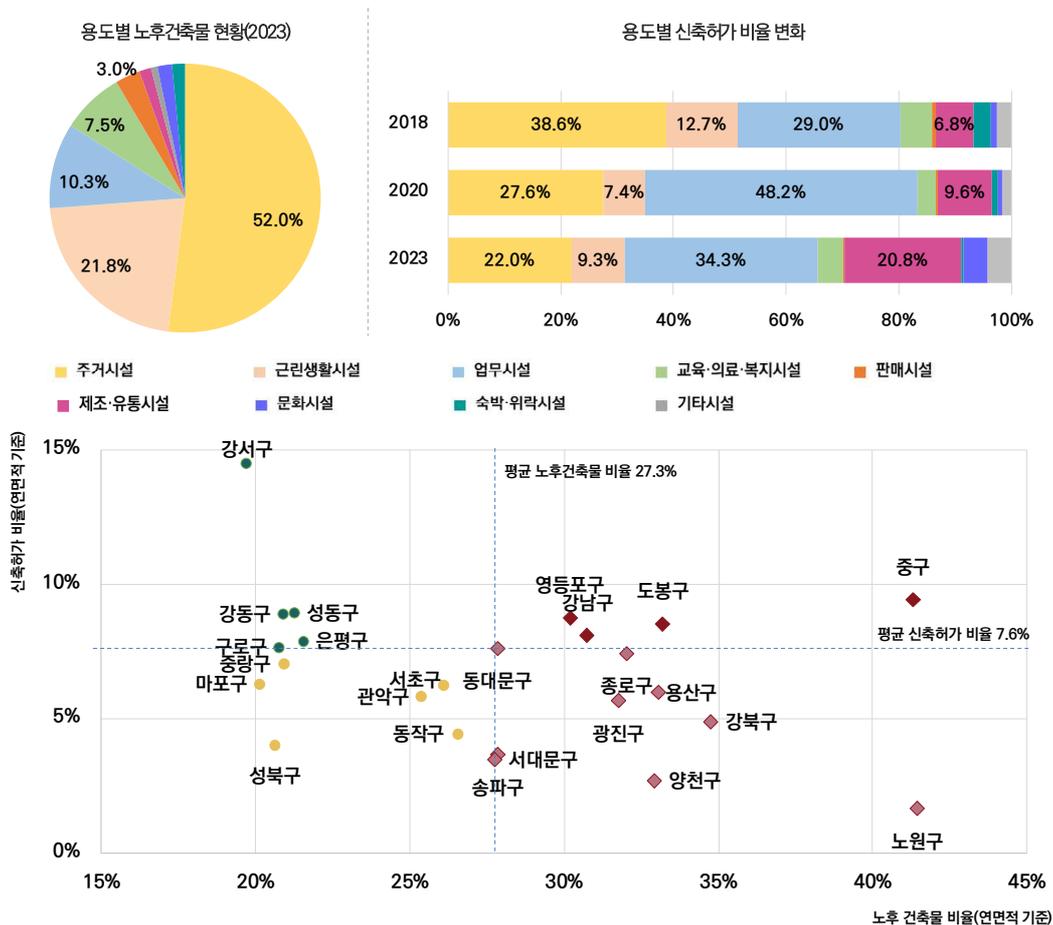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22

## 전체 건축물 노후화 심화, 신축허가에서는 업무시설이 큰 비중

2023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7.3%(연면적 기준)를 차지한다.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주거시설이 52.0%, 근린생활시설 21.8%, 업무시설 10.3%를 차지한다. 서울시 노후 건축물의 분포 비율은 강남구 9.7%, 송파구 7.2%, 노원구 5.8%, 서초구 5.6%, 영등포구 5.5% 순이다. 자치구별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곳은 노원구(41.4%), 중구(41.3%), 강북구(34.7%)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강서구(19.7%), 마포구(20.1%), 성북구(20.6%) 등이다.

2018년 이후 서울의 신축허가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7.6%(연면적 기준)에 해당한다. 신축허가 건축물은 업무시설 34.3%, 주거시설 22.0%, 근린생활시설 10.3%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 신축허가의 분포 비율은 금천구 11.8%, 강서구 11.4%, 강남구 9.2%, 영등포구 5.7%, 강동구 5.3% 등의 순이다. 자치구별 신축 비율이 높은 곳은 금천구(30.5%), 강서구(14.5%), 중구(9.4%), 성동구(8.9%), 강동구(8.9%)이며, 가장 적은 곳은 노원구(1.6%), 양천구(2.7%), 서대문구(3.5%), 송파구(3.7%) 등이다.

서울 전체 기준 신축허가 연면적과 노후건축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노원구, 양천구, 강북구, 용산구 등은 노후건축물 연면적에 비하여 신축허가가 적게 일어나며, 금천구, 강서구, 강동구, 성동구 등은 노후건축물 연면적에 비하여 신축허가가 많은 편이다.



노후건축물 및 신축허가의 용도별, 자치구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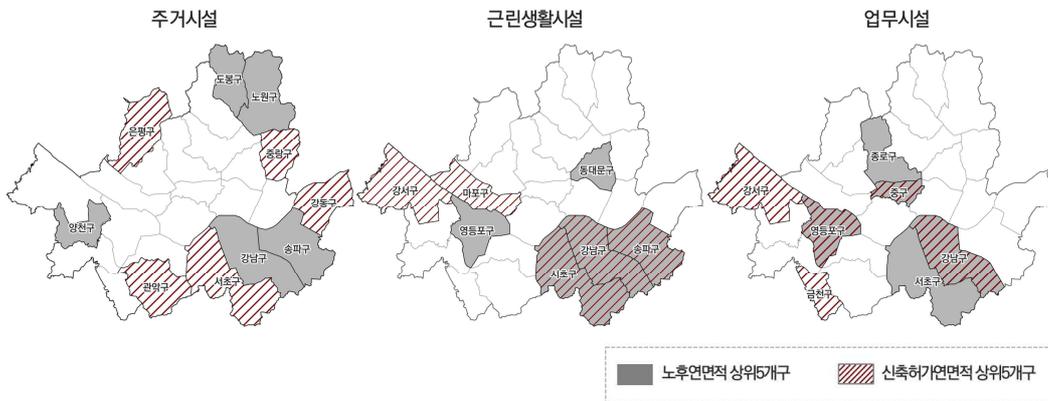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주: 금천구는 노후건축물 비율 21.5%, 신축허가 비율 30.5%이며, 그래프의 가독성을 위하여 제외

주거시설의 노후연면적이 큰 곳은 노원구(이하 자치구 내 분포 비율, 8.7%), 송파구(7.9%), 강남구(7.7%), 양천구(5.7%) 등이다. 반면 주거시설의 신축허가 연면적이 큰 곳은 강동구(7.1%), 은평구(6.8%), 중랑구(6.8%), 관악구(5.7%), 서초구(5.7%)이다. 주거시설의 노후연면적이 큰 곳에서 상대적으로 신축이 적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가 집적된 특징이 있다.

근린생활시설의 노후연면적이 큰 곳은 강남구(9.6%), 서초구(6.6%), 영등포구(6.3%), 송파구(6.2%), 동대문구(5.3%) 등이다. 근린생활시설의 신축허가 연면적이 큰 곳은 강남구(23.7%), 서초구(10.2%), 마포구(7.4%), 송파구(5.6%), 강서구(4.7%) 등으로 노후연면적이 큰 지역에 신축허가 건축물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설<sup>iv</sup>의 노후연면적이 큰 곳은 강남구(22.2%), 중구(20.5%), 영등포구(10.8%), 서초구(10.8%), 종로구(10.1%) 등이다. 업무시설의 신축허가 연면적이 큰 곳은 금천구(15.1%), 강남구(12.4%), 강서구(10.9%), 중구(8.0%), 영등포구(6.7%) 등으로 노후연면적이 큰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에서 신축허가가 많이 일어났다. 금천구와 강서구는 업무시설의 노후연면적이 크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시설 신축허가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모든 자치구에서 기존 건물 중 업무시설의 비율보다 신축 중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기존 업무시설 비율 대비 신축의 비율은 은평구 11.4배, 도봉구 8.9배, 중랑구 8.6배에서 영등포구 1.9배, 종로구 1.9배, 마포구 1.9배 등으로 나타났다.



**노후건축물 및 신축허가의 용도별 상위 자치구**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

<sup>iv</sup>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에서는 업무시설을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로 구분하며, 일반업무시설에는 오피스텔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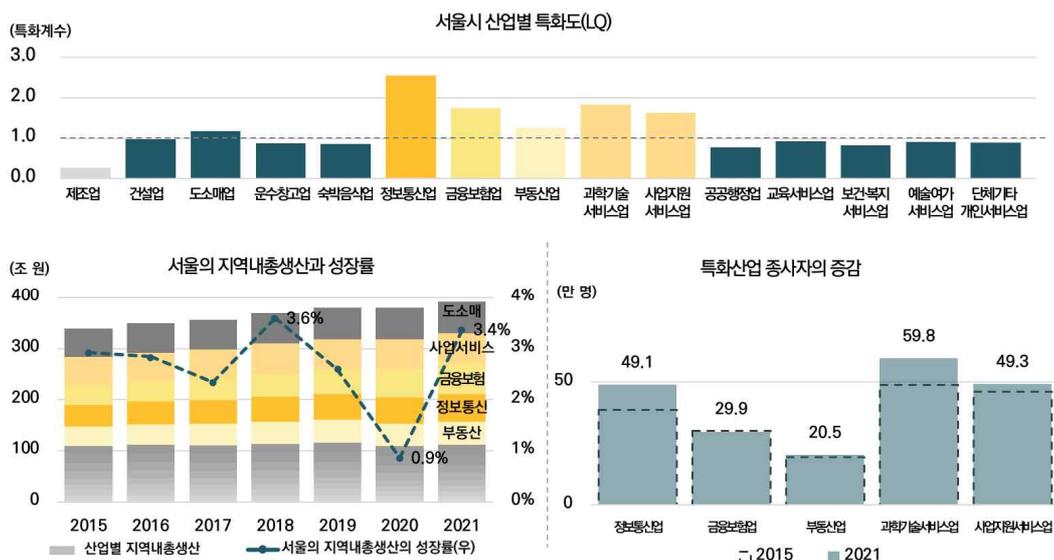
## 서울은 지역내총생산·종사자수 증가세 유지, 지식집약형 산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영향. 보건복지서비스업도 성장세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1년 431.7조 원(2015년 가격 기준)으로 2015년(370.2조 원)에 비하여 16.6% 성장하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성장세가 움츠러들었던 서울의 GRDP는 전년 대비 3.4% 증가하였다. 서울의 종사자 수는 2021년 577.1만 명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하였다.

2021년 서울은 종사자 수 기준 지식집약형 산업인 정보통신업(이하 특화도, 2.55), 과학기술서비스업(1.84)과 생산자 서비스업인 금융보험업(1.74), 사업지원서비스업(1.64), 부동산업(1.26)이 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v

특화산업이 서울의 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5.9%이며,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 15.4%, 사업서비스업vi 15.2%, 정보통신업 14.0%, 부동산업 11.4% 순이다. GRDP 중 특화산업의 비중은 2015년에 비하여 4.3%p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8.1%, 정보통신업 29.6%, 부동산업 13.8%, 사업서비스업이 11.7% 성장하였다.

특화산업의 종사자 수는 서울 전체 종사자의 36.1%로, 산업별로는 과학기술서비스업 10.4%, 사업지원서비스업 8.5%, 정보통신업 8.5%, 금융보험업 5.2%, 부동산업 3.6% 순이다. 2015년에 비하여 특화산업의 종사자 비중은 3.0%p 증가하였으며, 산업별 종사자는 정보통신업이 27.0%, 과학기술서비스업 22.1%, 사업지원서비스업 6.7%, 부동산업이 5.5% 증가하였고, 금융보험업은 0.6% 감소하였다. 특화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영등포구(53.6%), 강남구(48.2%), 중구(47.3%), 서초구(45.2%), 마포구(44.7%), 금천구(44.1%)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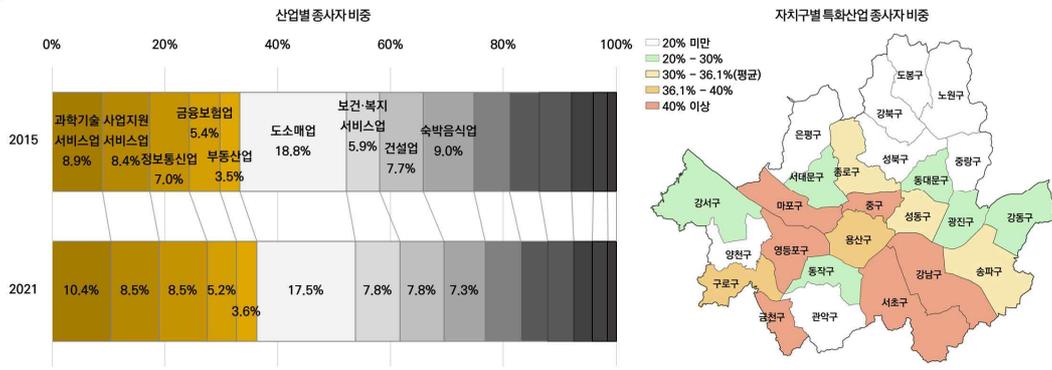
### 특화산업의 GRDP 및 종사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전국사업체조사, 2021; 지역소득, 2015~2021

••••

v 도소매업도 1.19로 특화되었으나, 서비스업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설명

vi GRDP에서는 사업서비스업 범주에 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통합하여 공표



**산업별 종사자의 추이와 특화산업 종사자의 지역별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전국사업체조사, 2021

한편, 인구 연령대의 구성이 변화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커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산업의 종사자 수가 2015년에 비해 39.0% 증가하였고,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5년에 비하여 39.1%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였다. 종사자 중 보건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2021년 7.8%로 2015년 대비 1.9%p 증가하였으나, 특화도는 2015년 0.88, 2021년 0.83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서울 내 종사자 증가율이 전국에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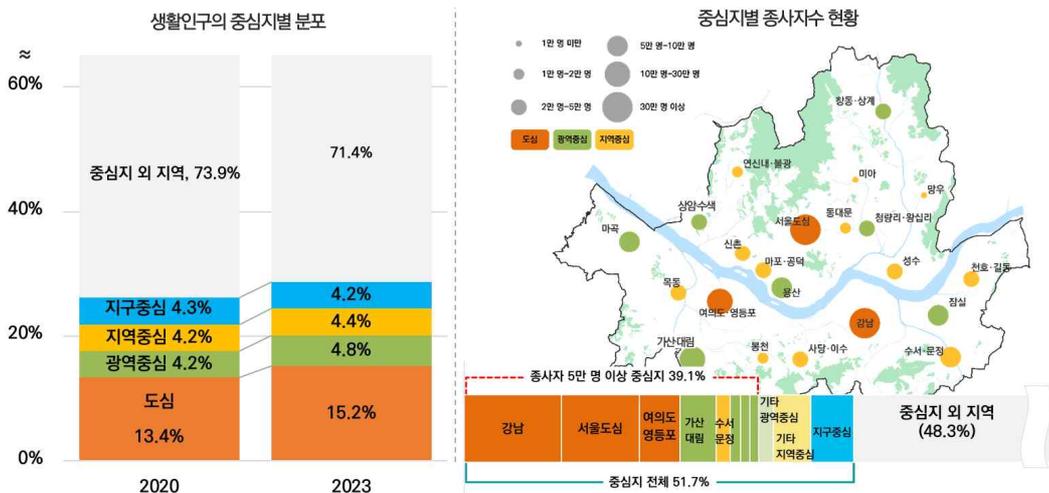
서울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종사자 증가에 비하여 지역 내 총생산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고부가가치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에서 광역중심으로 일자리 등 핵심기능 다핵화 여가·일자리·쇼핑 등 다양한 기능이 특화된 중심지, 중심지 기능은 확대될 전망

서울시는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지구중심으로 구성된 중심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심지는 건축물과 기능이 집적하며 많은 사람과 다양한 활동이 모이는 장소이다. 서울시의 중심지 면적은 전체의 12.7%, 건축물 연면적은 28.2%를 차지한다.

중심지에서 이뤄지는 활동 강도와 관련하여 주간생활인구를 살펴보면, 지구중심 이상의 중심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6%로 도심 15.2%, 광역중심 4.8%, 지역중심 4.4%, 지구중심 4.2% 순이며, 2020년 26.1%에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의 서울의 주간생활인구는 전년 대비 3.2%, 중심지는 13.2% 감소한 바 있다. 2023년 서울의 주간생활인구는 2020년에 비하여 1.3% 감소한 반면,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은 각각 12.3%, 12.1%, 3.1% 증가하였다. 2020년 대비 주간생활인구가 크게 증가한 중심지는 마곡 49.7%, 서울도심 18.0%, 잠실 16.7%, 창동·상계 14.3%, 상암·수색 13.6%, 용산 9.5%, 강남도심 9.1%, 여의도·영등포도심 7.7% 등이다.

2021년 서울 종사자의 51.7%가 중심지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도심 내 비중은 28.6%(144.5만 명), 광역중심 10.6%(54.0만 명), 지역중심 6.8%(34.4만 명)로 나타났다. 종사자 5만 명 이상의 중심지는 8개(강남도심 12.9%, 서울도심 10.3%, 여의도·영등포도심 5.4%, 가산·대림 4.8%, 수서·문정 1.8%, 마곡 1.4%, 잠실 1.3%, 용산 1.2%)로 전체 종사자의 39.1%가 집중하는 등 3도심에서 광역중심까지 일자리 기능이 분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중심지별 종사자 수 현황과 생활인구의 중심지별 분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KT생활인구, 2020-2023

중심지에 어떤 기능이 집중하는지 살펴보면, 서울 전체 숙박·위락시설의 80.8%, 업무시설의 74.9%, 제조·유통시설의 66.1%, 판매시설의 62.4%, 문화시설의 36.6%, 근린생활시설의 37.1%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전체 면적의 8.8%, 건축물 연면적의 18.8%가 분포하는 도심과 광역중심에는 서울 전체 숙박·위락시설의 62.8%, 업무시설의 57.7%, 제조·유통시설의 52.6%, 판매시설의 32.6%, 문화시설의 27.0%가 집적하는 등, 중심지 중에서도 기능이 집적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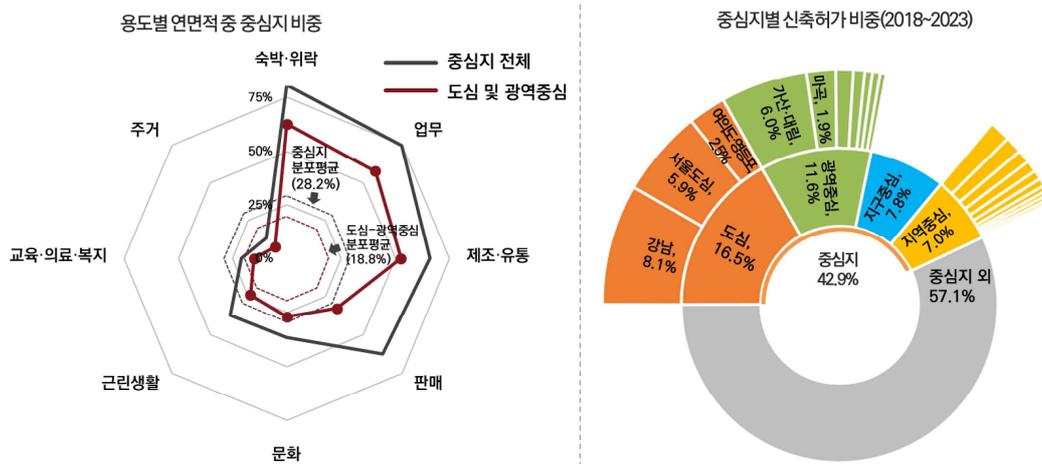
도심과 광역중심의 비주거비율은 77.1%로 서울시 평균의 1.8배에 달하며, 주거 외 다양한 용도가 분포한다. 서울시 평균의 용도별 연면적 구성비와 비교하면, 도심-광역중심 지역은 숙박·위락시설 3.3, 업무시설 3.1, 제조·유통시설 2.8 순으로 특화되었다.

도심은 숙박·위락(3.8), 업무(3.5), 판매(1.6) 기능이 특화되었다. 3도심 모두 업무 기능에서 강한 특화도(3 이상)를 보이며, 서울도심은 숙박·위락(5.6), 판매(2.3), 문화(1.3), 여의도·영등포는 판매(2.9), 숙박·위락(2.2), 강남은 숙박·위락(2.9), 근린생활(1.7)이 특화되었다.

광역중심은 제조·유통(8.4), 숙박·위락(2.2), 업무(2.1) 기능이 특화되었다. 업무가 특화된 중심지는 상암·수색(4.5), 마곡(3.3), 잠실(3.1), 용산(2.3), 청량리·왕십리(1.5), 창동·상계(1.4) 등이며, 판매가 특화된 중심지는 청량리·왕십리(5.0), 잠실(4.3), 용산(3.4), 창동·상계(2.4)이다. 이 외 숙박·위락은 잠실(7.1), 용산(3.0), 창동·상계(2.3)에서 특화되었으며, 가산·대림은 제조·유통(25.3)의 특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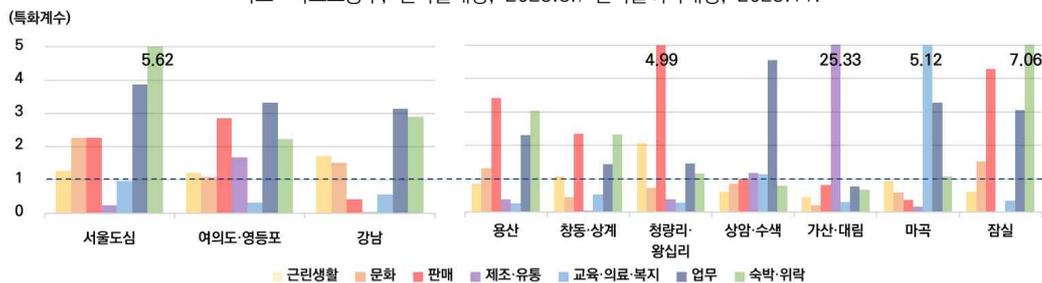
중심지에서는 신축 역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서울 신축 허가연면적의 42.9%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 16.5%, 광역중심 11.6%, 지구중심 7.8%, 지역중심 7.0% 순으로 구성된다. 중심지의 신축허가 연면적은 업무시설(47.2%), 주거시설(19.5%), 제조·유통시설(13.4%)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심지에는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이 집적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과 광역중심에서 용도·기능·산업 등의 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축허가 역시 중심지에 밀집하는 경향을 띄어 중심지의 역할과 기능은 앞으로도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심지별 용도별 연면적 및 신축허가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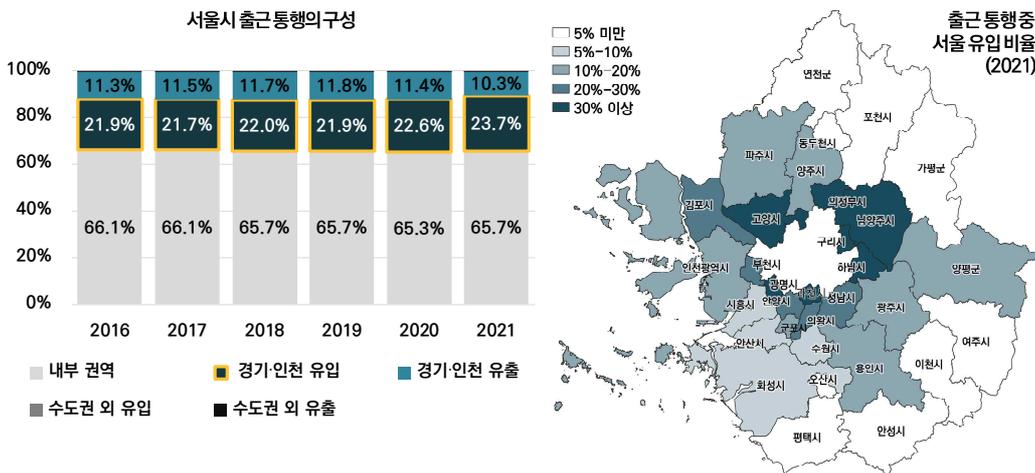


**도심-광역중심의 용도별 특화(연면적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일자리 기능은 서울로 집중, 주거 기능은 수도권으로 분산되는 광역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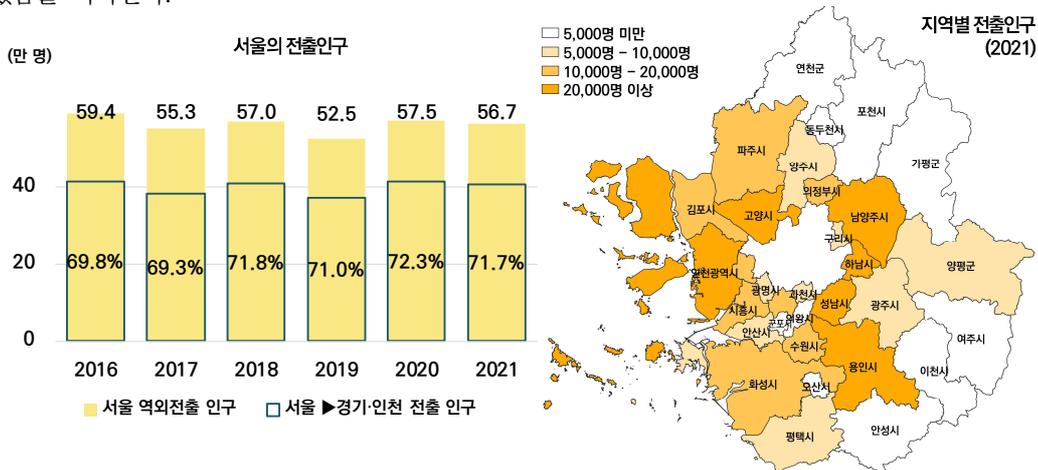
2021년 서울을 오가는 출근 통행량 중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비율은 23.7%로 2016년에 비하여 1.8%p 증가하여 수도권 내 일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출근하는 비율은 10.3%로 동일 기간 1.0%p 감소하였다. 경기·인천의 출근 통행 중 서울로의 통행 비율은 17.6%로, 과천시(51.3%), 하남시(48.5%), 광명시(47.9%), 구리시(42.3%), 남양주시(36.0%), 의정부시(33.2%) 등에서 비율이 높았다. 서울로 출근하는 통근인구는 인천광역시(15.5만 명), 고양시(13.3만 명), 성남시(11.0만 명), 부천시(10.5만 명) 순으로 많았다.



### 서울의 출근통행량 추이 및 지역별 출근 중 서울 통근 비율

자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사업, 2016~2021

2021년 서울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 56.7만 명 중 71.7%가 경기·인천으로 전입하였으며, 이 중 42.9%가 주택 및 주거환경을 이유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sup>vii</sup> 전출 지역은 인천광역시(4.4만 명), 고양시(3.8만 명), 남양주시(3.3만 명), 하남시(2.8만 명), 성남시(2.7만 명) 등 서울시와 연결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정비사업 등으로 신규 주택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주거 기능이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서울의 인구 전출 추이 및 지역별 전출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 이동통계,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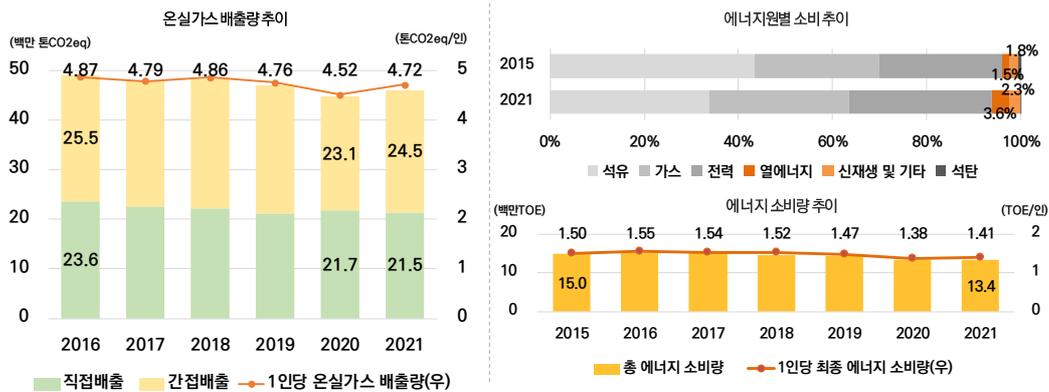
<sup>vii</sup>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중 그 외 사유로는 가족 25.5%, 직업 19.8%, 교육 2.7%, 자연환경 1.7%

##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소폭 감소

2021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941천 톤CO<sub>2</sub>,eq으로 2016년 대비 6.4% 감소하였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에는 가정, 상업, 공공 등 건물 단위의 에너지 소비가 66.5%, 수송이 18.1% 등을 차지한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중에는 상업(50.5%), 가정(43.8%)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94.3%를 차지하며, 수송의 온실가스 배출 중에는 도로수송이 96.1%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배출원 별 추이를 살펴보면 수송과 산업공정·제품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는 2016년 대비 각각 18.4%, 9.4% 감소한 반면, 가정용 건물 내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는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의 총 에너지 소비량<sup>viii</sup>은 13,405천 TOE로 2015년 대비 10.4% 감소하였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동일 기간 1.50TOE/인에서 1.41TOE/인으로 6.0% 줄었다. 소비량은 에너지원별로 석유 33.9%, 전력 30.4%, 가스 29.7% 외 열에너지 3.6%,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 2.3%, 석탄 0.2%로 구성되며, 2015년에 비하여 열에너지와 신재생 및 기타에너지의 비중은 각각 2.1%p, 0.5%p 늘어나고 전력도 4.3%p 증가한 반면, 석유는 9.5%p 감소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의 일례로 동일 기간 서울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는 2015년 3.5만 대에서 2022년 23.2만 대로 561.4% 증가하였고(전체 등록 차량은 4.5% 증가), 전체 차량 대비 저공해자동차의 비율 역시 1.1%에서 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활동의 제약으로 단기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영향이 있었으나,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을 비롯한 배출원 전반에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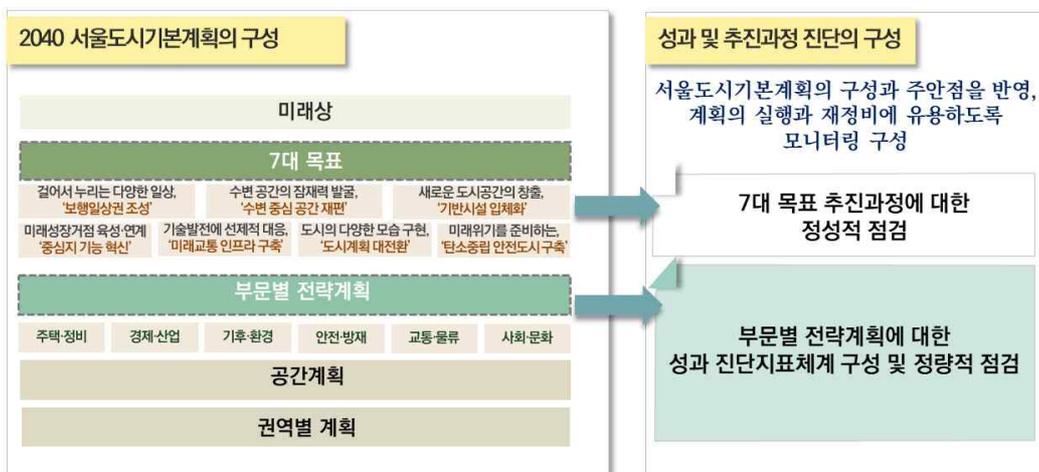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1년도분)」, 2023;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2021;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2015~2021

●●●●  
viii 최종 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부문(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가정·상업·공공부문으로 구분

## 03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

###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구성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목적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점검하면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미래상, 7대 목표, 부문별 전략 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7대 목표와 부문별 계획을 진단의 대상으로 한다. 2023년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공표된 후 첫 진단으로 지표의 수정·보완 체계를 정례화하고 기준년도의 지표별 기준값을 조사하였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구성

### 성과 진단지표의 점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전략계획은 6개 부문 - 24개 목표 - 70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 진단을 위하여 총 40개의 성과 진단지표를 선정한 바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필요한 경우 지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함에 따라, 진단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표에 대한 진단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계획과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력을 보완하는 점검절차를 마련하였다.

계획 관점에서 목표 및 전략 등의 주요 내용 중 추가로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표를 찾아 적용하여 계획 내용과 지표 간의 연계성을 보강하였다. 지표 관점에서는 진단이 계획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보조지표를 추가하였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단기·장기 지표나 비정기 지표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제시하였으므로, 진단시점에 단기지표를 장기지표로 전환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비정기지표는 진단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이외에도 지표를 공신력 있는 통계로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지표의 의미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하여 진단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절차에 따라 2023년의 진단에서는 1개의 주지표를 수정하고, 1개의 보조지표는 선정을 해제하였으며, 17개의 보조지표를 신규 선정하여 40개 주지표, 29개 보조지표에 대해 기준치를 조사하였다.

## 성과 진단지표의 기준치(2022년 기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과 성과 진단지표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목표치
				증감	증감률	
주택· 정비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93.7%	△0.5%p	-	증가
		천 인당 주택 수	407.7호	5.3호	-	-
		주택 준공량	5.6만 호	△1.5만 호	△21.1%	-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6.5%	0.3%p	-	감소
	공공주택재고	공공주택 채고율	10.1%	0.4%p	-	증가
		공공주택 재고	38.9만 호	1.9만 호	5.1%	-
	주거비부담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	22.9%	8.2%p	-	감소
	주거환경만족	주거환경 만족도	3.01점/4점	△0.01점	-	증가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독주택 2.91 아파트 3.11	단독주택 0.03 아파트 △0.02	-	-
	주거환경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	104개소			증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면적	220,258㎡			-
	직주균형	직주균형지수	0.73* (최소, 동북권)			권역별 차등관리
		권역별 거주자의 내부통근률	41.6%* (최소, 서북권)			-
		권역별 일자리의 내부고용률	17.2%* (최소, 도심권)			-
	중심성강화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3.0km <sup>2</sup>	0km <sup>2</sup>	△0.1%	증가
서울 신축 중 상위 중심지 비율		40.0%	9.4%p	-	-	
산업· 경제	신기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189.0만 명*	0.3만 명	0.2%	증가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	1.63*	0.02p	-	-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31.6만 명*	△2.1만 명	△6.4%	증가
		콘텐츠산업 특화도	2.31*	△0.02p	-	-

주: \* 표시가 있는 지표는 2021년 값을 기준으로 함. 증감에 음영표시가 있는 지표는 동일 통계로 증감 비교 불가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목표치
				증감	증감률	
산업·경제 (계속)	혁신창업	벤처기업 수	10,386개	445개	4.5%	증가
		신생기업 수	19.5만 개	△0.5만 개	△2.5%	-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34.1%*	0.1%p	-	-
	소상공인경기체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71.0 (6월)	18.7p	-	증가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	77.0만 개	△1.6만 개	△2.0%	-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영업 비율	57.1%p	△2.9%p	-	-
글로벌관광	외국인 관광객 수	263.5만 명	199.4만 명	311.1%	3천만 명(2030)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율	42.2%	△4.9%p	-	-	
기후·환경	대기질개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8 $\mu\text{g}/\text{m}^3$	△2 $\mu\text{g}/\text{m}^3$	△10.0%	10 $\mu\text{g}/\text{m}^3$ (2040)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31일	△4일	△11.4%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45,941천 톤CO <sub>2</sub> eq*	1,150천 톤CO <sub>2</sub> eq	2.6%	14,834천 톤(2040) (2005년 대비 70% 감축)
	탄소배출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	53.9만건(민간)			100만 호(2026)
			923건(공공)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4%	0.1%p		21% (203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25,737toe	22,663toe	7.5%	-
	물순환	물 재이용량	129.9백만m <sup>3</sup> /년	5.5백만m <sup>3</sup> /년	4.4%	280.1백 만m <sup>3</sup> /년 (2040)
	공원확충	1인당 공원 면적	17.90m <sup>2</sup> /인	0.16m <sup>2</sup> /인		증가
		공원율	28.59%	0.06%p	-	-
	녹지환경만족	녹지환경 만족도	6.17점/10점	0.18점	-	증가
	수변공간활성화	한강공원 이용객 수	4,742.4만 명	△1,020.6만 명	△17.7%	증가
자원순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13kg/인/일	0.02kg/인/일	1.3%	0.86kg/인/ 일(2027)	
	생활폐기물 매립률	8.7%	△5.5%p	-	-	
안전·방재	자연재난	자연재난 피해액	696.3억 원	696.3억 원	-	감소
		자연재난 이재민 수	32,111명	32,111명	-	-
	사회재난	사회재난 사고건수	5,587건	467건	9.1%	감소
		사회재난 사망자 수	43명	△5명	△10.4%	-
	시설물안전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92.6%	0.4%p	-	증가
	감염병	제1급감염병 환자 수	-(확진자 없음)			감소
범죄	5대범죄 발생 건수	90,399건	9,954건	12.4%	감소	

주: \* 표시가 있는 지표는 2021년 값을 기준으로 함. 증감에 음영표시가 있는 지표는 동일 통계로 증감 비교 불가

부문	지표명	지표의 통계명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목표치
				증감	증감률	
교통·물류	첨단교통	첨단도로 연장	약 151km	-	-	증가
		첨단도로 비율	1.8%	0%p	-	-
	친환경교통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23.2만 대	4.7만 대	25.5%	증가
		친환경차량 보급률	7.3%	1.9%p	-	-
	대중교통이용	대중교통 통행량	20,163천 통행/일	7,540천 통행/일	59.7%	증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63.6%	10.7%p	-	-
	환승편의성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3분 7초	5초	2.7%	감소
보행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111명	△9명	△7.5%	2019년 대비 50% 감소(2026)	
도시물류지원	도시 물류시설 면적	92.5만㎡ (2023)			증가	
사회·문화	사회적고립도	사회적 고립도	12.1%	△14.6%p	-	감소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5.43점	△0.08점	-	-
	공공문화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16.1개소	1.0개소	-	증가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1,597개소	101개소	6.6%	-
	공공보건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0.81개소	0.01개소	1.3%	증가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78개소	-	-	-
		공공병원 병상 수	8,749개	△224개	△2.5%	-
	복지안전망	빈곤율	13.2%*	△1.1%p	-	감소
	평생교육참여	평생학습 참여율	32.0%	-	-	증가
	영유아돌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37.5%	3.2%p	-	증가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9.2%			-
	노인돌봄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	68,521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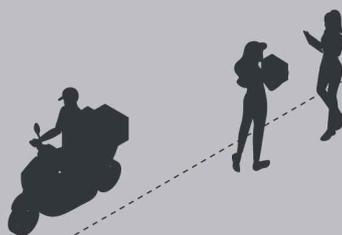
주: \* 표시가 있는 지표는 2021년 값을 기준으로 함. 증감에 음영표시가 있는 지표는 동일 통계로 증감 비교 불가

# 목차

<b>PART I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b>	<b>1</b>
0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5
1_ 개요	5
2_ 구성체계	8
<b>PART II 서울 도시변화 진단</b>	<b>11</b>
01.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개요	15
1_ 진단의 목적	15
2_ 진단의 구성	16
3_ 2023년 도시변화 진단지표	18
02. 2023년 도시변화 진단	24
1_ 인구·가구	24
2_ 주택	37
3_ 산업·경제	48
4_ 토지이용·도시정비	58
5_ 교통	71
6_ 안전·환경	80
7_ 심층진단: 중심지	88
<b>PART III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b>	<b>111</b>
01.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개요	115
1_ 진단의 목적	115
2_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체계 및 구성	116
3_ 진단의 범위와 역할	118
02. 성과 진단 - 부문별 전략계획	121
1_ 성과 진단의 개요	121
2_ 주택·정비 부문	128
3_ 경제·산업 부문	137
4_ 기후·환경 부문	145
5_ 안전·방재 부문	154
6_ 교통·물류 부문	161
7_ 사회·문화 부문	168
<b>PART IV 설문조사</b>	<b>177</b>
01. 설문조사	181
1_ 개요	181
2_ 서울의 현재와 미래	183
3_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185
4_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197
<b>참고문헌</b>	<b>201</b>
<b>부록</b>	<b>207</b>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 Part. I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Part. I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제1장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1\_개요

2\_구성체계

---





# 0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 1\_개요<sup>1)</sup>

### 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목적

- 서울시의 현황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도입·운영
  -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의 효율성 제고, 여건 변화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능동적 대응,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과 성과 점검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 필요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주택, 공원, 교통, 산업,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공간 분야의 최상위계획
    -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함에 따라 매년 도시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수행하고 현황 분석이나 이슈 설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수립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그림 1-1]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의 목적

<sup>1)</sup>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 인구, 도시의 기능과 활동, 이동, 시설 및 인프라, 토지이용의 변화를 파악하여 도시계획이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 및 성과 진단 결과를 시민과 계획 수립 및 행정 관련 주체에게 공유하여 논의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향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시군의 부단체장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지침 등이 상위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sup>2)</sup>고 명시
-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2015년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근거를 규정하며 모니터링을 정례화. 2014년 확정·고시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2023년 확정·고시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역할을 제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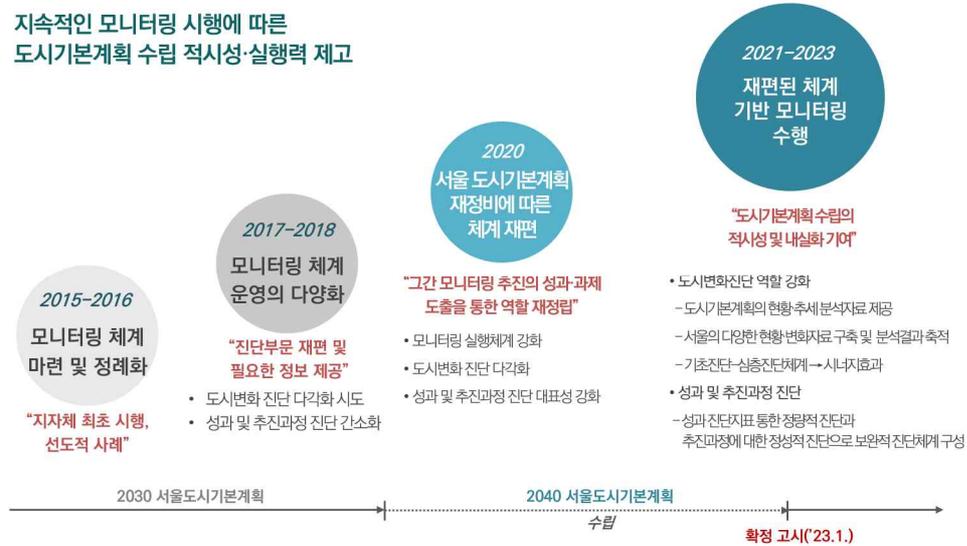
⑥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2) 추진경과

- 서울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4차례 시행
  -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고시 이후 2015년부터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4차례 시행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서울 도시변화 진단’과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으로 구성하였고, 분야별 주요 이슈를 발굴하기 위한 ‘이슈리포트’도 필요에 따라 운영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 이후, 실효성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을 다양화
- 2020년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취지와 그간 모니터링의 경험을 통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개편안을 마련
  - 2020년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를 개편하였음. 기존 모니터링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더 실효성 있는 운영체제로 변모하기 위하여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실행과 연동하는 모니터링 실행계획을 제안

<sup>2)</sup>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2절 계획의 실행, 4-12-5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행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적시성·실행력 제고



[그림 1-2]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의 추진경과

○ 재정비한 모니터링체계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도시변화 진단에 중점을 둔 모니터링 재개

- 2021년에는 개편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에 따라 진단을 수행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 도시변화 진단과 이슈리포트 중점적으로 수행함. 계획 내용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수행하지 않았음
- 2022년에는 서울 도시변화 진단을 수행,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확정에 따라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방향성을 재검토 및 구체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고시(2023년 1월)에 따라, 이번에는 서울 도시변화 진단과 함께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과 진단지표의 계획년도 기준치를 조사

## 2\_구성체계<sup>3)</sup>

### 1) 모니터링의 구성체계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동향을 파악하여 상시계획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구성
  - 모니터링에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의 집행 결과를 수집·공유하여 실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차기 계획 수립 시기 외에도 도시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한 서울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슈를 공문화함으로써 상시계획체계 전환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함
  - 이에 따라 '서울 도시변화 진단',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을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구성체계에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운영



[그림 1-3] 모니터링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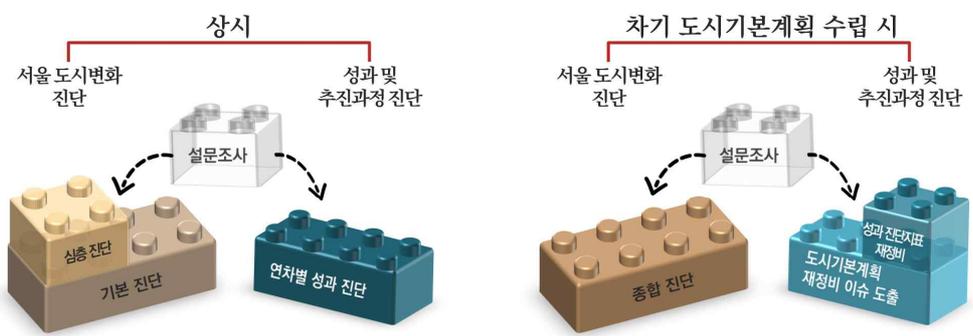
-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서울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수집, 추세 진단을 통하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
  - 서울의 기초 현황을 다루는 기본진단에 심층진단을 추가·활용하여 복잡한 도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조성
    - 기본 진단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상의 기초조사 항목을 토대로 인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도시관리, 교통 부문 등의 필수적 지표를 진단하여 매년 서울의 기초현황을 파악.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기본 진단지표에 지표 및 부문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도시변화 진단을 수행
    - 심층 진단은 기본 진단으로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도시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필요한 주제나 공간 단위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는 진단
-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도시기본계획의 집행상황을 점검, 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지원
  -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리포팅하기 위하여 성과 진단지표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에 대한 추진과정 중간 점검과 같은 정량적·정성적 진단 운영

<sup>3)</sup>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목표와 전략의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연차별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점검
- 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에 대한 추진과정을 정성적으로 점검
- 주요 공간계획의 변경사안을 점검하는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간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보조

○ **모니터링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 따라 역할이 다름. 상시 및 차기 계획 수립 시기의 내용을 구분하여 모니터링이 적합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운영**

- 기본적으로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기본 진단과 심층 진단을 수행하고,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연차별 성과 진단을 진행하여 상시 도시계획 대응체계를 지원하도록 함
- 차기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조사 역할을 수행함.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에서는 연차별 성과 진단을 종합하고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을 진단하는 등 차기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이슈를 도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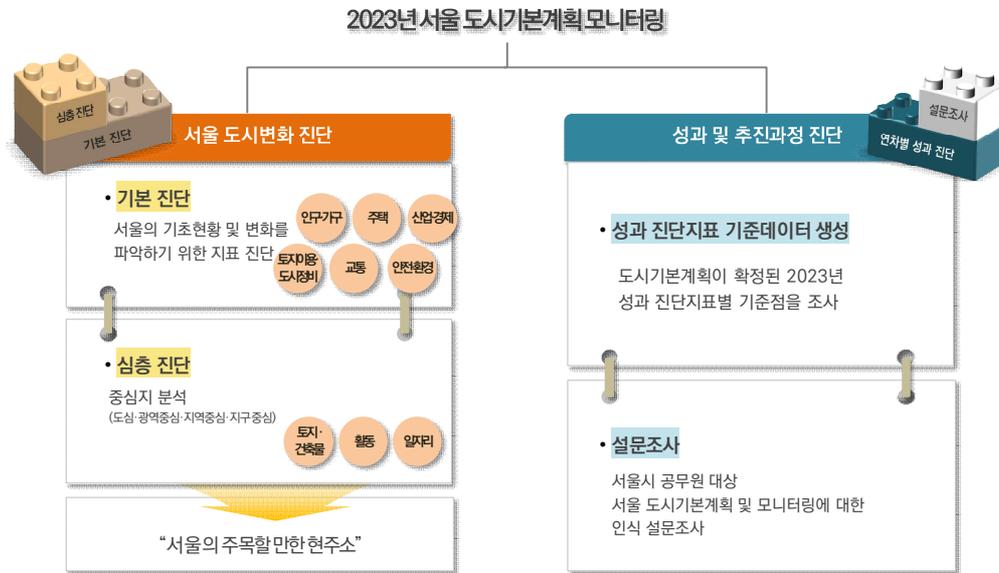
※ 이슈리포트는 필요 시 시행

**[그림 1-4]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모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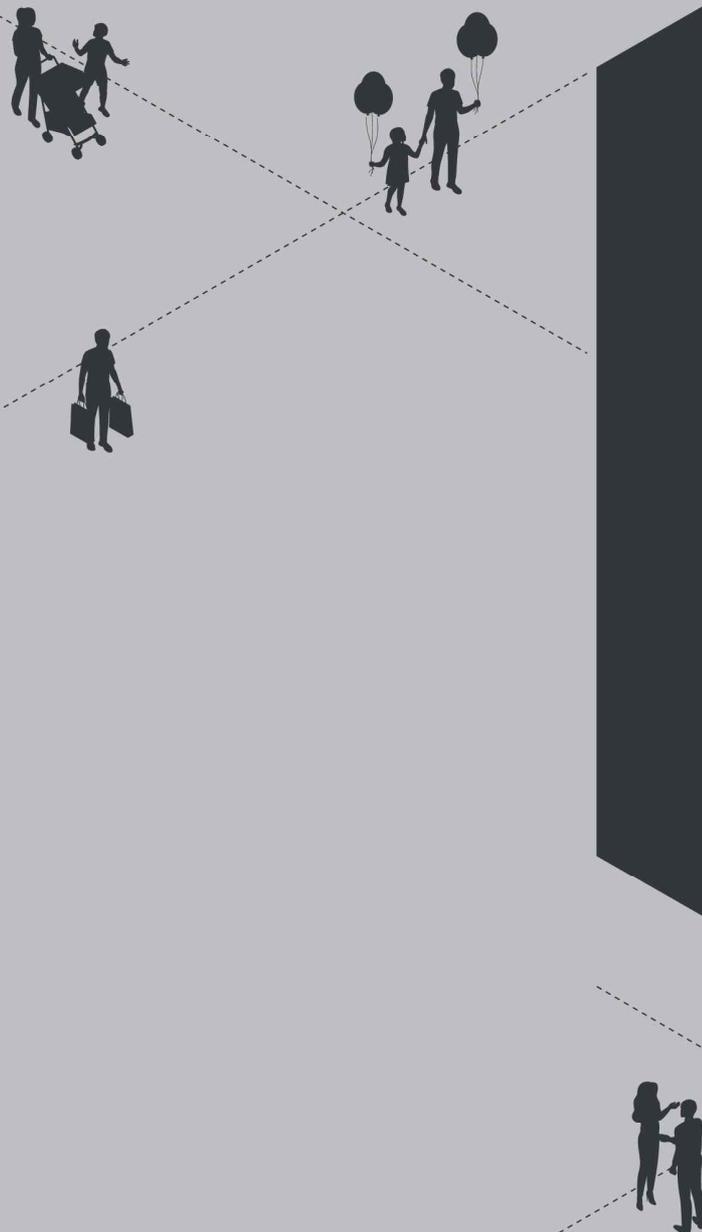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 p.13

## 2) 2023년 모니터링의 구성

- 서울 도시변화 진단에서는 기본 진단과 심층 진단을 수행,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에서는 성과 진단지표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된 기준년도의 기준치를 조사
  - 서울 도시변화 진단은 서울의 기초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지표로 구성된 기본 진단과 중심지체계를 다루는 심층 진단으로 구성
  -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은 지표에 대한 수정·보완 체계를 정례화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확정 고시에 따른 기준년도의 지표별 기준치를 조사
  - 서울의 현황,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지도 및 실현가능성 등을 설문



[그림 1-5] 이번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구성



Part. II

서울

도시변화 진단



Part. II

서울  
도시변화 진단

## 제1장

#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개요

1\_ 진단의 목적

2\_ 진단의 구성

3\_ 2023년 도시변화 진단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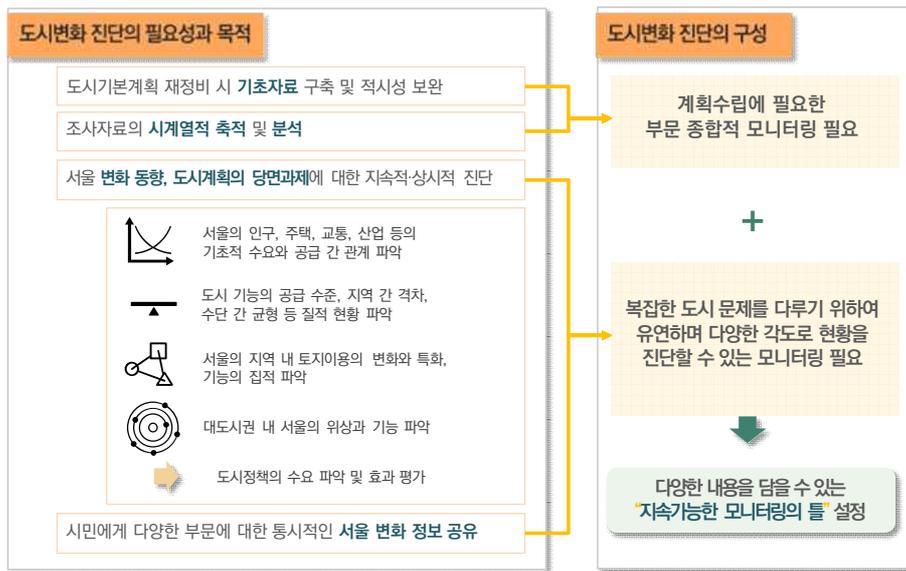




# 01.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개요

## 1\_진단의 목적4)

- 도시 현황과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당면과제 도출 및 대응방안 모색
  - 인구, 주택, 토지이용 등 도시의 생활환경부터 사회경제적 여건 등 도시의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고 서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
    - 서울의 위상과 역할, 기능, 구조,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 지역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변화 분석
  - 서울의 변화 동향과 새로운 현안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전에 구축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적시성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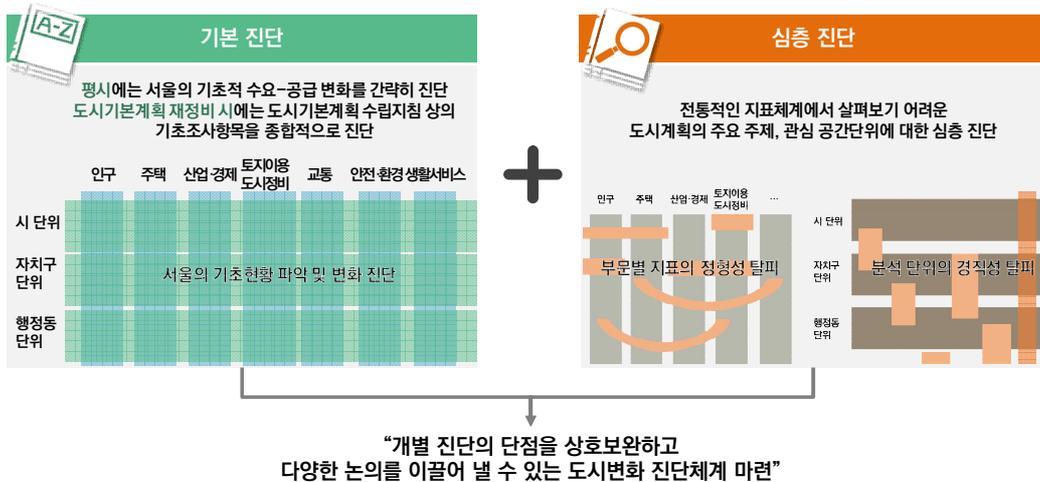
[그림 1-1]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목적 및 구성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 p.19, 수정·보완

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변화 진단체계는 동일하므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 2\_진단의 구성<sup>5)</sup>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도시변화 진단은 기본 진단과 심층 진단으로 구성
  - 진단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서울의 도시변화 진단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진단체계를 수립
    - 도시변화 진단을 기본 진단과 심층 진단으로 구성하여 개별 진단이 갖는 한계를 상호보완하고자 함
  - 기본 진단은 서울의 인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 교통, 안전·환경 등 부문의 거시적·종합적 진단을 통해 변화를 파악함
    - 연차별로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요 지표를 모니터링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기에는 기초조사 역할을 수행
  - 심층 진단은 기본 진단에서 발굴하기 어려운 특정 주제, 공간단위에 대한 문제를 탐색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도록 함
    - 복잡한 도시의 변화에 따른 정보의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본 진단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새로운 주제를 탐색
    - 도시계획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공간 단위(대생활권, 중심지, 역세권 등)를 중심으로 분석 수행



[그림 1-2] 서울 도시변화 진단의 구성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 p.21

- 여건 변화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지표의 선정원칙 정립
  - 현상과 특성을 대표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면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는

<sup>5)</sup>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변화 진단체계는 동일하므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지표를 토대로 진단해야 함. 또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우선하여 선정

- 현상을 대표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표(대표성)
  - 변화를 정량적인 수치 또는 비율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측정 가능성)
  - 공신력 있는 설문자료 또는 통계자료 등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객관성)
  -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하여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는 지표(연속성)
- 심층 진단에서는 다루는 주제나 공간 단위에 따라 지표의 구득·접근에 제한이 있기도 하며, 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값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표성과 측정가능성, 객관성을 원칙으로 유연하게 지표를 선정함
- 도시변화 진단지표는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추후 진단대상에 대한 대표성이 더 크고 공신력이 있는 통계가 작성된다면 대체할 수 있음



[그림 1-3] 서울 도시변화 진단지표의 선정 원칙

### 3\_2023년 도시변화 진단지표

#### 1) 기본 진단

- 기본 진단은 매년 도시공간의 기초적 수요-공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구성
  - 기본 진단은 서울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표를 선정. 인구·가구, 주택, 산업·경제, 토지이용·도시관리, 교통, 안전·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서울의 현황을 파악
    - 인구·가구는 도시가 기능하도록 하는 근간이자 주택, 산업, 교통, 보건, 시설 등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인구·가구의 자연·사회 증감과 구조적 변화를 진단함
    - 주택은 서울시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도시에서 안정된 생활기반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의 공급과 거주실태 등과 관련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주택의 재고와 공급, 거주자 차원에서 느낄 주거비 부담 및 거주실태로 나누어 접근함
    - 산업·경제는 서울의 경제활력 및 경쟁력과 연관되므로 경제적 규모, 산업별 성장과 특화 현황, 일자리와 사업체의 증감에 대하여 진단함
    - 토지이용·도시정비는 효율적인 도시구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 상 토지이용 계획과 실제 이용되는 현황, 노후 건축물과 신축 및 정비사업의 추진을 진단함

[표 1-1] 기본 진단지표

부문	항목	지표명
인구	인구 변화	인구구조(인구/연령대별 인구 변화, 외국인 인구 변화*), 인구밀도, 출생아 및 사망자 수, 전입 및 전출 인구,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
	가구 변화	가구구조(일반/집단/외국인가구 변화, 가구원수별 변화, 다문화가구 변화*), 전입 및 전출 가구
주택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천 인당 주택 수*, 주택 유형별 구성비, 건축연도별 구성비
	주택공급	주택 준공량·착공량*,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거비 부담	주택가격지수
	거주실태	주택 규모별 구성비, 1인당 주거면적
산업·경제	규모	지역 내 총생산
	산업구조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업별 특화도
	일자리 및 창업	고용률·실업률, 신규 및 폐업 사업자 수
토지이용·도시정비	토지이용	용도별 연면적, 노후 건축물 비율, 신축 허가 연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정비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교통	통행량	기·종점별 통행량, 목적별 통행 비율
	통행특성	교통수단별 분담률, 승용차 통행속도*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인원 및 혼잡도, 버스 노선 및 차량 수
	녹색교통	저공해자동차 등록 대수, 전기차 충전소 수
안전·환경	도시안전	5대 범죄 발생 현황, 자연재난 피해 현황
	환경	폐기를 발생량,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공원 면적

\* 지표를 보완 설명하는 추가지표

\*\* 기본 진단지표는 현 시점에서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로,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통은 시민의 일상 속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수반되는 이동을 다루며,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함. 기·종점별, 목적별 통행량과 이동의 수단,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에 대하여 진단함
- 안전·환경은 시민의 안전과 더불어 도시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갖는 자연환경에 대한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다루며, 도시안전과 폐기물, 에너지, 온실가스 및 공원 등의 환경에 대하여 진단함

## 2) 심층 진단

### ○ 서울 중심지의 역할과 기능을 진단

- 서울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중심지인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53지구중심에 대하여 토지-건축물 특성과 시민의 활동과 일자리에 대한 위상과 기능을 분석함
  - 중심지의 교통 관련 입지적 특성과 토지이용 등 물리적 환경을 분석함
  - 중심지의 주간생활인구, 종사자 수 및 산업 특화를 살펴봄

[표 1-2] 심층 진단지표

항목	지표명
토지 특성	역세권 비율
건축물 특성	용도별 연면적, 신축허가 연면적, 용적률, 건축연한
활동	주간생활인구, 목적별 통행
일자리	종사자 수,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산업별 특화도, 사업체 수



Part. II

서울  
도시변화 진단

## 제2장

# 2023년 도시변화 진단

- 1\_ 인구·가구
  - 2\_ 주택
  - 3\_ 산업·경제
  - 4\_ 토지이용·도시정비
  - 5\_ 교통
  - 6\_ 안전·환경
  - 7\_ 심층진단: 중심지
- 



부문	항목	지표	출처	데이터	시간범위
인구·가구	인구변화	인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민등록연앙인구;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5~2022
		인구밀도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인구밀도 통계; 시가화면적 통계	2015~2022
		출생아 및 사망자 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연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2015~2022
		전입 및 전출 인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2022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내국인)	2021~2022
	가구변화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형태별; 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 수별 가구	2015~2022
전입 및 전출 가구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규모별 이동 건수	2015~2022	
주택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新)주택보급률	2015~2022
		주택 유형별 구성비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2
		건축연도별 구성비	통계청, 주택총조사	건축연도별 주택	~2022
	주택공급	주택 준공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주택건설 준공실적	2015~2023
		공공임대주택 비율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임대주택 통계; (新)주택보급률	2015~2022
	주거비 부담	주택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2023
	거주실태	주택 규모별 구성비	통계청, 주택총조사	연면적별 주택	2015~2022
		1인당 주거면적	통계청,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 및 주거면적별 가구	2015~2022
산업·경제	경제규모	지역 내 총생산	통계청, 지역소득	시도별 지역내총생산	2015~2021
	산업구조	사업체 수	통계청,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 사업체 수; 사업체현황 통계	2015~2021
		종사자 수	통계청,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 종사자 수; 사업체현황 통계	2015~2021
		산업별 특화도	통계청, 경제총조사	산업별 종사자수	2021
	일자리	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경제활동인구	2015~2022
	창업	신규 및 폐업 사업자 수	국세청, 국세통계	신규 사업자 현황; 폐업자 현황	2015~2022
토지이용 · 도시정비	토지이용	용도별 연면적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총별개요	2023
		노후 건축물 비율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표제부	2023
		신축 허가 연면적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허가대장 기본개요	2018~2023
	용도지역, 지구, 구역	용도지역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용도지역 현황	2022
		용도지구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용도지구 현황	2022
		용도구역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용도구역 현황	2022
	도시정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서울시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통계	2023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서울시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통계	202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서울시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통계	2023



부문	항목	지표	출처	데이터	시간범위
교통	통행량	인구당 통행량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	기종점별 통행량	2016~2021
		목적별 통행 비율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	목적별, 기종점별 통행량	2016~2021
	통행특성	교통수단별 분담률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1일 교통수단별 통행현황 통계	2016~2021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인원 및 혼잡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지하철 운행현황 통계	2018~2022
		버스노선 및 차량 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현황; 버스운행노선 현황	2018~2022; 2023
	녹색교통	저공해자동차 등록 대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	2018~2022
		전기차 충전소 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전기차 충전소 찾기; 연료별 자동차 등록현황	2023
	안전·환경	도시안전	5대 범죄 발생 건수	서울지방경찰청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연재난 인명·재산피해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연보	2015~2022
환경		폐기물 발생량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2015~2021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2021
		공원 면적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통계	2015~2022
심층진단: 중심지		토지 특성	역세권 비율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역 승강장 데이터
	건축물 특성	용도별 연면적 구성비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증별개요	2023
		신축 허가 연면적 구성비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2023
		용적률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2023
		건축연한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2023
	활동	주간생활인구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KT생활인구	2017~2023
		목적별 통행	수도권교통본부,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	목적별, 기종점별 통행량	2021
	일자리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산업별 특화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사업체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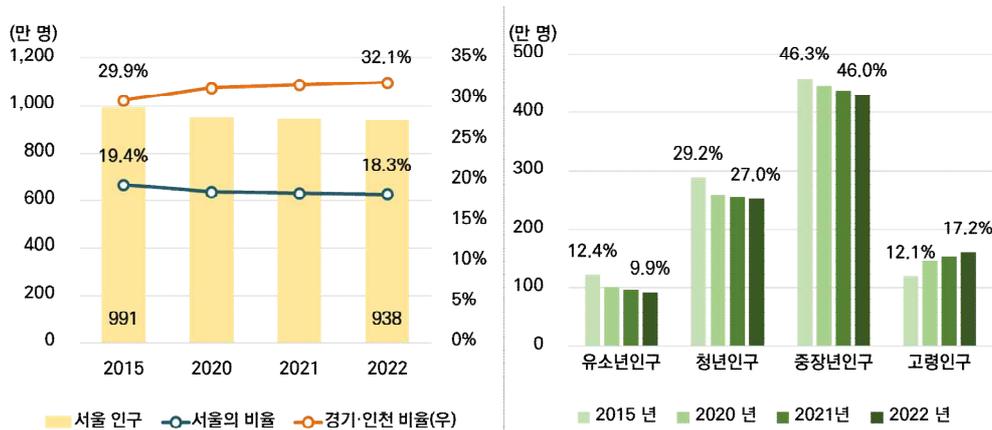
## 02. 2023년 도시변화 진단

### 1\_인구·가구

#### 1) 인구변화

#####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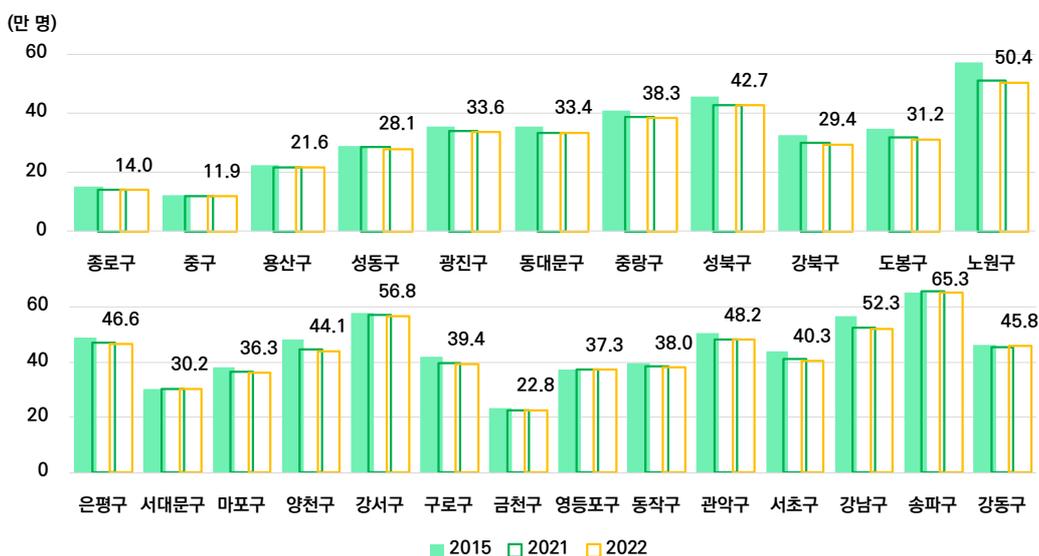
- 2022년 서울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5년 대비 5.3% 감소
  - 서울 인구는 2022년 937.9만 명으로 2015년(990.7만 명) 이후 연평균 0.8% 감소
    - 전년 대비 서울 인구는 1.6% 감소하며 인구 감소 지속
    - 전국 인구는 5,125.9만 명으로 2015년 이후 연평균 0.1% 증가
    - 서울 인구는 전국 인구의 18.3%로 2015년(19.4%) 대비 1.1%p 감소
  - 수도권 인구는 2,582.2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50.4%, 2015년 이후 연평균 0.4% 증가
    - 서울 인구는 수도권 인구의 36.3%로 2015년(39.4%) 대비 3.1%p 감소
    - 경기·인천의 인구는 1,644.3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32.1%, 수도권 인구의 63.7%, 수도권 인구 중 비중은 2015년(60.6%) 대비 3.1%p 증가
  - 2022년 서울의 연령별 인구 비율은 유소년인구(0~14세) 9.9%, 청년인구(15~34세) 27.0%, 중장년인구(35~64세) 46.0%, 고령인구 (65세 이상) 17.2%로 구성
    - 고령인구는 2015년 120.1만 명에서 160.9만 명으로 33.9% 증가
    - 유소년인구는 2015년 122.4만 명에서 92.8만 명으로 24.2% 감소
    - 청년인구는 252.8만 명으로 12.5% 감소, 중장년인구는 431.3만 명으로 6.1% 감소



[그림 2-1]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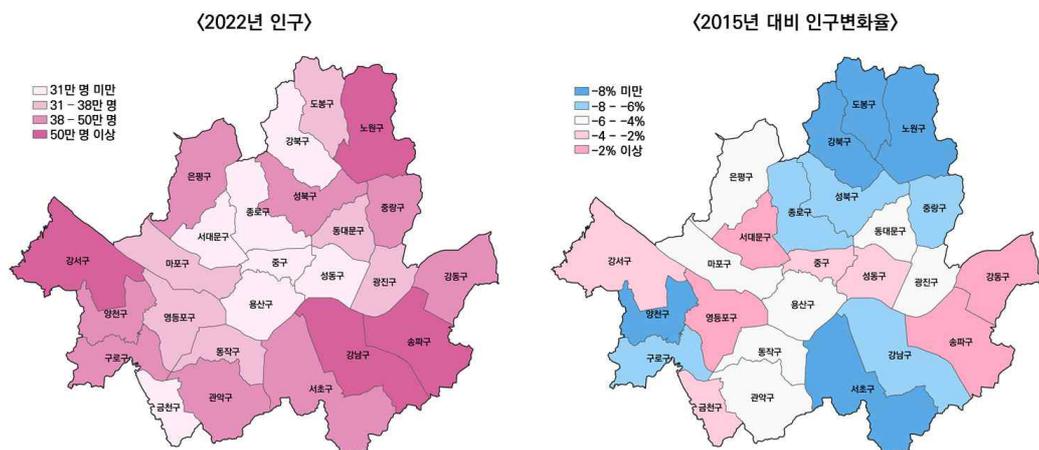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22

- 강동구, 영등포구, 금천구의 인구는 전년보다 증가, 그 외 자치구는 감소
  - 2022년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65.3만 명), 강서구(56.8만 명), 강남구(52.3만 명), 노원구(50.4만 명), 관악구(48.2만 명)
  - 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중구(11.9만 명), 종로구(14.0만 명), 용산구(21.6만 명), 금천구(22.8만 명), 성동구(28.1만 명)
  - 2015년 대비 인구 감소율이 큰 자치구는 노원구(12.0%), 도봉구(10.4%), 강북구(10.3%), 서초구(8.7%), 양천구(8.2%)
    - 전년 대비 감소율이 큰 자치구는 서초구(2.1%), 강북구(1.9%), 도봉구(1.8%), 성동구(1.7%), 종로구(1.6%)



[그림 2-2] 자치구별 인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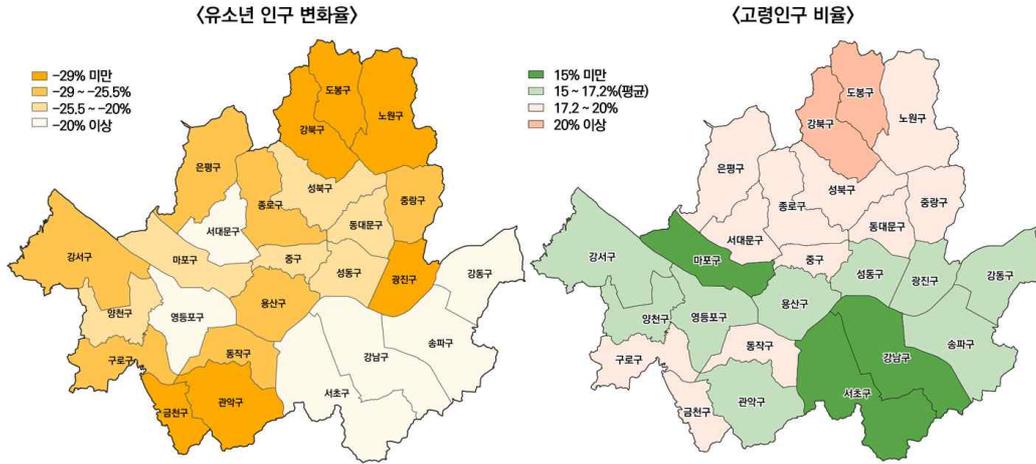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22



[그림 2-3] 자치구별 인구 현황 및 변화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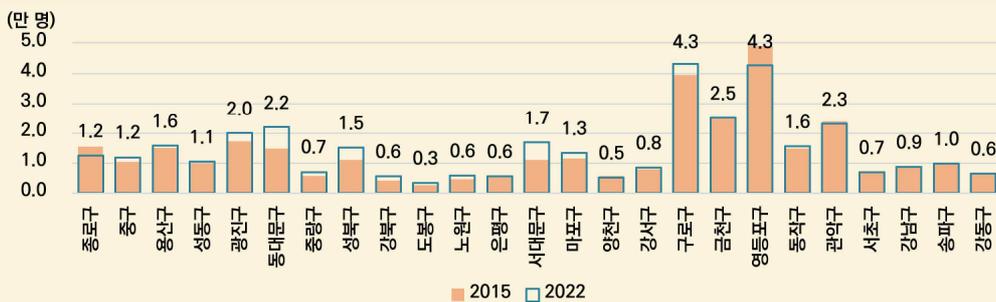
- 유소년인구의 감소율이 큰 자치구는 관악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 유소년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자치구는 강동구(9.2%), 강남구 (13.0%), 송파구(14.5%), 서대문구(16.5%), 영등포구(17.8%)
- 고령인구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자치구는 강북구(22.0%)와 도봉구(20.8%)
  - 고령인구의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마포구(14.9%), 서초구(14.9%), 강남구 (14.9%), 송파구(15.2%), 광진구(15.5%)



**[그림 2-4] 유소년인구 변화율 및 고령인구 비율**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22

### 외국인 인구는 어떻게 변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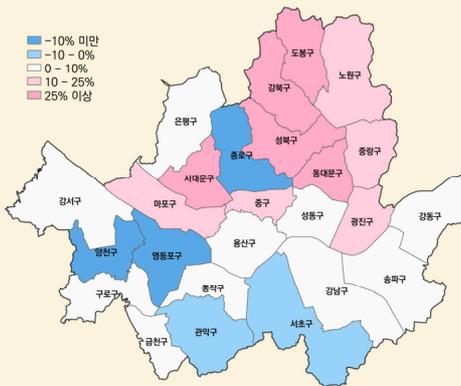
- 2022년 서울의 외국인인은 36.1만 명, 2015년 대비 7.1% 증가
  - 외국인은 2022년 36.1만 명으로 2015년(33.7만 명) 이후 연평균 1.0% 증가
  - 외국인이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4.3만 명), 영등포구(4.3만 명), 금천구(2.5만 명), 관악구(2.3만 명), 동대문구(2.2만 명)
  - 외국인이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0.3만 명), 양천구(0.5만 명), 강북구(0.6만 명), 은평구(0.6만 명), 노원구(0.6만 명)
  - 2015년 대비 외국인이 증가한 자치구는 서대문구(54.4%), 동대문구(48.7%), 성북구(35.6%), 강북구(32.1%), 도봉구(31.0%) 등
  - 2015년 대비 외국인이 감소한 자치구는 종로구(-19.5%), 영등포구(-12.8%), 양천구(-10.3%), 관악구(-4.0%), 서초구(-2.1%)



<2022년 외국인 인구>



<2015년 대비 외국인 인구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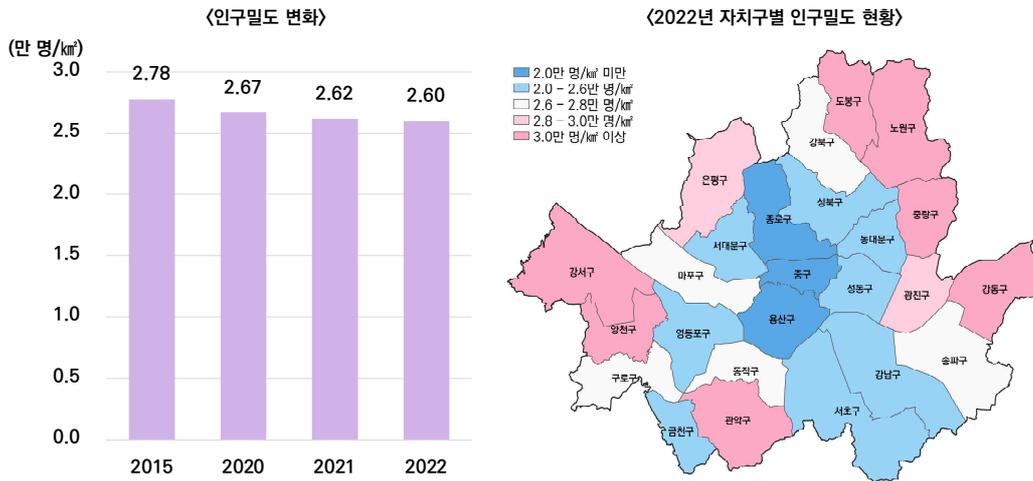


### 외국인 인구 현황 및 변화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22

## (2) 인구밀도

- 2022년 서울의 인구밀도는 2.6만 명/㎢, 2015년 대비 6.4% 감소
  - 서울의 인구밀도(시가화면적 기준)는 2022년 2.60만 명/㎢으로 2015년(2.78만 명/㎢) 이후 연평균 0.9% 감소
  - 인구밀도가 높은 자치구는 중랑구(3.5만 명/㎢), 노원구(3.5만 명/㎢), 강동구(3.4만 명/㎢), 양천구(3.3만 명/㎢), 도봉구(3.2만 명/㎢)
  - 인구밀도가 낮은 자치구는 종로구(1.2만 명/㎢), 중구(1.3만 명/㎢), 용산구(1.7만 명/㎢), 서초구(2.0만 명/㎢), 서대문구(2.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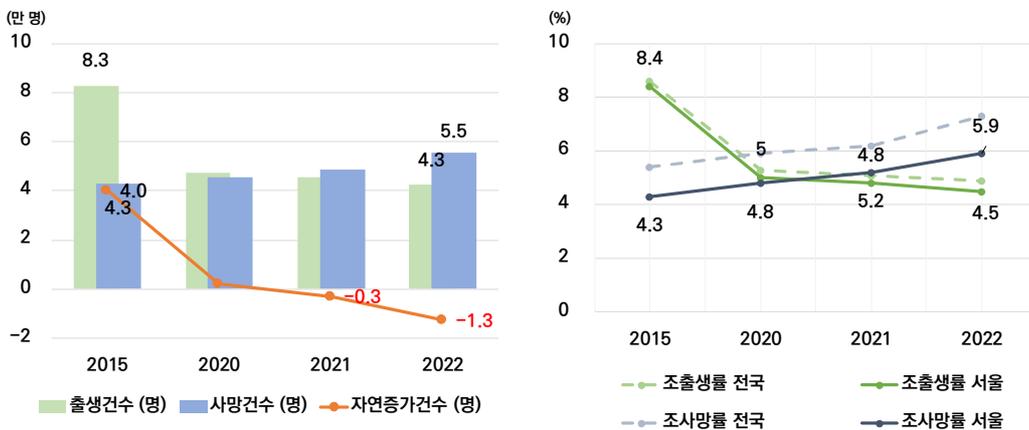
[그림 2-5] 인구밀도 변화 및 자치구별 밀도

주: 인구밀도는 시가화면적(녹지지역을 제외)을 토대로 산정(내외국인 기준)

자료: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시가화면적 통계, 2015~2022; 서울시, 인구밀도 통계, 2015~2022

### (3) 출생아 및 사망자 수

- 2022년 서울의 자연 감소는 1.3만 명, 2021년부터 서울 인구는 자연 감소
  - 서울의 자연 감소는 1.3만 명
    - 2021년 서울의 인구는 최초로 자연 감소(3,267명), 2022년 12,698명으로 감소
  - 서울의 출생아 수는 4.3만 명, 2015년에 비해 48.7% 감소
    - 서울의 출생아는 2015년(8.3만 명)부터 연평균 9.1% 감소
    - 수도권 출생아 중 서울 비중은 2022년 32.2%로, 2015년(37.4%)에 비해 5.2%p 감소
    - 조출생률(인구 천 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4.5로 2015년 8.4에 비해 3.9 감소
  - 서울의 사망자 수는 5.5만 명, 2015년에 비해 28.4% 증가
    - 서울의 사망자는 2015년(4.3만 명)부터 연평균 3.6% 증가
    - 수도권 사망자 중 서울 비중은 2022년 36.1%로 2015년(39.3%)에 비해 3.2%p 감소
    - 조사망률(인구 천 명당 사망자 수)은 2022년 5.9로 2015년(4.3)에 비해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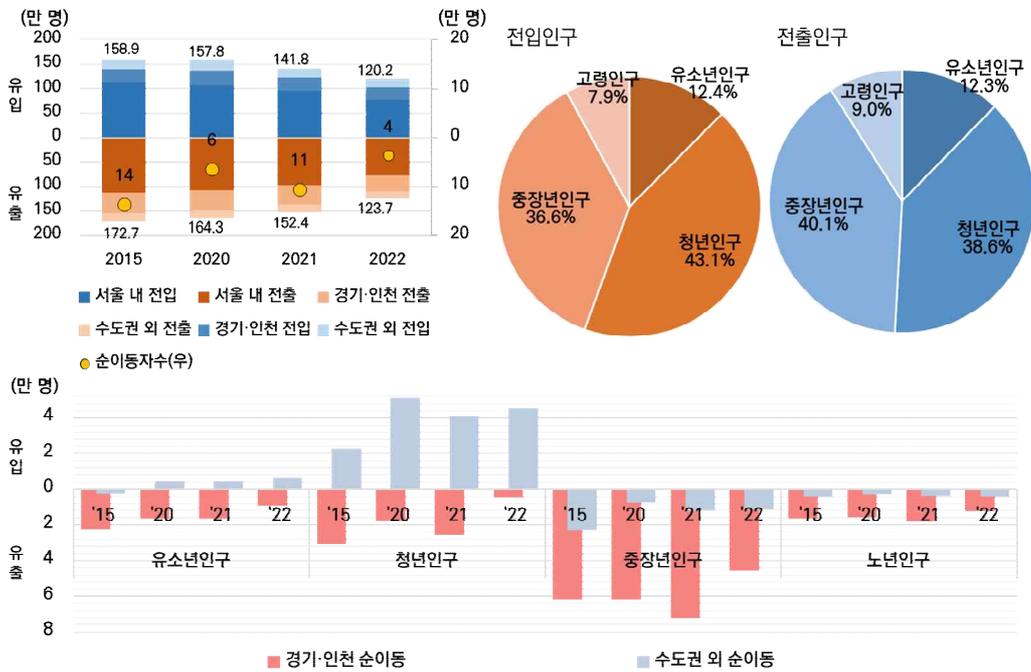


[그림 2-6] 출생 및 사망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15~2022

#### (4) 전입 및 전출인구

- 2022년 서울 인구의 0.4%(3.5만 명) 유출, 전년 대비 66.7% 감소
  - 서울로 전입한 인구<sup>6)</sup>는 43.1만 명으로 전년(46.2만 명) 대비 6.6% 감소
    -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25.2만 명으로 전입인구 중 58.5%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17.9만 명으로 전입인구 중 41.5%
    - 전입인구는 청년인구 43.1%, 중장년인구 36.6%, 유소년인구 12.4%, 고령인구 7.9%로 구성
  - 서울에서 전출한 인구는 46.6만 명으로 전년(56.7만 명) 대비 17.9% 감소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32.4만 명으로 전출인구 중 69.5%
    -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출한 인구는 14.2만 명으로 전출인구 중 30.5%
    - 전출인구는 중장년인구 40.1%, 청년인구 38.6%, 유소년인구 12.3%, 고령인구 9.0%로 구성
    - 2015년 이후 경기·인천으로 매년 유출, 중장년인구의 비중이 높음
  - 서울 내 인구이동은 77.1만 명으로 전년(95.7만 명) 대비 19.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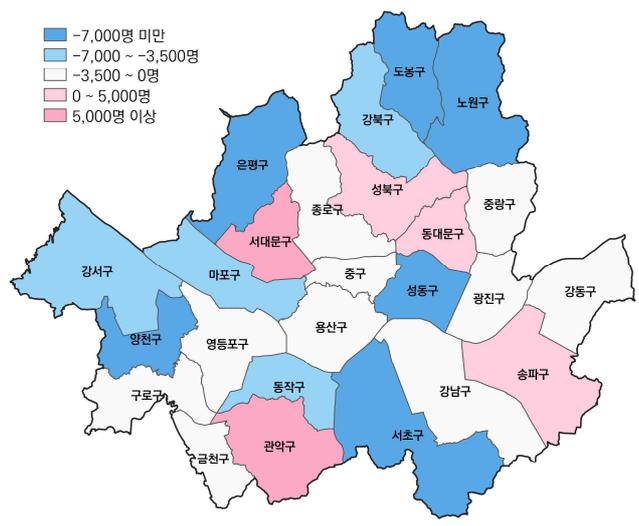


[그림 2-7] 전입·전출의 변화와 연령별 순이동인구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2022

6) 서울 내 이동은 제외하고, 타 지역 간의 이동만을 다룸. 전출 인구도 동일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인구가 순 유입된 자치구는 5개, 그 외 자치구는 모두 유출
  - 순 유입이 큰 자치구는 서대문구(7.1천 명), 관악구(6.9천 명), 송파구(4.2천 명), 성북구(4.1천 명), 동대문구(2.3 명)
  - 순 전출이 큰 자치구는 서초구(12.1천 명), 노원구(9.8천 명), 양천구(9.5천 명), 성동구(8.0천 명), 도봉구(7.1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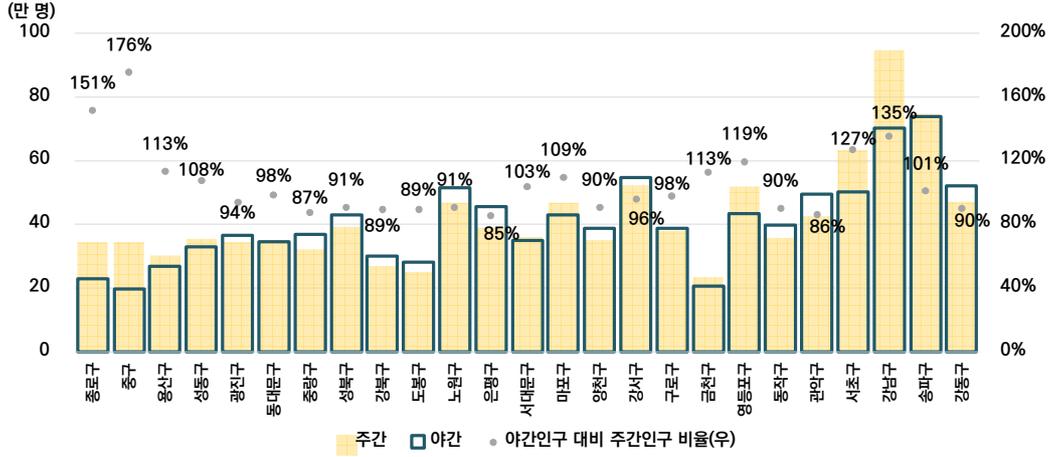


**[그림 2-8] 자치구별 순이동자 수 현황**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2022

**(5)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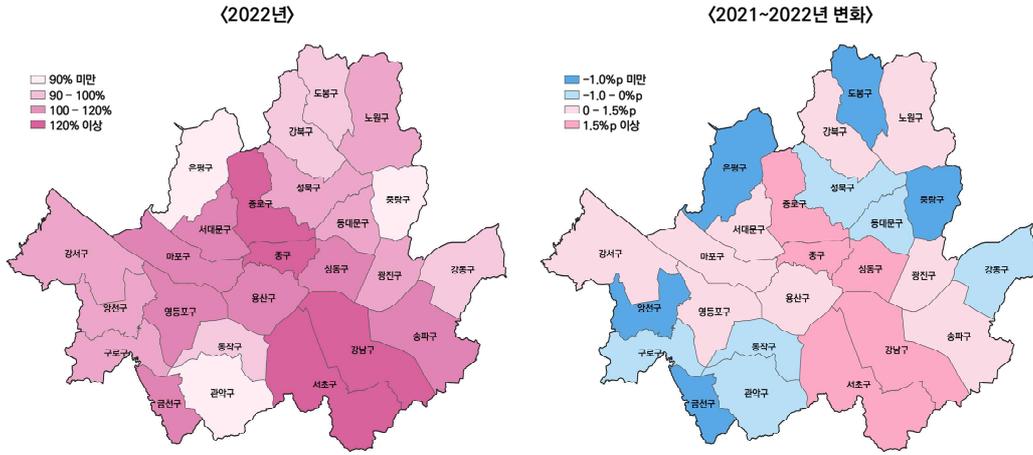
- 2022년 서울의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의 비율은 103.5%
  - 서울의 주간인구는 1,053.6만 명, 야간인구는 1,018.3만 명
    - 주간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94.9만 명), 송파구(74.5만 명), 서초구(63.4만 명), 주간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금천구(23.4만 명), 도봉구(25.1만 명), 강북구(26.8만 명)
    - 야간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송파구(73.8만 명), 강남구(70.1만 명), 강서구(54.8만 명), 야간인구가 적은 자치구는 중구(19.7만 명), 금천구(20.7만 명), 종로구(22.8만 명)
  - 서울의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 비율은 103.5%,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자치구는 9개
    - 중구(175.7%), 종로구(151.3%), 강남구(135.3%), 서초구(126.7%), 영등포구(119.4%) 등 업무, 여가, 상업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에서 주간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의 비율이 100% 이하인 자치구는 14개
    - 은평구(85.4%), 관악구(86.2%), 중랑구(87.3%), 도봉구(89.2%), 강북구(89.5%) 등 주거시설이 특화된 자치구의 주간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의 비율은 2020년 102.9%에서 0.6%p 증가
- 종로구(3.3%p), 성동구(2.8%p), 서초구(2.3%p), 강남구(1.8%p), 중구(1.6%p)는 주간인구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
- 금천구(-1.8%p), 양천구(-1.5%p), 도봉구(-1.5%p), 은평구(-1.2%p), 중랑구(-1.0%p)는 주간인구 비율이 전년에 비해 감소



[그림 2-9] 자치구별 주간인구와 야간인구 비교

자료: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내국인),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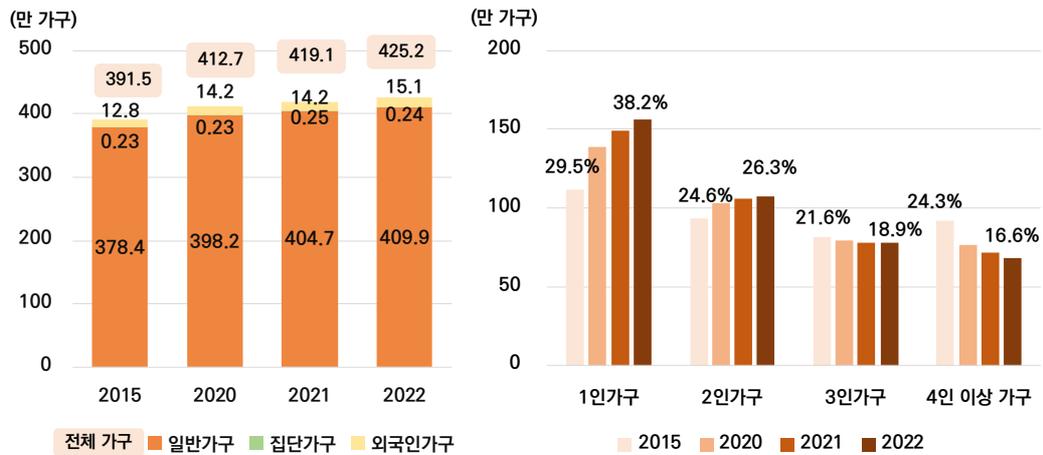
[그림 2-10] 야간인구 대비 주간인구 현황 및 변화

자료: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생활인구(내국인), 2021~2022

## 2) 가구 변화

### (1) 가구

- 2022년 서울의 가구 수는 425.2만 가구, 2015년 대비 8.6% 증가
  - 총 가구 수는 2015년(391.5만 가구)에 비해 연평균 1.2% 증가
  - 서울의 가구는 일반가구 409.9만 가구(96.4%), 외국인가구 15.1만 가구(3.5%), 집단가구 0.2만 가구(0.1%)로 구성<sup>7)</sup>
    - 2015년 대비 일반가구는 연평균 1.1%, 외국인가구 2.4%, 집단가구 1.0% 증가
- 서울의 가구원 수별 가구 수는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순으로 구성,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
  - 가구원 수별 가구<sup>8)</sup>는 1인 가구 156.4만 가구(38.2%), 2인 가구 107.6만 가구(26.3%), 3인 가구 77.6만 가구(18.9%), 4인 이상 가구 68.2만 가구(16.6%)로 구성
    - 1인 가구는 2015년 111.6만 가구에서 40.2% 증가
    - 2인 가구는 93.0만 가구에서 15.7% 증가
    - 3인 가구는 81.7만 가구에서 5.0% 감소
    - 4인 이상 가구는 92.1만 가구에서 26.0% 감소
  -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2015년(2.5명)에 비해 0.3명 감소



[그림 2-11] 가구 형태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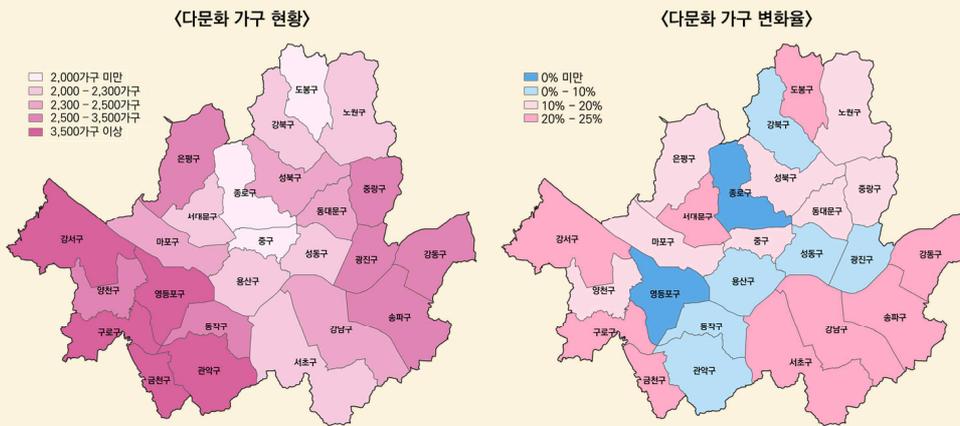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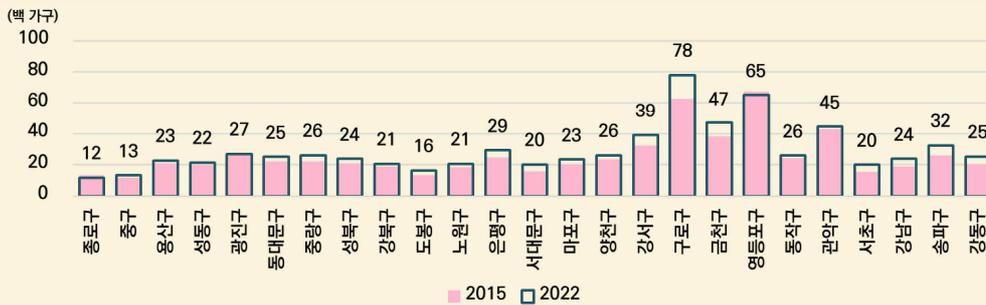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22

7) 일반가구는 가족과 5인 이하의 비혈연 관계의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가구, 외국인가구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집단가구는 비혈연 6인 이상으로 구성되거나 시설(기숙사, 요양시설 등)에 거주하는 가구를 뜻함

8) 전체 가구 중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함

### ❖ 다문화 가구는 어떻게 변했나요?

- 2022년 서울의 다문화 가구는 7.3만 세대, 2015년 대비 14.0% 증가
  - 다문화 가구는 2015년 64.0만 명에서 2022년 72.9만 명으로 연평균 1.9% 증가
  - 다문화 가구가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7.8천 가구), 영등포구(6.5천 가구), 금천구(4.7천 가구), 관악구(4.5천 가구), 강서구(3.9천 가구)
  - 다문화 가구가 적은 자치구는 종로구(1.2천 가구), 중구(1.3천 가구), 도봉구(1.6천 가구), 서초구(2.0천 가구), 서대문구(2.0천 가구)
  - 2015년 대비 다문화 가구가 증가한 자치구는 서초구(30.4%), 서대문구(28.7%), 강남구(27.0%), 도봉구(24.2%), 송파구(24.0%)
  - 2015년 대비 다문화 가구가 감소한 자치구는 종로구(11.5%), 영등포구(3.4%)



#### 다문화 가구 현황 및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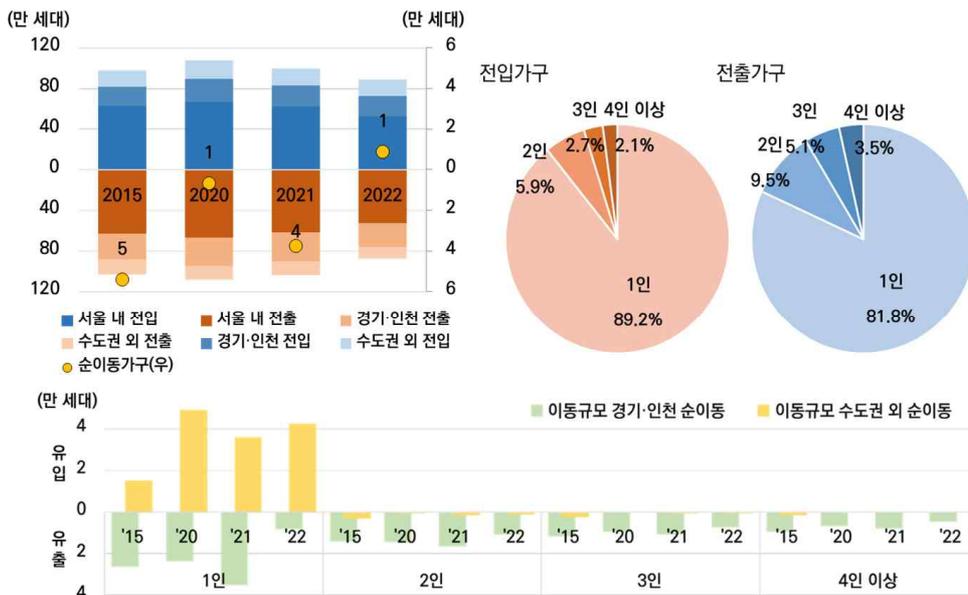
## (2) 전입 및 전출 가구

### ○ 2022년 서울로 8,822세대 유입

- 36.4만 세대가 서울로 전입하여 전년(38.1만 세대) 대비 4.4% 감소
  - 20.3만 세대(전입세대의 55.7%)는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
  - 16.1만 세대(44.3%)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
- 35.5만 세대가 서울에서 전출하여 전년(41.8만 세대) 대비 15.0% 감소
  - 23.4만 세대(전출세대의 65.9%)는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
  - 12.1만 세대(34.1%)는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출
- 서울 내에서는 53.4만 세대가 이동하였고, 전년(61.9만 세대) 대비 15.3% 감소
  - 2015년 이후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세대 유출이 지속됐으나 2022년에는 유입
  - 경기·인천으로 3.1만 세대 유출, 수도권 외 지역에서 4.0만 세대 유입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세대 유출 지속,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매년 서울로 유입

### ○ 전입·전출 세대는 1인 세대의 비중이 가장 컸음

- 총 전입 세대 중 1인 세대 89.2%, 2인 세대 5.9%, 3인 세대 2.7%, 4인 세대 이상 2.1%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세대 중 1인 세대 93.2%, 2인 세대 3.3%, 3인 세대 1.2%, 4인 세대 이상 0.9%
-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한 세대 중 1인 세대 86.0%, 2인 세대 7.3%, 3인 세대 3.7%, 4인 세대 이상 2.9%



[그림 2-12] 전입·전출 가구의 변화와 가구규모별 순이동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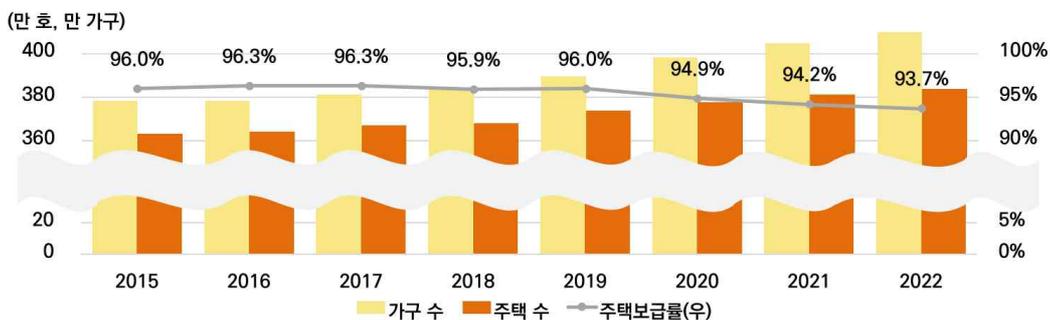
- 총 전출 세대 중 1인 세대 81.8%, 2인 세대 9.5%, 3인 세대 5.1%, 4인 세대 이상 3.5%
-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세대 중 1인 세대 78.1%, 2인 세대 11.0%, 3인 세대 6.4%, 4인 세대 이상 4.5%
-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출한 세대 중 1인 세대 89.0%, 2인 세대 6.7%, 3인 세대 2.7%, 4인 세대 이상 1.6%

## 2\_주택

### 1) 주택 재고

#### (1) 주택보급률

- 2022년 서울의 주택 재고는 384.0만 호, 주택보급률은 93.7%
  - 주택 재고<sup>9)</sup>는 2015년 363.3만 호에서 연평균 0.8% 증가
    - 가구 수는 2022년 409.9만 가구로 2015년 378.5만 가구에서 연평균 1.1% 증가
  - 주택보급률은 2015년 96.0%에서 2.3%p 감소
    - 경기·인천의 주택보급률은 98.3%, 수도권 외 지역은 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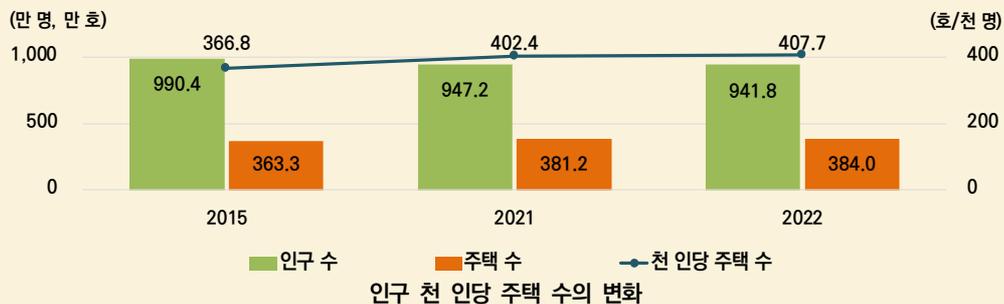


[그림 2-13] 가구 및 주택 수의 변화와 주택보급률

자료: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2015~2022

#### ❖ 인구 수에 비해 주택은 얼마나 공급되었나요?

- 2022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407.7호, 2015년 대비 11.2% 증가
  -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인구 감소로 2015년 366.8호에서 11.2% 증가
    - 인구 수는 2022년 941.8만 명으로, 2015년 990.4만 명보다 48.7만 명(4.9%) 감소
  -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서울이 경기·인천보다 큼
    - 경기·인천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390.1호, 수도권 외 지역은 464.6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2015·2021·2022

9) 주택 재고는 다가구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값(동→호)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를 활용함. 주택보급률의 두 지표(주택 보급률과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및 주택 공급 부분의 지표에 한정하며, 그 외 지표는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 유형별 구성비

- 2022년 서울의 주택 재고 중 공동주택이 89.7%, 단독주택의 비중은 감소세
  - 2022년 주택 중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은 총 279.0만 호
    - 유형별 재고는 단독주택 29.3만 호(9.4%), 아파트 185.1만 호(59.5%), 다세대 및 연립주택 93.9만 호(30.2%),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7만 호(0.9%)
  - 주택 중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의 비율은 2015년도에 비해 각각 0.9%p, 2.6%p 증가
    - 단독주택은 2022년 9.4%로 2015년 12.7%에 비해 3.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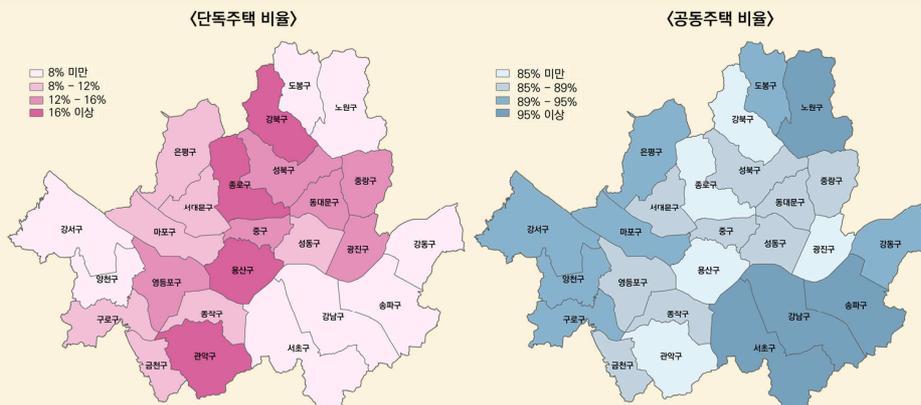
[그림 2-14] 주택 유형별 구성비

주: 빈집을 포함하며 다가구주택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1·2022

### ❖ 자치구에 따라 주택 유형은 어떤 구성을 보이나요?

- 경기·인천 지역에 연접한 자치구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2022년 공동주택 비율은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순으로 높고, 종로구, 용산구, 강북구 순으로 낮음
    -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송파구(21.1만 호), 강서구(19.1만 호) 순
    -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노원구(16.6만 호, 전체 주택의 약 86.5%)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은 은평구(7.7만 호, 48.1%)
  - 종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의 단독주택의 비율은 20% 미만
    - 종로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25.3%로 가장 높고, 성북구는 단독주택이 2.1만 호(14.7%)로 가장 많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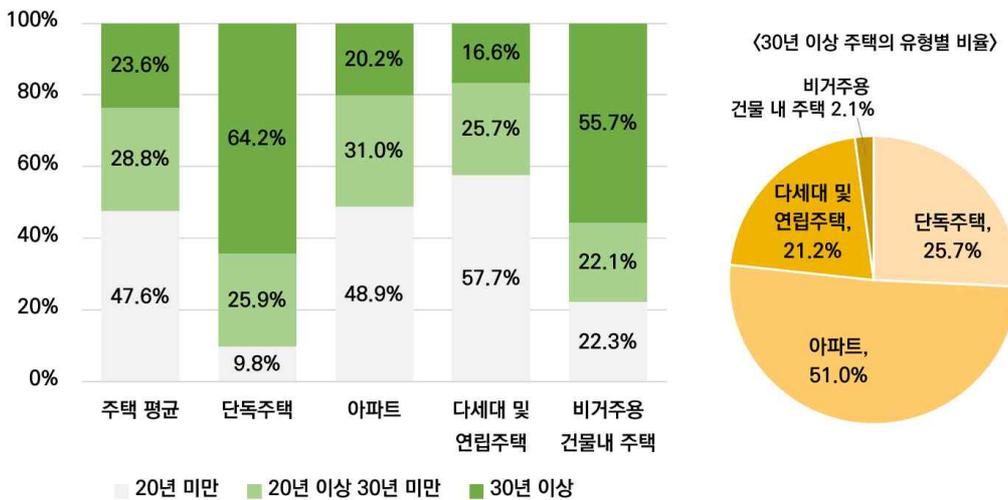


자치구별 주택 유형 비율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22

### (3) 건축연도별 구성비

- 2022년 서울 주택 재고 중 30년 이상의 노후 주택은 23.6%
  - 30년 이상 주택은 아파트 51.0%, 단독주택 25.7%, 다세대 및 연립주택 21.2%로 구성
    - 노후기간별 주택은 30년 이상 73.3만 호(23.6%), 20년~30년 미만 89.7만 호(28.8%), 20년 미만 호(47.6%)
    - 2022년 서울의 유형별 주택 비율은 아파트 59.5%, 다세대 및 연립 30.2%, 단독주택 9.4%
  - 단독주택 중 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64.2%, 20년 이상 30년 미만 건물은 25.9%로 가장 노후된 주택이 많음
  - 반면,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20년 미만 57.7%, 20년 이상 30년 미만 25.7%, 30년 이상 16.6%로 20년 미만 주택의 재고 비율이 큼
    - 아파트는 20년 미만 48.9%, 20년 이상 30년 미만 31.0%, 30년 이상 20.2%로 구성되며, 2000년 이후 지어진 주택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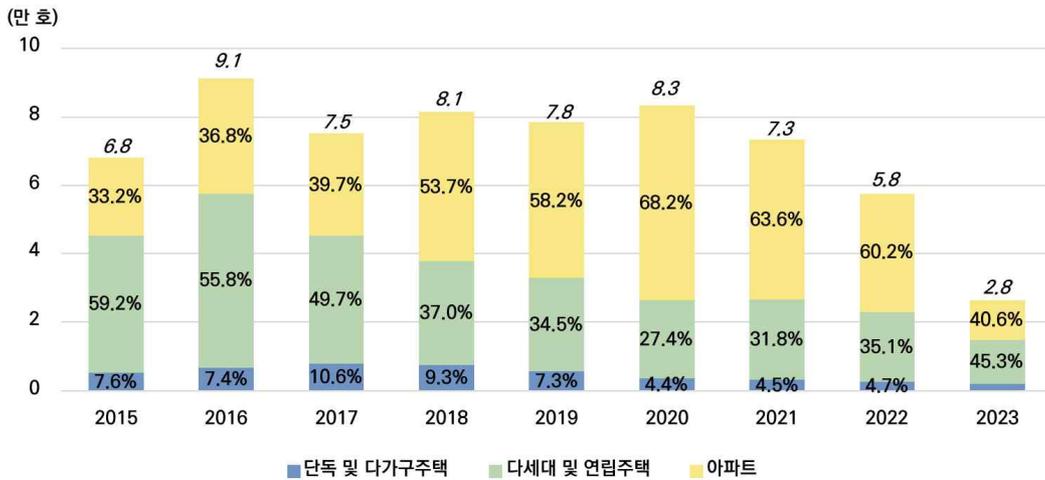
[그림 2-15] 주택 유형별 노후기간 구성비

주: 빈집을 포함하며 다가구주택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22

## 2) 주택 공급

### (1) 주택 준공량

- 서울의 주택 준공량은 감소 추세, 공동주택 비율은 92.6%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주택 준공량은 총 63.7만 호, 이 중 공동주택이 92.6%를 차지
    - 아파트 32.5만 호(51.0%), 다세대 및 연립주택 26.5만 호(41.6%), 단독 및 다가구주택 4.5만 호(7.1%)
  - 다세대 및 연립주택과 단독 및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아파트는 증가
    -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준공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체 준공량의 40%를 상회
    - 아파트는 2018년부터 준공량이 증가하였고, 매년 전체 준공량의 50% 이상을 차지. 2020년에는 전체 공급 주택의 68.2%(5.6만 호)가 아파트로 높은 비율을 보임
    -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2020년부터 전체 준공량 중 4%대로 비중이 감소. 2023년 준공량은 총 0.2만 호로 2015년에 비해 공급량이 60.5% 감소
  -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의 주택 준공량은 수도권(239.5만 호)의 26.6%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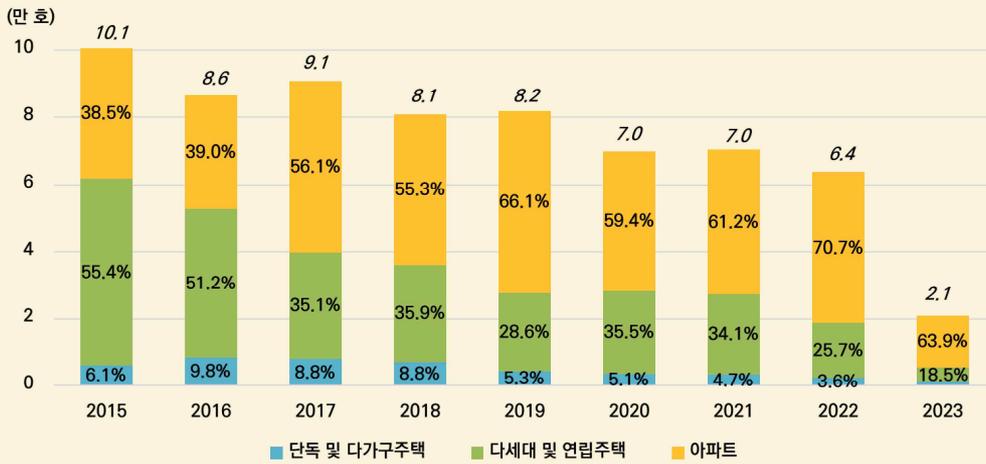


[그림 2-16] 주택 유형별 준공량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2015~2023

### ❖ 신규 주택의 착공량은 어떻게 변했나요?

- 착공량도 2017년부터 감소세, 특히 단독 및 다가구주택 비율은 5% 미만으로 하락
  - 주택 착공량은 총 66.9만 호, 이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3.4%
    - 착공주택 중 아파트는 36.7만 호(54.9%), 다세대 및 연립주택 25.4만 호(38.0%)
    - 단독 및 다가구주택은 4.4만 호(6.6%)를 차지
  - 2023년 주택 착공량은 2.1만 호로 2015년에 비해 연평균 18.0% 감소
    - 2023년 주택 유형별 착공량은 아파트 1.6만 호(74.0%), 다세대 및 연립주택 0.4만 호(21.4%), 단독 및 다가구주택 0.1만 호(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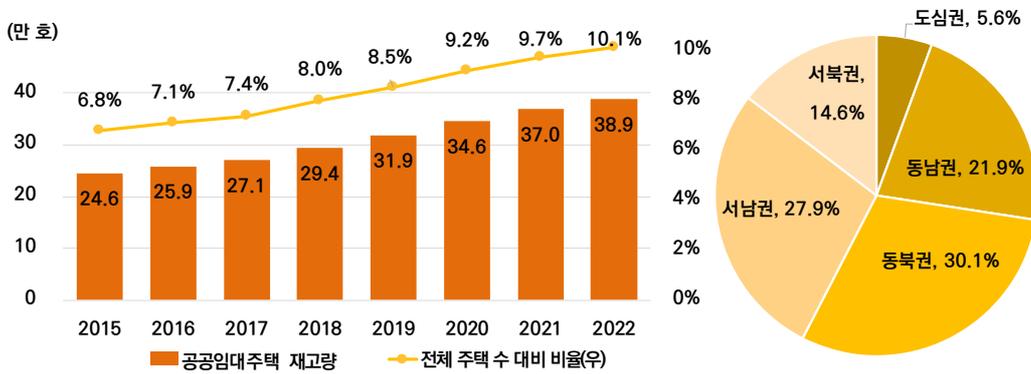


주택 유형별 착공량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2015~2022

## (2) 공공임대주택 비율

- 2022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은 총 38.9만 호, 전체 주택의 10.1% 차지
  - 2022년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도에 비해 14.3만 호가 추가 공급되어, 연평균 6.7% 증가
    -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2022년 10.1%로 2015년 6.8%에 비해 3.3%p 증가
  - 임대주택 재고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동북권(11.7만 호)
    - 공공임대주택은 권역별로 동북권 11.7만 호(30.1%), 서남권 10.8만 호(27.9%), 동남권 8.5만 호(21.9%), 서북권 5.6만 호(14.6%), 도심권 2.1만 호(5.6%) 공급
  -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21년도 대비 도심권, 동남권, 서북권에서 소폭 증가
    - 특히 도심권 중 종로구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2년 8,933호로 2021년 2,950호에서 약 6천 호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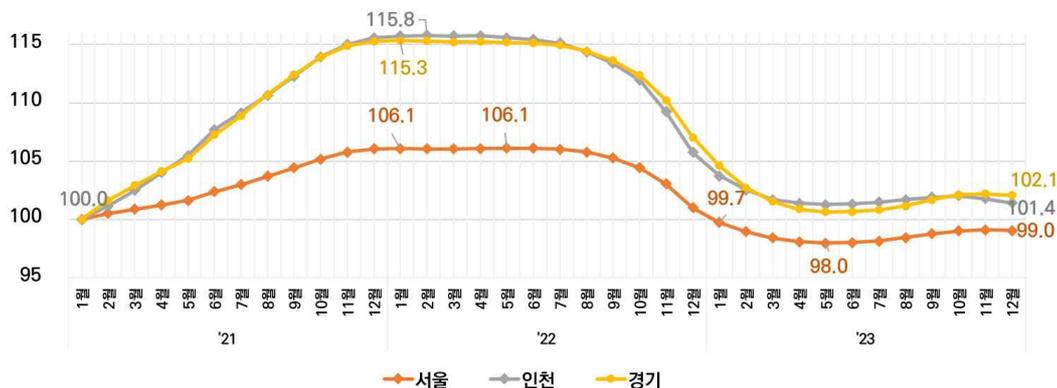
[그림 2-17] 공공임대주택 비율

주: 전체 주택 재고는 다가구주택 구분 거처를 반영한 값(동→호)을 기준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통계를 활용함  
 자료: 서울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통계, 2015~2022; 국토교통부, 新주택보급률, 2015~2022

### 3) 주거비 부담

#### (1) 주택가격지수<sup>10)</sup>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큰 가격 변동을 거친 뒤 2021년 1월보다 소폭 하락
  -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3년 12월 서울 99.0, 인천 101.4, 경기 102.1
    - 2023년 1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월 대비 1.0%, 2022년 1월 대비 6.7%, 2023년 1월 대비 0.7% 하락
    - 주택매매가격지수의 지역별 최고점은 서울 106.1(2022년 5월), 인천 115.8(2022년 2월), 경기 115.3(2022년 1월), 2023년 12월 매매가격지수는 고점 대비 서울 6.7%, 인천 12.4% 경기 11.5% 하락
    - 지역별 최저점은 서울 98.0(2023년 5월), 인천 100.0(2021년 1월), 경기 100.0(202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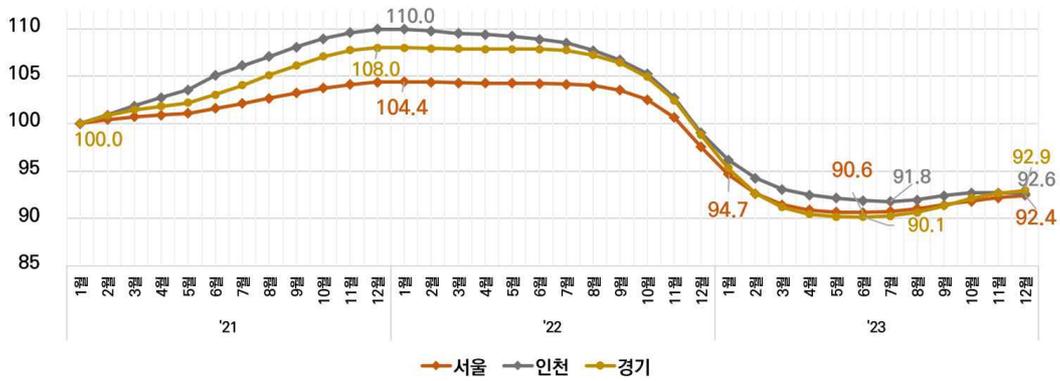


[그림 2-18]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1.~2023.12.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 2023년 6월 이후 소폭 상승
  -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23년 12월 서울 92.4, 인천 92.6 경기 92.9
    - 2023년 1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1월 대비 7.6% 감소, 2022년 1월 대비 11.5% 감소, 2023년 1월 대비 2.4% 감소
    - 주택전세가격지수의 지역별 최고점은 서울 104.4(2022년 1월), 인천 110.0(2022년 1월), 경기 108.0(2021년 12월), 2023년 12월 전세가격지수는 고점 대비 서울 11.5%, 인천 15.8%, 경기 13.9% 하락
    - 지역별 최저점은 서울 90.6(2023년 6월), 인천 91.8(2023년 7월), 경기 90.1(2023년 6월)

<sup>10)</sup> 가격지수는 지역별 2021년 1월 가격을 기준(100.0)으로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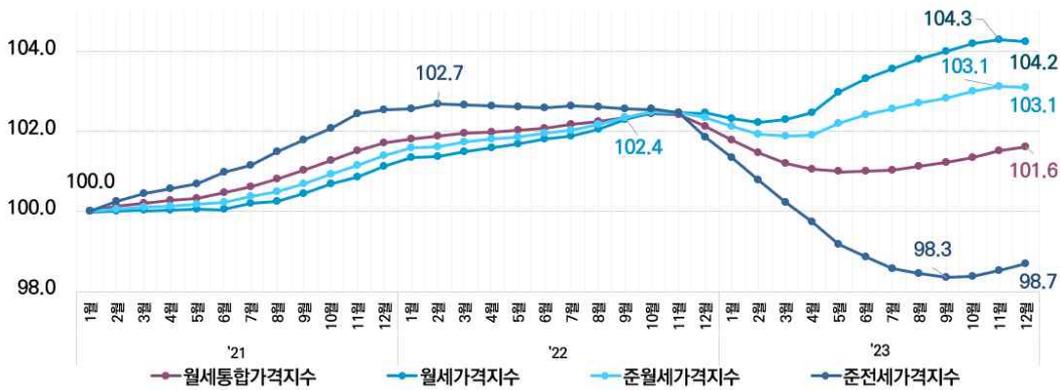


[그림 2-19] 지역별 주택전세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1.~2023.12.

○ 서울의 월세통합가격지수<sup>11)</sup>는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락 후 강보합

- 2023년 12월 월세통합가격지수는 101.6, 2021년 1월 대비 1.6% 상승. 월세 유형별로 가격지수의 등락 폭이 다르게 나타남.
  - 월세가격지수는 104.2로 2021년 1월 대비 4.2% 상승, 준월세가격지수는 103.1로 3.1% 상승
  - 준전세가격지수는 98.7로 1.3% 하락
- 주택전세가격지수가 하락을 시작한 이후(2022년 7월), 2022년 10월부터 준전세가격지수 역시 하락세를 보임
  -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택월세가격지수는 준전세-준월세-월세 순으로 가격이 증가
  - 준전세가격지수는 최고점 102.6(2022년 10월)에서 3.8% 하락, 반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월세와 준월세의 가격지수는 2023년 4월 이후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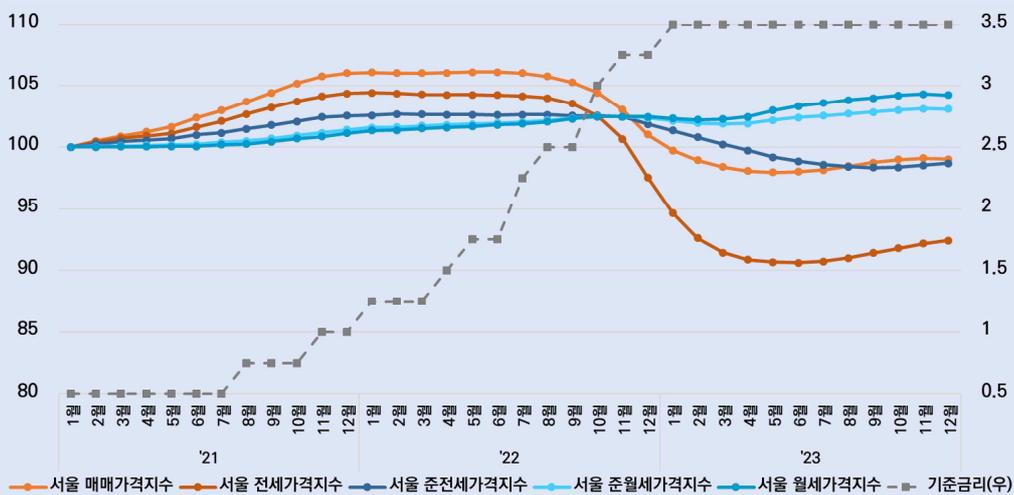
[그림 2-20] 서울시 주택월세가격지수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1.~2023.12.

<sup>11)</sup>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 '준월세'(12~24개월치), '준전세'(24개월치 초과)를 모두 합쳐 산정

## 주택가격지수는 기준금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 모든 주택가격지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전환, 당시 기준금리는 최고점으로 동결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5월에 106.1,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1월에 104.4가 최고점,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보임
  - 기준금리는 2021년 7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고, 2023년 1월부터 금리 3.5%의 최고점을 유지하였으며, 금리가 3%대로 진입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세 시작
  - 금리가 오르면서 보증금이 낮은 월세와 준월세의 가격은 오히려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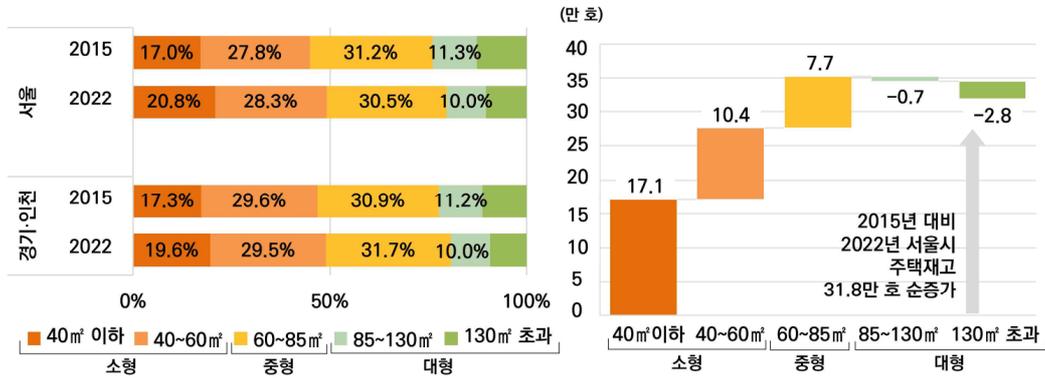
주택가격지수와 기준금리의 변화

자료: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2021.1.~2023.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준금리, 2021~2023

## 4) 거주실태

### (1) 주택 규모별 구성비

- 2022년 서울의 주택 규모는 소형 48.6%, 중형 30.6%, 대형 20.8% 차지
  - 서울의 전체 주택(306.8만 호)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은 149.1만 호(48.6%), 60~85㎡ 중형주택은 94.0만 호(30.6%), 85㎡ 초과 대형주택은 63.8만 호(20.8%)<sup>12)</sup>
    - 소형주택 중 40㎡ 이하는 62.6만 호(20.4%), 40~60㎡는 86.5만 호(28.2%)
    - 대형주택 중 85~130㎡는 31.0만 호(10.1%), 130㎡ 초과는 32.8만 호(10.7%)
    - 경기·인천의 주택은 40㎡ 이하가 12.5%, 60~85㎡가 37.6%로 주택의 규모별 구성이 서울과 상이
  - 2015년과 비교하면 중·소형 규모의 주택 수는 증가, 대형주택의 수는 감소
    - 40㎡ 이하 주택은 17.1만 호(4.5%), 40~60㎡는 10.4만 호(1.8%), 60~85㎡는 7.7만 호(1.2%) 증가
    - 85~130㎡ 주택은 0.7만 호(0.7%), 130㎡ 초과는 2.8만 호(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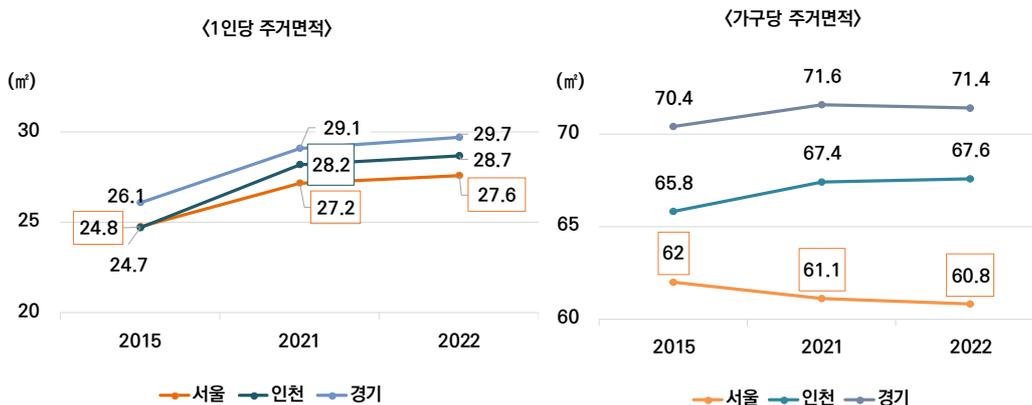
[그림 2-21] 주택 규모별 구성비 및 순증감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2

<sup>12)</sup> 주택 전체 재고 구성비를 보기 위하여 빈집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였고,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서의 주택 규모 기준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함

## (2) 1인당 주거면적

- 2022년 서울의 1인당 주거면적은 27.6㎡로, 2015년 대비 11.3% 증가
  - 1인당 주거면적은 2015년 24.8㎡에 비해 2.8㎡ 증가
    - 경기도는 29.7㎡로 2015년 26.1㎡ 대비 13.8% 증가
    - 인천은 28.7㎡로 24.7㎡ 대비 16.2% 증가
  - 가구당 주거면적은 60.8㎡이며, 2015년 62.0㎡에 비해 1.2㎡(1.9%) 감소
    - 경기도는 71.4㎡로 2015년 70.4㎡에 비해 1.4% 증가
    - 인천은 67.6㎡로 65.8㎡에 비해 2.7% 증가



[그림 2-22] 원단위별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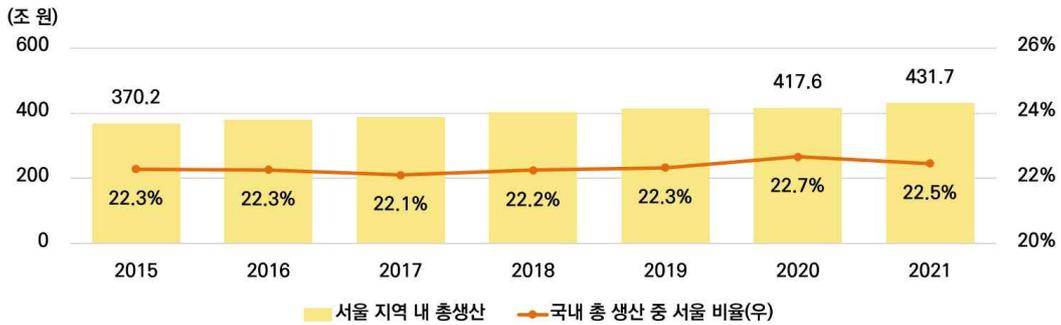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5·2021·2022

### 3\_산업·경제

#### 1) 경제규모

##### (1) 지역 내 총생산

- 2021년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431.7조 원, 2015년에 비해 16.6% 증가
  - 서울 GRDP<sup>13)</sup>는 2015년(370.2조 원) 이후 연평균 2.6% 증가
    - 국내 총생산(GDP)은 1,922.1조 원으로 2015년 대비 연평균 2.5% 증가
    - 국내 총생산 중 서울의 비중은 2021년 22.5%로 2015년 대비 0.2%p 증가



[그림 2-23] 서울의 지역 내 총생산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015~2021

##### ○ 서울에서 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도소매업 > 금융보험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정보통신업 > 부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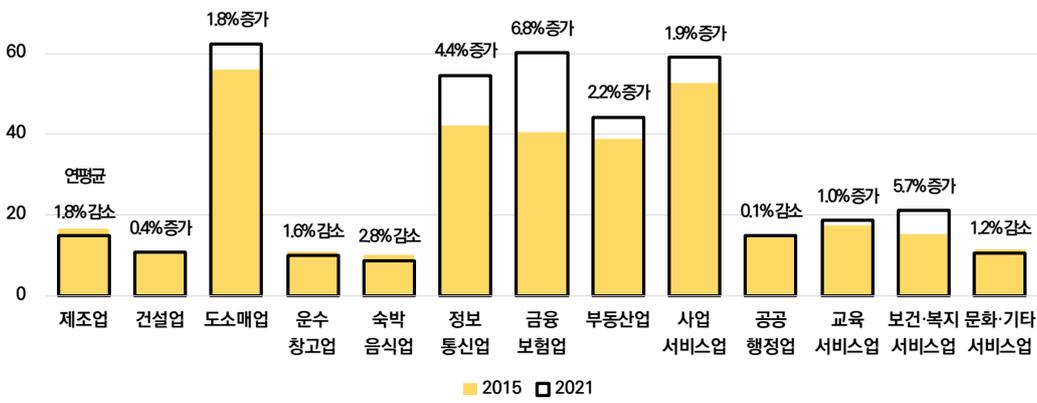
- 주요 산업<sup>14)</sup> 부가가치는 도소매업 62.3조 원, 금융보험업 60.1조 원, 사업지원서비스업 59.0조 원, 정보통신업 54.6조 원, 부동산업 44.2조 원<sup>15)</sup>
  - 그 외 보건·복지서비스업 21.1조 원, 교육서비스업 18.6조 원, 제조업 14.9조 원, 공공행정업 114.8조 원, 건설업 10.8조 원, 문화·기타서비스업 10.6조 원, 운수창고업 9.9조 원, 숙박음식업 8.6조 원
- 2015년보다 부가가치가 증가한 산업은 금융보험업(연평균 변화율 6.8%), 보건·복지서비스업(5.7%), 정보통신업(4.4%), 부동산업(2.2%)
  - 부가가치가 감소한 산업은 숙박음식업(-2.8%), 제조업(-1.8%) 등 5개

13)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질 GRDP를 활용하여 추이를 살펴며, 모든 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함. 실질 GRDP는 생산량에 기준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여 가격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함. 지역 내 총생산(시장가격)이란 지역 내 총 부가가치(기초가격)와 순생산물세의 합임

14) 표준산업분류 상의 산업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

도매 및 소매업→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음식업, 금융 및 보험업→금융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보건·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예술·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15) 2021년 서울의 산업 중 사업체 수가 1천 개소 이하 혹은 종사자 수가 1.5만 명 이하인 4개 산업(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은 산업·경제 진단에서 제외함. 단, 지역 내 총생산의 문화 및 기타서비스에는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을 포함



[그림 2-24] 산업별 부가가치의 변화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2015·2021

주: 지역 내 총생산에서는 사업서비스업에 과학기술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을, 문화·기타서비스업에 예술·여가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하여 공공

❖ 자치구별로 GRDP에 차이가 있나요?

- 2021년 서울의 자치구별 GRDP는 강남구, 중구, 영등포구, 서초구, 종로구 순
  - GRDP 상위 5개 자치구의 합은 서울시 전체의 54.7%
    - 강남구 70.3조 원(서울시 총생산 중 자치구 비율 16.3%), 중구 58.6조 원(13.6%), 영등포구 39.7조 원(9.2%), 서초구 34.7조 원(8.0%), 종로구 33.0조 원(7.6%) 순으로, 동남권과 도심권에서 높게 나타남
  - 2015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은 강서구(8.5%), 영등포구(4.7%) 등
    - 2015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큰 자치구의 GRDP는 강서구 16.5조 원(8.5%), 영등포구 39.7조 원(4.7%), 성동구 12.7조 원(3.7%), 송파구 3.4%(28.9조 원), 용산구 3.4%(12.3조 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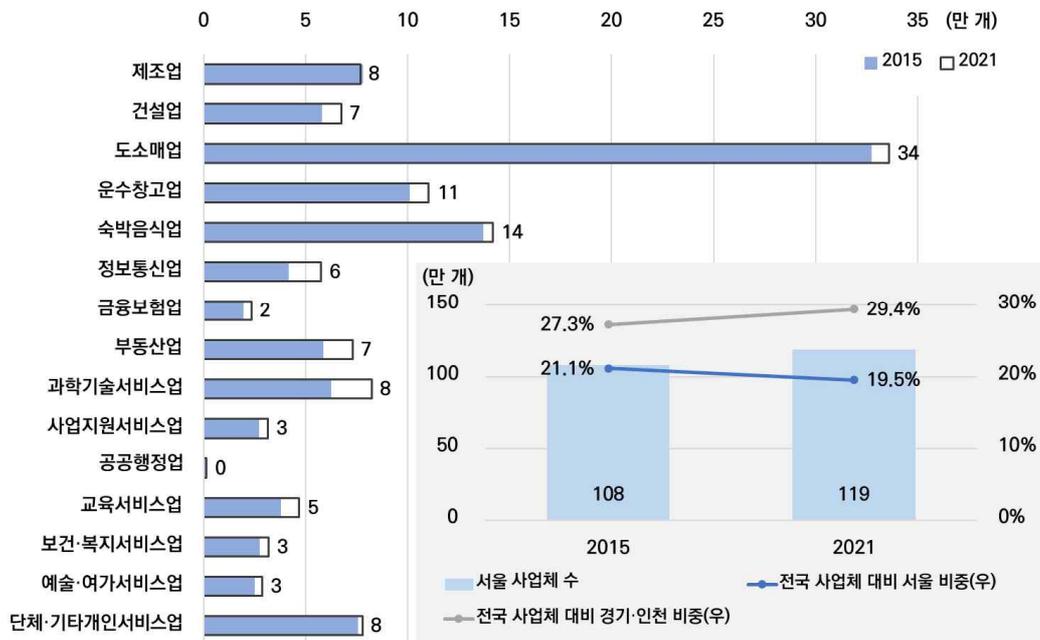
자치구별 GRDP와 연평균 성장률

자료: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 자치구별 지역 내 총 부가가치, 2015·2021

## 2) 산업구조

### (1) 사업체 수<sup>16)</sup>

- 2021년 서울의 사업체는 118.8만 개, 2015년보다 10.1% 증가
  - 사업체는 118.8만 개로 2015년 107.9만 개에서 연평균 1.6% 증가
    - 전국 사업체 대비 서울의 비중은 19.5%로 2015년 21.1%보다 1.6%p 감소
    - 경기·인천의 비중은 29.4%로 2015년 27.3%에서 2.1%p 증가
  - 도소매업(33.6만 개), 숙박음식업(14.2만 개), 운수창고업(11.0만 개)이 전체 사업체의 49.8% 차지
    - 그 외 산업의 사업체 수는 과학기술서비스업 8.2만 개(서울시 사업체의 6.9%),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7.8만 개(6.6%), 제조업 7.7만 개(6.5%) 등
  - 2015년에 비해 제조업 외 모든 산업에서 사업체 수가 증가
    - 사업체 수가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연평균 5.6%), 과학기술서비스업(4.7%), 부동산업(3.8%), 교육서비스업(3.7%), 금융보험업(3.1%)
    - 사업체 수가 유지되는 산업은 제조업(-0.1%), 공공행정업(0.2%), 도소매업(0.4%),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0.5%), 숙박음식업(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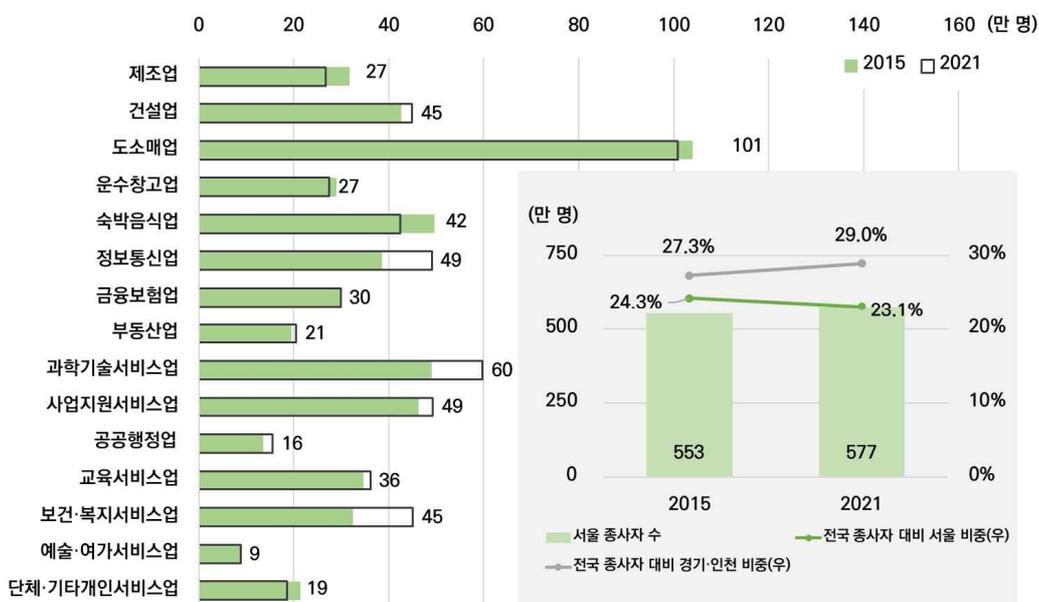
[그림 2-25] 사업체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전국사업체조사, 2021

<sup>16)</sup> 2020년부터 전국사업체조사의 통계가 조사 기반에서 등록 기반으로 변경되었음. 상시 종사자가 없거나 등록된 장소가 없어 현장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사업체(가구 내 사업체,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가 통계에 포함됨에 따라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워짐. 다만 경제총조사는 동일한 기준에 대한 2015년의 통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2015년과 증감을 비교함

## (2) 종사자 수

- 2021년 서울의 종사자는 577.1만 명, 2015년보다 4.4% 증가
  - 종사자는 577.1만 명으로, 2015년 552.6만 명에서 연평균 0.7% 증가
    - 전국 종사자 대비 서울의 비중은 23.1%로 2015년 24.3%보다 1.2%p 감소
    - 경기·인천의 비중은 29.0%로 2015년 27.3%에서 1.7%p 증가
  - 도소매업(100.9만 명), 과학기술서비스업(59.8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49.3만 명), 정보통신업(49.1만 명)이 전체 종사자의 52.7% 차지
    - 그 외 산업별 종사자 수는 건설업 44.9만 명(서울시 종사자의 7.8%), 숙박음식업 42.4만 명(7.3%), 교육서비스업 36.2만 명(6.3%) 등
  - 2015년에 비해 보건·복지서비스업(연평균 5.6%), 정보통신업(4.1%), 과학기술서비스업(3.4%), 공공행정업(2.3%)의 종사자 수가 증가
    - 반면 제조업(-2.8%), 숙박음식업(-2.6%),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2.2%), 운수창고업(-0.9%), 도소매업(-0.5%), 금융보험업(-0.1%)은 종사자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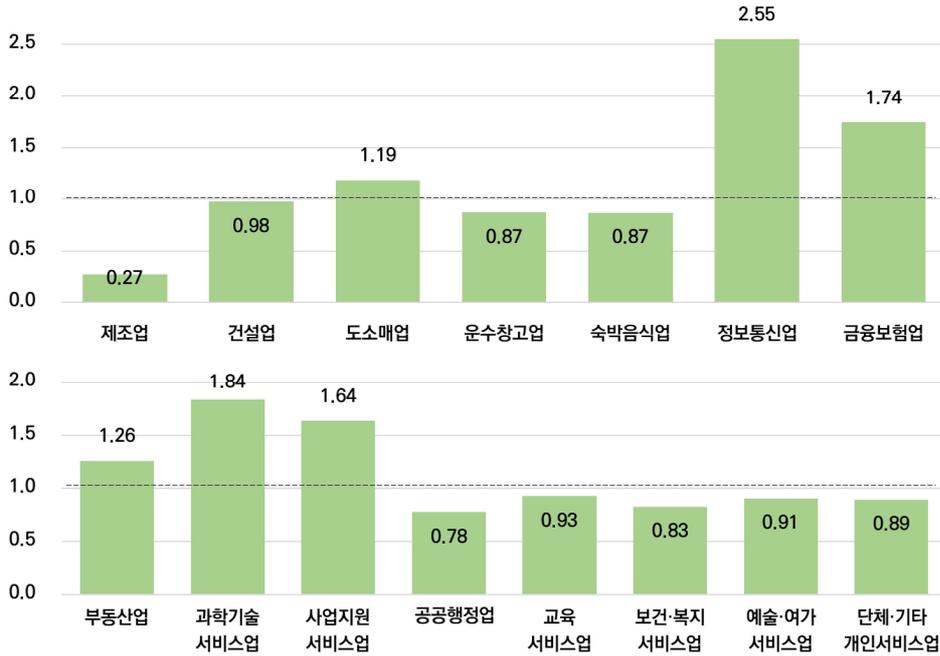


[그림 2-26] 종사자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 전국사업체조사, 2021

### (3) 산업별 특화도

- 2021년 서울의 특화산업은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종사자 기준 특화도가 높은 산업은 정보통신업(특화도 2.55), 과학기술서비스업(1.84), 금융보험업(1.74), 사업지원서비스업(1.64), 부동산업(1.26), 도소매업(1.19)
  - 특화도가 낮은 산업은 제조업(0.27), 공공행정업(0.78), 보건·복지서비스업(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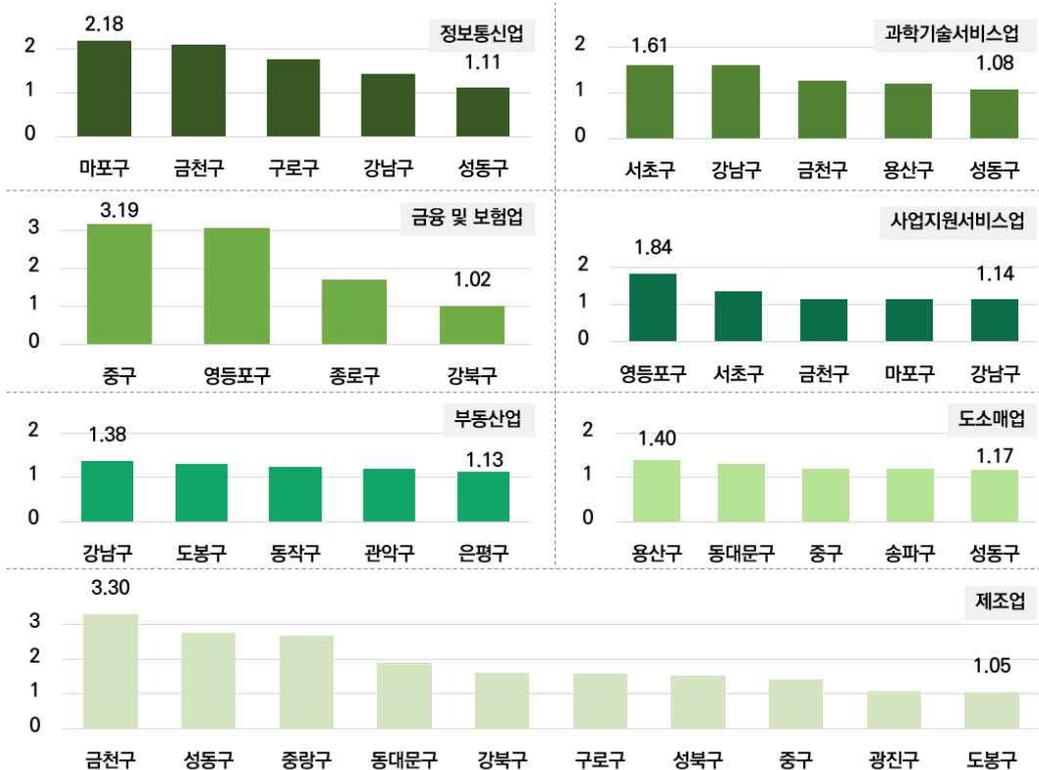


[그림 2-27] 산업별 특화도

주: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특화도를 계산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21

- 특화산업과 제조업은 일부 자치구에 집중
  - 도심권에서는 금융보험업(중구 3.19, 종로구 1.70), 도소매업(용산구 1.40, 중구 1.19), 제조업(중구 1.43), 과학기술서비스업(용산구 1.20)이 특화
  - 동북권에서는 제조업(성동구 2.76, 중랑구 2.78, 동대문구 1.90, 성북구 1.52, 강북구 1.52, 광진구 1.08, 도봉구 1.05), 도소매업(동대문구 1.31, 성동구 1.17), 부동산업(도봉구 1.30), 정보통신업(성동구 1.11)이 특화
  - 서북권에서는 정보통신업(마포구 2.18), 사업지원서비스업(마포구 1.15), 부동산업(은평구 1.13)이 특화
  - 서남권에서는 제조업(금천구 3.30, 구로구 1.59), 금융보험업(영등포구 3.06), 정보통신업(금천구 2.10, 구로구 1.76), 사업지원서비스업(영등포구 1.84, 금천구 1.16), 부동산업(동작구 1.23), 과학기술서비스업(금천구 1.28)이 특화
  - 동남권에서는 과학기술서비스업(서초구 1.61, 강남구 1.61), 부동산업(강남구 1.38), 정보통신업(강남구 1.43), 사업지원서비스업(서초구 1.36, 강남구 1.14), 도소매업(송파구 1.18)이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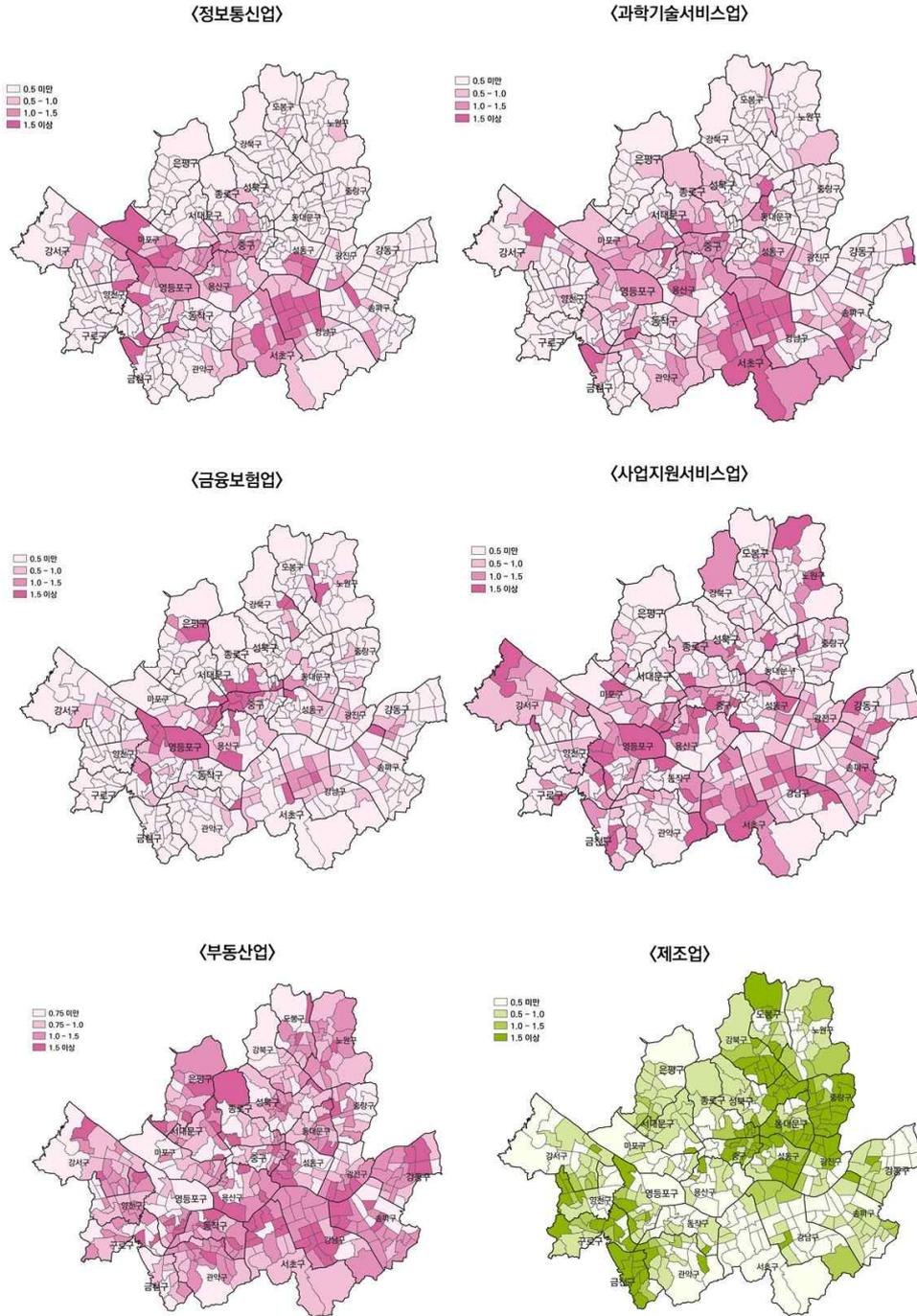


[그림 2-28] 자치구별 특화산업

주: 서울시 대비 특화도를 계산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21

- 정보통신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제조업은 일부 행정동에 집중
  - 정보통신업은 상암동(특화도 6.17), 구로3동(4.03), 잠실6동(3.45), 가산동(2.86), 목1동(2.27) 순으로 집중
  - 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가양1동(2.88), 양재2동(2.78), 양재1동(2.37), 서초3동(2.22), 역삼1동(2.22) 순으로 밀집
  - 금융보험업은 명동(5.55), 여의동(5.51), 소공동(5.40), 번1동(4.18), 상계6·7동(4.07) 등에 집중
  - 사업지원서비스업은 개봉3동(6.82), 일원2동(5.17), 오금동(3.85), 돈암2동(3.79), 원효로2동(3.35) 순으로 집중
  - 부동산업은 구로4동(4.87), 쌍문2동(3.35), 일원2동(3.25), 도봉2동(3.00), 개포2동(2.99) 등에 집중
  - 도소매업은 가락1동(4.10), 신당동(3.59), 황학동(2.69), 구로2동(2.55), 종로5·6가동(2.50) 등에 밀집
  - 제조업은 창신2동(9.42), 송인1동(8.11) 등 종로구에 밀집, 그 외 장위2동(5.94), 동화동(5.72), 면목2동(5.56) 등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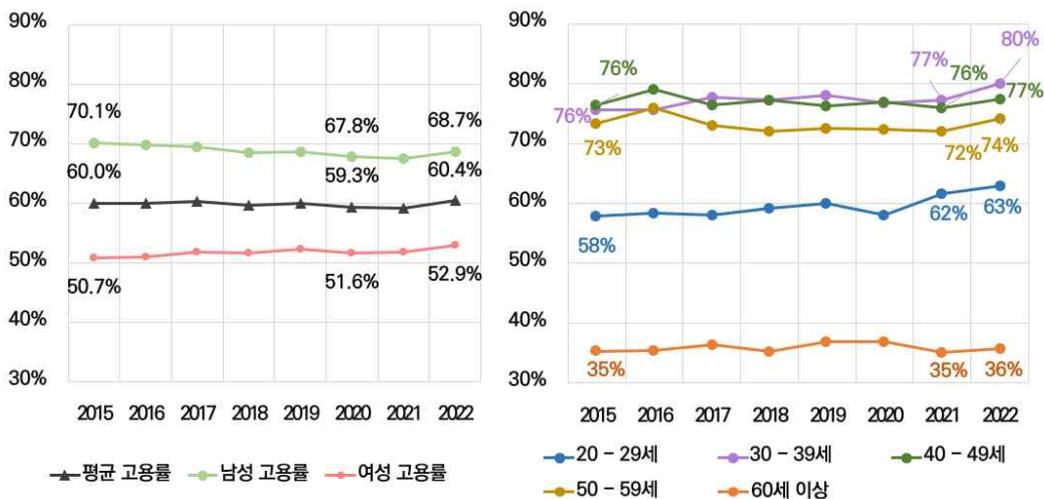
[그림 2-29] 행정동별 특화산업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 2021

### 3) 일자리 및 창업

#### (1) 일자리

- 2022년 서울시 고용률은 60.4%,  
연령별 고용률은 30대 > 40대 > 50대 > 20대 > 60대 이상 순
- 2022년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 846.5만 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529.5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2.5%
  - 서울시 고용률<sup>17)</sup>은 2015년 60.0%, 2021년 59.2%, 2022년 60.4%로 변화
- 남성 고용률 68.7%, 여성 고용률 52.9%로 차이
  - 2015년 고용률에 비해 남성은 1.4%p 감소, 여성은 2.2%p 증가
  - 2015년 이후 고용률은 2022년에 60.4%로 가장 높았고, 2021년은 59.2%로 가장 낮았음
  - 남성 고용률은 2015년 70.1%에서 2021년 67.5%로 감소, 여성 고용률은 2015년 50.7%에서 2022년 52.9%로 증가
- 연령별로 30·40대의 고용률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낮음
  - 연령별<sup>18)</sup> 고용률은 20대 63.0%, 30대 80.0%, 40대 77.4%, 50대 74.1%, 60대 이상 35.1%
  - 20대의 고용률은 2015년에 비해 5.1%p 증가하였으며, 전체 연령 중 변화폭이 컸음
  - 그 외 30대 4.4%p 증가, 40대 1.0%p 증가, 50대 0.7%p 증가, 60대 0.3%p 증가



[그림 2-30]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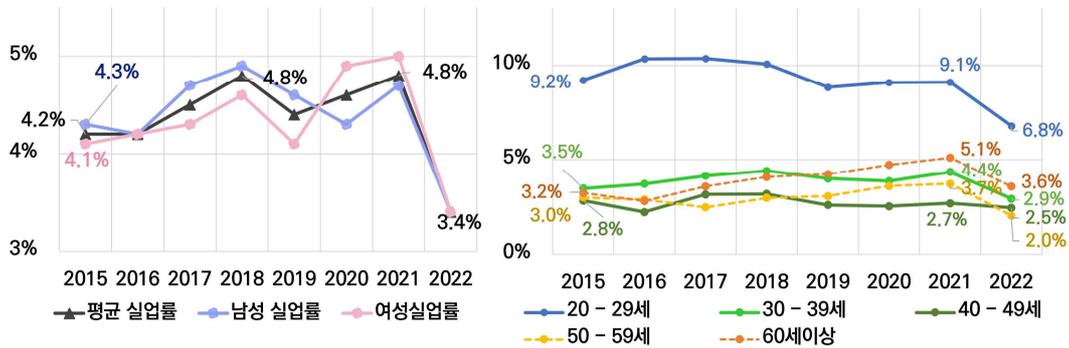
17)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18) 10대(15~19세)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2022년 서울의 10대 인구는 총 36.7만 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9.4%로, 타 연령층과 경제활동 참가 양상에 차이가 있어 진단에서 제외

○ 2022년 서울의 실업률은 3.4%,

연령별 실업률은 20대 > 60세 이상 > 30대 > 40대 > 50대 순

- 2022년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529.5만 명 중 취업자(511.3만 명)를 제외한 실업자는 18.2만 명, 2015년 이후 서울의 실업률<sup>19)</sup>은 2022년에 3.4%로 가장 낮은 수준
  - 전년도에 4.8%까지 오른 실업률에서 개선
- 남성과 여성의 실업률은 각각 3.4%
  - 남성 실업률은 2015년 4.3%에서 0.9%p 감소, 여성 실업률은 2015년 4.1%에서 0.7%p 감소
  -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남성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다가, 이후 여성 실업률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임
- 연령별 실업률은 20대가 가장 높음
  - 20대 6.8%, 30대 2.9%, 40대 2.5%, 50대 2.0%, 60세 이상 3.6%
  - 20대 실업률은 2022년 6.8%로 2015년에 비해 2.4%p 감소



[그림 2-31]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2022

<sup>19)</sup>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

## (2)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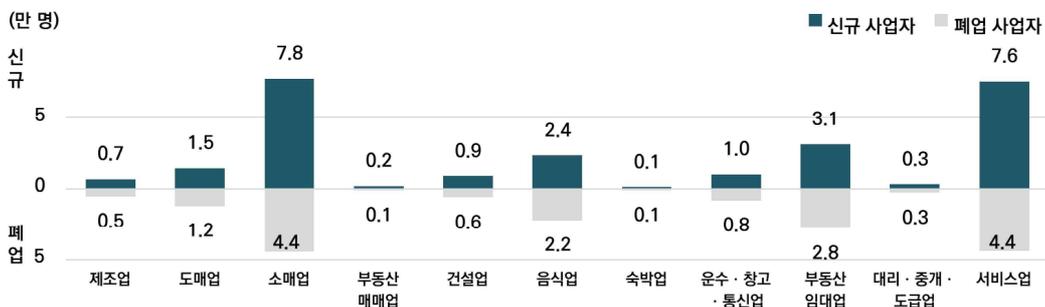
- 2022년 서울의 신규 사업자는 25.6만 명, 폐업 사업자는 17.4만 명
  - 신규 사업자는 25.6만 명으로 2015년 25.2만 명 대비 연평균 0.2% 증가
    - 전년 사업자 대비 신규 사업자의 비율은 2022년 13.0%로 2015년 17.0%보다 4.0%p 감소
  - 폐업 사업자는 2022년 17.4만 명으로 2015년 17.2만 명 대비 연평균 0.2% 증가
    - 전년 사업자 대비 폐업 사업자의 비율은 2022년 8.8%로 2015년 11.6%보다 2.8%p 감소



[그림 2-32] 신규 및 폐업 사업자의 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015~2022

- 서울의 신규 및 폐업 사업자 수가 많은 산업은 소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서울시 전체 신규 사업자 중 60.0%가 서비스업과 소매업
    - 소매업 7.8만 명(30.4%), 서비스업 7.6만 명(29.6%), 부동산임대업 3.1만 명(12.3%), 음식업 2.4만 명(9.2%), 도매업 1.5만 명(5.7%) 순
  - 전체 폐업 사업자의 50.8%는 서비스업과 소매업
    - 소매업 4.4만 명(25.4%), 서비스업 4.4만 명(25.4%), 부동산임대업 2.8만 명(15.9%), 음식업 2.2만 명(12.7%), 도매업 1.2명(6.9%) 순



[그림 2-33] 산업별 신규 및 폐업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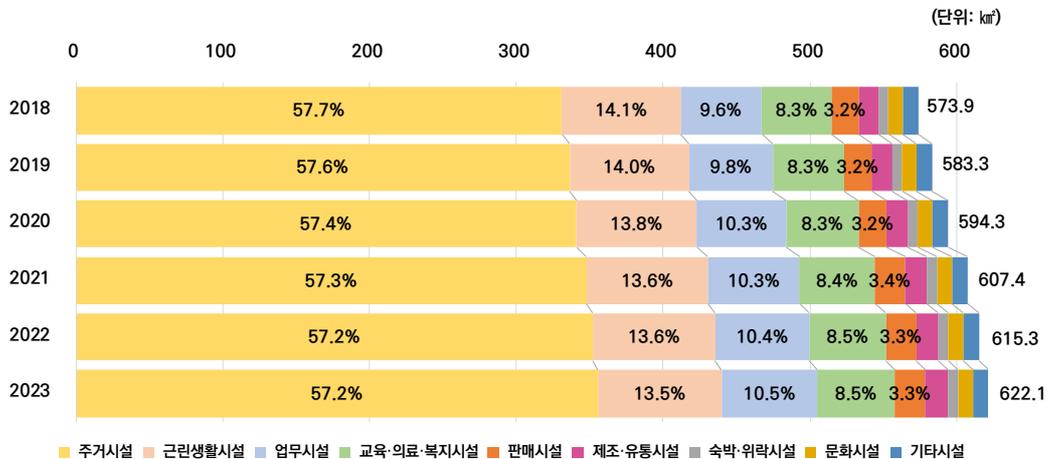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 2022

## 4\_토지이용·도시정비

### 1) 토지이용

#### (1) 용도별 연면적

- 2023년 서울시 건축물 연면적은 주거시설 57%,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10% 차지, 총 연면적은 622.1km<sup>2</sup>로 2018년 대비 8.4% 증가
  - 용도별<sup>20)</sup> 건축물은 주거시설 355.8km<sup>2</sup>(57.2%), 근린생활시설 84.1km<sup>2</sup>(13.5%), 업무시설 65.3km<sup>2</sup>(10.5%)로 구성
    - 그 외 교육·의료·복지시설 52.7km<sup>2</sup>(8.5%), 판매시설 20.6km<sup>2</sup>(3.3%), 제조·유통시설 15.7km<sup>2</sup>(2.5%), 기타시설 10.9km<sup>2</sup>(1.8%), 문화시설 10.1km<sup>2</sup>(1.6%), 숙박·위락시설 6.9km<sup>2</sup>(0.5%) 순으로 구성
  - 서울의 건축물 연면적은 622.1km<sup>2</sup>로 2018년(573.9km<sup>2</sup>) 대비 연평균 1.6% 증가
    - 연평균 증가율이 큰 용도는 업무시설(3.4%), 제조·유통시설(3.1%), 교육·의료·복지시설(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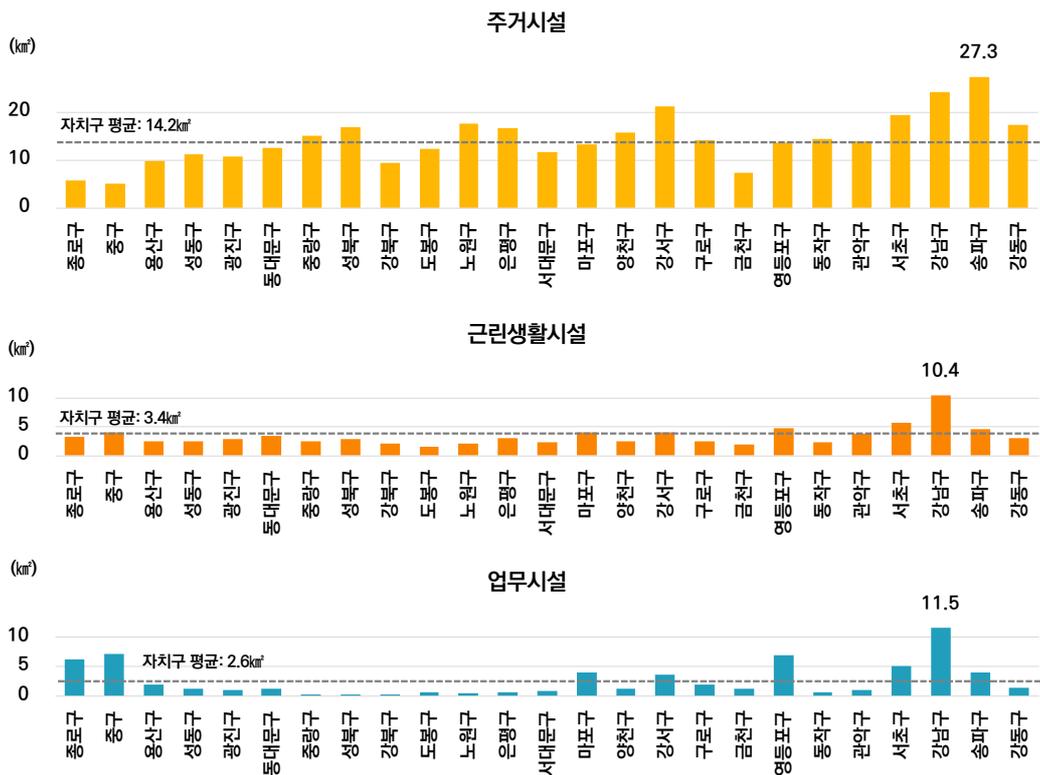
[그림 2-34]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총별개요, 2018~2023

20) 매해 8월 건축물대장의 총별개요를 활용하여 집계.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총 297개의 분류를 9개 주요 용도로 유형화

①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②근린생활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③문화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④교육·의료·복지시설(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⑤판매시설(판매시설), ⑥업무시설(업무시설), ⑦숙박·위락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⑧제조·유통시설(공장, 창고시설), ⑨기타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가설건축물, 장례시설)

- 건축물 연면적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53.4km<sup>2</sup>), 송파구(43.6km<sup>2</sup>), 강서구(37.1km<sup>2</sup>)
  - 주거시설 연면적이 큰 자치구는 송파구(27.3km<sup>2</sup>), 강남구(24.2km<sup>2</sup>), 강서구(21.2km<sup>2</sup>)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10.4km<sup>2</sup>), 서초구(5.6km<sup>2</sup>), 영등포구(4.8km<sup>2</sup>)
  - 업무시설 연면적이 큰 자치구는 강남구(11.5km<sup>2</sup>), 중구(7.1km<sup>2</sup>), 영등포구(6.9km<sup>2</sup>)



[그림 2-35] 자치구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총별개요, 2023.8.

-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은 자치구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제조·유통, 업무, 판매 숙박·위락시설은 일부 자치구에 집중
  - 주거시설은 도봉구(1.33), 노원구(1.28), 은평구(1.27), 동작구(1.27), 양천구(1.26)에서 특화
  - 근린생활시설은 강남구(1.44), 중구(1.32), 광진구(1.24), 종로구(1.23), 관악구(1.22)에서 특화
  - 업무시설은 종로구(3.07), 중구(3.04), 영등포구(2.14), 강남구(2.06), 마포구(1.49)에서 특화
  - 교육·의료·복지시설은 강동구(2.14), 서대문구(1.86), 성동구(1.77), 성북구(1.40), 노원구(1.35)에서 특화
  - 판매시설은 중랑구(3.49), 중구(2.88), 관악구(1.98), 송파구(1.51), 구로구(1.38)에서 특화

- 제조·유통시설은 금천구(13.17), 구로구(3.64), 성동구(3.60), 영등포구(2.04), 송파구(1.35)에서 특화
- 숙박·위락시설은 중구(5.82), 종로구(2.46), 강남구(1.91), 용산구(1.73), 마포구(1.36)에서 특화
- 문화시설은 종로구(2.50), 중구(1.55), 용산구(1.49), 구로구(1.46), 강남구(1.27)에서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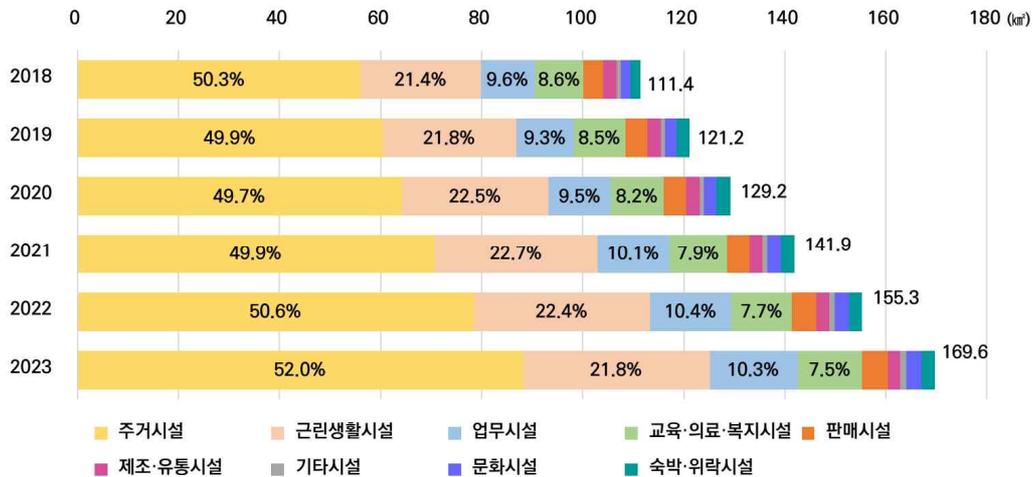
구분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의료·복지시설	판매시설	제조·유통시설	숙박·위락시설	문화시설
종로구	0.52	1.23	3.07	1.26	0.67	0.15	2.46	2.50
중구	0.40	1.32	3.04	0.69	2.88	0.30	5.82	1.55
용산구	0.97	1.03	1.02	0.60	1.35	0.22	1.73	1.49
성동구	0.92	0.85	0.57	1.77	0.57	3.60	0.21	0.88
광진구	1.08	1.24	0.56	1.23	0.69	0.05	1.17	0.73
동대문구	1.08	1.21	0.61	1.12	0.71	0.23	0.51	0.92
중랑구	1.17	0.84	0.15	0.51	3.49	0.39	0.22	0.66
성북구	1.24	0.86	0.13	1.40	0.30	0.06	0.16	1.17
강북구	1.22	1.13	0.26	0.76	0.49	0.08	1.20	1.20
도봉구	1.33	0.74	0.38	0.71	0.36	0.15	0.24	0.64
노원구	1.28	0.67	0.18	1.35	0.75	0.09	0.17	0.78
은평구	1.27	0.95	0.29	0.80	0.53	0.03	0.24	0.73
서대문구	1.09	0.93	0.44	1.86	0.26	0.03	0.91	1.11
마포구	0.92	1.19	1.49	0.78	0.42	0.21	1.36	0.80
양천구	1.26	0.85	0.52	0.74	0.38	0.22	0.05	1.02
강서구	1.00	0.81	0.93	1.32	1.37	0.93	0.63	0.71
구로구	0.99	0.72	0.79	0.64	1.38	3.64	0.47	1.46
금천구	0.69	0.77	0.61	0.52	0.87	13.17	0.50	0.29
영등포구	0.78	1.15	2.14	0.47	1.17	2.04	1.28	1.02
동작구	1.27	0.82	0.34	1.07	0.34	0.04	0.18	0.77
관악구	1.04	1.22	0.42	1.26	1.98	0.03	0.61	0.65
서초구	0.94	1.14	1.37	0.96	0.89	0.07	0.90	1.02
강남구	0.79	1.44	2.06	0.69	0.53	0.10	1.91	1.27
송파구	1.09	0.77	0.86	0.73	1.51	1.35	1.00	0.94
강동구	1.08	0.80	0.48	2.14	0.52	0.07	0.29	0.72

[그림 2-36] 자치구별 건축물 용도 특화도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총별개요, 2023.8.

## (2) 노후 건축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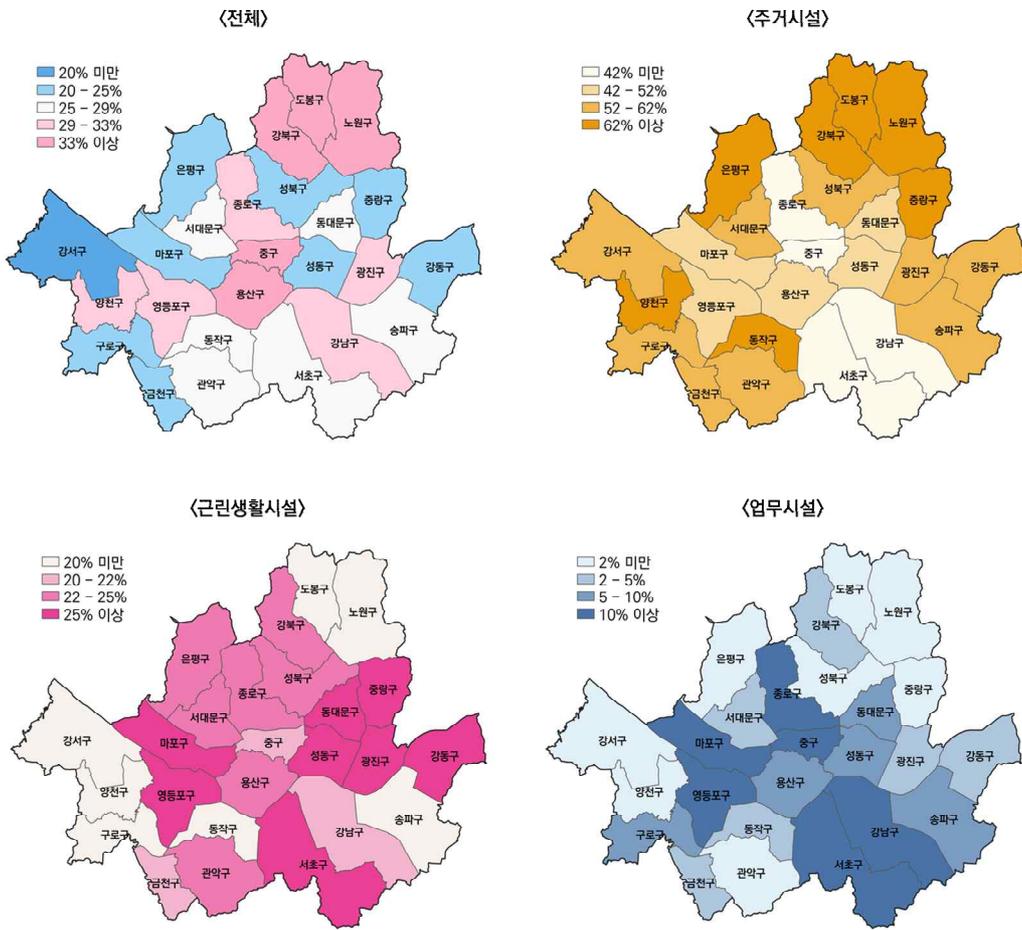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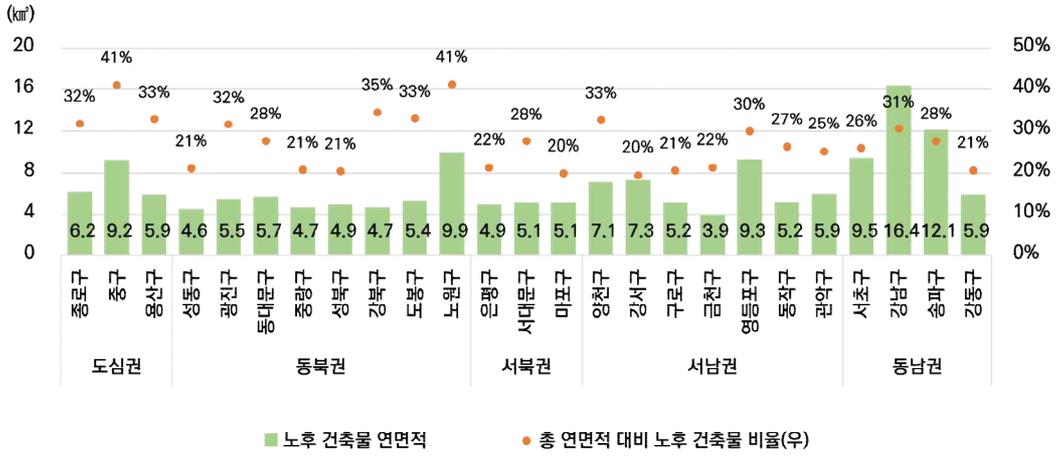
- 2023년 서울의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연면적은 전체의 27.3%(169.6km<sup>2</sup>) 차지
  - 노후 건축물 연면적은 169.6km<sup>2</sup>로 2018년 111.4km<sup>2</sup>에서 연평균 8.8% 증가
    - 노후 연면적 증가율이 큰 용도는 업무시설(10.3%), 문화시설(10.0%), 주거시설(9.5%), 기타시설(9.2%), 근린생활시설(9.2%)
  - 노후 건축물 비율은 주거시설 52.0%(88.2km<sup>2</sup>), 근린생활시설 21.8%(36.9km<sup>2</sup>), 업무시설 10.3%(17.4km<sup>2</sup>)로 구성
    - 그 외 노후 건축물 비율은 교육·의료·복지시설 7.5%(12.7km<sup>2</sup>), 판매시설 3.0%(5.1km<sup>2</sup>), 문화시설 1.7%(3.0km<sup>2</sup>), 숙박·위락시설 1.5%(2.6km<sup>2</sup>), 제조·유통시설 1.4%(2.4km<sup>2</sup>), 기타시설이 0.7%(1.3km<sup>2</sup>)를 차지
  - 동일 용도 내 노후 연면적 비율이 높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43.9%), 숙박·위락시설(38.2%), 문화시설(29.3%)
    - 업무시설(26.7%), 주거시설(24.8%), 판매시설(24.6%), 교육·의료·복지시설(24.1%) 순, 제조·유통시설(15.5%), 기타시설(11.6%) 등은 평균 노후 비율보다 낮음



[그림 2-37] 노후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표제부, 20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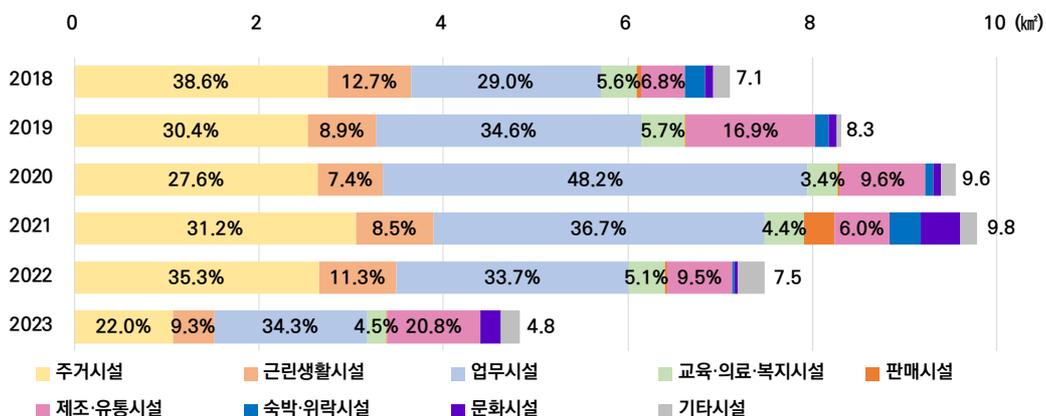
- 노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노원구(41.4%), 중구(41.3%), 강북구(34.7%), 도봉구(33.2%), 용산구(33.1%) 순으로 나타남
  - 노후 건축물 중 주거시설 비중이 큰 자치구는 노원구(77.6%), 도봉구(75.8%), 양천구(70.9%), 동작구(69.8%), 은평구(67.5%)
  - 근린생활시설 비중이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34.2%), 성동구(29.3%), 중랑구(29.0%), 마포구(28.9%), 광진구(25.9%)
  - 업무시설 비중이 큰 자치구는 중구(38.7%), 종로구(28.7%), 강남구(23.5%), 영등포구(20.1%), 서초구(19.8%)



[그림 2-38] 자치구별 노후 건축물 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표제부, 2023.8.

### (3) 신축 허가 연면적

- 2018년 이후 서울 신축 허가 연면적은 47.1km<sup>2</sup>, 2023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7.6%
  -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서울 신축 허가 연면적<sup>21)</sup>은 47.1km<sup>2</sup>이며, 업무시설 17.3km<sup>2</sup> (36.8%), 주거시설 14.7km<sup>2</sup>(31.2%), 제조·유통시설 5.1km<sup>2</sup>(10.9%)로 구성
    - 그 외 신축 허가 연면적은 근린생활시설 4.5km<sup>2</sup>(9.5%), 교육·의료·복지시설 2.2km<sup>2</sup> (4.7%), 기타시설 1.1km<sup>2</sup>(2.3%), 문화시설 0.9km<sup>2</sup>(2.0%), 숙박·위락시설 0.8km<sup>2</sup> (1.8%), 판매시설 0.5km<sup>2</sup>(1.0%)로 나타남
  - 2023년 서울 신축 허가 연면적은 4.8km<sup>2</sup>, 2018년(7.1km<sup>2</sup>)에 비해 32.1% 감소
    - 신축 허가가 감소한 용도는 숙박·위락시설, 판매시설, 신축 허가가 증가한 용도는 문화시설, 제조·유통시설 등임
  - 동일 용도 내 신축 허가 연면적 비율이 높은 용도는 제조·유통시설(32.5%), 업무시설 (26.5%), 숙박·위락시설(12.1%)
    - 그 외 기타시설 9.8%, 문화시설 9.1%, 근린생활시설 5.3%, 교육·의료·복지시설 4.2%, 주거시설 4.1%, 판매시설 2.2%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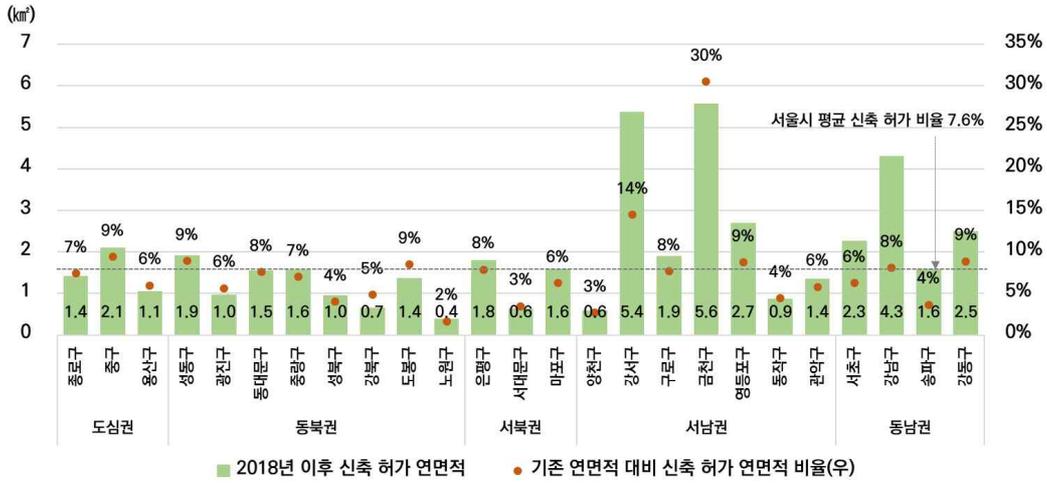


[그림 2-39] 건축물 용도별 신축 허가 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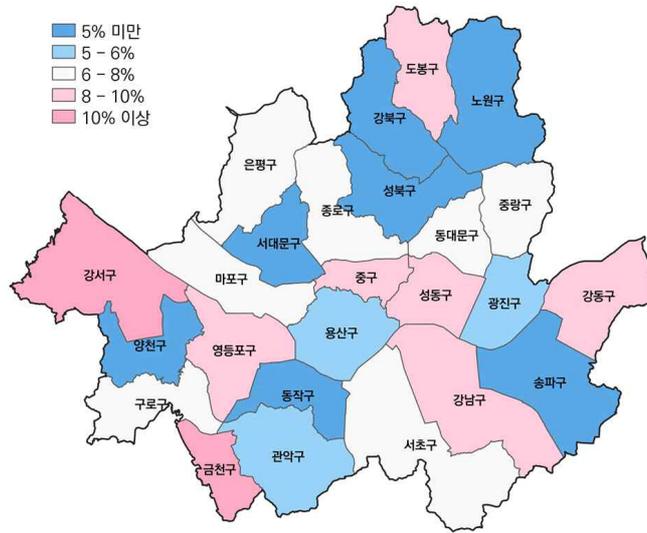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 신축 허가 연면적이 큰 자치구는 금천구(5.6km<sup>2</sup>), 강서구(5.4km<sup>2</sup>), 강남구(4.3km<sup>2</sup>), 영등포구(2.7km<sup>2</sup>), 강동구(2.5km<sup>2</sup>)
  - 전체 연면적 대비 신축 허가 연면적 비율이 큰 자치구는 금천구(30.5%), 강서구 (14.5%), 중구(9.4%), 성동구(8.9%), 강동구(8.9%) 순

21) '용도별 연면적'과 동일한 용도 분류를 따르며 대장에 기입된 주용도를 기준으로 집계



(자치구별 기존 연면적 대비 신축허가 연면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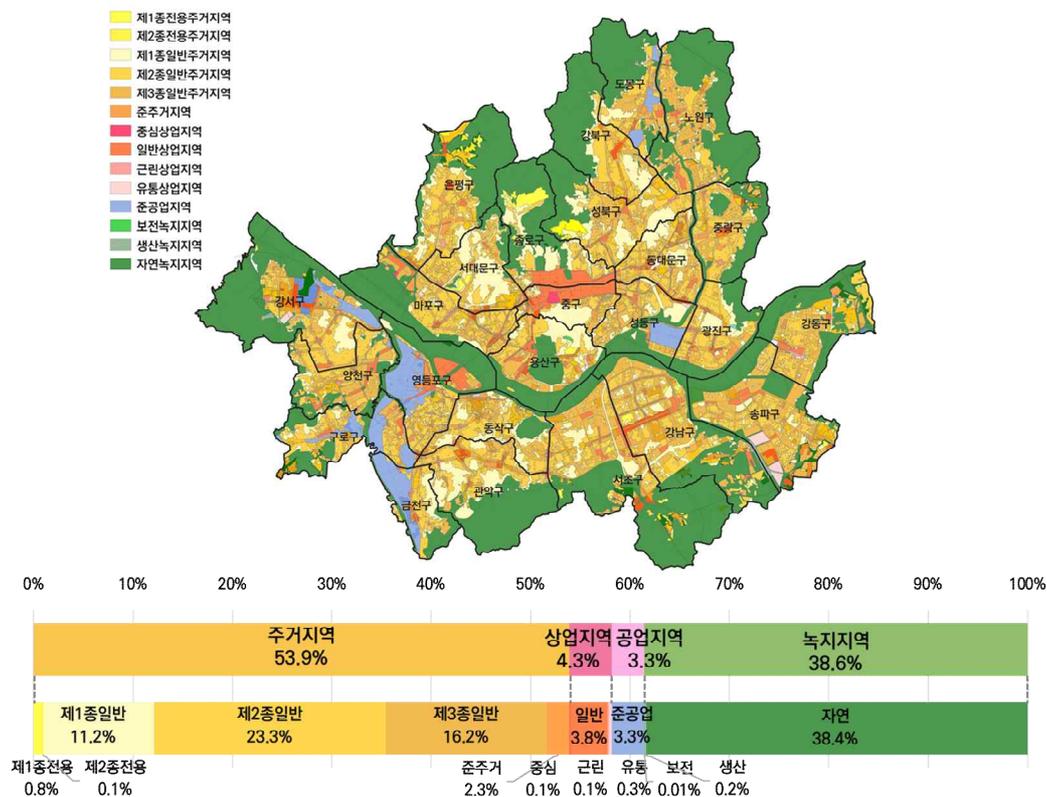
[그림 2-40] 자치구별 신축 허가 연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건축물대장, 2023.8.

##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 (1) 용도지역

- 서울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53.9% 상업지역 4.3%, 준공업지역 3.3%, 녹지지역 38.6%로 구성
  - 2022년 주거지역은 326.4km<sup>2</sup>, 상업지역 25.8km<sup>2</sup>, 준공업지역 19.9km<sup>2</sup>, 녹지지역 233.5km<sup>2</sup> 지정
  - 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43.2%, 제3종일반주거지역 30.1%, 제1종일반주거지역 20.7%, 준주거지역 4.2%, 제1종전용주거지역 1.5%, 제2종전용주거지역 0.3%로 구성
  -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 89.3%, 유통상업지역 5.9%, 근린상업지역 3.4%, 중심상업지역 1.4%로 구성
  - 서울시는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만 지정.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남권에 주로 분포
  -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 99.5%, 생산녹지지역 0.5%, 보전녹지지역 0.03%로 구성



[그림 2-41] 용도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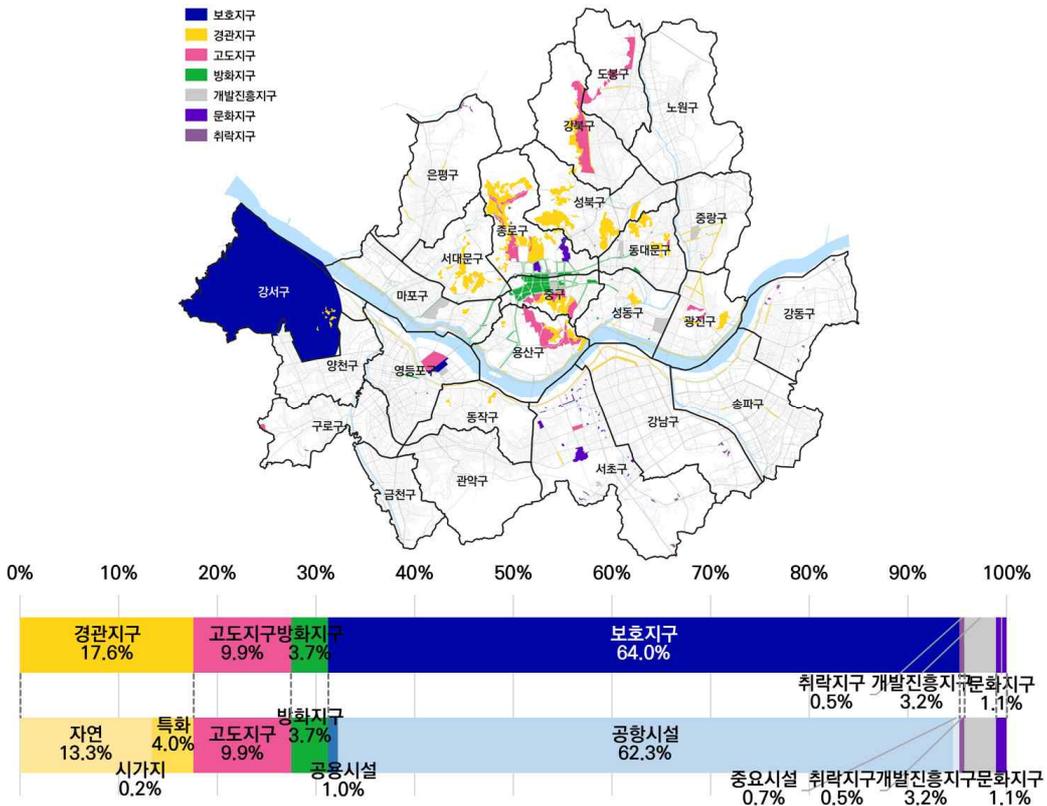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용도지역 현황, 2022

## (2) 용도지구

○ 서울시 용도지구 면적은 92.9km<sup>2</sup>로 전체 면적의 15.3% 차지

- 2022년 용도지구는 보호지구 59.5km<sup>2</sup>(64.0%), 경관지구 16.3km<sup>2</sup>(17.6%), 고도지구 9.2km<sup>2</sup>(9.9%), 방화지구 3.4km<sup>2</sup>(3.7%), 개발진흥지구 3.0km<sup>2</sup>(3.2%), 문화지구 1.0km<sup>2</sup>(1.1%), 취락지구 0.5km<sup>2</sup>(0.5%) 순으로 지정

- 보호지구는 용도지구 중 가장 많은 면적(64.0%)을 차지하며 공항시설(62.3%), 공용시설(1.0%), 중요시설(0.7%)로 구성. 주로 강서구와 양천구에 집중 분포
- 경관지구는 자연(13.3%), 특화(4.0%) 시가지(0.2%)로 구성.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에 분포
- 고도지구는 주요 산(남산, 북한산)이나 시설물(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에 위치
- 방화지구는 50% 이상이 중구에 위치
- 개발진흥지구는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등 동일 산업이 밀집한 특정 지역에 위치
- 문화지구는 전통문화, 공연예술문화, 음악문화진흥을 위해 지정되어 있으며 종로구, 서초구에 위치
- 취락지구는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등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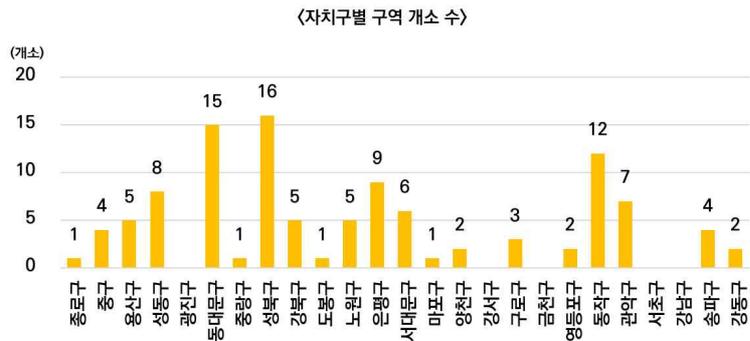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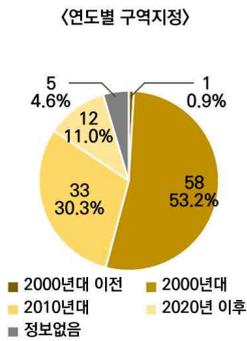
[그림 2-42] 용도지구 현황  
 자료: 서울시, 용도지구 현황, 2022



### 3) 정비사업

####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

- 서울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총 109개소, 2020년 이후 구역지정은 12개소 (11.0%)
  - 2023년 9월 기준, 구역 지정 단계는 6개소(5.5%), 조합 설립 인가 구역은 34개소 (31.2%), 착공한 구역은 24개소(22.0%)임
    - 그 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3개소(2.8%), 건축 심의가 이행된 구역은 2개소(1.8%), 사업 시행이 인가된 구역은 18개소(16.5%),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22개소(20.2%)
  - 구역 지정은 2000년대에 58개소(53.2%)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대 33개소 (30.3%), 2020년 이후 12개소(11.0%), 2000년대 이전 1개소(0.9%) 등
    - 2023년 신규 지정된 구역은 6개소(5.5%)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성북구 16개소, 동대문구 15개소, 동작구 12개소 순으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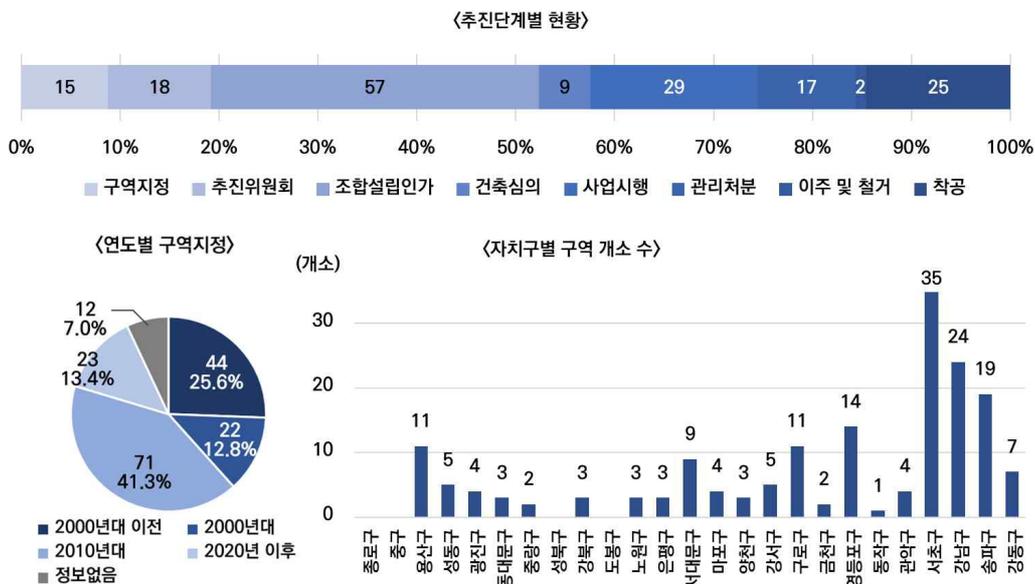


[그림 2-44]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

자료: 서울시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통계, 2023.9.

## (2)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 서울의 재건축사업구역은 총 172개소, 2020년 이후 구역지정은 23개소(13.4%)
  - 2023년 9월 기준, 구역 지정 단계는 15개소(8.7%), 조합 설립 인가 구역은 57개소(33.1%), 착공한 구역은 25개소(14.5%)
    - 그 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은 18개소(10.5%), 건축 심의가 이행된 구역은 9개소(5.2%), 사업 시행이 인가된 구역은 29개소(16.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구역은 17개소(9.9%),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구역은 2개소(1.2%)
  - 구역 지정은 2010년대에 71개소(41.3%)로 가장 많았으며, 2000년대 이전 44개소(25.6%), 2020년 이후 23개소(13.4%), 2000년대 22개소(12.8%) 등
    - 2023년 신규 지정은 5개소(2.9%)
  - 재건축사업구역은 서초구 35개소, 강남구 24개소, 송파구 19개소 순으로 지정되었음



[그림 2-45] 재건축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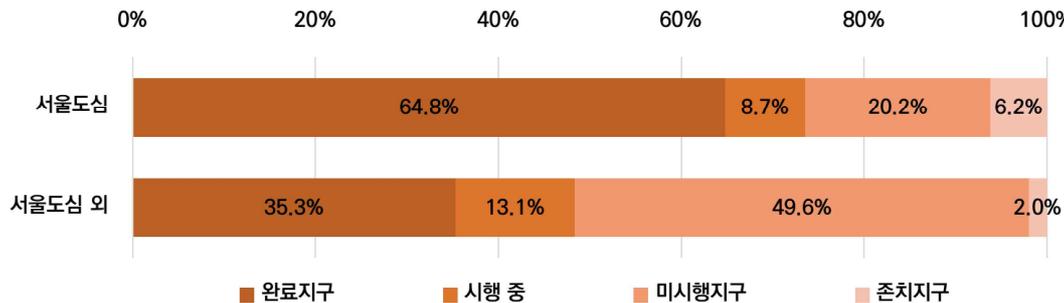
자료: 서울시 주택정책실, 정비사업 통계, 2023.9.

###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서울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은 총 75개소, 사업의 미시행율은 34.9%
  - 2022년 기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75개 구역(528개 지구) 지정, 면적은 총 280.5ha이며 서울도심에 42개소, 서울도심 외(마포로, 영등포, 청량리, 용산, 신촌 등) 34개소 위치<sup>22)</sup>
    - 서울도심에 지정된 지구는 309개(140.3ha), 그 외 지정된 지구는 219개(140.2ha)
    - 이 중 존치지구는 57개(11.5ha)로 서울도심에 39개(8.7ha), 그 외 18개(2.8ha) 지정
  - 전체 지정 면적의 50.1%(140.4ha)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10.9%(30.5ha)가 시행 중.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는 98.0ha로 미시행율은 34.9%
    - 서울도심에 지정된 지구 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90.9ha(64.8%), 시행 중인 지구 12.2ha(8.7%), 미시행지구는 28.4ha(20.2%)
    - 서울도심 외 지정된 지구 중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49.5ha(35.3%), 시행 중인 지구 18.3ha(13.1%), 미시행지구는 69.6ha(49.6%),
    - 미시행율은 기타지역(연신내, 봉천, 그 외 문래·성수 등 준공업지역, 96.1%), 영등포(70.2%), 신촌(66.7%), 청량리(48.7%), 용산(40.2%), 서울도심(20.2%), 마포로(13.9%) 순으로 높음

[표 2-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황

구분	구역지정(ha)	완료지구(ha)	시행 중(ha)	미시행지구(ha)	존치지구(ha)	미시행율
서울도심	140.3	90.9	12.2	28.4	8.7	20.2%
서울도심 외	140.2	49.5	18.3	69.6	2.8	50.0%
마포로1~5	36.1	28.8	2.2	5	0.1	13.9%
영등포	30.2	0	9	21.2	0	70.2%
청량리	3.9	2.1	0	1.9	0	48.7%
용산	42.3	18.6	5.5	17	1.1	40.2%
신촌	7.2	0	0.8	4.8	1.6	66.7%
기타	20.5	0	0.8	19.7	0	96.1%
계	280.5	140.4	30.5	98	11.5	34.9%



자료: 서울특별시, 202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sup>22)</sup> 마포로5구역은 서울도심 경계부에 위치하여 양쪽에 중복 집계, 이하 지구 단위는 중복없이 서울도심 내·외로 분류

## 5\_교통

### 1) 통행량

#### (1) 기·종점별 통행량

- 2021년 서울의 일평균 통행량은 3,116만 건, 2016년에 비해 171만 건 증가
  - 서울시 통행량은 내부 통행량<sup>23)</sup> 2,445만 건(78.5%), 유입 통행량<sup>24)</sup> 324만 건 (10.4%), 유출 통행량<sup>25)</sup> 347만 건(11.1%)
  - 2016년에 비해 서울시 내부 통행은 증가, 그 외 지역으로의 유입·유출 통행은 감소
    - 내부 통행은 총 255만 건 증가. 내부 통행 중 권역 내 통행은 374만 건(연평균 4.2%) 증가, 권역 간 통행은 119만 건(4.6%) 감소
    - 유입 통행은 총 52만 건 감소, 유입 통행 중 경기·인천에서 유입된 통행은 44만 건(2.7%) 감소,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동한 통행은 8만 건(6.1%) 감소
    - 유출 통행은 총 32.0만 건 감소, 유출통행 중 경기·인천으로 유출된 통행은 39만 건(2.4%),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한 통행은 7만 건(4.0%) 증가



[그림 2-46] 서울시 통행량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2016·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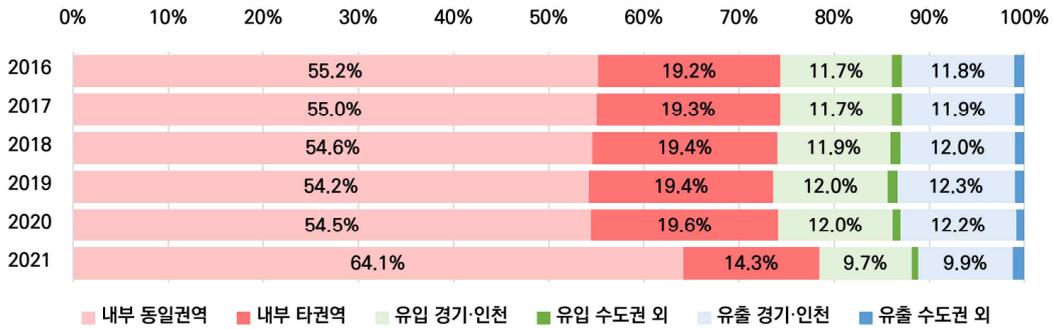
- 2021년 서울시 통행 중 동일권역 내 이동이 가장 큰 비중(64.1%)을 차지
  - 2021년 서울시 통행량 중 기·종점별 구성비는 내부 통행 > 유입 통행 > 유출 통행 순
    - 서울시 권역 내 통행량은 전체의 64.1%, 권역 간 통행량은 14.3%
    - 서울로의 유입 통행량 중 경기·인천에서 출발한 비율은 전체의 9.7%,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출발한 비율은 0.7%
    - 서울에서의 유출 통행량 중 경기·인천을 도착지로 하는 비율은 전체의 9.9%, 수도권 외 지역 비율은 1.3%

23) 기점과 종점이 모두 서울시 내부인 통행량

24) 기점이 서울 외부(경기·인천, 수도권 외 지역)이고, 종점이 서울시 내부인 통행량

25) 기점이 서울시 내부이고, 종점이 서울 외부(경기·인천, 수도권 외 지역)인 통행량

- 2021년 통행은 2016년에 비하여 내부 통행 비율 증가, 유입·유출 통행 비율은 감소
  - 서울시 내부통행의 비중은 4.1%p 증가, 특히 동일권역 내 이동은 8.9%p 증가, 타 권역 간 이동은 4.9%p 감소
  - 서울 유입 통행은 2.4%p 감소, 경기·인천에서의 유입은 2.1%p 감소,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유입은 0.3%p 감소
  - 서울 유출 통행은 1.7%p 감소, 경기·인천으로의 유출 1.9%p 감소,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유출은 0.2%p 증가



[그림 2-47] 서울시 통행량의 기·종점별 구성비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현행화 공동사업, 2016~2021

### ✔ 통행량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5년마다 실시하는 통행량 전수화조사는 2016년까지 가구 방문조사와 일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202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팬데믹에 따라 설문 방법으로 온라인조사, 전화조사를 채택, 자료 수집단위는 가구조사에서 개인조사로 변경
  - 표본 추출은 2010년에 읍면동의 통/반, 2016년에 조사구(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를 기준으로 하다가, 2021년에 SKT 통신사 가입자로 전환
  - 통행의 목적 구분도 2010년 10개에서 2016년 12개로 세분화(여가/오락/외식/친지방문에서 외식, 친지방문을 개별 범주화), 2021년에는 병원진료를 추가하여 총 13개의 목적으로 구분

통행량 조사 시기별 조사방법 비교

구분	2010	2016	2021
조사대상	가구조사	가구조사	개인조사
조사방법	가구방문조사	가구방문조사, 거점조사, 온라인조사	온라인조사, 전화조사(고연령층)
조사원	행정조직(통반장)을 이용	조사업체에 고용한 전문조사원	Self-Survey, 조사업체의 전화조사원
표본추출틀	읍면동의 통/반	조사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SKT 통신사 가입자

출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22, 「2022년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 '일러두기' 발췌

## (2) 목적별 통행 비율

○ 2021년 서울시 전체 통행량의 목적별<sup>26)</sup> 통행 비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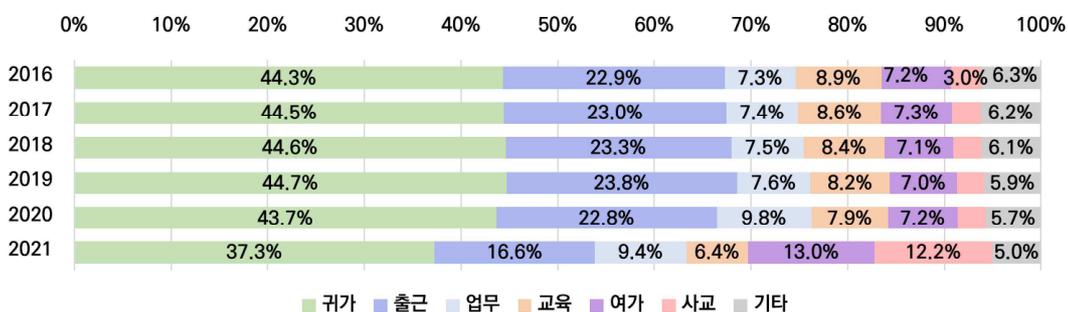
귀가 > 출근 > 여가 > 사고 > 업무 > 교육 > 기타 순

- 서울 중점 통행량의 목적별 구성비는 귀가 37.3%, 출근 16.6%, 여가 13.0%, 사고 12.2, 업무 9.4%, 교육 6.4%, 기타 5.0%

- 서울시 일평균 목적별 통행량은 귀가 1,161.0만 건, 출근 517.4만 건, 여가 406.5만 건, 사고 380.7만 건, 업무 294.2만 건, 교육 199.3만 건, 기타 157.0만 건

- 2016년에 비해 사고, 업무, 여가 등의 목적 통행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목적 통행 비율은 모두 감소<sup>27)</sup>

- 사고(9.2%p), 업무(2.1%p), 여가(5.8%p) 통행 비율은 증가, 귀가(7.1%p), 출근(6.3%p), 교육(2.5%p), 기타(1.2%p) 통행 비율은 감소



[그림 2-48] 서울시 목적별 통행비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중점통행량 전수화/현행화 공동사업, 2016~2021

### 출발 또는 도착지점에 따라 사람들의 통행 목적은 어떤 특성을 갖나요?

○ 서울을 도착지로 하는 통행은 출근-여가-사고, 경기·인천은 출근-업무-사고, 수도권 외 지역은 여가-업무-사고 순(귀가 목적 제외)

- 서울을 중점으로 하는 통행은 출근 외에 여가와 사고 비율이 높음

- 목적별 통행량은 귀가 979.1만 건(35.4%), 출근 462.6만 건(16.7%), 여가 371.3만 건(13.6%), 사고 351.3(12.7%), 업무 259.7만 건(9.4%), 기타 145.7만 건(5.3%), 교육 195.4(7.1%) 순

- 경기·인천이 중점인 통행은 출근 외에 업무와 사고의 비율이 높음

- 목적별 통행량은 귀가 164.1만 건(53.3%), 출근 53.2만 건(17.3%), 업무 28.6만 건(9.3%), 사고 25.4만 건(8.3%), 여가 24.4만 건(7.9%), 기타 9.1만 건(2.9%), 교육 2.9만 건(1.0%) 순

- 수도권 외 지역이 중점인 통행은 출근 비율이 낮고, 여가, 업무 비율이 높음

26) 수도권 여객 기·중점통행량자료에서는 목적을 세부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7개로 단순화('교육' 목적 통행은 등교와 학원 목적 통행을 통합, '업무' 목적 통행은 업무와 귀사 목적 통행을 통합, '여가' 목적 통행은 쇼핑과 여가/운동/관광/레저 목적 통행을 통합, '사고' 목적 통행은 배웅, 외식, 친지방문 목적 통행을 통합)하였음

27) 「2022년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의 조사는 통신데이터 검증으로 출근, 등교, 귀가와 같은 주요 목적 외에 발생하는 통행에 대해 보다 상세히 조사함에 따라 사고, 업무, 여가 통행량이 이전 조사보다 증가

- 목적별 통행량은 귀가 17.8만 건(45.3%), 여가 6.8만 건(17.3%), 업무 6.0만 건(15.2%), 사고 4.0만 건(10.2%), 기타 2.2만 건(5.6%), 출근 1.6만 건(4.2%), 교육 0.9만 건(2.3%) 순



중점별 목적통행의 비율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중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2021

- 서울로 오는 통행 중 같은 권역 내 통행은 여가-사고 비율 높음. 경기·인천발 통행은 출근-업무-사고, 수도권 외 지역발 통행은 업무-사고-기타 순(귀가 목적 제외)
  - 서울시 같은 권역 내 목적통행은 여가와 사고의 비율이 높으며, 쇼핑, 운동, 외식 등을 위하여 같은 권역 내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
    - 권역 내 통행의 목적별 통행은 귀가(35.7%), 여가(15.7%), 사고(14.1%), 출근(10.5%), 업무(9.3%), 교육(8.9%), 기타(5.9%) 순
  - 서울시 내 다른 권역 간 통행하는 목적은 출근, 사고, 업무, 여가 등의 비율이 높음
    - 권역 간 통행의 목적은 귀가(37.5%), 출근(29.3%), 사고(9.2%), 업무(9.0%), 여가(8.8%), 기타(3.6%), 교육(2.1%) 순
  -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통행하는 목적은 출근이 가장 많음
    - 경기·인천 유입통행의 목적은 출근(40.6%), 귀가(27.8%), 업무(10.3%), 사고(3.7%), 여가(6.7%), 기타(3.4%), 교육(2.1%) 순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통행하는 목적은 업, 사고 비율이 높고 출근 비율이 낮음
    - 수도권 외 유입통행의 목적은 귀가(59.7%), 업무(15.4%), 사고(11.3%), 기타(5.8%), 여가(5.4%), 출근(1.3%), 교육(1.0%) 순



서울 중점통행의 기점별 목적통행비율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중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2021

## 2) 통행특성

### (1) 교통수단별 분담률

- 2021년 서울시 교통 분담률은 버스 및 지하철 52.9%, 승용차 38.0%
  - 서울의 일평균 버스 및 지하철·철도 통행량은 1,262.3만 건
    - 서울시 일평균 통행량 2,387.4만 중 분담률은 지하철·철도 28.0% (668.7만 건), 버스 24.9%(593.6만 건), 승용차 38.0%(906.8만 건), 택시 3.7% (88.0만 건), 기타 5.5%(130.3만 건)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전체 통행량은 2019년 대비 828.8만 건/일 (연평균 13.8%) 감소
    - 교통수단별 통행량은 2019년 대비 지하철·철도 668.5만 건(29.3%), 버스 178.3만 건(12.3%), 택시 94.6만 건(30.6%), 기타 6.2만 건(2.3%) 감소
    - 승용차의 통행량은 118.8만 건(7.3%) 증가, 승용차의 수단분담률은 13.5%p 증가



[그림 2-49] 교통수단별 통행량 및 분담률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1일 교통수단별 통행현황 통계, 2016~2021

### ❖ 서울시 내에서 이동하는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어떤가요?

- 2022년 서울 내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는 23.1km/h, 2018년보다 소폭 감소
  - 시간대별 속도는 오전 24.8km/h, 낮 22.9km/h, 오후 20.3km/h로, 출근 시간대 보다는 퇴근 시간대의 정체가 더 심한 편
    - 2018년과 비교하였을 때, 오전 평균속도는 1.6km/h 감소, 낮 평균속도 1.1km/h 감소, 오후 평균속도 0.3km/h 감소
  - 도로 위계별 평균 통행속도는 도시고속도로 51.8km/h, 주간선도로 24.0km/h, 보조간선도로 21.3km/h
    - 도시고속도로의 통행속도는 시간대별로 오전 52.2km/h, 낮 54.3km/h, 오후 40.1km/h
    - 주간선도로의 통행속도는 오전 26.4km/h, 낮 23.6km/h, 오후 20.6km/h
    - 보조간선도로의 통행속도는 오전 22.9km/h, 낮 21.1km/h, 오후 19.0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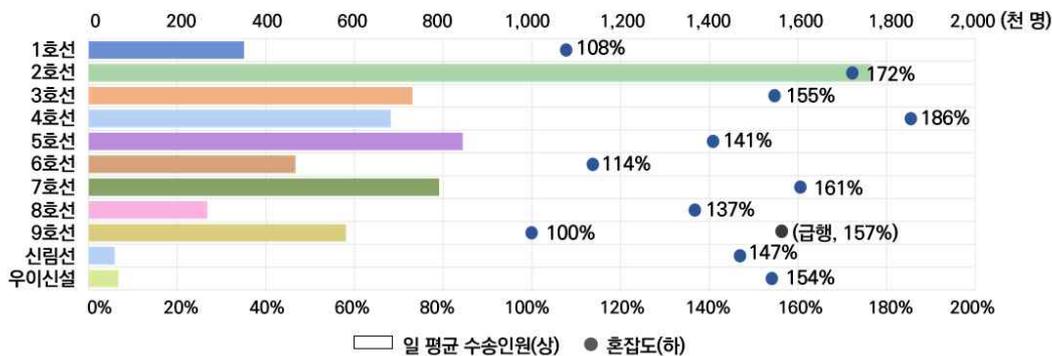
#### 서울시 목적별 통행비

주: 평균평행속도 측정시간대 6~22시, 오전 7~9시, 낮 12~14시, 오후 18~20시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실, 승용차통행속도 통계, 2018~2022

### 3) 대중교통

#### (1) 지하철 이용인원 및 혼잡도

- 2022년 서울시 지하철의 1일 평균 이용인원은 661.1만 명,  
노선별 일평균 이용인원은 2호선 > 5호선 > 7호선 > 3호선 > 4호선 순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2021년 이용인원이 감소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2022년부터는 점차 이용인원 증가
    -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1.8% 소폭 증가,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7.3% 감소
    -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이용인원은 2021년 대비 12% 증가
  - 노선별 일평균 이용인원은 2호선이 전체의 약 26.7%로 가장 많음
    - 2호선 176.7만 명(총 수송 인원 중 노선별 비율, 26.7%), 5호선 84.4만 명(12.8%), 7호선 79.1만 명(12.0%), 3호선 73.1만 명(11.1%), 4호선 68.2만 명(10.3%), 9호선 58.1만 명(8.8%), 6호선 46.7만 명(7.1%), 1호선 35.1만 명(5.3%), 8호선 26.8만 명(4.1%), 우이신설선 6.8만 명(1.0%), 신림선 6.0만 명(0.9%) 순
- 지하철의 전체 노선 혼잡도<sup>28)</sup>는 2022년 평균 146%, 2021년 대비 19.8%p 증가
  - 노선별 최대 혼잡도는 4호선이 가장 높고, 9호선(일반열차 기준)이 가장 낮음
    - 혼잡도는 4호선 186%, 2호선 172%, 7호선 161%, 3호선 155%, 우이신설선 154%, 신림선 147%, 5호선 141%, 8호선 137%, 6호선 114%, 1호선 108%, 9호선 100% 순
  - 2021년 대비 노선별 혼잡도는 9호선이 45%p 감소, 4호선 34.7%p 증가
    - 노선별 혼잡도는 4호선 34.7%p, 7호선 33.6%p, 1호선 23.8%p, 우이신설선 23.4%p, 2호선 22.9%p, 3호선 14.2%p, 5호선 8.7%p, 8호선 2.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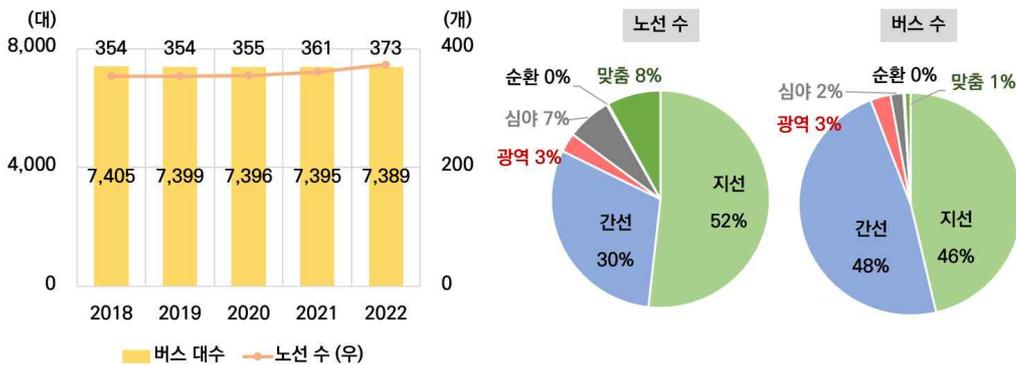
[그림 2-50] 지하철 이용 현황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지하철 운행현황 통계, 2022

<sup>28)</sup> 혼잡도는 열차 1량당 정원 대비 이용승객 인원으로, 승차인과 좌석 수가 일치하는 경우를 혼잡도 34%로 산정.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혼잡도는 노선별 가장 혼잡한 역의 오전점두시간대 평균을 기준으로 함

## (2) 버스노선 및 차량 수

- 2022년 서울에서 운영 중인 버스 노선은 373개, 차량은 7,389대
  - 버스 노선은 2018년에 비해 19개가 늘었고, 차량은 16대가 감소
  - 간선 및 지선버스가 노선과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
    - 노선은 지선 235개(51.8%), 간선 138개(30.5%), 광역 13개(2.9%), 맞춤 36개(8.0%), 심야 30개(6.6%), 순환 1대(0.2%) (2023년 8월 기준<sup>29)</sup>)
    - 노선별 버스는 간선 3,426대(46.3%, 노선별 평균 15대), 지선 3,539대(47.9%, 26대), 광역 214대(2.9%, 16대), 심야 139대(1.9%, 5대), 맞춤 62대(0.8%, 2대), 순환 14대(0.2%, 14대)가 운행 중(2023년 8월 기준)
    - 지선과 순환버스의 노선은 감소, 맞춤버스의 노선이 증가 추세



[그림 2-51] 버스 현황

자료: 서울시 도시교통실, 시내버스현황, 2018~2022;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 TOPIS, 서울시 버스운행노선 현황, 2023.8.

## 4) 녹색교통

### (1) 저공해자동차 등록 대수

- 2022년 등록된 서울시 저공해자동차는 23.2만 대, 2018년부터 연평균 17.2% 증가
  - 서울시 등록 차량 319.3만 대 중 저공해자동차<sup>30)</sup>는 7.3%를 차지
    - 저공해자동차는 2018년에 비해 14.7만 대 증가, 비율은 4.6%p 증가
  -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차는 연평균 75.6% 증가
    - 하이브리드 17.0만 대(저공해자동차 중 비율 73.2%), 전기 5.9만 대(25.6%), 수소 0.3만 대(1.3%) 순
    - 전기차 비중은 2018년 11.3%에서 14.3%p 증가, 하이브리드는 88.6%에서 15.5%p 감소

<sup>29)</sup> 2023년 8월 TOPIS 자료

<sup>30)</sup> 여기서는 저공해자동차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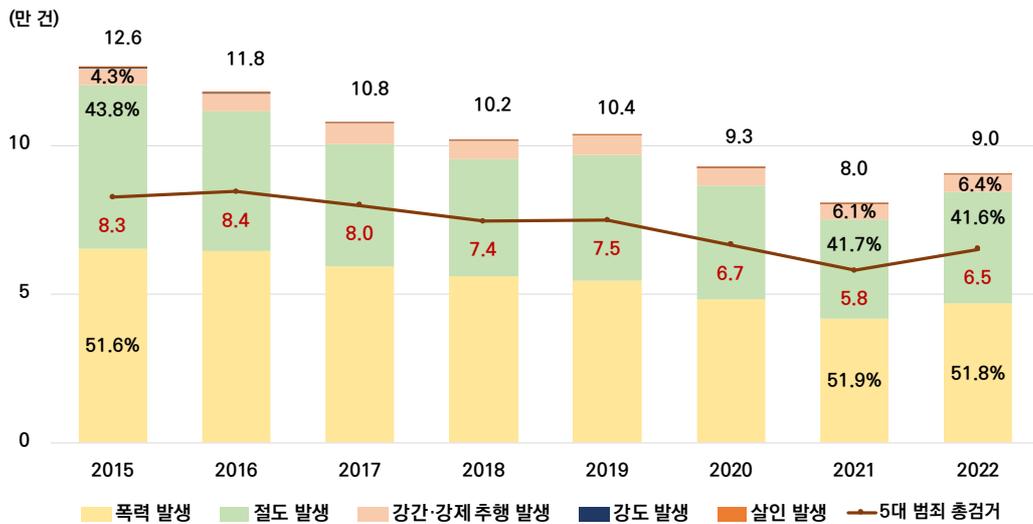


## 6\_안전·환경

### 1) 도시안전

#### (1) 5대 범죄 발생 현황

- 2022년 서울의 5대 범죄 건수는 2015년에 비해 감소,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증가
  -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9.0만 건, 검거 건수는 6.5만 건
    - 범죄 유형별로 폭력 4.6만 건(51.8%), 절도 3.7만 건(41.6%), 강간·강제추행 5.8천 건(6.4%), 강도 0.1천 건(0.1%), 살인 0.1천 건(0.1%)
    - 검거한 사건은 폭력 3.5만 건(60.4%), 절도 2.0만 건(31.0%), 강간·강제추행 5.3천 건(8.2%), 강도 0.1천 건(0.2%), 살인 0.1천 건(0.2%)
    -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강도(95.7%), 강간·강제추행(91.9%), 살인(94.2%), 폭력(84.1%), 절도(53.8%) 순으로 높음
  - 서울의 5대 범죄 건수는 2015년 12.6만 건보다 연평균 4.7% 감소
    - 강간·강제추행은 2015년 5.4천 건에서 연평균 0.9% 증가
    - 강간·강제추행 이외의 5대 범죄는 발생 감소, 강도는 연평균 11.5%, 살인은 6.2%, 절도 5.4%, 폭력은 4.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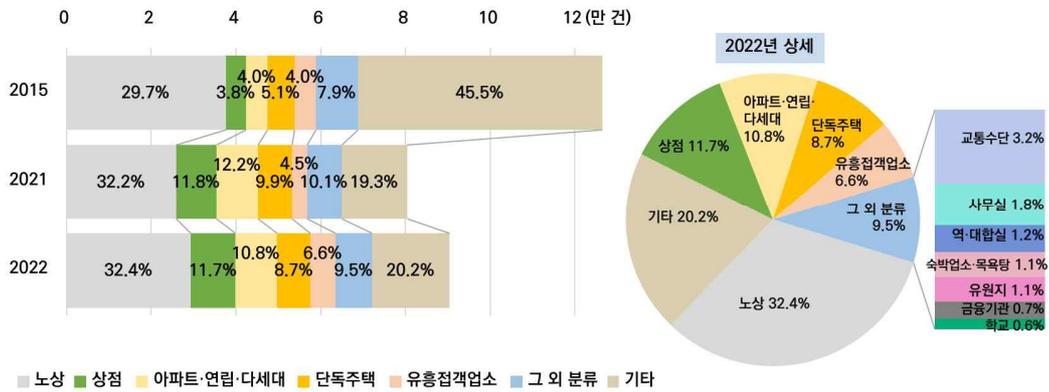


[그림 2-54] 서울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2015~2022

○ 서울시 5대 범죄의 발생 장소 중 ‘노상’은 감소, ‘실내공간’은 증가

- 2022년 서울시 5대 범죄의 70.0%가 노상, 상점, 주택,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
  - 2022년 노상(2.9만 건), 상점(1.1만 건), 아파트·연립·다세대(1.0만 건), 단독주택(0.8만 건), 유흥접객업소(0.6만 건)
- 노상 범죄는 2022년 2.9만 건(32.4%)으로 2015년 3.8만 건(29.7%)에 비해 발생 건수 0.8만 건 감소
- 반면 상점, 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유흥접객업소 등 일부 실내공간에서의 발생은 2022년 3.4만 건(37.8%)으로 2015년 2.1만 건(16.8%)에 비해 1.3만 건 증가
  - 상점에서의 발생은 2022년 1.1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연평균 11.9% 증가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2022년 1.0만 건으로 연평균 9.9% 증가
  - 단독주택은 2022년 0.8만 건으로 연평균 3.0% 증가
  - 유흥·접객업소는 2022년 0.6만 건으로 연평균 2.5% 증가



[그림 2-55] 장소별 5대 범죄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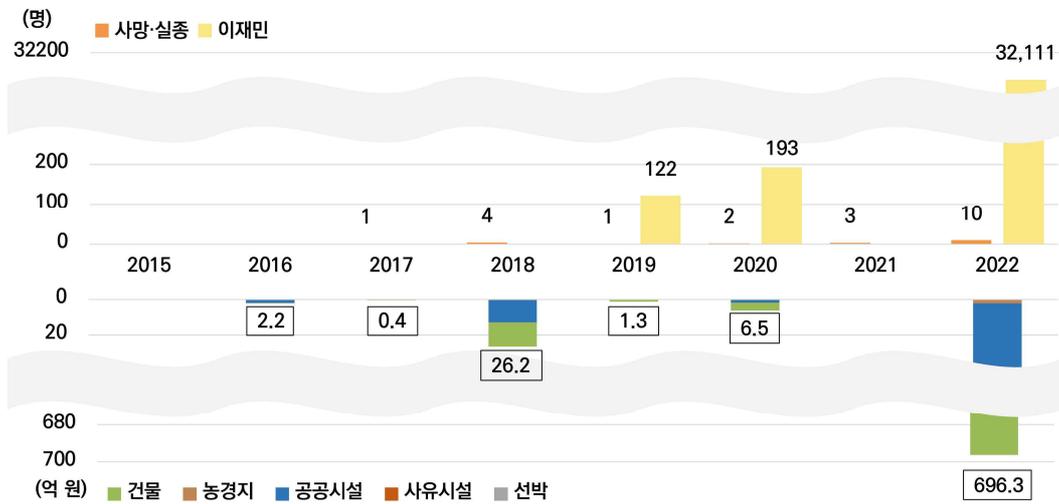
주: 5대 범죄 통계 상 '기타'에는 의료기관, 시장·노점, 공사장·광산, 종교기관, 흥행장, 창고, 공장, 산야, 구금장소, 부대, 공지 및 이외 분류되지 않는 장소를 포함(이상 2022년 발생 건수 기준)

자료: 서울지방경찰청,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2015·2021·2022

## (2) 자연재난 피해 현황

### ○ 2022년은 2015년 이후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가장 큰 년도

- 자연재난<sup>31)</sup>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 10명, 이재민 32,111명, 재산피해 696.3억 원
  - 2022년 서울의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이재민 32,111명 (19,708세대)
  - 특히 2022년 8월에 서울 한강 이남지역에 발생한 집중 폭우의 24시간 지속 일 최대 강우량(435.0mm/일, 동작 지점 기준)은 서울의 역대 최고 강우량을 갱신, 저지대 지하공간(지하철역, 지하주차장, 반지하 주택 등)에 심각한 침수피해 발생<sup>32)</sup>
- 서울시 재산피해는 주로 공공시설과 건물에서 발생
  - 2022년 장소별 피해액은 건물 396.4억 원, 공공시설 297.7억 원, 농경지 2.0억 원, 사유시설 0.2억 원



[그림 2-56] 자연재난 피해 현황

자료: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연보, 2015~2022

주: 피해액은 2022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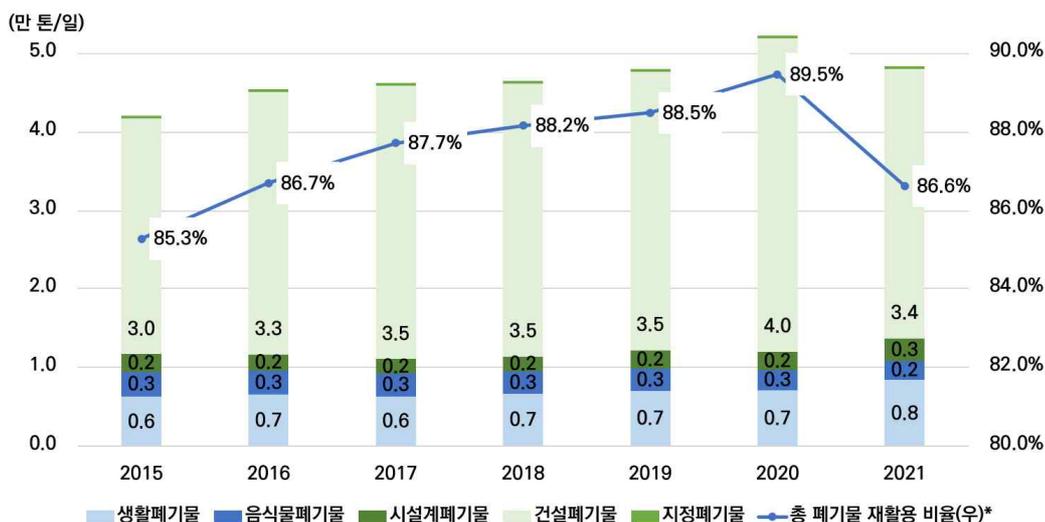
31) 자연재난 태풍, 호우, 대설, 폭염, 풍랑, 강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함. 지난 10년간 서울에서는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만 집계되었음

32) 서울연구원, 2022.8, 서울인포그래픽스, '2022년 8월 집중호우, 서울시의 강우량과 피해특성은?'

## 2) 환경

### (1) 폐기물 발생량

- 2021년 서울의 폐기물 발생량은 4.8만 톤/일,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86.6%
  - 서울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8만 톤
    - 폐기물 종류별로 건설폐기물 3.4만 톤(70.9%), 생활폐기물 0.8만 톤(17.3%), 시설계폐기물 0.3만 톤(5.9%), 음식물폐기물 0.2만 톤(5.1%)<sup>33)</sup>
  - 재활용되는 1일 폐기물량은 총 4.2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의 86.6%가 재활용
    - 1일 재활용량 중 건설폐기물은 3.4만 톤(이하 항목별 발생량 중 재활용 비율 98.6%), 생활폐기물 0.4만 톤(43.2%), 음식물쓰레기 0.2만 톤(100%), 시설계폐기물 0.2만 톤(59.3%), 지정폐기물 84.5톤(22.6%)
  -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2015년 이후 증가
    - 2015년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2만 톤으로 연평균 2.4% 증가, 생활폐기물(연평균 변화율 5.0%), 시설계폐기물(4.1%) 등은 증가한 반면 음식물폐기물(-4.1%)은 감소
    - 2015년 1일 재활용량은 3.6만 톤으로 2021년에는 연평균 2.6% 증가, 전체 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은 1.3%p 증가
  - 2021년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량은 2020년 대비 모두 감소
    - 2020년 대비 1일 폐기물발생량과 재활용량이 각각 0.4만 톤, 0.5만 톤 감소
    - 2020년 대비 음식물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각각 83톤, 5,562톤 감소, 반면 생활폐기물(1,262톤), 시설계폐기물(532톤), 지정폐기물(13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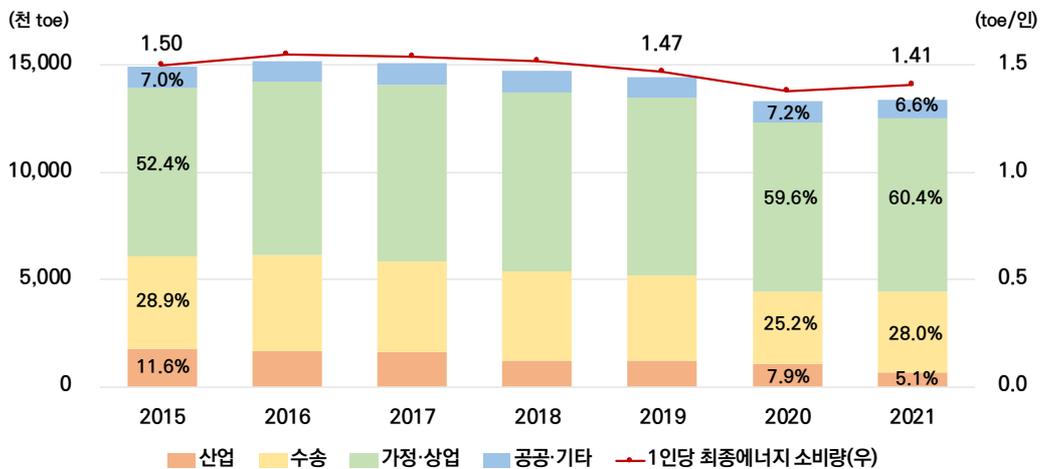
[그림 2-57]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률

자료: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2015~2021

33) 지정폐기물 354.4톤은 폐기물 발생량 합계에 포함되지 않음

## (2) 에너지 소비량

- 2021년 서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3,405천 toe, 2015년 대비 10.4% 감소
  -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3,405천 toe,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1.41toe/인
    -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가정·상업 부문 8,093천 toe(60.4%), 수송 부문 3,749천 toe(28.0%), 산업 부문 881천 toe(6.6%), 공공·기타 부문 681천 toe(5.1%)
    - 전국 에너지 소비의 부문별 구성비는 산업(63.3%), 가정·상업(17.4%), 수송(16.9%), 공공·기타(2.4%) 순
    - 서울은 전국보다 산업 부문 비중이 작고, 가정·상업의 비중이 큼
  -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14,966천 toe에서 연평균 1.8% 감소
    - 2015년에 비해 가정·상업 부문의 비중은 8.0%p 증가. 반면, 산업은 6.6%p, 수송 1.0%p, 공공·기타 0.5%p 감소
    - 가정·상업 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0.5% 증가, 산업 14.5%, 공공·기타 2.9%, 수송 2.4% 감소
  -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5년 1.5toe/인에서 0.09toe/인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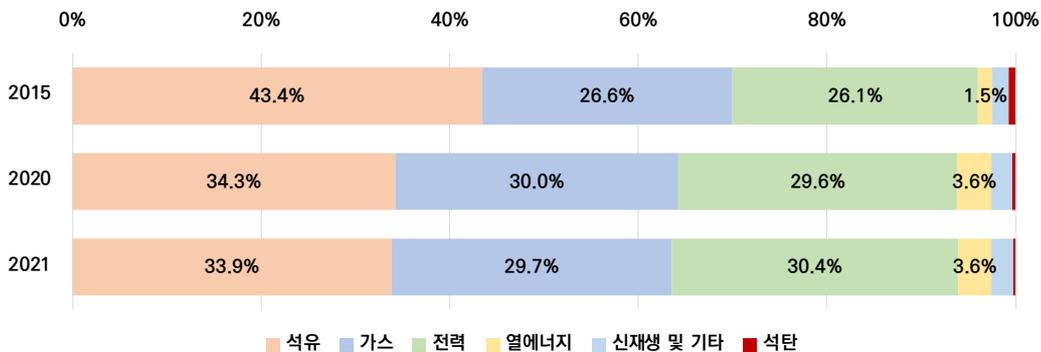


[그림 2-58] 최종 에너지 소비량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2021

-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전력-가스 순, 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453.8만 toe(33.9%), 전력 407.5만 toe(30.4%), 가스 397.5만 toe(29.7%)
    - 그 외 열에너지 47.8만 toe(3.6%), 신재생 및 기타 30.6만 toe(2.3%), 석탄 3.3만 toe(0.2%)
  - 2015년 대비 석유와 석탄의 비중은 2015년 대비 9.5%p, 0.4%p 감소, 그 외 전력 4.3%p, 가스 3.1%p, 열에너지 2.1%p,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 0.5%p 증가

- 열에너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연평균 13.6%,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는 2.3% 증가
- 석탄의 에너지 소비량은 16.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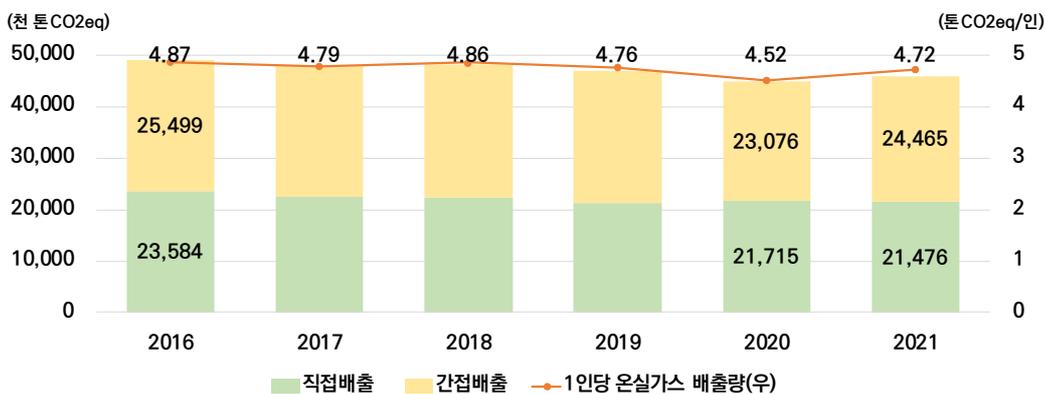


[그림 2-59] 에너지원별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15·2020·2021

### (3) 온실가스 배출량

- 2021년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에 비해 6.4% 감소
  - 서울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4,594.1만 톤(CO<sub>2</sub> 환산량)
    - 산업, 발전, 건물, 수송 등 직접적 배출·흡수에 따른 직접배출량은 2,147.6만 톤, 행정구역 내·외부에서 생산된 전력 및 열에너지를 소비하는 간접배출원에서 발생한 간접배출량은 2,446.5만 톤
    - 부문별 배출량은 에너지 3,923.0만 톤(85.4%), 폐기물 540.8만 톤(11.8%), 산업 공정 및 제품생산 135.1만 톤(2.9%)
    - 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에서는 4.8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
  - 2016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6.4% 감소, 직접배출량에서 8.9%, 간접배출량에서 4.1% 감축
    -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부문 9.4%, 폐기물 부문 2.8%, 에너지 소비 부문 1.6% 감축



[그림 2-60]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1년도분)」, 2023

#### (4) 공원 면적

- 2022년 서울의 공원 면적은 173.0km<sup>2</sup>, 1인당 공원면적은 17.9m<sup>2</sup>/인
  -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대비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8.6%
    -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기타 공원 면적은 총 66.3km<sup>2</sup>(36.8%)이며, 이 중 미조성 공원 면적은 2.6km<sup>2</sup>(1.5%)
    -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은 69.2km<sup>2</sup>(40.0%), 국립공원의 면적은 37.5km<sup>2</sup>(전체 공원의 21.7%)
  - 1인당 공원 면적은 17.9m<sup>2</sup>/인으로, 2015년에 비해 연평균 1.3% 증가
    - 2015년 이후 전체 공원 면적은 연평균 0.4% 증가, 인구 0.8% 감소



[그림 2-61] 서울시 공원 면적 추이

자료: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 서울시 공원통계, 2015~2022

- 전체 공원 면적은 서초구, 도보생활권공원 면적은 송파구, 1인당 공원면적은 종로구가 가장 넓음
  - 2022년 전체 공원 면적은 서초구 15.1km<sup>2</sup>, 노원구 14.7 km<sup>2</sup> 강북구 14.5km<sup>2</sup> 순으로 큼
    - 서울시 평균 1인당 공원 면적은 17.9m<sup>2</sup>/인이며, 자치구별로는 종로구 75.1m<sup>2</sup>/인, 강북구 48.7m<sup>2</sup>/인, 서초구 36.9m<sup>2</sup>/인 순으로 큼
  - 도보생활권공원 면적은 송파구 4.4km<sup>2</sup> 마포구 4.3km<sup>2</sup>, 강남구 3.7km<sup>2</sup> 순
    - 서울의 1인당 도보생활권공원 면적<sup>34)</sup>은 5.7m<sup>2</sup>/인이며, 자치구별로 종로구 19.9 m<sup>2</sup>/인, 마포구 11.6m<sup>2</sup>/인, 중구 30.6m<sup>2</sup>/인 순으로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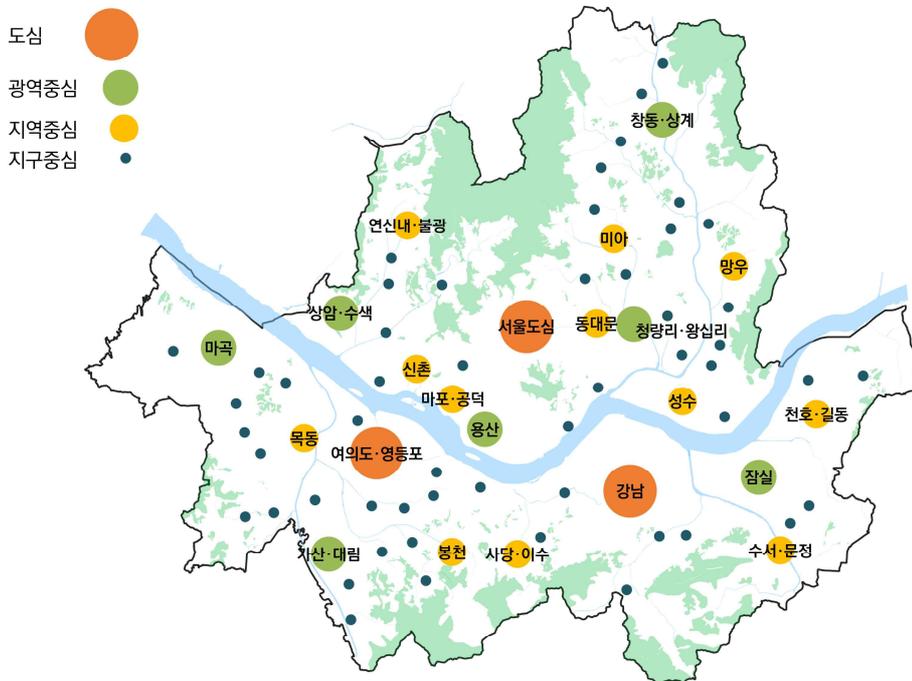
34) 도보생활권공원은 공원이용자가 걸어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공원을 의미. 묘지공원·서울대공원·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 구역은 제외.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체육+문화+역사+수변+생태+놀이+가로공원+기타공원) / 서울 인구



## 7\_심층진단 : 중심지

### 1) 중심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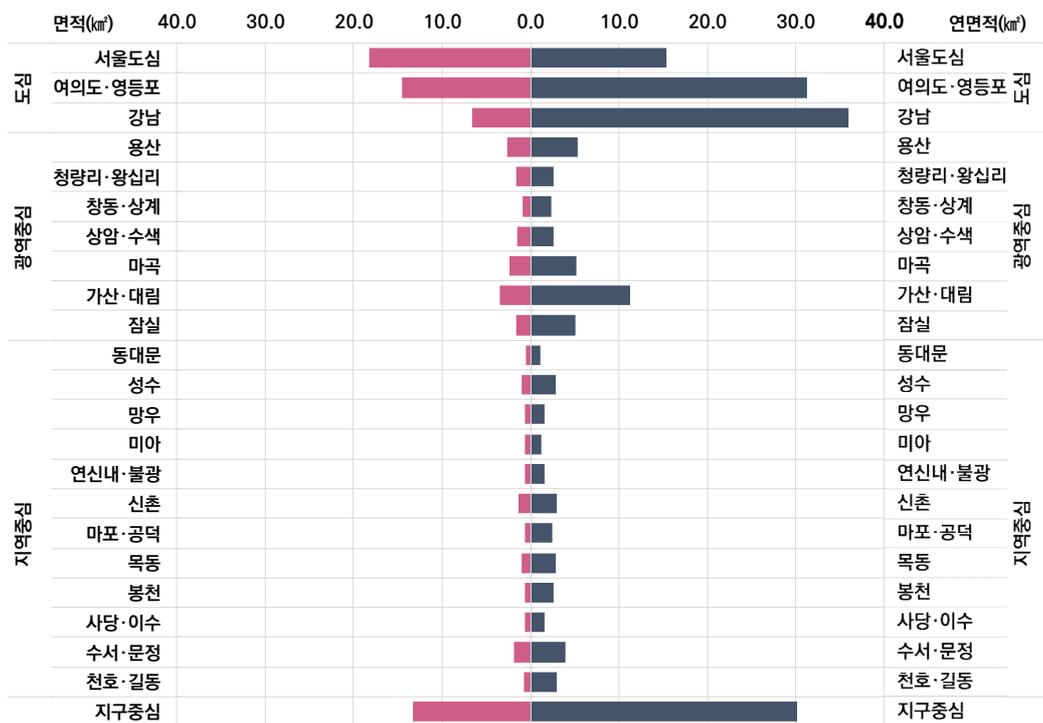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의 중심지체계를 유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심지 기능 고도화 유도
  -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지정
  -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자치구 내 생활권 중심지인 53지구중심을 지정하고 관리
  - 심층 진단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인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53지구중심의 건축물 특성, 활동, 일자리를 진단



[그림 2-6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  
 자료: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23

○ 중심지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2.7%, 건축물 연면적은 28.2% 차지

- 중심지 면적은 총 76.2km<sup>2</sup>으로 서울시 전체의 12.7%를 차지. 도심은 38.9km<sup>2</sup>(중심지 전체의 51.0%), 광역중심은 14.0km<sup>2</sup>(18.4%), 지역중심은 10.2km<sup>2</sup>(13.4%), 지구중심은 13.1km<sup>2</sup>(17.2%)임
  - 도심의 면적은 서울도심 18.3km<sup>2</sup>, 강남 14.6km<sup>2</sup>, 여의도·영등포 6.6km<sup>2</sup> 순으로 큼
  - 광역중심의 평균 면적은 2.0km<sup>2</sup>이며, 최소 면적은 0.9km<sup>2</sup>(창동·상계), 최대 면적은 3.4km<sup>2</sup>(가산·대림)
  - 지역중심의 평균 면적은 0.8km<sup>2</sup>이며, 최소 면적은 0.5km<sup>2</sup>(동대문), 최대 면적은 1.9km<sup>2</sup>(수서·문정)
- 중심지의 건축물 연면적은 175.5km<sup>2</sup>로 서울시 전체 연면적의 28.2%를 차지. 도심은 82.7km<sup>2</sup>(중심지 전체의 47.1%), 광역중심은 34.7km<sup>2</sup>(19.8%), 지역중심은 27.9km<sup>2</sup>(15.9%), 지구중심은 30.2km<sup>2</sup>(17.2%)로 구성
  - 도심의 연면적은 강남 36.0km<sup>2</sup>, 서울도심 31.3km<sup>2</sup>, 여의도·영등포 15.4km<sup>2</sup> 순으로 큼
  - 광역중심의 평균 연면적은 5.0km<sup>2</sup>이며, 최소 연면적은 2.4km<sup>2</sup>(창동·상계), 최대 연면적은 11.3km<sup>2</sup>(가산·대림)
  - 지역중심의 평균 연면적은 2.3km<sup>2</sup>이며, 최소 연면적은 1.1km<sup>2</sup>(동대문), 최대 연면적은 4.0km<sup>2</sup>(수서·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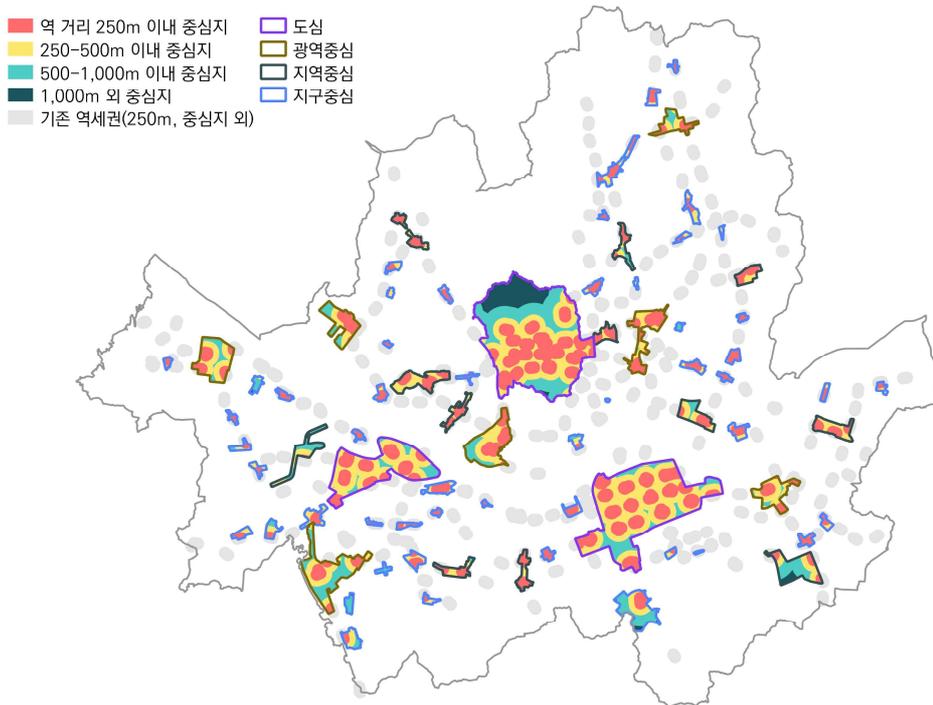
[그림 2-64] 중심지별 면적과 연면적

자료: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2023;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2) 토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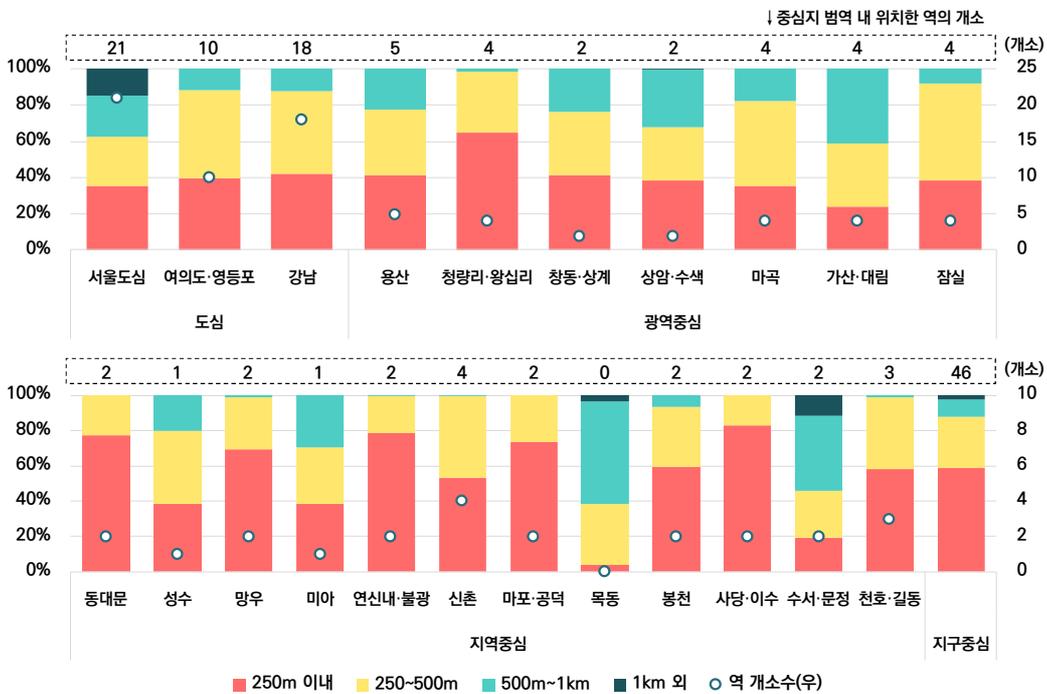
### (1) 역세권 비율

- 중심지 내 전철역 역세권 면적은 42.7%, 서울 내 전철역 중 46.6%가 중심지에 위치
  - 도심 내 역 승강장 기준 250m에 해당하는 면적은 38.4%, 도심에는 총 49개(서울시 전체의 16.0%)의 전철역이 위치
    - 역세권 비율은 강남 41.9%, 여의도·영등포 39.9%, 서울도심 35.3% 순으로 높음
    - 도심에는 평균 16.3개의 역이 위치. 서울도심은 21개, 강남은 18개, 여의도·영등포는 10개의 역이 위치
  - 광역중심 내 역세권 면적은 38.6%, 광역중심에는 총 25개(8.1%)의 전철역이 위치
    - 역세권 비율은 청량리·왕십리 64.7%, 창동·상계 41.7%, 용산 41.3% 순으로 높음
    - 광역중심에는 평균 3.6개의 역이 위치. 용산은 5개, 청량리·왕십리, 마곡, 가산·대림, 잠실은 4개, 창동·상계, 상암·수색은 2개의 역이 위치
  - 지역중심 내 역세권 면적은 46.8%, 지역중심에는 총 23개(7.5%)의 전철역이 위치
    - 역세권 비율은 사당·이수 82.8%, 연신내·불광 78.8%, 동대문 77.2% 순으로 높음
    - 지역중심에는 평균 1.9개의 역이 위치. 신촌은 4개, 천호·길동은 3개의 역이 위치한 반면, 목동에는 전철역이 위치하지 않음
  - 지구중심 내 역세권 면적은 58.9%, 지구중심에는 총 46개(15.0%)의 전철역이 위치



[그림 2-65] 중심지별 역세권 현황(2023)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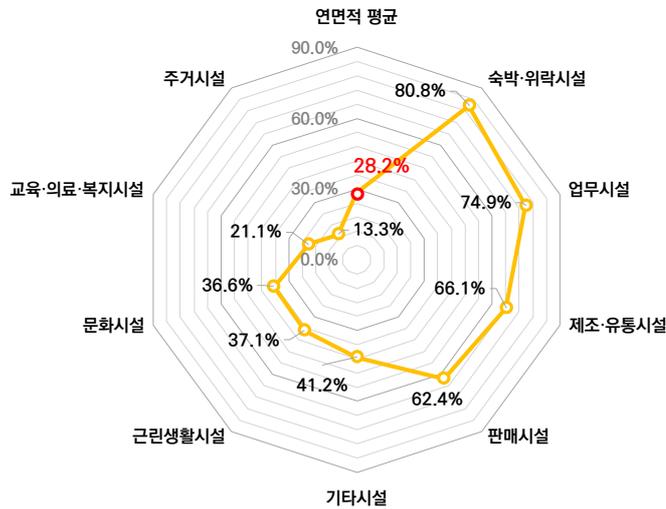
[그림 2-66] 중심지별 역세권 비율(2023)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보완)을 바탕으로 가공

### 3) 건축물 특성

#### (1) 용도별 연면적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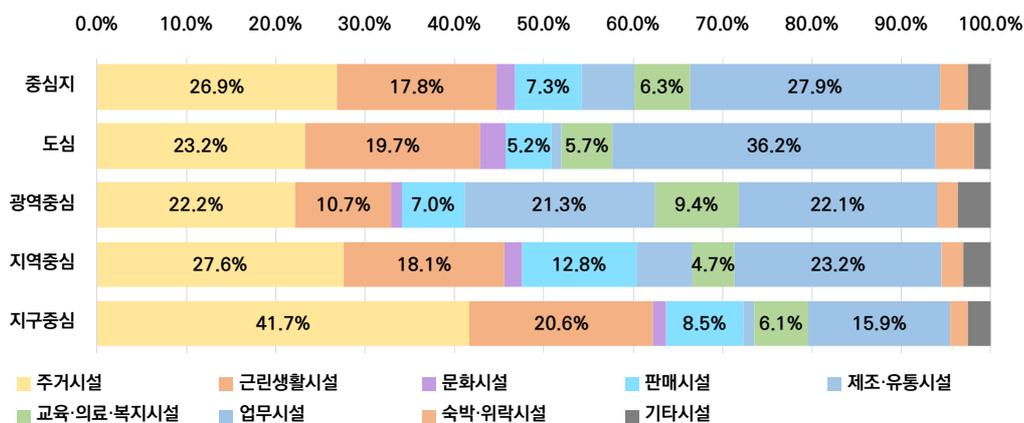
- 중심지에는 숙박·위락, 업무, 제조·유통, 판매시설이 집적
  - 중심지의 건축물 연면적은 서울시 전체 연면적의 28.2% 차지
  - 중심지 내 입지 비중이 큰 용도는 숙박·위락시설(80.8%), 업무시설(74.9%), 제조·유통시설(66.1%), 판매시설(62.4%)
  - 그 외 기타(41.2%), 근린생활시설(37.1%), 문화시설(36.6%), 교육·의료·복지시설(21.1%), 주거시설(13.3%)



[그림 2-67] 용도별 연면적의 서울시 대비 중심지 비중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중심지의 비주거 비율은 73.1%, 서울시 비주거비율인 42.8%보다 30.3%p 높음
- 중심지의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은 업무시설 27.9%, 주거시설 26.9%, 근린생활시설 17.8% 등으로 구성
  - 도심은 업무시설 36.2%, 주거시설 23.2%, 근린생활시설 19.7%
  - 광역중심은 주거시설 22.2%, 업무시설 22.1%, 제조·유통시설 21.3%
  - 지역중심은 주거시설 27.6%, 업무시설 23.2%, 근린생활시설 18.1%
  - 지구중심은 주거시설 41.7%, 근린생활시설 20.6%, 업무시설 15.9%



[그림 2-68] 중심지 건축물 용도별 구성비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중심지에서는 숙박·위락, 업무, 제조·유통, 판매, 근린생활시설이 특화

- 중심지 건축물 용도의 특화도는 숙박·위락시설 2.86, 업무시설 2.66, 제조·유통시설 2.34, 판매시설 2.21, 기타시설 1.46, 근린생활시설 1.32, 문화시설 1.30으로 나타남
- 도심에서는 숙박·위락시설(3.80), 업무시설(3.45), 문화시설(1.73)이 특화

		건축물 용도	업무	제조·유통	숙박·위락	근린생활	판매	문화	교육·의료·복지	기타	주거
중심지	서울도심		3.87	0.25	5.62	1.28	2.27	2.27	0.96	1.23	0.24
	여의도·영등포		3.33	1.67	2.23	1.20	2.86	1.09	0.32	0.72	0.47
	강남		3.14	0.04	2.90	1.71	0.41	1.53	0.57	1.11	0.52
광역중심	용산		2.30	0.39	3.04	0.85	3.41	1.32	0.27	3.19	0.68
	청량리·왕십리		1.46	0.38	1.16	2.06	4.99	0.73	0.30	1.96	0.54
	창동·상계		1.43	0.05	2.33	1.07	2.36	0.45	0.54	0.90	0.93
	상암·수색		4.54	1.17	0.80	0.62	1.00	0.85	1.13	7.83	0.21
	마곡		3.28	0.16	1.07	0.93	0.36	0.59	5.12	1.17	0.07
	가산·대림		0.77	25.33	0.68	0.46	0.82	0.20	0.30	1.33	0.23
	잠실		3.06	0.00	7.06	0.62	4.30	1.52	0.35	1.07	0.53
	지구중심		1.51	0.50	1.73	1.52	2.57	0.90	0.72	1.49	0.73
지역중심	동대문		3.48	0.20	2.68	1.94	0.52	1.06	0.84	0.56	0.39
	성수		1.35	8.81	0.70	0.99	1.93	0.55	1.21	4.92	0.41
	망우		0.85	0.01	1.74	0.94	3.93	1.35	0.25	1.22	0.99
	미아		0.31	0.08	2.62	1.62	5.55	1.14	1.01	2.76	0.67
	연신내·불광		0.74	0.02	1.86	2.94	2.15	0.84	0.69	1.26	0.59
	신촌		1.91	0.01	5.68	3.02	2.16	1.66	0.54	1.33	0.28
	마포·공덕		4.61	0.02	5.74	0.70	0.38	0.29	0.34	3.65	0.43
	목동		2.75	0.00	0.01	0.64	2.02	3.84	0.73	1.60	0.71
	봉천		1.47	0.00	1.07	1.22	15.20	0.67	0.32	0.31	0.21
	사당·이수		1.20	0.01	1.65	1.94	0.28	0.77	0.38	0.27	0.93
	수서·문정		3.49	10.94	0.48	0.27	6.35	0.57	0.19	0.89	0.11
	천호·길동		2.05	0.02	2.30	1.36	2.41	0.95	0.59	1.85	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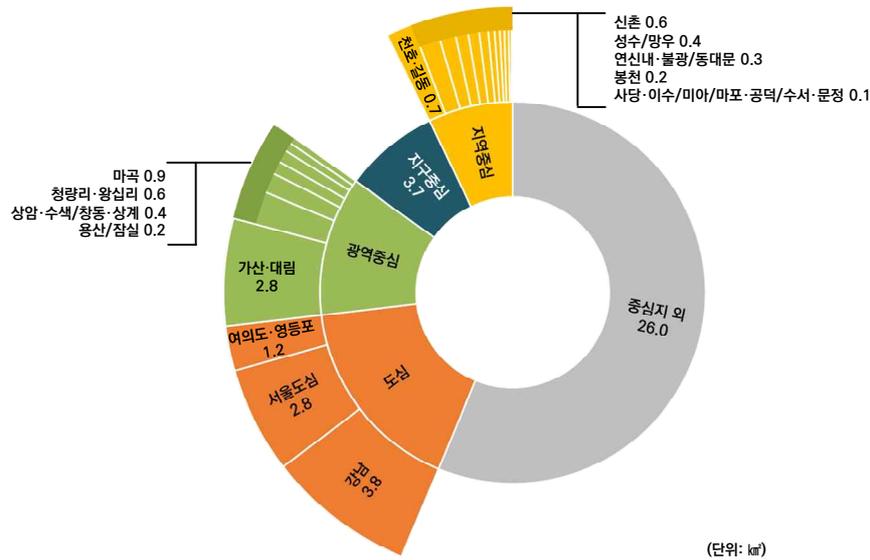
[그림 2-69] 중심지별 용도의 특화도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서울도심의 특화 용도는 숙박·위락시설(5.62), 업무시설(3.87), 문화시설(2.27)
- 여의도·영등포의 특화 용도는 업무시설(3.33), 판매(2.86), 숙박·위락(2.23)
- 강남의 특화 용도는 업무시설(3.14), 숙박·위락시설(2.90), 근린생활시설(1.71)
- 광역중심에서는 제조·유통시설(8.44), 숙박·위락시설(2.19), 업무시설(2.11)이 특화
  - 제조·유통시설이 특화된 광역중심은 가산·대림(25.33), 상암·수색(1.17)
  - 숙박·위락시설이 특화된 광역중심은 잠실(7.06), 용산(3.04), 창동·상계(2.33)
  - 업무시설이 특화된 광역중심은 상암·수색(4.54), 마곡(3.28), 잠실(3.06), 용산(2.30), 청량리·왕십리(1.46), 창동·상계(1.43)
  - 판매시설이 특화된 광역중심은 청량리·왕십리(4.99), 잠실(4.60), 창동·상계(2.36)
  - 교육·의료·복지시설이 특화된 광역중심은 마곡(5.12), 상암·수색(1.13)
- 지역중심에서는 판매시설(3.87), 제조·유통시설(2.46), 업무시설(2.21)이 특화
  - 판매시설이 특화된 지역중심은 봉천(15.20), 수서·문정(6.35), 미아(5.55), 망우(3.93), 천호·길동(2.41), 신촌(2.16), 연신내·불광(2.15)
  - 제조·유통시설이 특화된 지역중심은 수서·문정(10.94), 성수(8.81)
  - 업무시설이 특화된 지역중심은 마포·공덕(4.61), 수서·문정(3.49), 동대문(3.48), 목동(2.75), 천호·길동(2.05)
  - 근린생활시설이 특화된 지역중심은 신촌(3.02), 연신내·불광(2.94)
- 지구중심에서는 판매시설(2.57), 숙박·위락시설(1.73), 근린생활시설(1.52)이 특화

## (2) 신축 허가 연면적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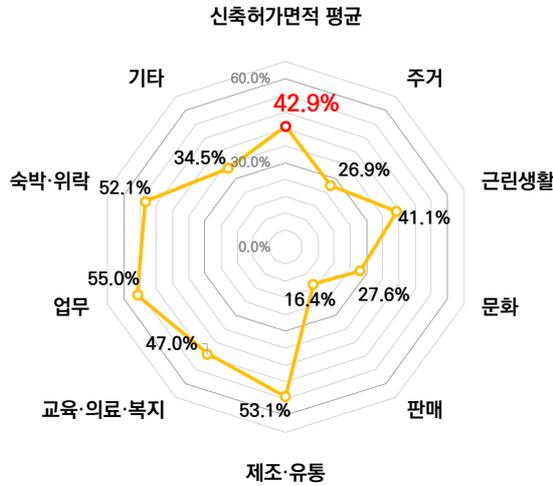
- 2018년 이후 서울 신축 허가 연면적의 43.7%가 중심지에 위치, 도심(16.8%), 광역중심(11.8%), 지구중심(8.0%), 지역중심(7.1%) 순으로 구성
- 중심지에서의 신축 허가 연면적은 총 20.2km<sup>2</sup>이며 도심 7.8km<sup>2</sup>, 광역중심 5.4km<sup>2</sup>, 지구중심 3.7km<sup>2</sup>, 지역중심 3.3km<sup>2</sup> 순으로 신축 허가 규모가 큼
  - 도심은 강남(3.8km<sup>2</sup>), 서울도심(2.8km<sup>2</sup>), 여의도·영등포(1.2km<sup>2</sup>) 순
  - 광역중심은 가산·대림(2.8km<sup>2</sup>), 마곡(0.9km<sup>2</sup>), 청량리·왕십리(0.6km<sup>2</sup>) 순
  - 지역중심은 천호·길동(0.7km<sup>2</sup>), 신촌(0.6km<sup>2</sup>), 성수(0.4km<sup>2</sup>) 순



[그림 2-70] 신축 허가 연면적의 중심지 위계별 분포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상, 20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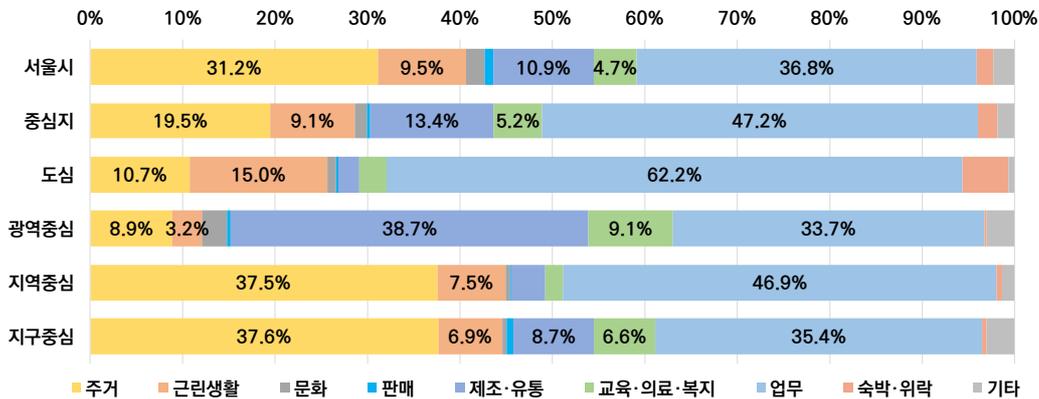
- 서울시 전체 신축 허가 중 중심지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시설은 업무, 제조·유통, 숙박·위락, 교육·의료·복지, 근린생활
  - 도심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용도는 숙박·위락시설(46.3%), 업무시설(28.0%), 근린생활시설(26.0%)
  - 광역중심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용도는 제조·유통시설(41.2%), 교육·의료·복지시설(22.3%)
  - 지역중심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용도는 업무시설(8.9%), 주거시설(8.4%)
  - 지구중심에 위치하는 비중이 높은 용도는 교육·의료·복지시설(11.0%), 기타시설(10.3%)



[그림 2-71] 중심지의 신축 허가 연면적 비중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 중심지 내 신축 허가 연면적 중 용도별 비율은 업무시설 47.2%, 주거시설 19.5%, 제조·유통시설 13.4%
  - 서울시 전체 신축 허가와 비교하면, 중심지의 신축 허가 중 업무시설과 제조·유통 시설의 비율은 각각 10.4%, 2.6%p 크며 주거시설 비율은 11.6%p 작음
  - 도심 내 신축 허가는 업무시설(62.2%), 근린생활시설(15.0%), 주거시설(10.7%) 순으로 구성
    - 서울도심은 업무, 주거, 숙박·위락시설, 여의도·영등포는 업무, 제조·유통, 주거시설, 강남은 업무, 근린생활, 주거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
  - 광역중심 내 신축 허가는 제조·유통시설(38.7%), 업무시설(33.7%), 교육·의료·복지시설(9.1%) 순으로 구성
    - 제조·유통시설의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가산·대림(75.0%), 청량리·왕십리(0.3%)



[그림 2-72] 중심지 신축 허가 연면적의 용도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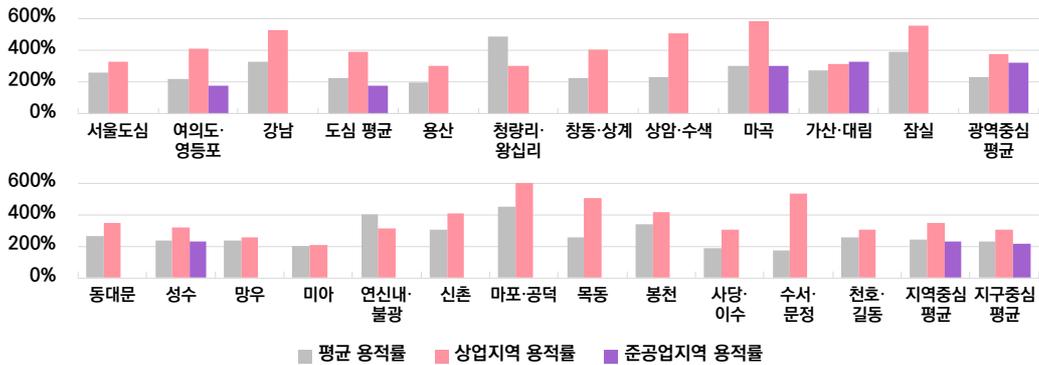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2023.11.

-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상암·수색(90.2%), 잠실(86.7%), 창동·상계(59.7%)
- 교육·의료·복지시설의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마곡(53.4%)
- 지역중심의 신축 허가는 업무시설(46.9%), 주거시설(37.5%), 근린생활시설(7.5%) 순으로 구성
  - 업무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중심은 수서·문정(88.0%), 목동(76.2%), 마포·공덕(74.3%)
  - 주거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중심은 미아(57.6%), 망우(56.9%), 천호·길동(54.5%)
  -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이 높은 지역중심은 봉천(24.5%), 목동(23.8%), 사당·이수(15.2%)
- 지구중심의 신축 허가는 업무시설(37.6%), 문화시설(35.4%), 교육·의료·복지시설(8.7%) 순으로 구성

### (3) 용적률

○ 2023년 서울시 중심지 내 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360.4%

- 중심지의 평균 용적률<sup>35)</sup>은 230.8%, 중심지 위계별 평균 용적률은 도심 227.6%, 광역중심 231.5%, 지역중심 243.2%, 지구중심 228.9%
  - 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강남 329.7%, 서울도심 261.2%, 여의도·영등포 215.7%
  - 광역중심의 평균 용적률은 청량리·왕십리 489.6%, 잠실 391.7%, 마곡 300.9% 순
  - 지역중심의 평균 용적률은 평균 마포·공덕 451.8%, 연신내·불광 398.8%, 봉천 337.2% 순
- 중심지별 상업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도심 392.2%, 광역중심 376.2%, 지역중심 345.8%, 지구중심 307.3%
  - 도심 중 상업지역 평균 용적률은 강남 527.4%, 여의도·영등포 414.2%, 서울도심 326.3% 순
  - 광역중심 중 상업지역 평균 용적률은 마곡 582.2%, 잠실 551.5%, 상암·수색 506.9% 순으로 높음. 밀도가 낮은 광역중심은 용산(303.4%), 청량리·왕십리 (304.6%), 가산·대림(312.4%)
  - 지역중심 중 상업지역 평균 용적률은 마포·공덕 646.5%, 수서·문정 535.0%, 목동 503.5% 순으로 높음. 밀도가 낮은 지역중심은 미아(210.9%), 망우(255.2%), 천호·길동(302.4%)
- 중심지별 준공업지역의 평균 용적률은 도심 179.6%, 광역중심 321.5%, 지역중심 230.4%, 지구중심 214.7%
  - 중심지별 준공업지역 평균 용적률은 가산·대림 326.1%, 마곡 304.1%, 성수 230.4%, 여의도·영등포 179.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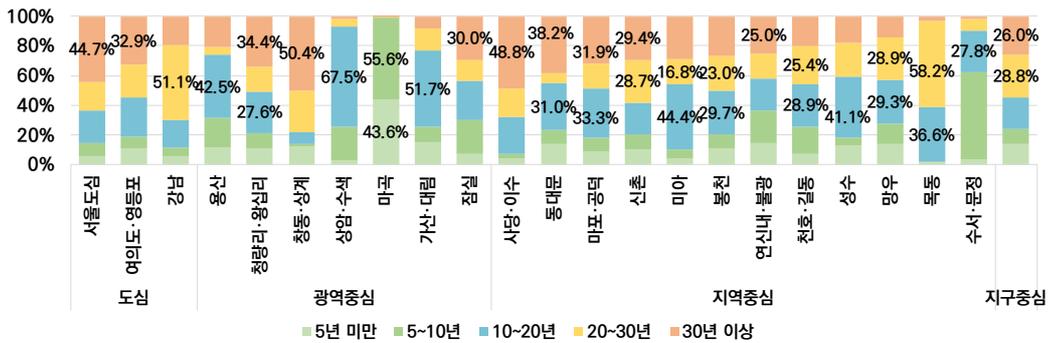
[그림 2-73] 중심지별 건축물의 평균 용적률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35)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기입된 용적률의 산술평균으로 계산

#### (4) 건축연한

- 중심지에 입지한 건축물 중 건축연한 30년 이상은 24.8%(연면적 기준) 차지
  - 도심의 사용승인연도 중위값은 1992년, 서울도심 1982년, 여의도·영등포 1985년, 강남 1997년 순
    - 서울도심의 3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연면적 기준)은 44.7%로 3도심 중 가장 높음
    - 여의도·영등포는 20년 미만 건축물 비율이 45.0%로 3도심 중 가장 높음
    - 강남은 2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70.2%를 차지
  - 광역중심의 사용승인연도 중위값은 1987년, 용산 1971년, 청량리·왕십리 1983년, 창동·상계, 가산·대림 1992년, 잠실 1997년, 상암·수색 2000년, 마곡 2018년
    - 5년 미만 건축물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마곡(43.6%)
    -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높은 광역중심은 창동·상계(50.4%), 청량리·왕십리(34.4%), 잠실(30.0%)
  - 지역중심의 사용승인연도 중위값은 1991년, 동대문, 미아 1980년, 연신내·불광, 봉천 1990년, 성수, 마포·공덕 1991년, 망우, 신촌, 천호·길동 1992년, 사당·이수 1993년, 목동 2001년, 수서·문정 2015년
    -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역중심은 사당·이수(48.8%), 동대문(38.2%), 마포·공덕(31.9%)
  - 지구중심의 사용승인연도 중위값은 19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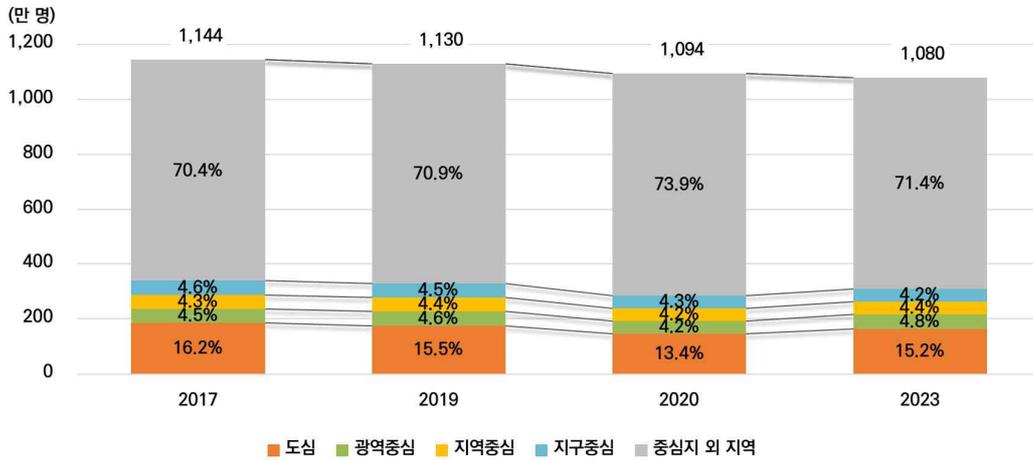
[그림 2-74] 중심지의 건축 연한별 구성비

자료: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2023.8.

## 4) 활동

### (1) 주간생활인구

- 중심지의 평일 주간생활인구는 2023년 308.9만 명, 2020년에 비해 8.3% 증가
  - 2023년 서울의 평일 주간생활인구<sup>36)</sup>는 1,079.6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3% 감소.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의 주간생활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
    - 코로나19의 발생으로 2020년 서울의 주간생활인구는 2019년 대비 3.2% 감소한 반면, 중심지의 생활인구는 13.2% 감소
    - 2023년 중심지의 주간생활인구는 2019년의 93.9%
  - 2023년 서울의 평일 주간생활인구 중 중심지 비율은 28.6%로, 2020년 26.1%, 2021년 27.0%, 2022년 27.4%에 이어 회복세
    - 도심(2020년 13.4%, 2023년 15.2%)과 광역중심(2020년 4.2%, 2023년 4.8%)의 비율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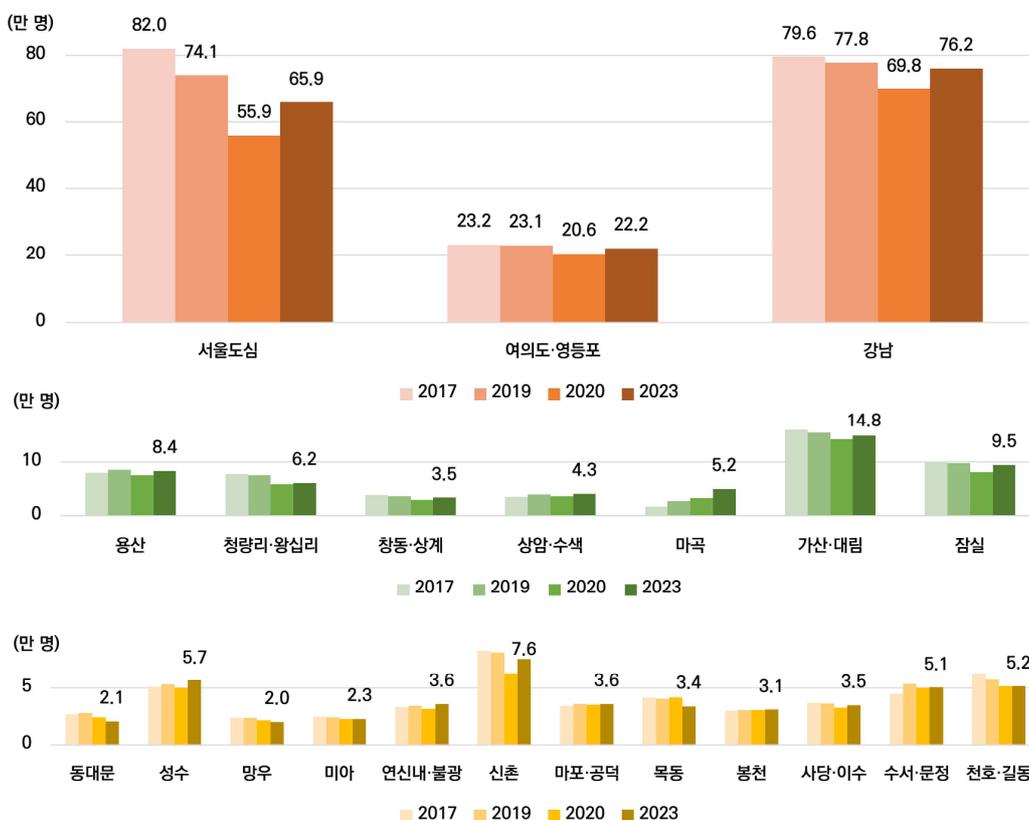
[그림 2-75] 서울시 내 주간생활인구의 중심지 위계별 분포

자료: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KT생활인구, 2023

- 도심의 주간생활인구는 2023년 164.3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2.3% 증가
  - 중심지별 주간생활인구는 서울도심 18.0%, 여의도·영등포 7.7%, 강남 9.1% 증가
  - 2023년 서울도심의 주간생활인구는 2019년의 89.0%, 여의도·영등포는 95.8%, 강남은 97.9% 수준
- 광역중심의 주간생활인구는 52.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2.1% 증가
  - 중심지별 주간생활인구는 마곡 49.7%, 잠실 16.7%, 창동·상계 14.3%, 상암·수색 13.6%, 용산 9.5%로 크게 증가, 가산·대림 4.3%, 청량리·왕십리 3.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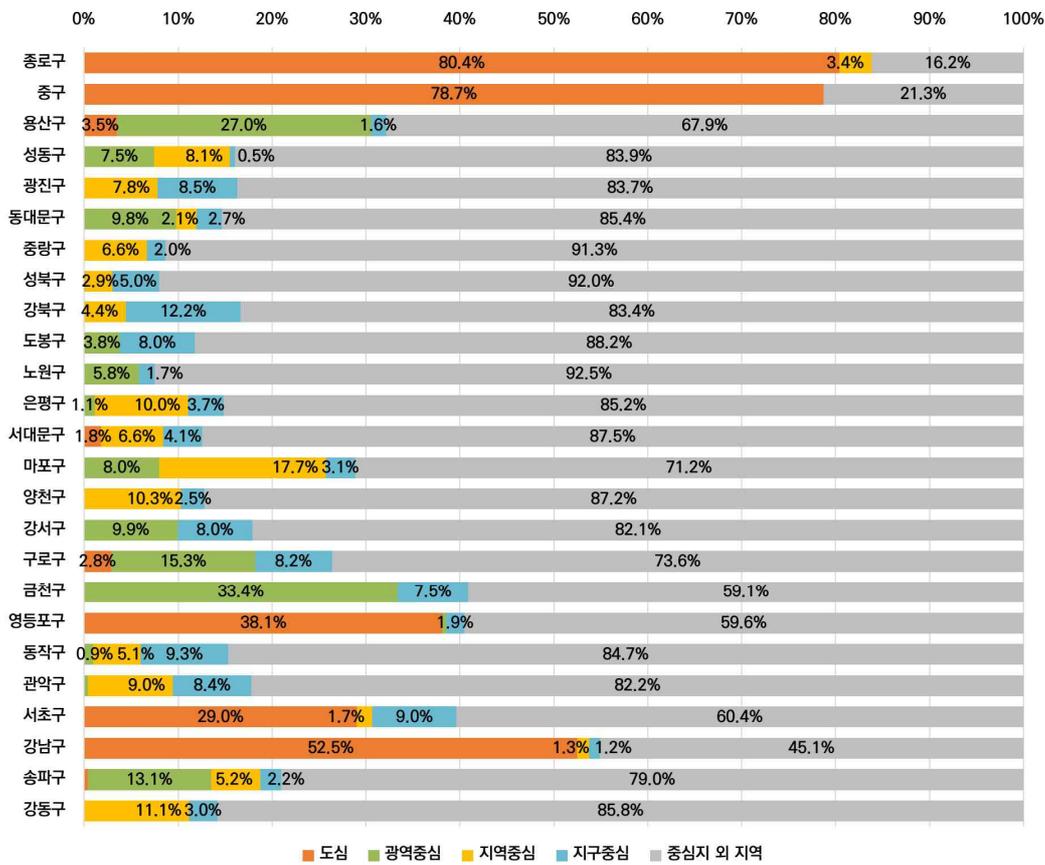
<sup>36)</sup> 매년 3월, 9월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삼일절이나 추석이 평일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생활인구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특정지역,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로, 주간생활인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 집계된 내국인 생활인구의 평균으로 함. 주간생활인구는 집계구 단위로 집계되기 때문에 중심지 내 포함되는 면적 비율로 생활인구를 할당하여 계산함

- 마곡과 상암·수색은 2019년 주간생활인구의 178.7%, 103.5%로 증가, 용산은 97.0%, 잠실은 96.7%, 가산·대림 96.1% 수준, 창동·상계(92.6%)와 청량리·왕십리(81.6%)는 더딘 회복세를 보임
- 지역중심의 주간생활인구는 47.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3.1% 증가
  - 중심지별 주간생활인구는 신촌 20.1%, 성수 13.8%, 연신내·불광 13.5%, 사당·이수 5.4% 증가
  - 반면, 목동(-18.7%), 동대문(-14.0%), 망우(-7.3%), 미아(-0.8%) 등은 감소
  - 성수(이하 2019년 대비 주간생활인구 비율, 106.4%) 연신내·불광(105.7%), 봉천(100.7%)은 2019년의 주간생활인구를 모두 회복하였으나, 동대문(73.9%), 목동(82.9%), 망우(84.3%) 등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작았음
- 지구중심의 주간생활인구는 45.5만 명으로 2020년 대비 3.2% 감소, 중심지 외 지역 770.8만 명으로 3.8% 감소
  -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의 회복세와 지구중심의 하락세는 대조적으로 나타남



[그림 2-76] 중심지별 평일 주간생활인구  
 자료: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KT생활인구, 2017~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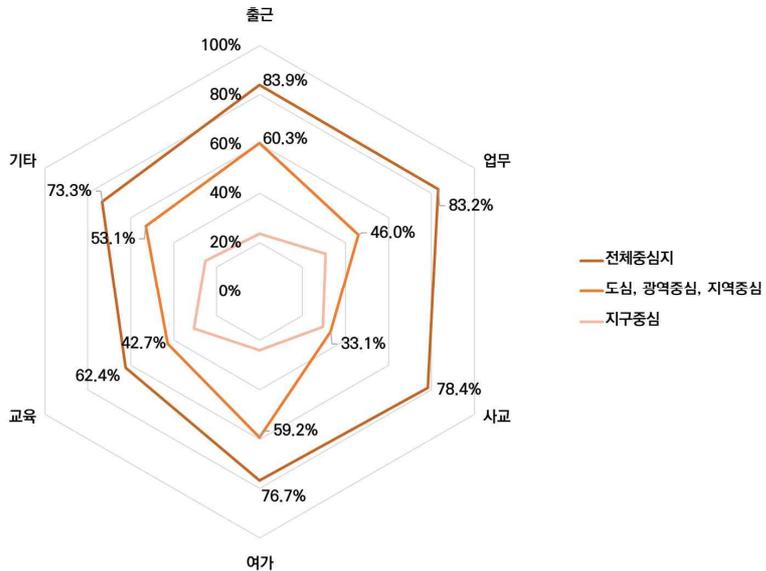
- 중심지의 주간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강남구, 금천구
  - 주간생활인구의 중심지 분포 비율은 종로구(83.8%), 중구(78.7%), 강남구(54.9%), 금천구(40.9%), 영등포구(40.4%), 서초구(39.6%), 용산구(32.1%), 마포구(28.8%)에서 서울시 평균(28.6%)보다 높게 나타남
  - 주간생활인구의 중심지 분포 비율이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7.5%), 성북구(8.0%), 중랑구(8.7%), 도봉구(11.8%), 양천구(12.8%), 강동구(14.2%), 동대문구(14.6%) 순
  - 지구중심에 서울시 평균(4.2%) 이상으로 주간생활인구가 분포하는 자치구는 강북구(12.2%), 동작구(9.3%), 서초구(9.0%), 광진구(8.5%) 등이며, 서초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상위 중심지보다 많은 인구가 지구중심에 밀집



[그림 2-77] 자치구별 평일 주간생활인구의 중심지 위계별 분포  
 자료: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 KT생활인구, 2023

(2) 목적별 통행

- 2021년 중심지의 주요 목적통행<sup>37)</sup>은 출근(388만 건), 여가(288만 건), 사교(275만 건)
  - 서울시 전체 목적 통행에서 중심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통행은 출근(83.9%), 업무(83.2%), 사교(78.4%), 여가(76.7%), 교육(62.4%), 기타(73.3%)<sup>38)</sup>
    - 출근 통행량 32.4%, 업무 33.0%, 사교 25.3%, 여가 18.3%가 도심으로 통행
    - 출근 통행량 14.2%, 업무 12.4%, 사교 11.5%, 여가 11.3%가 광역중심으로 통행
    - 여가 통행량 16.4%, 사교 16.3%, 교육 14.6%, 업무 13.9%가 지역중심으로 통행
    - 여가 통행량 30.6%, 교육 29.3%, 사교 25.3%, 업무 24.0%가 지구중심으로 통행



[그림 2-78] 목적별 통행량의 중심지 위계별 분포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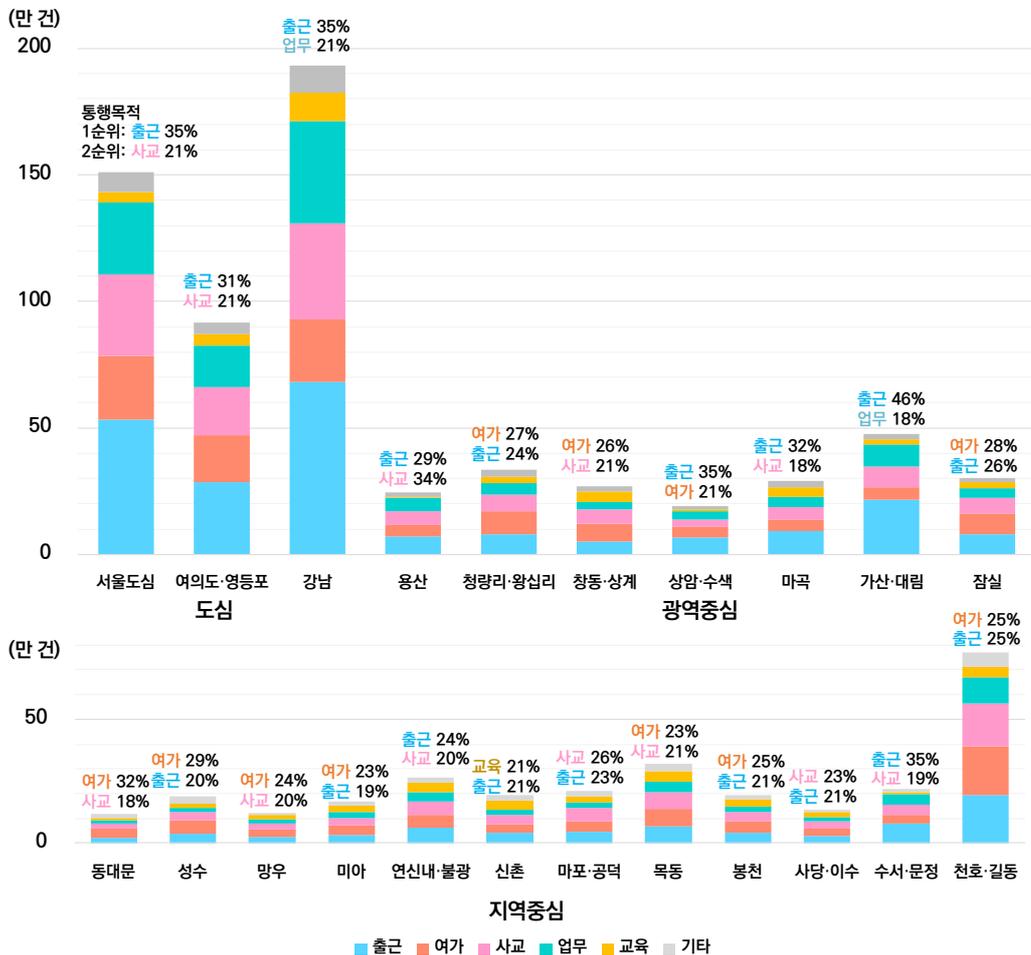
- 도심에는 출근(150.0만 건), 사교(88.9만 건), 업무(85.7만건) 목적의 통행이 많음
  - 서울도심은 출근 53.5만 건(35.4%), 사교 32.1만 건(21.2%), 업무 28.6만 건(18.9%)
  - 여의도·영등포는 출근 28.5만 건(31.1%), 사교 18.9만 건(20.6%), 여가 18.6만 건(20.3%) 순
  - 강남은 출근 68.0만 건(35.2%), 업무 40.4만 건(20.9%), 사교 37.9만 건(19.6%)
- 광역중심에는 출근(65.5만 건), 여가(42.5만 건), 사교(40.5만 건) 목적의 통행이 많음
  - 출근 목적 통행량은 가산·대림 21.1만 건, 마곡 9.1만 건, 청량리·왕십리 8.0만 건 순, 통행 중 출근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가산·대림(45.8%), 상암·수색(35.1%), 용산(29.0%), 잠실(25.6%)
  - 여가 목적 통행량은 청량리·왕십리 9.1만 건, 잠실 8.3만 건, 창동·상계 6.9만 건

37)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자료 상에는 목적을 세부적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7개로 단순화(‘교육’ 목적 통행은 등교와 학원목적 통행을 통합, ‘업무’ 목적 통행은 업무와 귀사 목적 통행을 통합, ‘여가’ 목적 통행은 쇼핑과 여가/운동/관광/레저목적 통행을 통합, ‘사교’ 목적 통행은 배웅, 외식, 친지방문목적 통행을 통합)하였음. 단, 서울시의 전체 주거시설 중 중심지 내 입지한 비율이 13%인 것을 고려하여 귀가 목적을 제외하고 분석

38)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자료에서는 교통존체계를 행정구역체계에 따르며 가장 작은 단위는 서울의 행정동 단위임. 해당 지표는 중심지 경계에 속하는 행정동의 통행량을 집계한 결과이며, 중심지에 대한 정확한 통행 목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순, 통행 중 여가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잠실(27.5%), 청량리·왕십리 (27.2%), 창동·상계(25.5%)

- 사고 목적 통행량은 가산·대림 8.2만 건, 청량리·왕십리 6.6만 건, 잠실 6.3만 건 순, 통행 중 사고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용산(22.6%), 창동·상계(21.3%), 잠실(20.7%)
- 지역중심에는 출근(63.3만 건), 여가(61.7만 건), 사고(57.1만 건) 목적의 통행이 많음
  - 출근 목적 통행량은 천호·길동 19.5만 건, 수서·문정 7.8만 건, 목동 6.6만 건 순, 통행 중 출근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수서·문정(35.4%), 천호·길동(25.2%), 연신내·불광(23.6%), 마포·공덕(22.8%)
  - 여가 목적 통행량은 천호·길동 19.6만 건, 목동 7.2만 건, 성수 5.4만 건 순, 통행 중 여가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동대문(32.2%), 성수(28.8%), 천호·길동 (25.3%)
  - 사고 목적 통행량은 천호·길동 17.3만 건, 목동 6.8만 건, 연신내·불광 5.5만 건 순, 통행 중 사고 목적 비율이 높은 중심지는 용산(26.0%), 사당·이수(22.9%), 천호·길동(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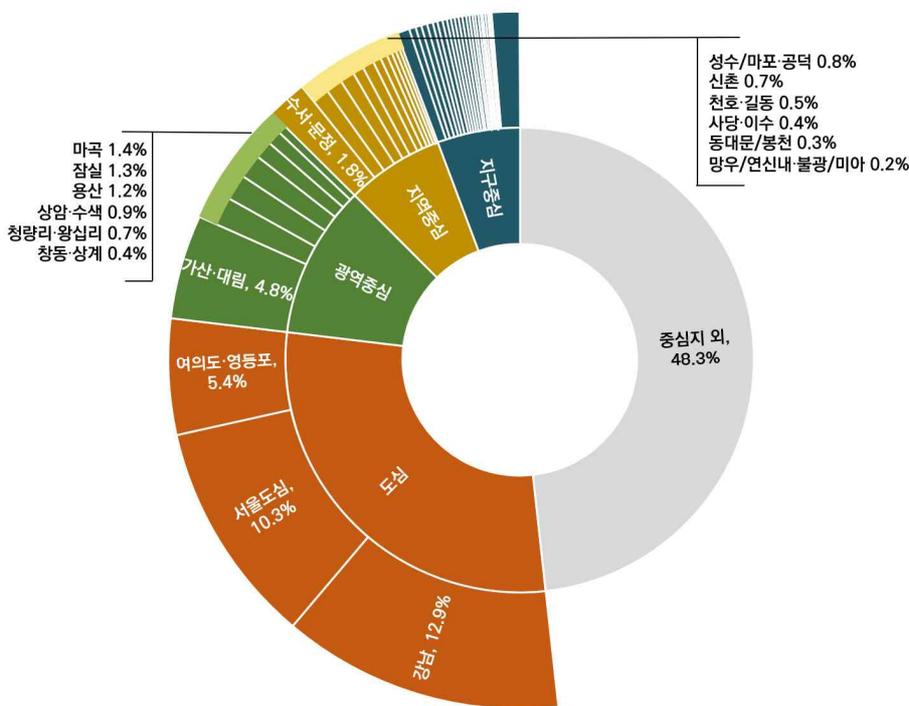
[그림 2-79] 중심지별 목적별 통행

자료: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전수화 공동사업, 2021

## 5) 일자리

### (1) 종사자 수

- 2021년 중심지 내 종사자는 262.7만 명으로 서울시 종사자(507.8만 명)<sup>39)</sup>의 51.7%
  - 도심 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45.5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28.6%를 차지
    - 강남 65.6만 명(12.9%), 서울도심 52.4만 명(10.3%), 여의도·영등포 27.4만 명(5.4%) 순
  - 광역중심 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54.0만 명(10.6%), 지역중심 34.4만 명(6.8%), 지구중심 28.9만 명(5.7%)
    - 광역중심의 종사자는 가산·대림 24.6만 명(4.8%), 마곡 7.0만 명(1.4%), 잠실 6.5만 명(1.3%), 용산 5.9만 명(1.2%), 상암·수색 4.4만 명(0.9%), 청량리·왕십리 3.5만 명(0.7%), 창동·상계 2.1만 명(0.4%)
    - 지역중심의 종사자는 수서·문정 9.3만 명(1.8%), 마포·공덕 4.2만 명(0.8%), 성수 4.0만 명(0.8%), 신촌 3.5만 명(0.7%)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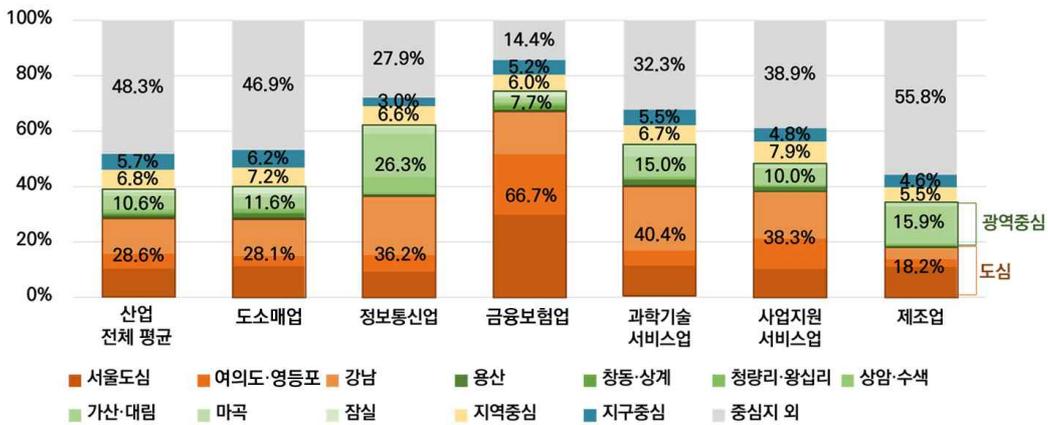
[그림 2-80] 중심지 위계별 종사자 분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위치정보 포함), 2021

39) 사업체조사상 응답자가 기재한 주소(지번)가 연속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포함 자료에서 제외, 사업체 위치정보의 총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전국사업체조사(KOSIS)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 (2) 산업별 종사자 구성비

- 종사자 기준으로 중심지에 밀집한 산업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
  - 서울의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 22.6만 명 중 중심지 내 종사 비율은 85.6%
    - 서울시 전체 금융보험업 종사자 중 도심의 비율이 66.7%로 특히 집중, 서울도심 29.8%, 여의도·영등포 21.9%, 강남 15.1%
    - 광역중심 7.7%, 지역중심 6.0%, 지구중심 5.2%
  - 정보통신업 종사자 30.7만 명 중 중심지 내 종사 비율은 72.1%
    - 강남(20.9%), 가산·대림(15.8%), 서울도심(9.3%)에 집중
  - 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 52.6만 명 중 중심지 내 종사 비율은 67.7%
    - 강남(23.4%), 서울도심(11.4%), 가산·대림(7.2%), 여의도·영등포(5.5%), 마곡(3.6%), 수서·문정(3.3%)에 집중
  - 사업지원서비스업 종사자 43.9만 명 중 중심지 내 종사 비율은 61.1%
    - 강남(17.1%), 여의도·영등포(11.0%), 서울도심(10.2%), 가산·대림(6.0%), 수서·문정(1.9%), 마포·공덕(1.7%) 등에 분포
  - 도소매업 종사자 89.7만 명 중 중심지 내 종사 비율은 53.1%
    - 강남(13.1%), 서울도심(11.2%), 가산·대림(3.9%), 여의도·영등포(3.8%), 수서·문정(2.0%) 등에 분포



[그림 2-81] 특화산업의 중심지 위계별 종사자 분포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위치정보 포함), 2021

### (3) 산업별 특화도

- 종사자 기준 중심지 특화산업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 도심은 금융보험업(서울시 대비 특화도 2.33), 과학기술서비스업(1.41), 사업지원서비스업 (1.34), 정보통신업(1.26)이 특화(종사자 기준)
    - 서울도심의 특화산업은 금융보험업(2.88), 공공행정업(1.70), 과학기술서비스업 (1.11)
    - 여의도·영등포는 금융보험업(4.05), 사업지원서비스업(2.03), 공공행정업(1.18)
    - 강남은 과학기술서비스업(1.82), 정보통신업(1.62), 사업지원서비스업(1.33)
  - 광역중심은 정보통신업(2.47), 제조업(1.50), 과학기술서비스업(1.42)이 특화
    - 용산의 특화산업은 도소매업(1.84), 과학기술서비스업(1.82), 사업지원서비스업 (1.28)
    - 창동·상계는 공공행정업(5.78), 금융보험업(3.46), 숙박음식업(1.81)
    - 청량리·왕십리는 공공행정업(5.97), 도소매업(1.61), 숙박음식업(1.42)
    - 상암·수색은 정보통신업(6.80)의 특화도가 중심지 특화도 중 가장 높음. 그 외 산업의 특화도는 1.0 미만
    - 가산·대림은 정보통신업(3.26), 제조업(2.77), 과학기술서비스업(1.48), 사업지원서비스업(1.24)
    - 마곡은 과학기술서비스업(2.62), 정보통신업(1.60), 운수창고업(1.09)
    - 잠실은 예술·여가서비스업(1.93), 도소매업(1.80), 숙박음식업(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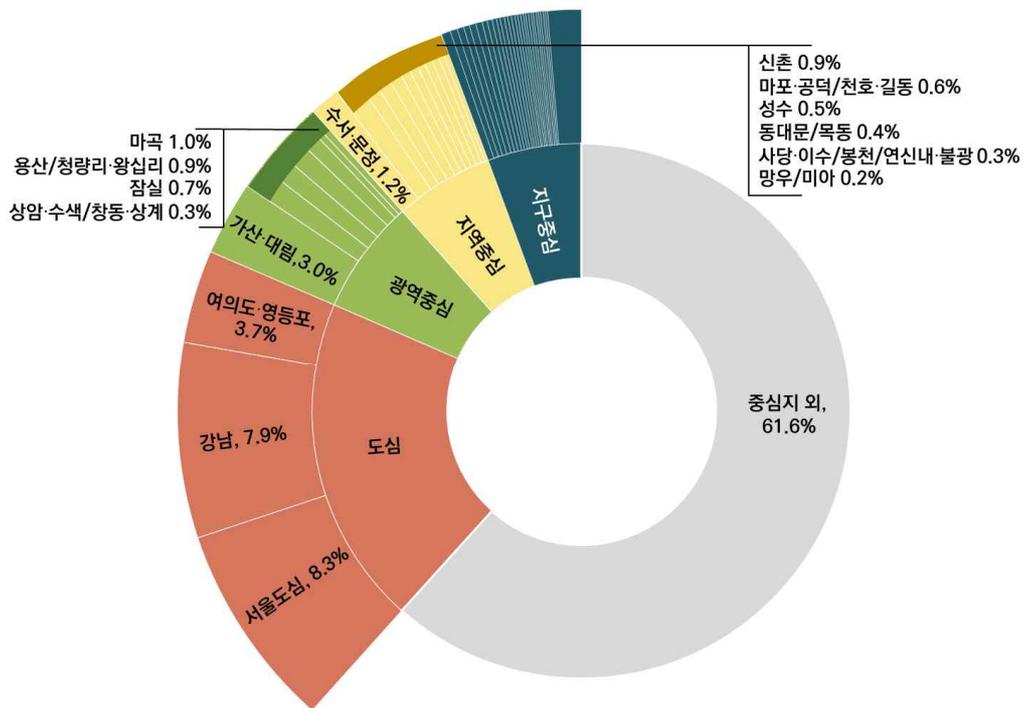
중심지 위계	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 창고업	숙박 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예술·여가 서비스업	단체·기타 개인 서비스업	
도 심	한양도성	1.06	0.55	1.08	0.74	0.97	0.90	2.88	0.96	1.11	0.99	1.70	0.49	0.50	0.93	0.65
	여의도·영등포	0.50	0.85	0.70	0.35	0.76	1.11	4.05	0.68	1.02	2.03	1.18	0.17	0.35	0.58	0.80
	강남	0.35	0.93	1.01	0.27	0.77	1.62	1.17	1.30	1.81	1.33	0.54	0.41	0.55	0.75	0.68
광역 중심	용산	0.32	0.55	1.84	0.54	1.02	0.84	0.85	0.77	1.82	1.28	0.36	0.20	0.30	0.40	0.77
	창동·상계	0.09	0.66	0.91	0.53	1.81	0.17	3.46	0.57	0.25	0.44	5.78	0.68	1.44	1.45	0.71
	청량리·왕십리	0.84	0.28	1.61	0.72	1.42	0.21	1.11	0.76	0.68	0.44	5.97	0.23	1.15	1.09	0.83
	상암·수색	0.31	0.12	0.69	0.41	0.75	6.80	0.47	0.32	0.66	0.34	0.68	0.21	0.17	0.67	0.67
	가산·대림	2.77	0.82	0.81	0.40	0.38	3.26	0.33	0.49	1.48	1.24	0.09	0.31	0.15	0.21	0.34
	마곡	0.56	0.94	0.86	1.09	0.84	1.60	0.53	0.78	2.62	0.86	0.11	0.18	0.71	0.77	0.59
	잠실	0.41	1.39	1.80	0.40	1.48	0.95	1.40	0.95	0.79	0.41	1.13	0.17	0.47	1.93	0.58
지역 중심	동대문	2.14	0.54	1.59	0.26	0.89	0.36	1.84	1.52	0.28	1.59	0.32	0.84	0.71	1.35	0.56
	망우	1.08	0.97	1.23	0.56	2.20	0.13	0.95	1.26	0.20	0.44	0.49	0.79	1.95	3.32	1.10
	미아	0.55	0.26	1.46	0.20	2.47	0.28	0.77	0.76	0.30	0.19	1.58	0.51	2.96	1.72	1.36
	성수	3.62	0.50	1.11	0.70	1.03	1.14	0.45	1.14	0.75	1.17	0.02	0.19	1.01	0.77	1.42
	마포·공덕	0.19	0.47	0.79	1.15	0.65	1.39	1.78	1.05	1.40	2.10	1.65	0.30	0.51	0.38	1.00
	신촌	0.33	0.31	1.12	0.35	2.70	1.16	0.61	1.42	0.83	0.88	0.15	1.22	0.64	2.04	1.44
	연신내·불광	0.36	0.23	1.42	0.10	2.46	0.29	1.83	1.50	0.26	0.27	0.56	0.64	2.17	1.56	1.90
	목동	0.13	0.61	0.86	0.21	1.31	2.01	0.89	0.73	0.31	0.61	4.05	2.32	0.53	1.75	1.11
	봉천	0.26	2.71	0.70	0.18	1.74	0.61	0.43	1.57	0.29	0.77	0.10	0.84	2.01	1.76	1.62
	사당·이수	0.14	0.38	0.58	1.14	1.88	0.66	2.48	1.19	0.83	2.38	0.08	0.38	0.88	1.03	1.02
수서·문정	0.55	3.32	1.08	0.57	0.45	0.96	0.19	1.06	1.79	1.02	0.84	0.09	0.22	0.32	0.36	
천호·길동	0.23	0.83	1.44	0.28	1.57	0.32	1.14	1.04	0.59	1.25	0.37	0.39	2.14	1.22	0.99	

[그림 2-82] 중심지 산업별 특화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위치정보 포함), 2021

- 지역중심은 건설업(1.37), 숙박음식업(1.26), 사업지원서비스업(1.17), 부동산업(1.14)이 특화
  - 동대문의 특화산업은 제조업(2.14), 금융보험업(1.84), 사업지원서비스업(1.59)
  - 망우는 예술·여가서비스업(3.32), 숙박음식업(2.20), 보건·복지서비스업(1.95)
  - 미아는 보건·복지서비스업(2.96), 숙박음식업(2.47), 예술·여가서비스업(1.72)
  - 성수는 제조업(3.62),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1.42), 사업지원서비스업(1.17)
  - 마포·공덕은 사업지원서비스업(2.10), 금융보험업(1.78), 공공행정업(1.65)
  - 신촌은 숙박음식업(2.70), 예술·여가서비스업(2.04),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1.44)
  - 연신내·불광은 숙박음식업(2.46), 보건·복지서비스업(2.17), 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1.90)
  - 목동은 공공행정업(4.05), 교육서비스업(2.32), 정보통신업(2.01)
  - 봉천은 건설업(2.71), 보건·복지서비스업(2.01), 예술·여가서비스업(2.01)
  - 사당·이수는 금융보험업(2.48), 사업지원서비스업(2.38), 숙박음식업(1.88)
  - 수서·문정은 건설업(3.33), 과학기술서비스업(1.79), 도소매업(1.08)
  - 천호·길동은 보건·복지서비스업(2.14), 숙박음식업(1.57), 도소매업(1.44)
- 지구중심의 특화산업은 공공행정업(1.98), 숙박음식업(1.45), 보건·복지서비스업(1.35), 예술·여가서비스업(1.17)

#### (4) 사업체 수

- 2021년 중심지 내 사업체는 40.3만 개로 서울시 사업체(104.9만 개)<sup>40)</sup>의 38.4%
- 도심에 위치한 사업체는 20.9만 개로 서울시 종사자의 19.9%를 차지. 광역중심은 7.2만 개(6.9%), 지역중심 6.2만 개(5.9%), 지구중심 5.9만 개(5.6%)
  - 도심에 위치한 사업체는 서울도심 8.7만 개(8.3%), 강남 8.3만 개(7.9%), 여의도·영등포 3.9만 개(3.7%)
  - 광역중심에 위치한 사업체는 가산·대림 3.1만 개(3.0%), 마곡 1.0만 개(1.0%), 용산, 청량리·왕십리 0.9만 개(0.9%), 잠실 0.7만 개(0.7%), 창동·상계, 상암·수색 0.3만 개(0.3%)
  - 지역중심에 위치한 사업체는 수서·문정 1.3만 개(1.2%), 신촌 1.0만 개(0.9%), 마포·공덕, 천호·길동 0.6만 개(0.6%), 성수 0.5만 개(0.5%), 목동, 동대문 0.4만 개(0.4%), 사당·이수, 봉천, 연신내·불광 0.3만 개(0.3%), 미아, 망우 0.2만 개(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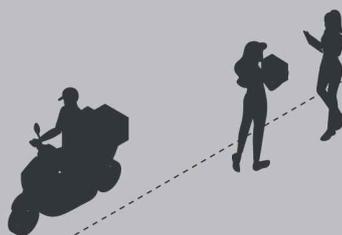
[그림 2-83] 중심지 위계별 사업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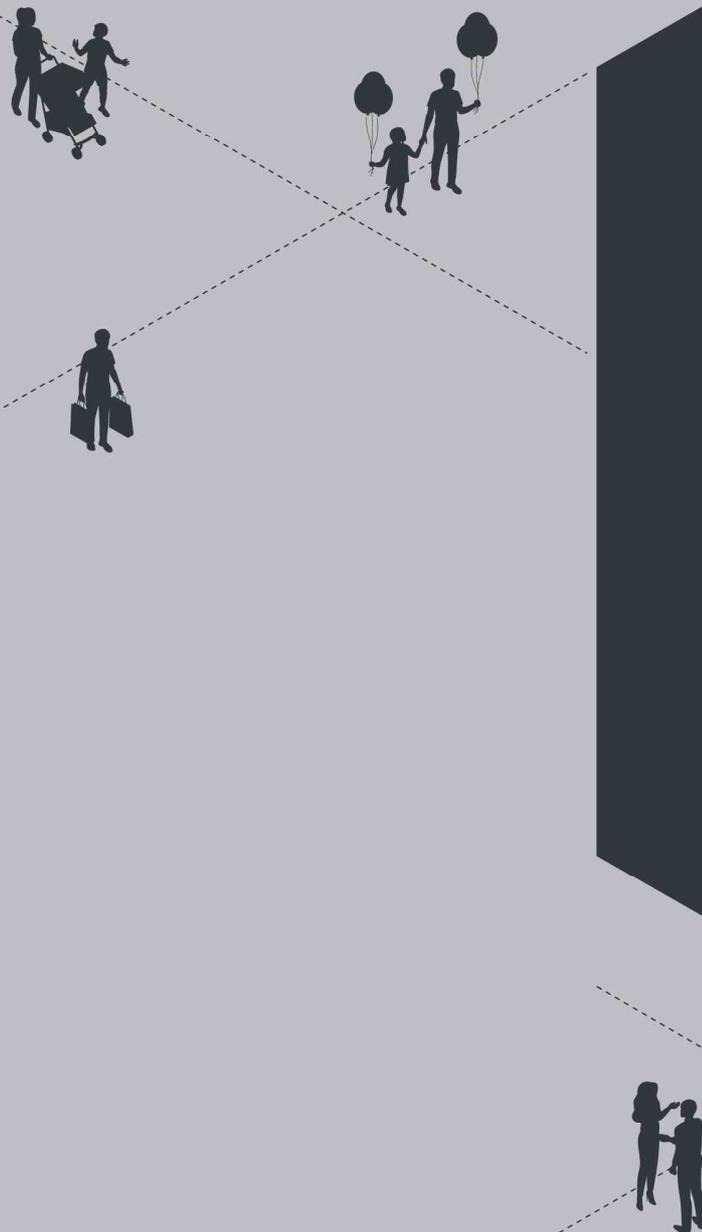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위치정보 포함), 2021

<sup>40)</sup> 사업체조사상 응답자가 기재한 주소가 연속지적도 상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위치정보 포함 자료에서 제외, 사업체 위치정보의 총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전국사업체조사(KOSIS) 자료와는 불일치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Part. III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



## 제1장

#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개요

1\_ 진단의 목적

2\_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체계 및 구성

3\_ 진단의 범위와 역할

---





# 01.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개요

## 1\_진단의 목적<sup>41)</sup>

-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 점검을 통한 실행력 강화에 목적
  -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실효성을 제고한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구조에 따라 진단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계획의 추진과정을 점검한다.
    - 성과 진단지표를 활용하는 정량적인 추진과정 진단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정책,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추진과정 진단을 병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모니터링한다.
    - 기본계획의 추진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소통을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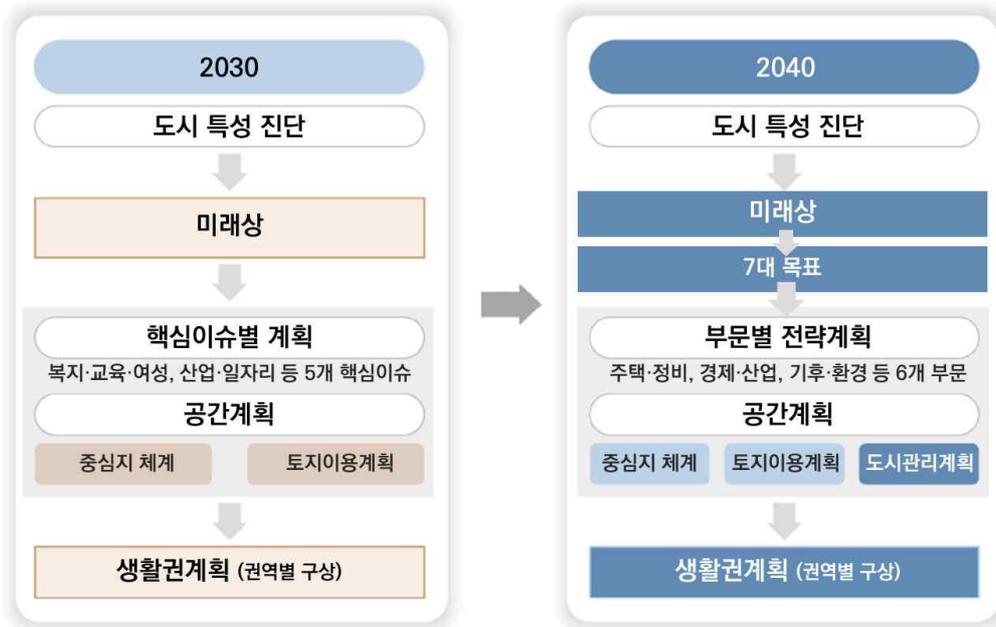
[그림 1-1]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구성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 p.149, 재구성

<sup>41)</sup>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변화 진단체계는 동일하므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

## 2\_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체계 및 구성

- 2023년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고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도시 구축, 글로벌 경쟁, 미래교통수단 등장 등의 여건 변화와 삶의 질 개선, 도시경쟁력 등 시민이 뽑은 핵심 가치에 따라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라는 미래상을 구상하였다.
  - 미래상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혁신’, ‘도시계획 대전환’,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등 7개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 목표를 구체화하면서도 행정에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정비, 경제·산업, 기후·환경, 안전·방재, 교통·물류, 사회·문화 등 6개 부문에 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분야별 융합이 필요한 공간계획을 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실·국·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제고한 부문별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1-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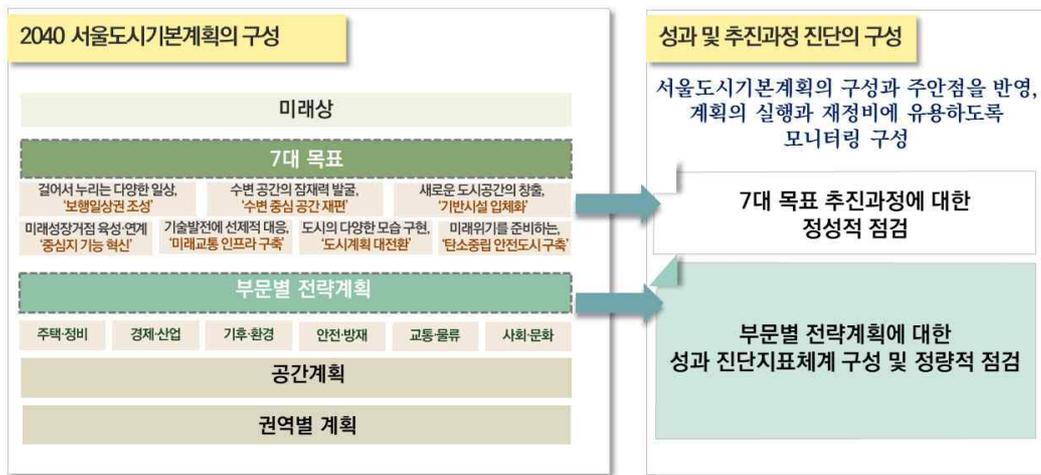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202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p.10, 수정·보완

[표 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와 부문별 목표

구분1	구분2	7대 목표 및 부문별 목표
7대 목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삶의 질"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기반시설 입체화'
	서울의 성장 견인 "도시경쟁력"	미래성장거점 육성·연계 '중심지 기능 혁신'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대전환시대 미래 서울의 "가치와 방향"	미래위기를 준비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도시계획 대전환'		
부문별 전략계획	주택·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경제·산업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기후·환경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
		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안전·방재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
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		
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교통·물류	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	
	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사회·문화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시민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3\_진단의 범위와 역할

- 서울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
  - 기본계획의 미래상을 구체화한 7대 목표는 추진과정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고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단한다.
    - 7대 목표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진단대상을 정립하고 추진과정에 대한 정성적 진단이 필요하다.
    - 목표별 제시하는 사항을 관련계획 및 사업 단위 등으로 구체화하여 추진과정을 진단하도록 한다.
  - 부문별 전략계획은 부문별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담을 수 있는 성과 진단지표를 토대로 추진과정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계획의 주안점을 대표하는 성과 진단지표를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의 추진과 성과를 살필 수 있도록 한다.



[그림 1-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의 구성

자료: 서울연구원,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 p.154, 수정·보완

- 이번 진단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전략계획의 성과 진단을 위한 기준값 조사 시행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공표된 후 첫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으로, 기준년도의 지표별 기준값을 조사하고 지표의 수정·보완 체계를 정례화하였다.
  - 지표정의서를 작성하여 계획 상 진단대상의 선정 배경 및 성과 진단지표의 함의, 지표의 통계적 정의와 동향을 정리하였다.

## 제2장

# 성과진단 - 부문별 전략계획

- 1\_ 성과 진단의 개요
  - 2\_ 주택·정비 부문
  - 3\_ 경제·산업 부문
  - 4\_ 기후·환경 부문
  - 5\_ 안전·방재 부문
  - 6\_ 교통·물류 부문
  - 7\_ 사회·문화 부문
- 





## 02. 성과 진단 - 부문별 전략계획

### 1\_성과 진단의 개요

#### 1) 성과 진단의 방향성

- **부문별 전략계획의 지향점과 실현과정을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정립**
  -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부문별 계획의 정책적 방향성과 의미를 토대로 추진현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고자 다음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원칙을 토대로 하였다.
    - 부문별 주안점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한다(대표성).
    - 다수의 지표가 부문별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종합성).
    - 계획상의 목표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표를 선정한다(실현가능성).
    - <투입-과정/활동-산출-결과> 중 사업지표를 지양하고 산출과 결과에 대해 다루는 지표를 선정한다(결과지향성)<sup>42)</sup>.
    - 진단의 일관성을 위하여 주기적인 갱신이 가능하며 공신력을 갖는 지표를 선정한다(타당성, 지속성).
- **대표성과 종합성을 토대로 지표를 편성하여 진단의 범위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부문별 지표가 계획 목표 및 전략의 주안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개별 지표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 기존의 성과 진단지표(2030 서울도시기본계획)는 개별 목표에 따른 단일지표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대표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였다.
    - 금번 성과 진단지표는 부문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정보의 중복은 줄이면서도 부문 내 목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다.
  - 지표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현황과 계획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조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sup>42)</sup> 투입은 정책에 대하여 투입되는 물적·인적 자원, 과정 및 활동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도입, 산출은 주어진 정책으로 만들어진 1차적 결과, 결과는 산출에 따른 효과와 더 나아가서는 1.2차적, 직·간접적, 의도적/비의도적 효과까지를 포괄함

- 지표는 복잡한 현상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정보의 단편화로 인과관계나 위계 등에 대하여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의 폭을 넓히고 명확하게 진단 결과를 구성 하도록 하였다.

○ **여건 변화에 따라 지표를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지표 보완을 정례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sup>43)</sup>에서는 필요한 경우 지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단기·장기 지표의 활용, 비정기 지표의 활용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제시하였다.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개념적으로 다루거나, 현 시점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를 대체하기 위하여 단기지표-장기지표를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비정기지표로 분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이와 같은 지표에 대한 정기적 점검의 필요성에 따라 매해 지표를 재검토한 사항을 진단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표에 대한 진단 시행 전에, 당해 지표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를 정례화하였다.

성과 진단지표의 선정원칙



성과 진단지표의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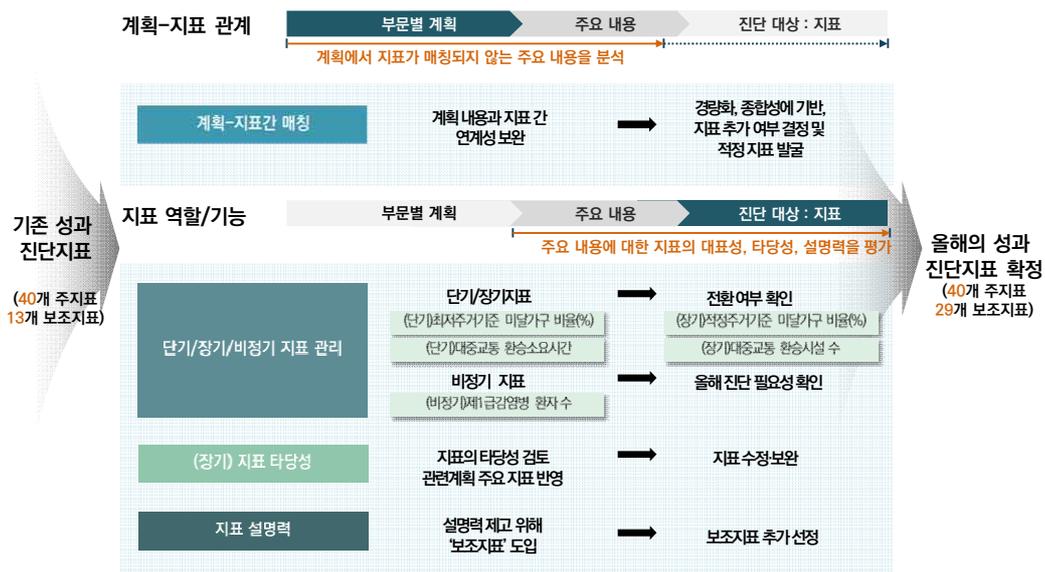
<p><b>다수의 지표가 계획의 주안점을 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의 목표, 전략 주안점을 부문 내 지표들로 설명</li> <li>• 정보의 경량화와 종합성 사이의 균형에 주력</li> </ul> <p>예시) 주택·정비 부문</p>	<p><b>보조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단편화를 보완하기 위해 <b>보조지표 활용</b> → 성과를 다각도로 진단</li> </ul> <p>예시1) 단위 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규모 주택정비사업건수</li> <li>소규모 주택정비사업지역 면적</li> </ul> <p>예시2) 추진의 보조수단 등 다른 키워드를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li> <li>공공병원 병상 수</li> </ul> <p>예시3) 다른 비교범위를 활용하여 추진과정을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환경만족도</li> <li>비아파트 거주자의 주거환경만족도</li> </ul>	<p><b>정기적 지표 평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진단 지표의 정기적인 검토</li> <li>• 계획-지표 간 매칭을 통한 추가 지표 논의</li> <li>• 지표의 대표성에 대한 정기 보완체계 마련</li> </ul> <p><b>장·단기 지표 및 비정기 지표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하지만 현재 수집이 어려운 지표는 장기 지표로 지정·관리</li> </ul>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li> <li>(장기) 적정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li> </ul> <p>단기지표 → 장기지표</p> <p>※ 제1급감염병 환자 수는 비정기 지표로 관리</p>
---	---	---

[그림 2-1] 성과 진단지표의 선정원칙과 운영방향

43) 제6장 계획의 실현(제2절 상시 모니터링체계 운영, pp.177-182)

## 2) 성과 진단지표의 점검

- 지표의 점검·보완을 통해 2023년 성과 진단지표로 40개의 주지표와 29개 보조지표를 확정
  - 계획 수립 이후 진단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지표의 사용이 적합한지, 지표체계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매년 추진과정 진단에 앞서 지표의 수정·보완과 관련한 점검을 시행하며, 이때 점검은 '계획과 지표 간의 관계 검토'와 '지표의 역할과 기능에 따른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
  - 지표는 계획의 주안점을 설명하고 추진과정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지표체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계획상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신규 지표를 제안받거나 발굴한 뒤 검토하여 지표 추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 지표가 계획의 추진과정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다.
    - 장기지표는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추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표화가 어려울 때 선정하여 진단의 지향점 역할을 한다. 여건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단기지표를 활용하며, 정기적으로 장기지표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 비정기지표는 매년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를 다루므로, 정례화한 지표 점검을 통하여 해당 지표의 진단 필요성을 검토한다.
    - 이밖에 진단대상의 관련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를 반영하거나, 지표가 진단대상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지를 검토하여 기존 성과 진단지표를 수정·보완한다.
    - 보조지표를 도입하면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선정하여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2] 성과 진단지표의 점검 절차

- 절차에 따라 2023년에는 주지표 1개의 단위를 수정하였고, 또 다른 주지표는 장기지표에서 단기지표로 전환하였다. 보조지표 중 1개는 선정을 해제하였으며, 17개를 신규 선정하였다.
  - 주지표 ‘재가노인돌봄률’은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로 단위를 변경하였다.
  - 주지표 ‘도시물류시설 면적(장기)’은 통계가 작성되지 않는 생활물류시설을 제외한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로 정의하여 진단한다.
  - 기초적 현황과 추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7개의 보조지표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수혜율’은 선정을 해제하였다.

**[표 2-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

부문	진단대상	지표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주택·정비	주택재고	주택보급률	서울시 가구 대비 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서울시 일반 가구 ×100)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증가
		천 인당 주택 수	천 인당 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서울시 인구 ×1,000)		-
		주택 준공량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주택,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주택, 주택법 제15조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대상 주택의 준공 호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통계」	-
	주거수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단기)	가구원수와 사용 방수, 주택사용면적을 활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서울시 일반가구×10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감소
	공공주택 재고	공공주택 재고율	공공임대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100	서울시 내부자료 (공공주택과)	증가
		공공주택 재고	서울시 공공주택의 재고		-
	주거비부담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	주거비과부담가구 기준(RIR 25% 또는 HCIR 30%)을 초과하는 가구 수/임차 거주 가구 수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증가
	주거환경 만족	주거환경 만족도	시민이 본인 거주 주변 환경(상업, 의료, 문화시설, 공공기관 접근성, 녹지, 교통, 접근, 안전, 교육, 환경(소음, 대기오염, 미화) 및 이웃관계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증가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 유형별 거주 응답자의 평균 주거환경만족도		-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	저층 주거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사업의 인허가 누적건수	서울시 내부자료 (전략주택공급과, 공동주택지원과)	증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저층 주거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사업의 인허가 누적면적		-
	직주균형	직주균형지수	대생활권별 고용자 수 / 대생활권별 취업자 수 × 100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도착 통근자 수 / 출발 통근자 수 × 100)	국가교통DB,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권역별 차등관리
		권역별 거주자의 내부통근률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지역 내 통근자 수 / 출발 통근자 수 × 100		-
		권역별 일자리의 내부고용률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지역 내 통근자 수 / 도착 통근자 수 × 100		-
	중심성 강화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에 대한 신축 허가 연면적	건축물허가대장	증가
서울 신축 중 상위중심지 비율		상위 중심지 내 신축 허가 연면적 / 서울시 총 신축 허가 연면적 ×100		-	

[표 2-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 (계속)

부문	진단대상	지표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신기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증가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	(서울의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서울의 총 종사자 수)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국내 총 종사자 수)		-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종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증가
		콘텐츠산업 특화도	(서울의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서울의 총 종사자 수) /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국내 총 종사자 수)		-
경제·산업	혁신창업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며 벤처기업 확인과정을 거친 기업의 수(매년 6월 말 기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현황자료	증가
		신생기업 수	기준 연도와 전년도에 활동 비교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기준 연도-5년 신생기업이 진단시점까지 생존한 기업 수 / (기준 연도-5년) 신생기업 수 × 100		-
소상공인 경기체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수준을 지수화한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매년 6월, 12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	증가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며, 종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현재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영업 비율	소상공인 중 현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5년 이상인 사업체 수 / 전체 사업체 수		-
관광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수	서울에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입국 외래관광객 수 × 서울 방문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3천만 명(2030)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을	외래관광객 중 한국에 재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대기질개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서울시 대기 중 2.5 $\mu$ m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10 $\mu$ g/m <sup>3</sup> (2040)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서울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농도가 나쁨(35 $\mu$ g/m <sup>3</sup> )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		-
기후·환경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 수송 등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등에 따른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14,834천 톤(2040) (2005년 대비 70% 감축)
		건물에너지 저감 효율화 사업 수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상업건물, 주택 등에 대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개소수(누적)	서울시 내부자료 (친환경건물과)	100만 호(2026)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서울시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 × 10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1% (2030)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서울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력생산량		-
	물순환	물 재이용량	빗물,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로 대체하여 이용한 도시용수의 양	환경부 하수도통계	280,118 천m <sup>3</sup> /년(2040)
	공원확충	1인당 공원 면적	공원 면적 (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국립공원)/인구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증가
		공원율	공원 면적 / 행정구역 면적 × 100		-
녹지환경 만족	녹지환경 만족도	시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매우 좋다 10점, 매우 나쁘다 0점 기준)	서울서베이	증가	

[표 2-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 (계속)

부문	진단대상	지표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기후·환경 (계속)	수변공간 활성화	한강공원 이용객 수	산책, 낚시, 자전거, 인라인, 운동·수상시설, 수영장, 행사 등을 위하여 한강공원을 이용한 이용객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증가
	자원순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서울 하루 평균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합/인구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0.86kg/인/일 (2027)
		생활폐기물 매립률	서울 생활폐기물 중 매립률 / 생활폐기물 발생량		
안전·방재	자연재난	자연재난 피해액	자연재난(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에 따른 피해액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감소
		자연재난 이재민 수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수		-
	사회재난	사회재난 사고 건수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철도, 가스, 항공기 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고 건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감소
		사회재난 사망자 수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 수		-
	시설물 안전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교량, 건축물, 기타 토목 시설물 등) 중 시설물 안전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비율(개소 기준)	국도안전관리원 국도안전통계연보	증가
	감염병	제1급감염병 환자 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즉시 신고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 감염병(에볼라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SARS 등)의 확진자 수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감소
범죄발생	5대범죄 발생 건수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범죄 건수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 통계	감소	
교통·물류	첨단교통	첨단도로 연장	IT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지원(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정보 교류, 신호 개방 등 도로인프라 구축)하는 시설을 갖춘 도로의 총 연장	서울시 내부자료 (미래첨단교통과)	증가
		첨단도로 비율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도로 연장 /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 × 100	서울시 내부자료 (미래첨단교통과),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친환경교통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서울 내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등록대수		증가
		친환경차량 보급률	서울의 등록차량 중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 (서울의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대수/ 서울의 전체 차량 등록대수 × 100)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통행량	버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통행량		증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서울의 총 통행량 중 버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통행량의 비율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환승편의성 제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지하철역 기준 버스에서 하차하여 환승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감소
	보행안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자 중 사망자 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2019년 대비 50% 감소(2026)*
	도시물류 지원	도시물류시설 면적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연면적	국도교통부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	증가

[표 2-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성과 진단지표 (계속)

부문	진단대상	지표명	내용 및 산정식	출처	목표치
사회·문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고립도	시민 중 신체, 경제, 정신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OECD 공동체지수 중 사회적 지지망 항목)	서울특별시, 서울세베이	감소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및 동참 의지의 수준(10점 척도)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빈곤층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노인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3)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
	문화 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서울인구 십만 명당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개소수 (서울에서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화시설(공공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총수 / 서울 총인구×100,000)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증가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의 수		-
	공공보건 인프라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서울인구 십만 명당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서울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총수/ 서울 총인구×100,000)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증가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서울에 위치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		-
		공공병원 병상 수	서울에 위치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 등)의 병상 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
	복지 안전망	빈곤율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의 비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감소
	평생교육 참여	평생학습 참여율	연간 국가학력체계에 포함되는 형식교육,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 (형식교육 참여자 + 비형식교육 참여자 - 동시참여자) / 서울의 25~79세 인구 ×100	교육부,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	증가
	영유아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서울시 전체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비율(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 서울시 전체 영유아 수×100)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통계	증가
영유아기 틈새돌봄제공률		전체 어린이집 수 중 야간, 주말, 휴일에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비율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	
노인돌봄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수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증가	

## 2\_주택·정비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주택·정비 부문은 4개 목표, 13개 전략으로 구성, 8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주택·정비 부문에서는 주택 공급 활성화와 중심지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내 제공 수단의 강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따른 주거 안정 및 질적 향상, 주민 커뮤니티 및 수변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주택·정비 부문의 목표와 전략은 크게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주택공급, 주거수준, 주거안정, 주거부담, 친환경주택, 지역공동체 상생, 주민 생활편의, 직주근접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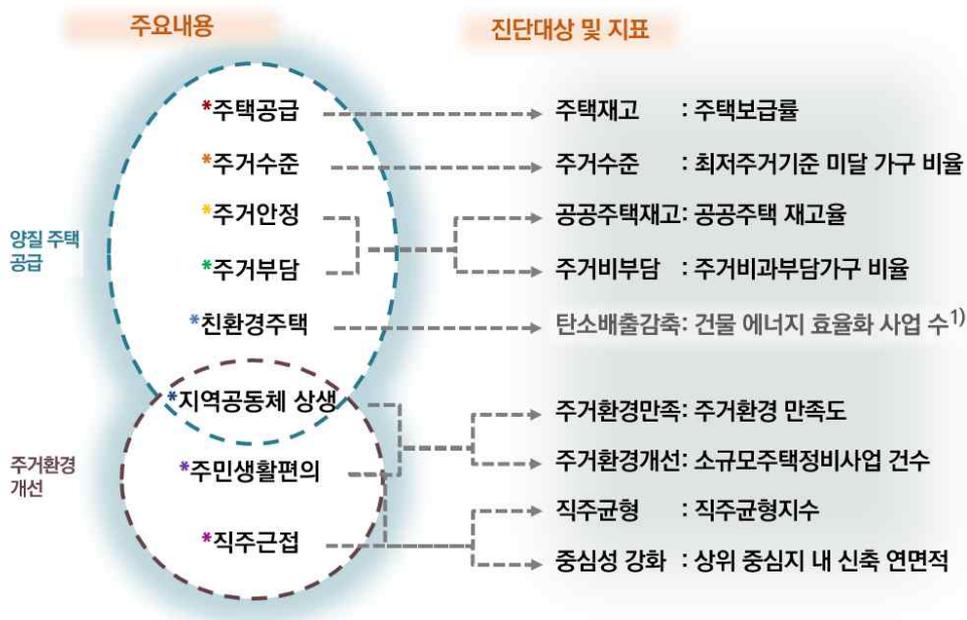
목표 1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다양한 도시계획적 수단으로 양질*의 주택 공급* 활성화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	
주변 지역과 상생*하며 공공성을 확보**하는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중심지* 특성을 반영하고 복합기능을 강화**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 직주근접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여 공공성 확보**	
목표 2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적정한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기준과 지원방안 마련	
거주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및 거주자 친화적인 주거공간 개발	
주거 안정* 측면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목표 3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주거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주택 개발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환경 및 장수명(長壽命)* 주택 공급 유도 및 확대	
목표 4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다양한 도시 생활을 지원*하는 지역복합 커뮤니티 거점 조성 + 생활편의기능 확충*	
주민주도 주거환경 개선**과 재생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 지원·관리	
수변 친화적인 주택 개발 계획으로 지역에 열린 수변 공간 확보	



[그림 2-3] 주거·정비 부문의 전략계획

- 부문별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정립하고, 이를 설명할 지표를 선정 하였다. 주택공급은 '주택보급률', 주거수준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주거안정과 주거부담은 공적주택과 주거비 부담으로 진단대상을 나누어 '공적주택 재고율'

과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로 지표를 선정하였다. 친환경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수'를 진단한다. 지역공동체 상생과 주민 생활편의는 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와 개선 정도를 진단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만족도'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를 지표로 채택하였다. 또한 주민 생활편의와 직주근접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과 '직주균형지수'를 선정하였다.



[그림 2-4] 주거·정비 부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진단지표  
 주 1)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는 기후·환경 부문에서 진단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주택보급률

- ‘주택보급률’은 주택 시장에서 가구 수에 따른 주택 재고의 공급 정도를 진단하는 지표
  - 주택·정비 부문별 전략계획(이하 부문계획)에서는 가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도록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내 주택에 대한 수요와 재고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주택보급률’은 서울시 가구 대비 주택의 비율이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판단하는 주요한 지표이며, 여기서 주택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등을 포함한다.<sup>44)</sup>
    - ‘주택보급률’은 주택과 가구를 비교하므로, ‘천 인당 주택 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인구나 주택 간 균형도 함께 진단한다.
    - ‘주택 준공량’을 보조지표로 하여 주택의 신규 공급 추세를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서울시 가구 대비 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서울시 일반 가구 ×100)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향상
보조 지표	천 인당 주택 수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천 인당 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서울시 인구 ×1,000)
	주택 준공량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주택,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주택, 주택법 제15조의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대상 주택의 준공 호수

- 서울시 전체 기준 2022년 주택보급률은 93.7%이다.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 2022년 기준 천 인당 주택 수는 407.7호, 주택 준공량은 5.6만 호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주택보급률	94.9%	94.2%	93.7%	△0.5%p	-
천 인당 주택 수	394.2호	402.4호	407.7호	5.3호	-
주택 준공량	8.1만 호	7.1만 호	5.6만 호	△1.5만 호	△21.1%

44) 주택보급률의 원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처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은 주택 수 통계에 포함하지 않음  
 ①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②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③독립된 출입구, ④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시민의 최소한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한 지표
  - 계획에서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이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적절한 주거 수준의 확보를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주거 질과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가구별 가구원 수와 거주하는 주택의 방 수, 주택사용 면적에 대해서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다.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할 것을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하였고,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으로 최저주거기준을 규정하고 있다.<sup>45)</sup>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의 주거면적, 방의 개수, 설비기준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 향후에 장기적으로 ‘서울형 적정주거기준’이 정립되고 관련 통계가 작성될 시, ‘적정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로 지표를 변경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가구원수별 방수 및 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을 활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서울시 일반가구×100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격년    목표치: 감소

- 2022년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6.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7.5%	6.2%	6.5%	0.3%p

## (3) 공공주택 재고율

- ‘공공주택 재고율’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부담가능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되, 정비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성 확보를 유도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므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공공주택 재고율’은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을 근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된다.

<sup>45)</sup>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에 근거, 가구 구성에 따른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 기준으로 구성된 최저주거기준을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으로 고시하고 있음. 표준 가구구성에 따라 1인가구는 1개의 침실과 부엌을 갖춘 주거면적 14㎡의 집, 부부는 1개의 방과 식사실 겸 부엌을 갖춘 26㎡의 집, 부부에 자녀 한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2개의 방과 식사실 겸 부엌을 갖춘 36㎡의 집, 부부에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3개의 방과 식사실 겸 부엌을 갖춘 43㎡의 집 등을 기준으로 함.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등의 침실분리 원칙을 토대로 함. (국토교통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 ‘공공주택 재고’를 보조지표로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 추세를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공공주택 재고율	서울시 내부자료 (공공주택과),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공공주택 수/다가구 구분거처를 고려한 서울시 전체 주택 수×100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향상
보조 지표	공공주택 재고	서울시 내부자료 (공공주택과)	-서울시 공공주택의 재고

- 2022년 기준 서울시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10.1%이다.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다.
- 공공주택 재고는 총 38.9만 호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공공주택재고율	9.2%	9.7%	10.1%	0.4%p	-
공공주택 재고	34.6만 호	37.0만 호	38.9만 호	-	5.1%

#### (4)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

-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임대료 부담은 낮추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다. 주택의 부담가능성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sup>46)</sup>, 특히 서민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하여 임차가구에 대한 실태 진단이 필요하다.
-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은 임차가구 중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크게 부담되는 가구의 비율이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주거비과부담가구를 가구소득과 비교한 평균 임차료 비율(RIR)이 25% 이상, 또는 관리비를 포함한 주거비(HCIR, Housing Cost to Income Ratio)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임차거주가구 중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RIR) 25% 초과 또는 월소득 대비 월주거비**(HCIR)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격년    목표치: 감소

\* 월소득 대비 월임차료 = 월임차료/가구 월소득×100

\*\* 월소득 대비 월주거비 = (월 임대료+월 주거관리비)/가구 월소득×100

- 2022년 서울의 주거비과부담가구의 비율은 22.9%로 전년 대비 8.2%p 증가하였다.

4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부담가능주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주거비과부담가구 비율	14.1%	14.7%	22.9%	8.2%p

### (5) 주거환경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는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생활SOC를 조성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 관리하는 등의 목표와 관련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정책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에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하다.
- ‘주거환경 만족도’는 시민이 거주하는 주변 환경(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 녹지, 교통, 안전, 교육,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른 전반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대생활권별로 세분화하여 지역별 추이를 살펴본다.
- 아파트단지와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다르므로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를 보조지표로 함께 제시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 거주자의 만족도를 살펴본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시민이 본인 거주 주변 환경(상업, 의료, 문화시설, 공공기관 접근성, 녹지, 교통, 접근, 안전, 교육, 환경(소음, 대기오염, 미화) 및 이웃관계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격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단독주택, 아파트 등 주택 유형별 거주 응답자의 평균 주거환경만족도

- 2022년 기준 서울의 전체 주거환경 만족도는 3.01점이며, 만족도는 동남권(3.15점), 서북권(3.00점), 서남권(3.00점), 도심권(2.98점), 동북권(2.94점) 순이다. 전년에 비하여 도심권과 서남권은 상승하였고, 동남권, 서북권, 동북권은 감소하였다.
- 단독주택의 평균 주거환경 만족도는 2.91점, 아파트는 3.11점으로 나타났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주거환경 만족도	2.98점/4점	3.02점/4점	3.01점/4점	△0.01점
도심권	3.02점	2.95점	2.98점	0.03점
동북권	2.88점	2.96점	2.94점	△0.02점
서북권	2.99점	3.03점	3.00점	△0.03점
서남권	2.96점	2.96점	3.00점	0.04점
동남권	3.13점	3.22점	3.15점	△0.07점
주택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독주택 2.86점 아파트 3.07점	단독주택 2.88점 아파트 3.13점	단독주택 2.91점 아파트 3.11점	단독주택 0.03점 아파트 △0.02점

## (6)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은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시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주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층주거지는 주택의 노후화, 지속적인 밀도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sup>47)</sup> 이와 관련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허가 누적 건수이다. 주거지의 도시조직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택을 개선하고 필요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포함한다<sup>48)</sup>.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의 누적면적’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규모에 대하여 모니터링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건수	서울시 내부자료 (전략주택공급과, 공동주택지원과)	- 저층 주거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사업*의 인허가 누적건수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서울시 내부자료 (전략주택공급과, 공동주택지원과)	- 저층 주거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구역의 인허가 누적면적

\*현재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으로 추진 중.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등의 유형을 지님

- 2022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적건수는 104개소이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220,258㎡로, 구역당 평균 면적은 2,117.8㎡이다.

구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수	104개소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구역 면적	220,258㎡	-	-

47) 임희지 외, 2021,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48)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가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7) 직주균형지수

○ ‘직주균형지수’는 일자리와 주거지 간 입지적 특성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직주근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연한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보행 일상권 내 공유·거점 오피스를 확충하여 지속적인 지역 기반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생활권 내에서 주거에 상응하도록 일자리 공급이 균형있게 이루어졌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 ‘직주균형지수’는 권역 내 일자리와 주거지 사이의 입지적 관계를 설명하는 지수로 대 생활권별 거주지 기준의 취업자 수와 직장소재지 기준의 고용자 수의 비율이다.
  - ‘권역별 거주자의 내부통근률’은 권역 내 거주자의 동일 권역 통근 비율이며, 주거지를 지원하는 다양한 일자리가 공급되고 있는지 진단하는 보조지표로 선정한다.
  - ‘권역별 일자리의 내부고용률’은 권역 내 일자리 중 동일 권역 거주자가 고용된 비율이며, 일자리 주변에 적당한 주거지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추이를 함께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직주균형지수	국가교통DB,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대생활권별 고용자 수 / 대생활권별 취업자 수×100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도착 통근자 수 / 출발 통근자 수×100)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권역별 차등 관리
보조 지표	권역별 거주자의 내부통근률	국가교통DB,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지역 내 통근자 수 / 출발 통근자 수×100
	권역별 일자리의 내부고용률	국가교통DB,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대생활권별 통근통행 지역 내 통근자 수 / 도착 통근자 수×100

- 2021년 기준 직주균형지수가 높은 권역은 도심권(3.08), 동남권(1.73), 서남권(0.97), 서북권(0.91), 동북권(0.73) 순이다. 서울 전체의 직주균형지수는 1.17이다.
  - 내부고용률이 높은 권역은 동북권(69.0%), 서남권(55.4%), 서북권(46.0%), 동남권(35.7%), 도심권(17.2%) 순이다.
  - 내부통근률이 높은 권역은 동남권(61.7%), 서남권(53.9%), 도심권(53.1%), 동북권(50.2%), 서북권(41.6%) 순이다.

2021년	직주균형지수	권역별 거주자의 내부통근률	권역별 일자리의 내부고용률	비고
도심권	3.08	53.1%	17.2%	통행량 조사방법 변경*으로 지표별 증감 비교 불가
동북권	0.73	50.2%	69.0%	
서북권	0.91	41.6%	46.0%	
서남권	0.97	53.9%	55.4%	
동남권	1.73	61.7%	35.7%	

\* 기존 가구별로 조사가 이루어진 통행량 조사와는 달리 2021년의 통행량 전수화조사에서는 개인 조사로 정보 수집 단위를 변경하여 이전 조사와 시계열 비교를 하기에 적정하지 않음

### (8)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은 중심지의 기능 활성화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 중심지의 특성에 따라 복합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산업 부문의 계획에서도 서울의 성장과 미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공간수요를 중심지에서 대응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중심지 기능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신축 개발행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은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 내 신축 허가된 연면적의 합으로, 매년 건축물허가대장의 신축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다.<sup>49)</sup>
    -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은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수치이므로 ‘서울 신축 중 상위 중심지 비율’을 보조지표로 활용하여 신축의 중심지 집중을 비교하도록 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 당해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내 신축 허가 연면적
			공간범위: 중심지위계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서울 신축 중 중심지 비율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 상위 중심지 내 신축 허가 연면적 / 서울시 총 신축 허가 연면적 × 100

- 2022년 상위 중심지에는 총 3.0km<sup>2</sup>의 신축 허가가 있었으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 전체 신축 중 상위 중심지 내 신축 허가는 40.0%에 해당한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2.87km <sup>2</sup>	3.00km <sup>2</sup>	3.00km <sup>2</sup>	0.00km <sup>2</sup>	△0.1%
도심	1.40km <sup>2</sup>	1.45km <sup>2</sup>	1.29km <sup>2</sup>	△0.16km <sup>2</sup>	△11.0%
광역중심	0.96km <sup>2</sup>	0.83km <sup>2</sup>	1.01km <sup>2</sup>	0.18km <sup>2</sup>	21.6%
지역중심	0.51km <sup>2</sup>	0.72km <sup>2</sup>	0.70km <sup>2</sup>	△0.02km <sup>2</sup>	△2.8%
서울 신축 중 중심지 비율	30.0%	30.6%	40.0%	9.4%p	-
도심	14.7%	14.8%	17.3%	2.4%p	-
광역중심	10.1%	8.5%	13.4%	5.0%p	-
지역중심	5.3%	7.4%	9.4%	2.0%p	-

\*2023년 11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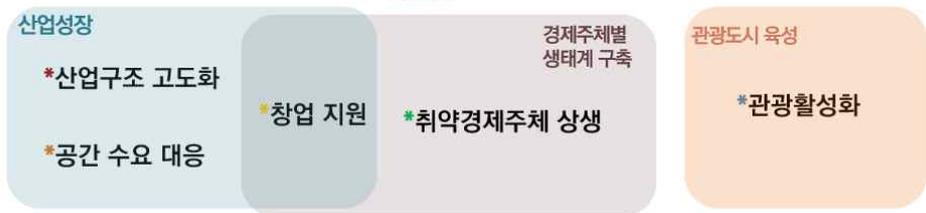
<sup>49)</sup> 건축물허가대장에 반영이 늦은 허가 건을 지표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기존 지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3\_경제·산업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경제·산업 부문은 4개 목표, 13개 전략으로 구성, 5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경제·산업 부문은 신기술 산업, 핀테크·콘텐츠·관광산업 등 미래 산업 육성, 창업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노동 취약계층·소상공인·자영업자를 배려하는 상생 생태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경제·산업 부문의 목표와 전략은 크게 산업 성장, 경제주체별 생태계 구축, 관광 도시 육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산업구조 고도화, 공간 수요 대응, 창업 지원, 취약경제주체 상생, 관광활성화 등을 포함한다.

<b>목표 1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b>
미래 신기술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지속적 확보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 변화를 담는 새로운 공간 수요 대응*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 산업* 선도
스마트 기술과 전통산업의 접목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도입
<b>목표 2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b>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공익을 추구하는 창업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
대학이 중심의 캠퍼스타운 조성** 및 미래 청년 인재 양성
<b>목표 3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b>
디지털 기반 미래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
역동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원 확대
MICE·의료관광 등 다양한 산업 연계를 통한 관광 생태계 구축*
<b>목표 4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b>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강화 및 공동 협업 확대
노동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지원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그림 2-5] 경제·산업 부문의 전략계획

- 부문별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정립하고, 이를 설명할 지표를 선정하였다. 산업구조 고도화는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와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공간수요 대응은 '상위 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 창업 지원은 혁신창업에 밀접한 연관을 갖는 '벤처기업 수', 취약경제주체 상생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수'를 진단한다.



[그림 2-6] 경제·산업 부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진단지표  
 주 1) '상위중심지 내 신축 연면적'은 주택·정비 부문에서 진단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진단하는 지표

- 부문계획에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서울의 미래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전략을 제시하며,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이 서울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며, 창조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노동자<sup>50)</sup>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다.
-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지식의 생산, 가공,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이다.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sup>51)</sup>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sup>52)</sup>, 동법 시행령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종사자 수 기준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sup>53)</sup>를 보조지표로 병기하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서울 지식서비스산업의 위상을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지식서비스산업(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종사자 수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서울의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 서울의 총 종사자 수) / (국내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 국내 총 종사자 수)

- 2021년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189.0만 명으로 서울 전체 종사자의 32.8%이다. 종사자는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동남권(75.5만 명), 서남권(50.3만 명) 순으로 분포한다.
  - 서울의 지식서비스산업의 특화도는 1.63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서울 총 종사자 중 구성비)	188.7만 명 (32.2%)	189.0만 명 (32.8%)	0.3만 명	0.2%
도심권	28.1만 명 (33.2%)	26.5만 명 (32.5%)	△1.6만 명	△5.8%
동북권	22.4만 명 (22.4%)	22.2만 명 (22.0%)	△0.2만 명	△0.8%
서북권	14.1만 명 (27.5%)	14.4만 명 (28.5%)	0.3만 명	2.3%

50)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지식기반경제’

51)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그리고 이용에 직접적으로 기반한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90년대 중반에 피터 드러커의 지식사회론에 영향을 받아 공식 제안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지식기반경제’

52) 「산업발전법」 제1조(목적)

53) 특화도란 특정 지역이 특정 산업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전문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값이 1보다 크면 산업군이 서울에서 전국 평균에 비하여 전문화되었음을 나타내며, 1보다 작으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자 수 (서울 총 종사자 중 구성비)	188.7만 명(32.2%)	189.0만 명(32.8%)	0.3만 명	0.2%
(계속)				
서남권	49.4만 명 (31.0%)	50.3만 명 (31.6%)	0.9만 명	1.8%
동남권	74.6만 명 (39.0%)	75.5만 명 (40.9%)	0.9만 명	1.2%
지식서비스산업 특화도	1.61	1.63	0.02p	-

## (2)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 ○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서울을 콘텐츠가 풍부한 글로벌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콘텐츠산업을 개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창조산업은 창조성과 지식자본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이며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글로벌 창조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창조산업 중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sup>54)</sup> 이처럼 서울시가 글로벌 창조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산업의 성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이다.<sup>55)</sup>
  - 종사자 수 기준 ‘콘텐츠산업 특화도’를 보조지표로 병기하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서울 콘텐츠산업의 위상을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산업 종사자 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콘텐츠산업 특화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	- (서울의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 서울의 총 종사자 수) /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 국내 총 종사자 수)

- 2021년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는 31.6만 명으로 서울 전체 종사자의 5.5%이다. 종사자는 전년 대비 6.4% 감소하였다.
  - 서울의 콘텐츠산업의 특화도는 2.31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서울 총 종사자 중 구성비)	33.7만 명 (5.7%)	31.6만 명 (5.5%)	△2.1만 명	△6.4%
콘텐츠산업 특화도	2.33	2.31	△0.02p	-

<sup>54)</sup> 서울특별시, 2023, 「서울 창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sup>55)</sup> 콘텐츠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과 중복도 있으나(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 지표별 진단대상의 중요성에 따라 개별 지표로 모니터링함

### (3) 벤처기업 수

○ ‘벤처기업 수’는 혁신 창업생태계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재 육성과 공공 지원을 강화를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제도 및 인프라 지원, 공간 마련, 교육 확대, 펀드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가 혁신 창업에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창업생태계의 활력은 어떠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 ‘벤처기업 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며 벤처기업 확인과정을 거친 기업의 수이다.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라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56)</sup> 벤처기업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높은 경제혁신의 주체로 제도적인 지원을 받는다.
  - 매년 ‘신생기업 수’와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sup>57)</sup>을 보조지표로 병기하여 서울시 전체 창업의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로 활용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현황자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며 벤처기업 확인과정을 거친 기업의 수(매년 6월 말 기준)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신생기업 수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매출액 또는 상용근로자가 존재하는 기업의 수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 (기준 연도-5년) 신생기업이 진단시점까지 생존한 기업 수 / (기준 연도-5년) 신생기업 수 × 100

- 2022년 벤처기업 수는 10,386개로 전국 전체 벤처기업의 28.3%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다.
  - 2022년 서울의 신생기업은 20.0만 개로 전국의 19.6%이며, 2021년 기준 서울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34.1%로 전국(34.3%)보다 소폭 작게 나타났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벤처기업 수 (전국 중 비율)	9,237개(24.6%)	9,941개(26.0%)	10,386개(28.3%)	445개	4.5%
신생기업 수 (전국 중 비율)	21.7만 개(20.3%)	20.0만 개(19.3%)	19.5만 개(19.6%)	△0.5만 개	△2.5%

56)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지한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혹은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연구개발유형: 기업 내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직전 4개 분기 일정금액 이상,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일정비율 이상인 중소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기술의 우3수성)과 사업의 성장성(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를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서 재구성한 내용 참조

57)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란 기준연도에서 5년 전 신생기업 중 기준연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임. 창업에 따른 기업의 생애주기는 보통 초기·창업단계(0~3년), 중간·성장단계(4~9년), 회수단계(10~15년)로 구분. 창업 초기 자본이 소진되고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의 생존율이 급감하는 시기(데스밸리)는 짧게는 3년에서 7년까지 보기도 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 (전국 기준 생존율)	34.0% (33.8%)	34.1% (34.3%)	-	0.1%p	-

#### (4)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상생 생태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

- 계획에서는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를 육성하고 소상공인<sup>58)</sup> 및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상권의 정체성을 만들고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주요한 주체이나 경기에 따른 민감도가 높아 규모와 운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이다.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sup>59)</sup> 상 소상공인의 월별 실적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하는 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진단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모니터링한다.
  - 소상공인의 현황에 대한 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실태조사<sup>60)</sup>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등록 기반)<sup>61)</sup>와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영업 비율’(조사 기반)을 보조지표로 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경기동향조사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의 수준을 지수화한 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매년 6월, 12월 기준)
			- 100 초과이면 실적의 호전, 100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
보조 지표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영업 비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며, 종사자가 「소상공인기본법」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현재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체 수 (연말 소상공인 대표 11개 업종 기준)
			- 소상공인 중 현 사업체의 영업기간이 5년 이상인 사업체 수/ 전체 사업체 수

\* BSI = [(매우 감소 응답빈도×0) + (다소 감소 응답빈도×50) + (동일 응답빈도×100) + (다소 증가 응답빈도×150) + (매우 증가 응답빈도×200)] / (총 응답업체 수)

- 58)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고,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기준(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사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체
- 59)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로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조사대상
- 60) 전국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오락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주요 11개 업종 대상
- 61) 일정한 장소에서 종사자와 설비를 갖추고 단일 또는 주된 산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나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 서울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가 가능한 지수로, 반기별로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한다. 2022년 6월은 71.0으로 2021년 6월 대비 18.7p 상승하였고, 2022년 12월은 55.7로 2021년 12월 대비 10.8p 상승하였다.
-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77.0만 개이며, 5년 이상 영업 비율은 57.1%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6월	80.1	52.3	71.0	18.7p	-
	12월	49.4	44.9	55.7	10.8p	-
소상공인 총 사업체 수 (전국 중 비율)		81.1만 개 (20.5%)	78.6만 개 (19.6%)	77.0만 개 (18.7%)	△1.6만 개	△2.0%
소상공인의 5년 이상 영업 비율 (전국 기준 비율)		51.0% (48.5%)	60.0% (59.5%)	57.1% (56.5%)	△2.9%p	-

### (5) 외국인 관광객 수

- ‘외국인 관광객 수’는 서울의 글로벌 관광 활력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서울을 콘텐츠가 풍부하면서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움츠러 들었던 관광의 활력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진단하고, 관광객의 서울 체류 경험에 대해서도 평가가 필요하다.
  - ‘외국인 관광객 수’는 서울에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로 관광에 대한 활력을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발표하는 국내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 서울 방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율’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관광의 질적인 성장을 진단한다. 관광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재방문율을 높이는 것은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제고할 수 있는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체육관광부,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서울에 방문한 외래관광객 수(입국 외래관광객 수 × 서울 방문 비율)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3천만 명(2030)
보조 지표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율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외래관광객 중 한국에 재방문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 2022년 서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63.5만 명으로 전년 대비 199.4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율은 42.2%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객 중 서울 방문율)	155.2만 명 (61.6%)	64.1만 명 (66.3%)	263.5만 명 (82.4%)	199.4만 명	311.1%
외국인의 서울 재방문율	71.0%	47.1%	42.2%	△4.9%p	-

## 4\_기후·환경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기후·환경 부문은 4개 목표, 11개 전략으로 구성, 9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기후·환경 부문은 탄소 중립을 위한 배출원 관리, 자립적 자원순환 체계 구축, 생물다양성과 물순환 체계 확보, 수변공간 활성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기후·환경 부문의 목표와 전략은 큰 틀에서 탄소중립, 대기질 관리, 녹색공간 조성, 자원순환 자립으로 나뉘어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탄소배출원 관리, 에너지 순환, 물 순환, 공원 및 녹지 조성, 대기질 관리, 수변활성화, 폐기물 관리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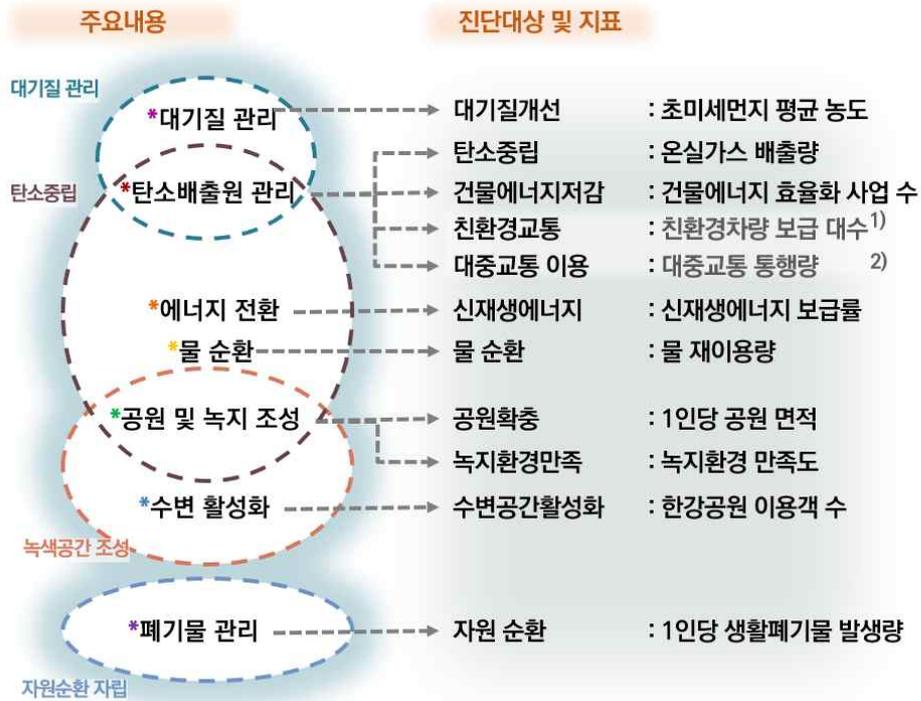
<b>목표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b>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적극 적용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활용과 친환경 수송 차량**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	
대기 환경을 고려한 공간계획과 배출원 관리체계** 강화	
<b>목표 2 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b>	
자원순환 관리 자립*을 위한 분산형 폐기물처리 시설 구축	
기후 행동 포용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행동** 활성화	
<b>목표 3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b>	
건물 에너지 분야 효율성 개선 및 도심 속 생물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한 통합 물순환 체계* 구축	
<b>목표 4 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b>	
수변 공간을 생활의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 수립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른 수변 공간 활성화 전략* 마련	
지역 맥락을 고려한 수변 공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림 2-기 기후·환경 부문의 전략계획

- 분류한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할 지표를 선정하였다. 탄소배출원 관리는 건물과 수송으로 나누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와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대중교통 통행량'을 선정하고, 결과지표인 '온실가스 배출량'

을 함께 진단한다. 대기질 관리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물 순환은 '물 재이용률'을 선정하였다. 공원 및 녹지 조성은 '1인당 공원 면적'과 '녹지환경 만족도'를 선정하여 공급과 시민의 체감을 함께 살펴 며, 수변 활성화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는 '한강공원 이용객 수'를 채택하였다. 폐기 물 관리는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진단한다.



[그림 2-8] 기후·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성과 진단지표

주 1)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는 교통·물류 부문에서 진단

주 2) '대중교통 통행량'은 교통·물류 부문에서 진단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대기질 개선을 진단하는 지표
  - 부문계획에서는 서울의 대기 환경을 고려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배출원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축하도록 명시하였다. 대기오염물질<sup>62)</sup>은 호흡기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대기 중 2.5 $\mu\text{m}$  이하 초미세먼지의 연간 일평균 농도( $\mu\text{g}/\text{m}^3$ )이다.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9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초미세먼지 나쁨(일평균 기준 35 $\mu\text{g}/\text{m}^3$  초과)일수<sup>63)</sup>’를 함께 모니터링하여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의 빈도를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서울시 대기 중 2.5 $\mu\text{m}$ 보다 작은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10 $\mu\text{g}/\text{m}^3$ (2040)*
보조 지표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 서울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 농도가 나쁨(35 $\mu\text{g}/\text{m}^3$ ) 기준을 초과하는 일수

\* 목표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2018)에 따름

- 2022년 서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 $\mu\text{g}/\text{m}^3$ 로,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하였다.
- 초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1일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1 $\mu\text{g}/\text{m}^3$	20 $\mu\text{g}/\text{m}^3$	18 $\mu\text{g}/\text{m}^3$	$\Delta$ 2 $\mu\text{g}/\text{m}^3$	$\Delta$ 10.0%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46일	35일	31일	$\Delta$ 4일	$\Delta$ 11.4%

62) 아황산가스(SO<sub>2</sub>),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sub>2</sub>), 미세먼지(PM10 및 PM2.5), 오존(O<sub>3</sub>), 납, 벤젠 등이 있음

63) 환경부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준함

## (2) 온실가스 배출량

### ○ ‘온실가스 배출량’은 탄소중립으로의 추진상황을 진단

-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sup>64)</sup>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탄소중립 목표<sup>65)</sup>를 설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이행 중이며, 건물·교통·폐기물·에너지 생산·공원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배출량’은 건물, 수송 등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등에 따라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다. 온실가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sub>2</sub>), 메탄(CH<sub>4</sub>), 아산화질소(N<sub>2</sub>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sup>66)</sup>, 육불화황(SF<sub>6</sub>)으로 정의한다. 서울시의 행정구역 내 배출원을 파악하여 시민의 직·간접적인 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온실가스 배출량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 건물, 수송 등 에너지, 폐기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등에 따른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14,834천톤(2040)* (2005년 대비 70% 감축)

\* 목표치는 서울특별시의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2021)에 따름

- 2021년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5,941천 톤CO<sub>2</sub>eq으로, 전년 대비 2.6% 가량 증가하였다. 2005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은 12.2%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온실가스 배출량 (2005년 대비 감축률)	44,791천 톤CO <sub>2</sub> eq (14.4%)	45,941천 톤CO <sub>2</sub> eq (12.2%)	1,150천 톤CO <sub>2</sub> eq (2.2%p)	2.6%

6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65) 2005년을 기준년도로 2026년까지 30% 감축, 2030년 40% 감축, 2040년 70% 감축

66) 냉매, 냉동기, 세정액, 소화기 등에 사용되는 불소탄화물, 서울시에서 해당 물질이 실질적으로 발생되며 관리대상에도 포함되지만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산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2021년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까지는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음

### (3)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는 건물 부문에서의 탄소저감 추진현황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지원,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확대,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도입 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서울에서 건물 내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의 약 67%를 차지하는 만큼<sup>67)</sup> 배출량 감소 정책 중에서도 건물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는 공공 및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 용자 지원 등으로 저탄소건물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의 누적 시행 건수이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민간과 공공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각을 모니터링한다.<sup>68)</sup>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	서울시 내부자료 (친환경건물과)	- 에너지다소비건물, 공공건물, 상업건물, 주택 등에 대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개소수(누적)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100만 호(2026)*

\* 목표치는 서울특별시의 「서울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2020~2026)」(2022)에 따름

- 2022년까지 서울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는 누적 54.0만 건이다. 노후 공공건물에 대한 사업은 923건, 노후 민간건물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53.9만 건이다.

구분	2022년(누적)	전년 대비 증감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공공)	923건	-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 수(민간)	53.9만 건	-

### (4)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에너지 전환 정도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의 일환으로 도시에 내재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란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을 포함한다.<sup>69)</sup>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67)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1년도분)」

68) 민간 부문은 사용 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물에 단열창호, LED 조명 등을 설치 시 공사비의 10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안심집수리사업 연계 보조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사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등이 있음. 공공 부문은 시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공공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을 포함

6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서울시 소비하는 최종 에너지<sup>70)</sup> 중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양의 비율이다. 통계상 신재생에너지 중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수열, 바이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 제외)를 포함한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 공급의 성장을 나타내는 보조지표로 병기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서울시 최종에너지 소비량 × 100)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21%(2030)*
보조 지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시 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력생산량

\* 목표치는 기후환경본부의 자체 목표치를 준용

- 2021년 서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4%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325,737toe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3%	2.4%	0.1%p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03,074toe	325,737toe	22,663toe	7.5%

### (5) 물 재이용량

#### ○ ‘물 재이용량’은 서울의 물순환 건전성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도시 내 물순환 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질·수량·수생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원활한 빗물 순환을 위하여 도시공간 전체에 다양한 물순환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도시 내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하천 수질오염, 지하수 수위 저하, 생태계 변화, 열환경 악화, 침수위험 가중 등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sup>71)</sup> 서울의 시가화율은 2020년 49.4%에 달하는 수준<sup>72)</sup>으로 물의 재이용에 대한 지원과 진단이 필요하다.
- ‘물 재이용량’은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로 대체하여 이용한 물의 양이다. 도시의 생활, 업무, 생산, 활동, 방재 등에 사용하는 도시 용수는 보통 하천, 유출지하수에서 취수하거나 재이용된 물로 공급된다. 재이용 수단별로 빗물은 대부분 조경용수로, 중수도시설은 업무시설 등의 화장실 청소용수로, 하수처리수는 대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73)</sup>

70)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공공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여기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2022, 「202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71) 서울특별시, 2021, 「2040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72)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물 재이용량	환경부 하수도통계	- 빗물, 중수도시설, 하수처리수로 대체하여 이용한 도시용수의 양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280,118천㎥/년(2040)*

\* 목표치는 서울특별시의 「제2차 서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23)에 따름

- 2022년 서울의 물 재이용량은 129,941천㎥/년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물 재이용량	121,475천㎥/년	124,472천㎥/년	129,941천㎥/년	5,470천㎥/년	4.4%

### (6) 1인당 공원 면적

#### ○ ‘1인당 공원 면적’은 공원 공급의 수준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회복, 생물다양성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하도록 유도하므로, 공원·녹지의 공급적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 ‘1인당 공원 면적’은 인구당 공원면적으로 도시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공원 및 녹지공간을 어느 정도 제공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여기서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포함하며, 권역별로 지표를 제시하여 공간적인 분포를 진단한다.
  - 공원이 권역별 행정구역 내 차지하는 비율인 ‘권역별 공원율’을 보조지표로 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1인당 공원 면적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공원 면적 (도시계획시설 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국립공원) / 인구 수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공원율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공원 면적 / 행정구역 면적 × 100

- 2022년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7.90㎡/인으로 전년 대비 0.16㎡/인 증가하였다.

- 공원율은 28.6%이며, 동북권(35.6%), 서북권(33.8%), 도심권(28.6%), 동남권(21.4%), 서남권(20.9%) 순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1인당 공원 면적	17.39㎡/인	17.74㎡/인	17.90㎡/인	0.16㎡/인
공원율	28.47%	28.53%	28.59%	0.06%p
도심권	29.32%	29.35%	29.45%	0.10%p
동북권	35.44%	35.55%	35.64%	0.09%p
서북권	33.73%	33.77%	33.82%	0.05%p
서남권	20.77%	20.81%	20.87%	0.06%p
동남권	21.37%	21.42%	21.42%	0.01%p

73)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2023, 「서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주요내용」

### (7) 녹지환경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는 녹지환경에 대한 시민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 녹지와 공원이 시민의 휴식, 여가, 건강 증진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공간이므로 주요하게 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녹지·공원의 양적 확충 뿐만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의 질적 체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녹지환경 만족도’는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1km 이내, 걸어서 15분 거리)의 공원, 숲 등의 녹지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다. 서울서베이에서 조사하는 지표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 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을 의미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녹지환경 만족도	서울서베이	- 시민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녹지환경(공원, 숲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매우 좋다 10점, 매우 나쁘다 0점 기준)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 2022년 서울의 녹지환경 만족도는 6.17점으로 전년 대비 0.18점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녹지환경 만족도	5.93점/10점	5.99점/10점	6.17점/10점	0.18점

### (8) 한강공원 이용객 수

- ‘한강공원 이용객 수’는 수변공간 활성화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다양한 수변공간을 시민이 경험할 수 있도록 명소를 조성하고 수변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전략과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수변공간에 대한 시민 수요와 활용 정도를 진단해나갈 필요가 있다.
  - ‘한강공원 이용객 수’는 서울 내 위치한 한강공원(광나루, 잠실, 독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월, 난지, 강서)의 연간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이용 목적별로는 일반이용자, 운동시설, 자전거, 주요 행사 및 마라톤, 특화공원 방문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한강공원 이용객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산책, 낚시, 자전거, 인라인, 운동·수상시설, 수영장, 행사 등을 위하여 한강공원을 이용한 이용객 수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 2022년 서울의 한강공원 이용객은 4,742.4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7% 감소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한강공원 이용객 수	5,632.8만 명	5,763.0만 명	4,742.4만 명	△1,020.6만 명	△17.7%

**(9)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서울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자원순환 관리의 자립을 위하여 자원순환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 추이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쓰레기에 대한 소각, 매립 등 처리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개인별 폐기물 배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 총량을 인구로 나눈 값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배출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구분할 수 있다.
    - ‘생활폐기물 매립률’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생성되는 폐기물의 처리 방식을 함께 진단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내에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정된 한편, 소각장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을 모니터링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시민 1인당 하루 평균 생활폐기물 배출량 - 서울 하루 평균 가정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합/인구 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0.86kg/인/일(2027)*
보조 지표	생활폐기물 매립률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생활폐기물 중 매립되는 폐기물의 비율 - 서울 생활폐기물 중 매립량 / 생활폐기물 발생량

\* 목표치는 서울특별시의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2023)에 따름

- 2022년 서울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13kg/인/일로 전년 대비 0.02kg/인/일 늘어났다.
  - 서울의 생활폐기물 매립률은 8.2%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0.98kg/인/일	1.11kg/인/일	1.13kg/인/일	0.02kg/인/일	1.3%
생활폐기물 매립률	9.8%	13.7%	8.2%	△5.5%p	-

## 5\_안전·방재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안전·방재 부문은 4개 목표, 12개 전략으로 구성, 5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안전·방재 부문은 일상생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안정적인 의료복지체계 구축, 기반 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한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안전·방재 부문 계획의 내용적 큰 틀은 대형재난 방재체계 구축, 의료복지체계 안정화, 생활환경 안전관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신종복합재난 대비, 기반시설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체계 구축, 범죄 예방, 보행환경 정비 등을 포함한다.

<b>목표 1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b>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재난의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선 신종 복합재난* 대비	
건강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시민 보건 시스템 구축	
<b>목표 2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b>	
보행 친화*적 생활환경을 위한 안전한 이동 네트워크 구축	
일상생활 속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구축	
<b>목표 3 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b>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복지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력 강화*	
수요자 중심의 생애과정별 건강보장 지원체계* 구축	
안전한 시민보건시스템* 구축	
<b>목표 4 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b>	
대중교통 노후시설 교체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도시 인프라 구축·정비 + 미래 신교통수단-보행환경 연계*	



[그림 2-9] 안전·방재 부문의 전략계획

-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할 지표를 선정하였다. 도시의 안전은 기후변화, 도시공간의 취약성, 사회적 불안정, 안전불감증 등과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관련 정책의 성과를 진단하기 어려운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서울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빈도, 피해 규모 등 경험에 기반하여 도시의 위험도나 방재 수준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도록 안전·방재 부문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에 신종복합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자연재난 피해액'과 '사회재난 사고 건수',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환자 수(비정기)', 범죄 발생을 진단하기 위하여 '5대범죄 발생 건수', 보행안전은 '보행자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같은 경험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외 시설물 안전은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공공보건인프라는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를 채택하여 관련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그림 2-10] 안전·방재 부문의 전략계획과 성과 진단지표

주 1)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는 사회·문화 부문에서 진단

주 2)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교통·물류 부문에서 진단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자연재난 피해액

#### ○ ‘자연재난 피해액’은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력 강화를 위한 지표

- 부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태세를 구축하고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종 복합재난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종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을 의미하지만, 기존에 발생한 재난들은 일정 부분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어떤 재난도 완전히 새로운 재난은 거의 없다.<sup>74)</sup> 신종재난은 높은 불확실성과 낮은 발생가능성으로 사전지식이나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여 통상적인 재난 관리자원의 범위와 대처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지만,<sup>75)</sup> 대응체계는 여전히 기존 발생 재난에 대한 표준적 대응체계와 절차에 근간을 둔다. 따라서 서울에서 빈도가 높게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대해 발생 및 피해 가능성, 방재력을 평가하여 시민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 발생과 도시방재에 대한 결과적 지표이자 위험도를 추론하기 위한 경험지표로 자연재난을 진단하도록 한다.
- ‘자연재난 피해액’은 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에 따른 피해 액수이다. 자연재난은 영향권 내 모든 지역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예기치 못한 건물 손상, 작물 파괴, 인프라 손실 등을 일으킨다. 피해액은 이를 종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매해 화폐가치가 바뀌므로 최근 연도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값을 기준으로 증감을 진단한다.
  - ‘자연재난 이재민 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진단한다. 호우, 태풍에 따른 침수가 서울 이재민 발생의 주된 원인이며 취약 지역(과거 피해지역, 반지하주택 밀집지역, 하천변 저지대)에 상습적으로 발생하므로 도시계획적 대책이 필요하다.<sup>76)</sup>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자연재난 피해액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자연재난(호우, 태풍, 강풍, 대설 등)에 따른 피해액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보조 지표	자연재난 이재민 수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수

- 2022년 서울의 자연재난 피해액은 69,630.5백만 원이었다. 2021년에는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
  - 자연재난 이재민은 32,111명이었다.

74) 신상영 외, 2016,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p.8

75) 서울특별시, 2023, 「제3차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p.138

76)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도시침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자연재난 피해액*	752.9백만 원	-	69,630.5백만 원	69,630.5백만 원
자연재난 이재민 수	193명	0명	32,111명	32,111명

\*자연재난 피해액은 2022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 (2) 사회재난 사고 건수

### ○ ‘사회재난 사고 건수’는 사회재난·사고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지표

- 계획에서는 전통적인 자연·사회재난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종 복합재난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인간의 행동 부주의, 안전 조치 부족, 기술상 문제 등 인간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여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시설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인구와 시설이 밀집한 도시에서 사회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또는 사회재난의 연쇄적 발생으로 피해가 복합화·대형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난에 대한 경험지표로 사회재난을 함께 진단하여 서울의 재난 발생 및 피해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민과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재난 사고 건수’는 화재, 붕괴, 폭발, 철도, 가스, 항공기 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 건수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재난을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피해를 포함하여 정의하지만, 여기서는 사고별 피해 양상과 대응이 특히 다른 교통사고(차량 간, 차량-보행자 간), 감염병, 미세먼지 피해를 개별 지표로 진단한다.<sup>77)</sup>
  - ‘사회재난 사망자 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사회재난에 따른 인명사고의 발생을 모니터링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사회재난 사고 건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철도, 가스, 항공기 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사고 건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보조 지표	사회재난 사망자 수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 수

- 2022년 서울의 사회재난 사고는 5,587건으로 2021년에 비하여 467건(9.1%) 증가하였다.
- 사회재난 사망자는 43명이었다.

<sup>77)</sup> 차량-보행자 간 교통사고는 교통·물류 부문의 성과 진단지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염병은 안전·방재 부문의 ‘제1급감염병 환자 수’, 미세먼지는 기후·환경 부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35 $\mu\text{g}/\text{m}^3$  이상의 고농도 발생빈도(초미세먼지 나쁨일수)를 보조지표로 포함)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함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사회재난 사고 건수	5,417건	5,120건	5,587건	467건	9.1%
사회재난 사망자 수	42명	48명	43명	△5명	△10.4%

### (3)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 ○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은 시설물 안전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

- 계획에서는 노후된 기반시설을 안전사고나 대형재난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노후된 기반시설은 인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이 필요하다.
-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의 대상 시설물 중 안전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비율이다. 여기서 시설물이란 공공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 시설물 안전법 상 제1종, 제2종, 제3종<sup>78)</sup>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상태별 등급<sup>79)</sup> 중 A등급은 안전상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은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만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통계연보	-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교량, 건축물, 기타 토목 시설물 등) 중 시설물 안전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비율(개소 기준)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 시설물 신규 편입 등으로 진단이 미실시된 ‘등급 미지정’ 시설물은 제외

- 2022년 재난안전 시설물의 비율은 92.6%로, 전년에 비하여 0.4%p 증가하였다.<sup>80)</sup>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재난안전 시설물 비율	92.2%	92.6%	0.4%p

78) 도로, 철도 교량 및 터널,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및 이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 동법 제8조에 따라 지정)을 포함

79) A부터 E까지 다섯 등급으로 분류하며, C등급은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은 주요부재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

80) 2022년 기준 등급 미지정 시설물은 675개소로 서울의 전체 시설물(18,591개소)의 3.6%에 해당

#### (4) 제1급감염병 환자 수

- ‘제1급감염병 환자 수’는 감염병 대응 개선을 위한 지표
  - 계획에서는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감염병 진료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도시 방역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감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지만, 여타 사회재난과 달리 피해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을 지니며 사회 전반에 큰 파급력을 갖기도 한다. 피해 양상이 다른 만큼 재난 관리지표 중 감염병을 분리하여 진단이 필요하다.
  - ‘제1급감염병 환자 수’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하는 제1급감염병의 확진자 수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제1급감염병은 에볼라 바이러스병,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등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발생 특성상 ‘비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제1급감염병 환자 수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 즉시 신고가 필요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제1급 감염병(에볼라 바이러스, 신종인플루엔자, SARS 등)의 확진자 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비정기      목표치: 감소

- 2022년 서울에는 제1급감염병에 확진된 사람이 없었다. 2021년 환자 수는 206,204명이었다.<sup>81)</sup>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제1급감염병 환자 수	18,995명	206,204명	-

#### (5) 5대범죄 발생 건수

- ‘5대범죄 발생 건수’는 생활환경을 매개로 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험지표
  - 계획에서는 물리적 환경정비와 비물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방법·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범죄는 대표적인 도시문제 중 하나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5대범죄 발생 건수’는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의 발생 건수이다. 5대 범죄는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범죄로서, 경찰 범죄통계의 범죄분류체계 대분류 상 강력<sup>82)</sup>, 절도,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5대 범죄는 치안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험지표이다.

81)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었던 코로나19는 2022년 4월 제2급감염병, 2023년 8월 제4급감염병으로 하향되어 관리되고 있음. 연단위로 발간되는 통계 기준에서 2022년 코로나19는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었으며, 서울의 확진자는 543.7만 명이었음

82) 강력범죄는 살인기수·살인미수등·강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방화를 포함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5대범죄 발생 건수	서울지방경찰청, 범죄발생 통계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범죄 건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 2022년 서울에서 발생한 5대범죄는 90,399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9,954건(12.4%) 증가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5대범죄 발생 건수	92,679건	80,445건	90,399건	9,954건	12.4%

## 6\_교통·물류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교통·물류 부문은 4개 목표, 11개 전략으로 구성, 9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교통·물류 부문은 미래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중심 이동체계 마련, 물류체계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교통·물류 부문 계획의 큰 틀은 미래 교통수단에 대비하는 첨단 기반시설 확충, 오염물질 배출감소, 대중교통중심 이동체계 마련, 보행자 친화도시 구축,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첨단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유도, 환승체계 개선, 보행자 안전,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다.

<b>목표 1 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b>	
신 교통수단 기술발전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정비*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지속 추진	
다양한 이동 수단의 기능 정립 및 교통 네트워크 마련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마련 및 터미널 확충	
<b>목표 2 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b>	
철도망 확충 및 고도화*로 3도심 간 직결체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노선버스 운영 효율화* 추진을 통해 대중교통 지속가능성 확보	
주요 거점 환승시설 개선 및 추가 확대**를 통한 광역화 대응	
<b>목표 3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b>	
입체적 개발을 통한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 지원*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도시물류체계* 구축	
<b>목표 4 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b>	
보행자가 안전*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지속 추진	
교통수단의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그림 2-11] 교통·물류 부문의 전략계획

-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첨단 기반 시설 확충은 '첨단도로 연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는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대중교통 이용은 '대중교통통행량', 환승체계 개선은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보행자 안전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물류 인프라 확충은 '도시 물류시설 면적'을 진단한다.



[그림 2-12] 교통·물류 부문의 전략계획과 성과 진단지표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첨단도로 연장

- ‘첨단도로 연장’은 미래교통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진단하는 지표
  - 부문계획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첨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통데이터 수집 기반을 갖춘 스마트 도로 인프라와 정보를 다루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와 관련한 기반시설이 서울에 얼마나 갖추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 ‘첨단도로 연장’은 자율주행과 교통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sup>83)</sup>가 도입된 도로의 연장이다. 지능형 교통체계란 도로에 정보수집 체계를 갖추고, 교통신호정보, 교차로 위험정보, 보행자 정보와 같은 도로위험정보와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이다. 또한 교통신호 개방장치로 교통신호 및 잔여시간 등을 차량에 공유하여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첨단도로 연장	서울시 내부자료 (미래첨단교통과)	- IT기술을 활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을 지원(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정보 교류, 신호 개방 등 도로인프라 구축) 하는 시설을 갖춘 도로의 총 연장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첨단도로 비율	서울시 내부자료 (미래첨단교통과),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도로 연장 / 서울시 전체 도로 연장 × 100

- 2022년 서울의 첨단도로 연장은 약 151km로 전년과 대비해 변동이 없었다.
  - 서울의 도로 중 첨단도로 비율은 1.8%이다.

구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첨단도로 연장	약 151km	약 151km	0km	0%
첨단도로 비율	1.8%	1.8%	0%p	-

### (2)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는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과 대기질 제고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교통 부문의 탄소 저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도록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의 이동수단과 버스 등에 대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차량으로

<sup>83)</sup>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협력형-지능형교통체계, 예시로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차량·사물 통신, 무선통신으로 차량과 차량, 교통신호, 보행자 겹치 등 차량과 인프라간 정보를 교환) 등을 포함

의 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 지표와 더불어 친환경 차량의 보급 추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하여 연료가 전기, 수소에 해당하는 서울 등록 차량 수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 친환경 차량의 정의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그에 따라 지표의 내용과 산정식을 운용한다.
- ‘친환경차량 보급률’을 보조지표로 병기하여 친환경차량으로 전환 현황을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 내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등록 대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친환경차량 보급률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의 등록차량 중 전기, 수소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비율 - (서울의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대수/ 서울의 전체 차량 등록 대수) × 100

- 2022년 서울의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는 23.2만 대로 전년 대비 25.5% 증가하였다.
- 서울의 친환경차량 보급률은 7.3%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친환경차량 보급 대수	14.0만 대	18.5만 대	23.2만 대	4.7만 대	25.5%
친환경차량 보급률	4.4%	5.8%	7.3%	1.9%p	-

### (3) 대중교통 통행량

- ‘대중교통 통행량’은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교통 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도시 내 이동 효율화를 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제시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승용차 통행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개인이동수단으로 유도할 것을 강조한다. 대중교통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 교통수단으로 공공성이 높으며, 자가용에 비해 적은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감소, 도로혼잡 해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서울에서의 이동 중 대중교통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하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 통행량’은 1일 기준 서울을 목적지 또는 도착지로 하는 통행(서울 내부 간 통행과 서울 유출입 통행) 중 버스, 지하철·철도로 통행하는 통행량이다.
    - 하루 총 통행량에서 대중교통이 갖는 비중인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병기하여, 이동에서 대중교통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함께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대중교통 통행량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버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통행량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의 총 통행량 중 버스, 지하철·철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통행량의 비율

- 2022년 서울의 대중교통 통행량은 20,163천 통행/일로 전년 대비 7,540천 통행/일 늘었다.

-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63.6%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대중교통 통행량	16,282천 통행/일	12,623천 통행/일	20,163천 통행/일	7,540천 통행/일	59.7%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61.4%	52.9%	63.6%	10.7%p	-

#### (4)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은 환승 환경의 편리성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효율적인 도시 내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을 지원하고, 광역급행철도와 도시철도망 검토·확대 등에 따라 주요 거점 환승시설을 확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환승에 대한 편의성 제공은 시민의 녹색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서울의 대중교통 환승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은 서울 내 이동 중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다. 환승을 이용하는 시민이 교통카드를 버스에서 하차 태그 후 지하철역에 승차 태그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sup>84)</sup>의 평균값을 지표로 한다. 환승 시 버스정류장에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이용자의 행태가 시간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sup>85)</sup> 외부 요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오전 첨두시간대(7시~9시)를 기준으로 환승 환경을 진단한다.
  - 해당 지표는 단기지표로, 계획에서 제시하는 모빌리티 허브가 확충되고 나면 ‘모빌리티 허브 수’로 대체하여 진단한다.

84) 배차간격에 따른 대기시간을 환승소요시간에서 제외하고자 버스에서 지하철로의 환승에 한정하여 지표를 산정

85) 오전 첨두시간대 외에는 식음활동이나 물건 구매 등에 따른 영향으로 환승소요시간이 더 길어지는 특성을 보임. 단, 오전 첨두시간대에도 환승 및 탑승인원의 집중에 따른 혼잡이 반영되는 것에 유의하여 해석이 필요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 지하철역 기준 버스에서 하차하여 환승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 \text{평균 환승시간} = \frac{\sum_{x=\text{역1}}^{\text{역n}} 7\text{시 환승소요시간}_x \cdot 7\text{시 환승건수}_x + 8\text{시 환승소요시간}_x \cdot 8\text{시 환승건수}_x}{7-8\text{시 전체 환승건수}}$$

- 2022년 서울의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은 3분 7초로 전년에 비하여 5초 늘어났다. 권역별 환승소요시간은 동북권(2분 51초), 서북권(2분 56초), 서남권(3분 1초), 동남권(3분 41초), 도심권(3분 57초) 순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소요시간	3분 2초	3분 2초	3분 7초	5초	2.7%
도심권	3분 55초	3분 54초	3분 57초	3초	1.3%
동북권	2분 45초	2분 48초	2분 51초	3초	1.8%
서북권	2분 53초	2분 54초	2분 56초	2초	1.1%
서남권	2분 57초	2분 54초	3분 1초	7초	4.0%
동남권	3분 36초	3분 37초	3분 41초	4초	1.8%

### (5)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보행환경의 안전 및 개선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공간 재편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 통행이 많으므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진단이 필요하다.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이다.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는 차량 간 사고보다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차도통행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sup>86)</sup>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 도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행자 중 사망자 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2019년 대비 50% 감소(2026)*

\* 목표치는 서울특별시의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2~2026)」(2022)에 따른, 2019년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임

- 2022년 서울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1명으로 전년 대비 9명 줄었다. 사망자는 2019년 대비 20.1% 감소했다.

<sup>86)</sup>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65.5%, 2021년 60.0%, 2022년 60.4%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23년 12월 접속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19년 대비 감소 비율)	113명 (18.7%)	120명 (13.7%)	111명 (20.1%)	△9명 (6.5%p)	△7.5% (-)

### (6) 도시 물류시설 면적

○ ‘도시 물류시설 면적’은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증가하는 생활물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심 내 유희공간 활용, 시설물 복합화, 입체개발 등으로 체계적인 도시물류 배송망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생활물류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하여 배송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시장의 성장 등에 따라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도시 물류는 택배와 관련한 생활물류 외에도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산업물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로 개념을 확대하여 진단이 필요하다.
- ‘도시 물류시설 면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을 근거로 개발되는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sup>87)</sup>의 면적이다.
  - 해당 지표는 단기지표로, 향후 도시 내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조성되는 생활물류시설의 통계가 구축되면 이를 포함하여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도시물류시설 면적	국토교통부 국가물류 통합정보센터	-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물류시설법에 따라 등록된 물류창고 연면적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 2023년 서울의 도시물류시설 면적은 92.5만㎡이며, 이 중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면적이 56.1만㎡(60.6%), 물류창고 면적이 36.4만㎡(39.4%)이다.

구분	2023년	전년 대비 증△감
도시물류시설 면적	92.5만㎡	-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 면적	56.1만㎡	-
물류창고 면적	36.4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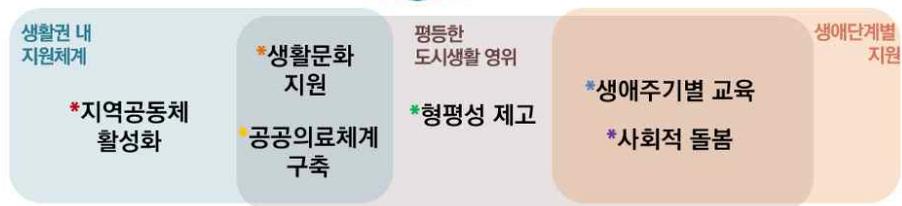
<sup>87)</sup> 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한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물류시설법 제2조 제1항), 물류창고는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류시설법 제2조 제5의2호)

## 7\_사회·문화 부문

### 1) 성과 진단지표의 개요

- 사회·문화 부문은 4개 목표, 10개 전략으로 구성, 7개의 성과 진단지표 선정
  - 사회·문화 부문은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 다양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조성,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보건 지원체계 구축, 돌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사회·문화 부문 계획의 큰 틀은 생활권 내 시민 및 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평등한 도시생활 영위, 생애단계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활문화 지원, 공공
    - 의료체계 구축, 형평성 제고, 생애주기별 교육, 사회적 돌봄 등이 포함된다.

<b>목표 1 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b>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주거공간과 서비스 제공
전략 내 주요 키워드: 보행일상권**, 유니버설 디자인
<b>목표 2 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b>
평등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모든 시민의 적극적 사회참여* 활동 보장
다양한 사회 구성원 존중* 및 인정
<b>목표 3 시민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b>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체계** 정착
생애발달단계와 생애전환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b>목표 4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b>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돌봄**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그림 2-13] 사회·문화 부문의 전략계획

- 주요 내용에 따라 진단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설명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지지망을 진단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도'를 지표로 채택하였다. 생활문화 지원은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를, 공공의료체계는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를 선정하여 지역 내 인프라에 대해 진단하도록 한다. 형평성 제고는 복지 안전망과 주택으로 분야를 나누어 '빈곤율'과 '공공주택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생애주기별 교육은 '평생학습 참여율', 사회적 돌봄은 영유아와 노인으로 대상을 나누어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를 각각 선정하였다.



[그림 2-14] 사회·문화 부문의 전략계획과 성과 진단지표

주 1) '공공주택 비율'은 주택·정비 부문에서 진단

## 2) 성과 진단지표별 정의

### (1)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고립도’는 사회적 지지망의 개선을 진단하는 지표
  - 부문계획에서는 1인가구의 증가와 대두되는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지원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 요소인 공동체 의식은 시민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사회적 고립도’는 ‘신체, 경제, 정신적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이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에서 사회적 지지망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인다.
  -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장애인, 빈곤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사회의 포용성과 연대를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사회적 고립도	서울특별시, 서울서베이	- 시민 중 신체, 경제, 정신적 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OECD 공동체지수 중 사회적 지지망 항목)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보조 지표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 서울시민의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인식 및 동참 의지의 수준(10점 척도) -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빈곤층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노인 배려에 대한 인식 수준) ÷ 3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을 산정하며, 출처 속 자료가 당해 지표값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원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 2022년 사회적 고립도(서울에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한 비율)는 12.1%로, 2021년보다 14.6%p 감소하였다. 사회적 고립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답변이 감소하였으나(2.2%p), 경제적·정신적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증가(각각 5.1%p, 2.2%p)하였다.
- 2022년 서울의 동행 인식 수준은 5.43점(10점 만점)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사회적 고립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음	21.8%	26.7%	12.1%	△14.6%p
	[신체]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5.6%	5.0%	2.8%	△2.2%p
	[경제]갑자기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줄 사람	20.5%	18.1%	23.2%	5.1%p
	[정신]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	4.9%	5.4%	7.6%	2.2%p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 (10점 척도)		5.56점*	5.51점*	5.43점	△0.08점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2)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문화 인프라의 확충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시민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보행일상권 내 문화 인프라(문화기반시설)를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공 문화기반시설은 문화 예술의 유통 및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향유와 참여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민수요의 확대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다변화되고 있다.<sup>88)</sup> 문화활동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서울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총 개소수를 서울의 인구와 비교한 지표이다. 여기에서 공공문화기반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문화보급 전수시설) 중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서울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하고 발표하는 ‘서울문화지표’를 활용한다.
    -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를 병기하여 인프라의 확충을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 시설 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 서울인구 십만 명당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개소수(서울에서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문화시설(공공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총 수 / 서울 총인구×100,000)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격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공공문화기반 시설 수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 공공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지역문화 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의 수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상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지역문화 복지시설과 문화보급 전수시설은 서울시 문화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인구는 서울의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의 합계임. 출처 속 자료가 당해 지표값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원자료를 활용하여 모니터링

- 2022년 서울의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16.1개로 2020년 대비 1.0개소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32.3개소), 서북권(16.4개소), 동남권(16.1개소), 동북권(15.8개소), 서남권(14.8개소) 순이다.
  - 2022년 공공문화기반시설 수는 총 1,597개소로, 이 중 도서관이 1,140개소, 공연장이 103개소, 박물관·미술관이 47개소, 복지시설 및 전수시설이 307개소이다.

구분	2020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15.1개소	16.1개소*	1.0개소
도심권	30.3개소	32.0개소*	1.7개소
동북권	14.9개소	15.8개소*	0.9개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88) 양혜원, 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3~4.

구분	2020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인구 십만 명당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15.1개소	16.1개소*	1.0개소
(계속) 서북권	15.0개소	16.4개소*	1.4개소
서남권	13.5개소	14.8개소*	1.3개소
동남권	13.9개소	14.3개소*	0.4개소
공공문화기반시설 수	1,498개소	1,597개소*	101개소
도서관	1,059개소	1,140개소*	81개소
공연장	99개소	103개소*	4개소
박물관·미술관	43개소	47개소*	4개소
복지시설 및 전수시설	297개소	307개소*	10개소

\*원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3)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는 공공보건 인프라의 확충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의료지원이 필요한 시민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공공보건의료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지소와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제시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접근성 개선과 양적 확충에 대하여 진단이 필요하다.
  -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는 서울의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를 서울의 인구와 비교한 지표이다. 지역공공보건기관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구별로 1개소씩 위치하는 보건소와 자치구별 조례로 설치하는 보건분소 및 지소를 포함한다.
    -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인프라의 확충을 진단한다.
    - ‘공공병원 병상 수’를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공공보건기관 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을 진단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 보건기관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인구 십만 명당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 (서울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 총 개소 수 / 서울 총인구 × 100,000) 공간범위: 권역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보조 지표	지역공공 보건기관 수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에 위치한 보건소, 보건분소, 보건지소의 수
	공공병원 병상 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 서울에 위치한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시립병원 등)의 병상 수

\*인구는 서울의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의 합계임

-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는 0.81개소로,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74개소), 서북권(0.94개소), 동북권(0.88개소), 서남권(0.71개소), 동남권(0.53개소) 순이다.
  - 지역공공보건기관 수는 78개소이며, 공공병원 병상 수는 8,749개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	증감률
인구 십만 명당 지역공공의료시설 수	0.71개소	0.80개소	0.81개소	0.01개소	1.3%
도심권	1.67개소	1.72개소	1.74개소	0.02개소	1.2%
동북권	0.73개소	0.88개소	0.88개소	-	-
서북권	0.93개소	0.94개소	0.94개소	-	-
서남권	0.62개소	0.70개소	0.71개소	0.01개소	1.4%
동남권	0.43개소	0.53개소	0.53개소	-	-
지역공공보건기관 수	70개소	78개소	78개소	-	-
공공병원 병상 수	8,617개	8,973개	8,749개	△224개	△2.5%

#### (4) 빈곤율

○ ‘빈곤율’은 복지안전망의 개선을 위한 관리지표

- 계획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빈곤은 사회에서 기본적 또는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89) 복지안전망에서 주요하게 관리하고 진단해야 하는 대상이다.
- ‘빈곤율’은 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이때 소득은 가구별 처분가능소득<sup>90)</sup>을 균등화하여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선 이하 가구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을 빈곤율로 계산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빈곤선) 이하인 인구의 비율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감소

\*가구원 수의 제곱근을 소득에서 나눈 값,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소득을 비교하기 위하여 균등화 과정을 거침

- 2021년 빈곤율은 13.2%로 전년 대비 1.1%p 감소하였다.

구분	2020년	2021년	전년 대비 증△감
빈곤율 (전국 기준 빈곤율)	14.4% (15.3%)	13.2% (15.1%)	△1.1%p (△0.2%p)

8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빈곤’

90) 가구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

## (5) 평생학습 참여율

### ○ ‘평생학습 참여율’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증진을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시민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애발달단계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시민이 자기개발을 이루고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고령화사회에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으므로, 교육 참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평생학습 참여율’은 서울의 성인 인구 중 정규 교육과정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이다. 평생학습은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으로 구분되며,<sup>91)</sup> 평생학습 참여율을 산정할 때에는 개인이 두 교육과정에 모두 참여한 경우에도 1명으로 계산하여 중복을 제외한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하는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에서 만 25세 이상 7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결과를 활용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부,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국가학력체계에 포함되는 형식교육,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통한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성인의 비율</li> <li>- (형식교육 참여자 + 비형식교육 참여자 - 동시참여자) / 서울의 25~79세 인구 × 100</li> </ul>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 2022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32.0%이며, 전국(32.3%)에 비하여 다소 낮다.

구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평생학습 참여율	32.0%	-

## (6)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영유아에 대한 돌봄 확대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보육 서비스 및 시설 확대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돌봄 공백이 없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영유아 돌봄 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전체 영유아(0~6세)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비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육환경이 안전하고 보육서비스 품질에 비해 이용 비용이 저렴한 특징을 가져 보육 공공성에 대한 지표로 활용한다.

91) 형식교육이란 국가 학력체계에 포함된 과정, 즉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이 가능한 정규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과정, 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고등학력보완교육 등)을 의미함. 비형식교육은 학위(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교육 이외의 구조화된 학습활동(직무연수, 학원 수강, 대학 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습 동아리, 개인교습 등)을 말함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전체 어린이집 중 야간, 주말, 휴일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비율)을 보조지표로 선정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소할 시설이 얼마나 공급되었는지 모니터링한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전체 영유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의 비율</li> <li>- 서울시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 서울시 전체 영유아 수 × 100</li> </ul> <p>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p>
보조 지표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어린이집 수 중 야간, 주말, 휴일에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비율</li> <li>- (365열린 어린이집 수 +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 수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수 + 주말보육 어린이집 수 + 휴일보육 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li> </ul>

\*서울시 약자동행지수의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시보육포털, 한국보육진흥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22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은 37.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하였다.
-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은 9.2%이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분담률	30.3%	34.3%	37.5%	3.2%p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	-	9.2%	-

### (7)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

-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는 노인에 대한 돌봄 확대를 진단하는 지표
  - 계획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며,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고령자들이 친숙한 환경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안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라고 하며, 이는 자율적으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필요와 권리에 기초한다.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돌봄체계에 대해 진단이 필요하다.
  -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이용자 수이다. 돌봄서비스에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돌봄SOS서비스를 포함한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 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 확인 등을 제공한다. 돌봄SOS서비스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sup>92)</sup>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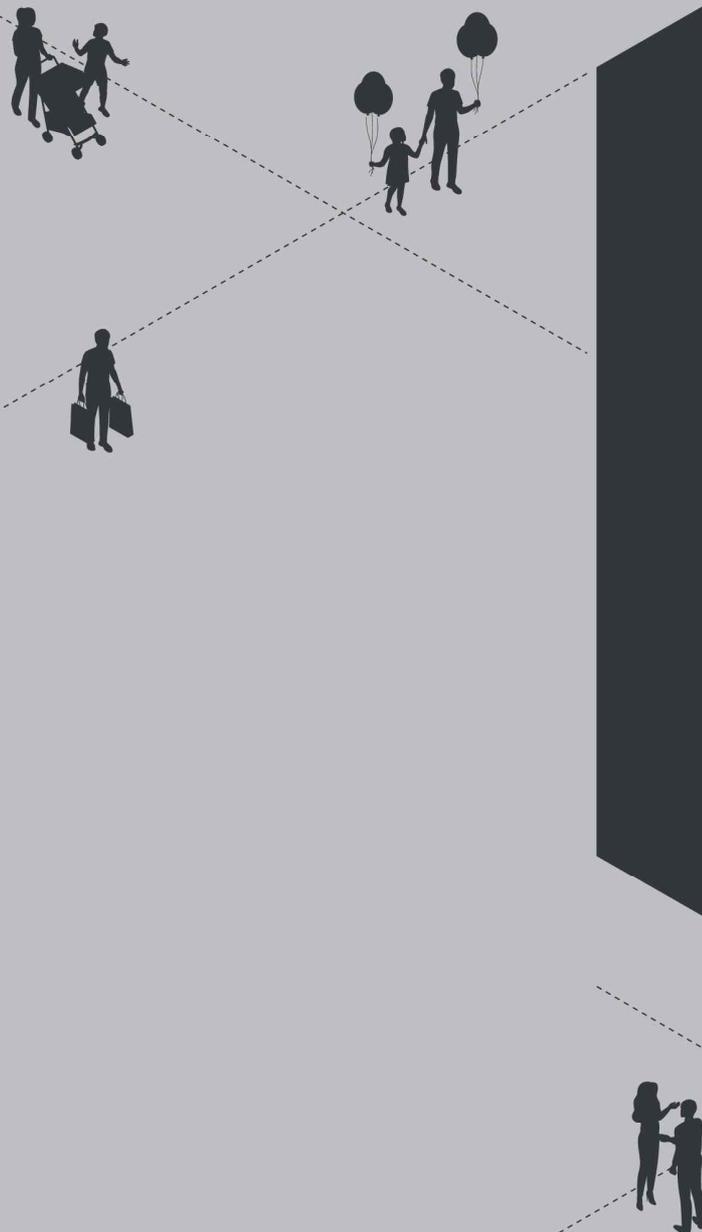
92)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 10대 돌봄서비스

구분	지표명	출처	내용
지표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재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돌봄SOS서비스) 이용자 수 공간범위: 시    갱신주기: 매년    목표치: 증가

\*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복지정책실의 자료를 기준으로 함

- 2022년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는 68,521명이다.

구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재가돌봄 이용 노인 규모	68,521명	-



Part. IV

설문조사



## 제1장

# 설문조사

1\_ 개요

2\_ 서울의 현재와 미래

3\_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4\_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





# 01.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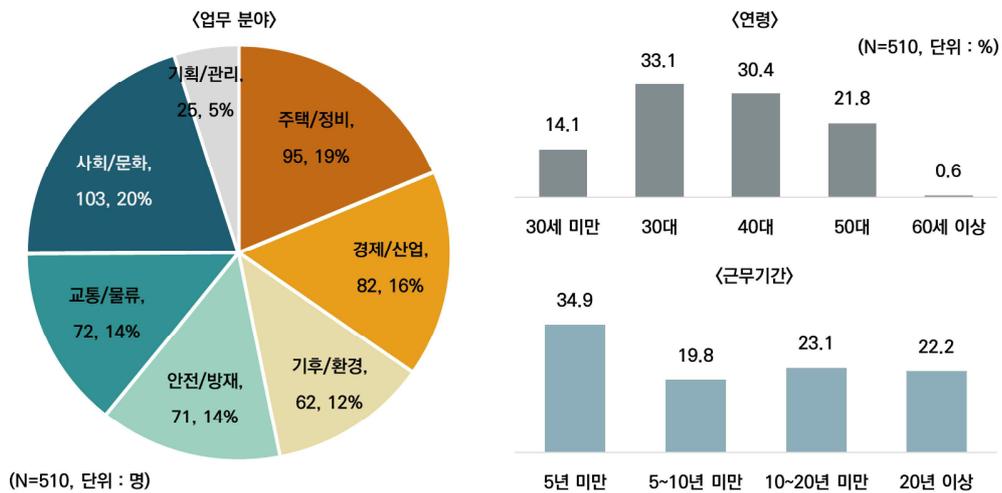
## 1\_개요

### 1) 조사 목적

-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활용도를 모색하고자 서울시 공무원 설문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정 추진 주체인 서울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인지도, 활용실태 등을 파악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세부 내용에 관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판단하는 중요 정도와 향후 20년 이내 실현 가능성,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모니터링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를 확보

### 2) 조사 개요

- 서울시청 전체 공무원 4,253명(2023년 9월 기준) 중 510명
- 부서별 인원수에 따른 비례 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온라인 설문으로 시행
  - 25개 실·국·본부를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7개 분야로 재분류
  - 분야별 표본 수는 '사회/문화'가 103명(20.2%)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정비' 95명(18.6%), '경제/산업' 82명(16.1%), '교통/물류' 72명(14.1%), '안전/방재' 71명(13.9%), '기후/환경' 62명(12.2%), '기획/관리' 25명(4.9%) 순



[그림 1-1] 설문 응답자 특성

### 3) 조사 내용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의 인지 및 활용실태 등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출한 서울의 현황, 여건 변화, 미래상에 대한 인식과 의견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역할에 대한 인식, 활용도, 7대 목표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인지, 추진과정·성과 진단에 대한 서울시의 참여, 향후 역할 등에 대한 의견

[표 1-1]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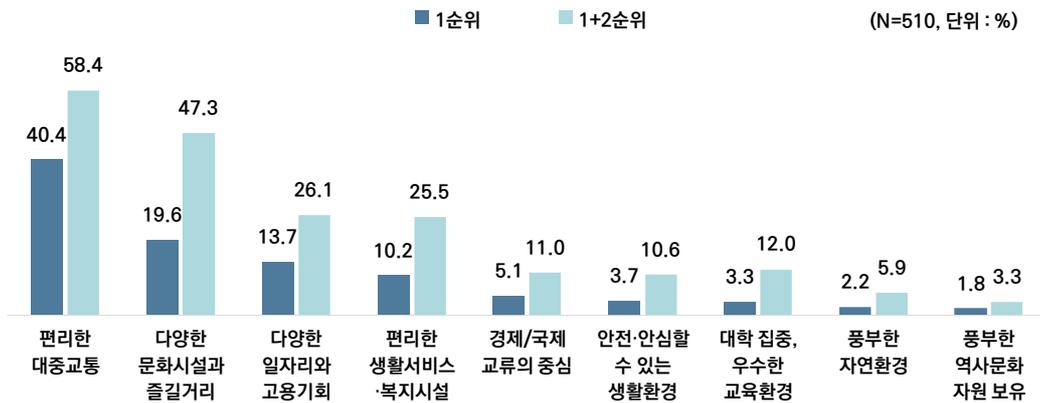
구분	항목
서울의 현재와 미래	서울의 장점 및 문제점
	서울에서 살기 좋은 정도
	서울시 직면한 여건 변화 중 우선 대처 사항
	20년 후 희망하는 서울의 모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역할에 대한 인식
	주요 계획·정책 결정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 활용
	업무·과제 수행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 참조·검토
	현행 도시기본계획 관련 개선 사항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역할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별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 -7대 목표·부문별 전략계획·공간계획·생활권계획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인지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활용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 및 성과 진단의 서울시 참여
	향후 강화해야 할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역할

## 2\_서울의 현재와 미래

### 1) 서울의 현재

○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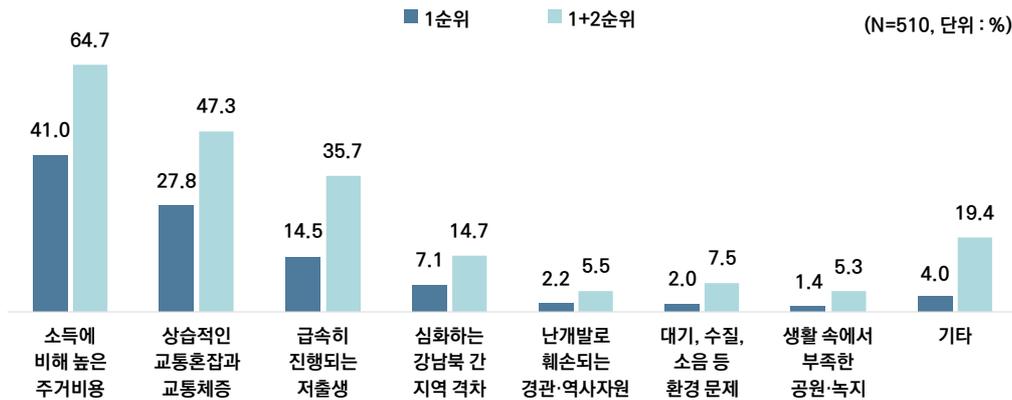
- 서울시 공무원이 인식하는 서울의 장점은 ‘편리한 대중교통’(40.4%), ‘다양한 문화 시설과 즐길거리’(19.6%), ‘다양한 일자리와 고용기회’(13.7%), ‘편리한 생활서비스·복지시설’(10.2%) 등이 높은 순위



[그림 1-2] 서울시 공무원이 인식하는 서울의 장점

○ 서울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높은 주거비용’과 ‘상습적 교통혼잡·체증’

- 서울의 문제점으로 ‘높은 주거비용’(41.0%)과 ‘상습적 교통혼잡·체증’(27.8%)을 비롯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14.5%), ‘강남·북 간 지역 격차 심화’(7.15%) 등



[그림 1-3] 서울시 공무원이 인식하는 서울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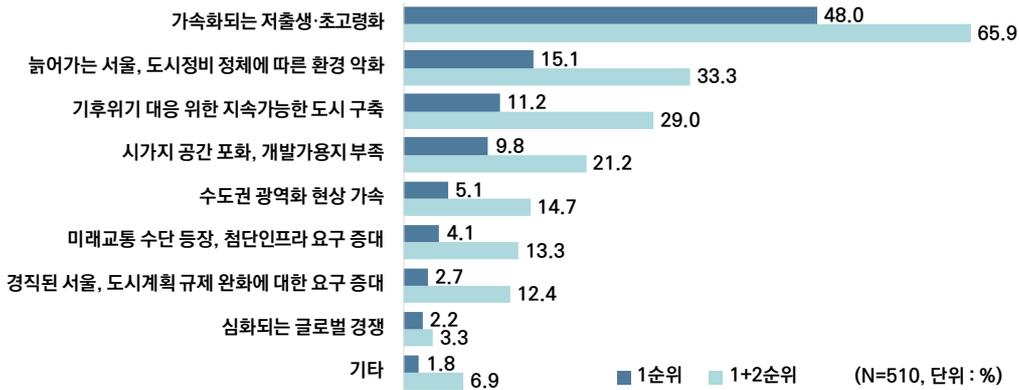
○ 서울의 살기 좋은 정도를 평가했을 때 73.8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도출

- 서울시 공무원들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서울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

## 2) 서울의 미래

### ○ 서울의 여건 변화<sup>93)</sup> 중 우선 대처해야 할 1순위는 ‘가속화되는 저출생·초고령화’

- 서울이 직면한 여건 변화 중 우선 대처해야 할 사항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생·초고령화’(48.0%), ‘늘어가는 서울, 도시정비 정체에 따른 환경 악화’(15.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11.2%), ‘개발 가용지 부족’(9.8%) 등이 높은 순위



[그림 1-4] 우선 대처해야 할 서울의 여건 변화

주: 기타는 ‘일상의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에 대응’(1.4%, 4.9%), ‘반복되는 팬데믹에 공간적 대응’(0.4%, 2.0%)

### ○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서울의 20년 후 모습은 ‘주거 안정된 서울’

- 20년 후 희망하는 서울의 모습으로 ‘주거 안정된 서울’(44.3%)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글로벌 도시 서울’(14.5%), ‘공원과 녹지가 많은 서울’(10.4%), ‘스마트 서울’(6.3%), ‘안전한 서울’(6.1%) 등 순
- 복수응답(1+2순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하는 서울’(19.2%)과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17.8%)도 높은 비율로 나타남



[그림 1-5] 희망하는 서울의 20년 후 모습

주: 기타는 ‘지역별 특성이 있는 서울’(3.3%, 7.3%),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서울’(1.6%,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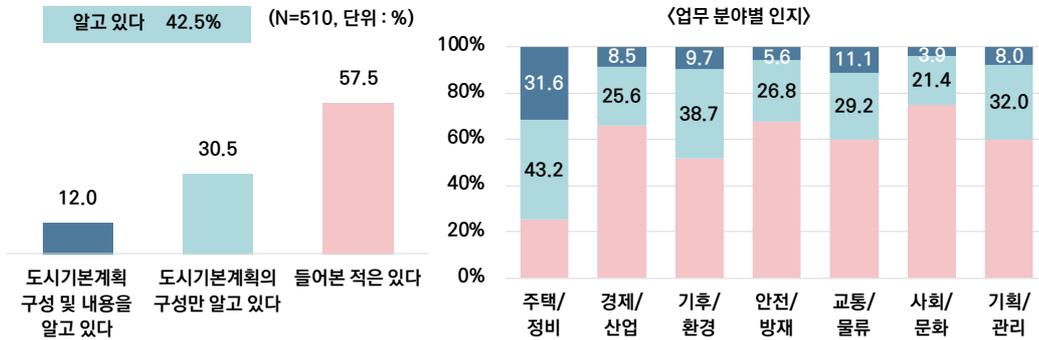
<sup>93)</sup>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출된 10가지 서울의 미래 여건 변화와 과제

### 3\_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역할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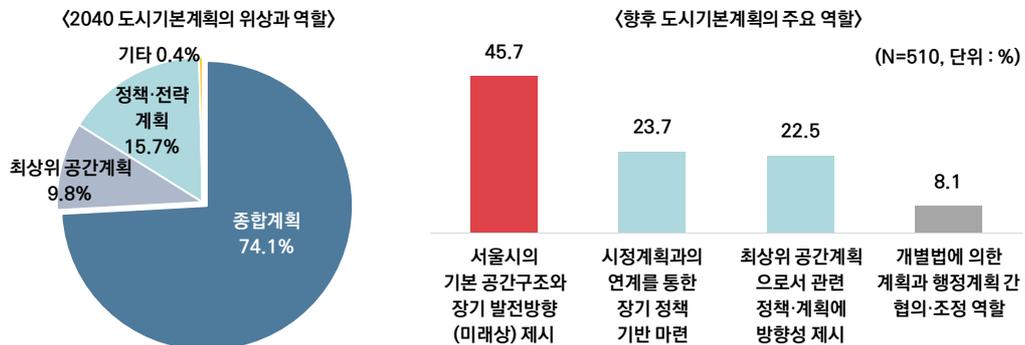
##### (1) 위상·역할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구성·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42.5%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57.5%)가 가장 많고, ‘도시기본계획의 구성만 알고 있다’(30.5%), ‘구성과 내용을 알고 있다’(12.0%) 순
  - 업무 분야별로는 ‘주택/정비’(74.8%)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사회/문화’(25.3%), ‘안전/방재’(32.4%), ‘경제/산업’(34.1%)에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1-6]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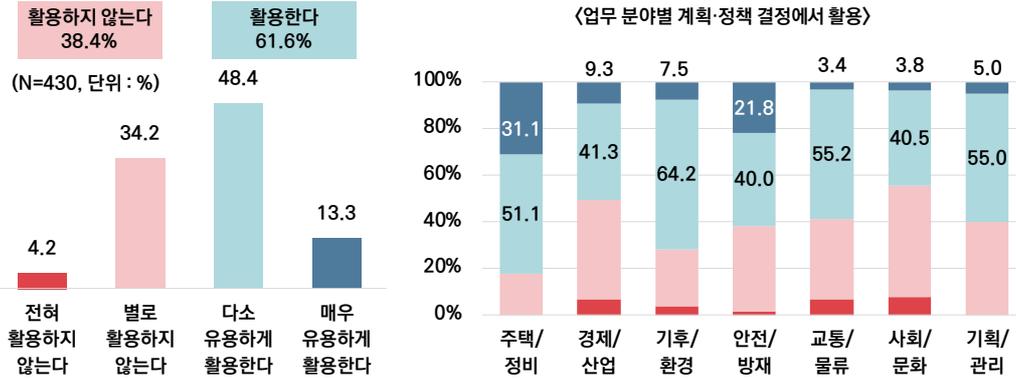
-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위상 및 역할이 가장 큰 것으로 인식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종합계획’(74.1%)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월등히 많았고, ‘정책계획·전략계획’(15.7%), ‘최상위 공간계획’(9.8%)은 적은 편
-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역할은 ‘서울시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 제시’
  -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요 역할에 대해 ‘서울시의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 제시’(45.7%) ‘시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정책 기반 마련’(23.7%),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관련 정책·계획에 방향성 제시’(22.5%) 등이 높은 순위 차지



[그림 1-7]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현재 및 향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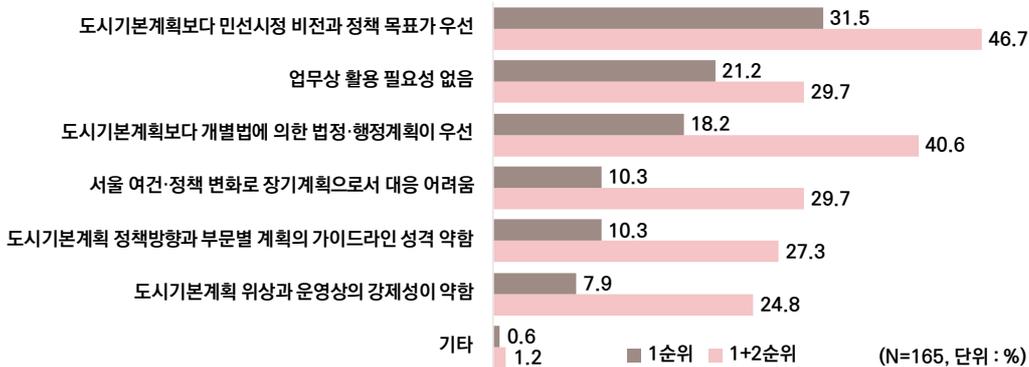
## (2) 계획·정책 결정에서 활용

- 서울시의 계획·정책 결정 시 과반(61.6%)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유용하게 활용'
  - 서울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다소 유용하게 활용한다'(48.4%),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34.2%), '매우 유용하게 활용한다'(13.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4.2%) 순
  - 업무 분야별로 활용한다는 의견은 '주택/정비'(82.2%)가 매우 높고 '사회/문화'(44.3%), '경제/산업'(50.6%)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



[그림 1-8]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계획·정책 결정에서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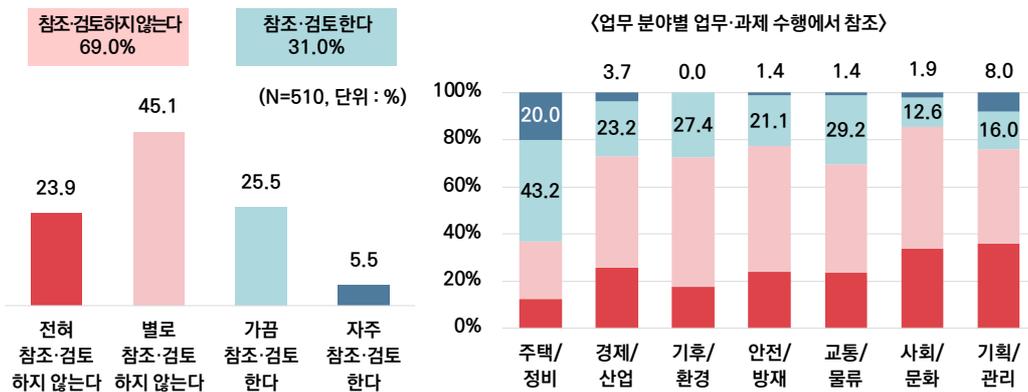
- 활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민선시정 비전과 정책 목표가 우선' 되기 때문
  - 서울시 계획·정책을 결정할 때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도시기본계획보다 민선시정 비전과 정책 목표가 우선'(31.5%), '업무상 활용 필요성 없음'(21.2%) '개별법에 의한 법정·행정계획이 우선'(18.2%) 순
  - '도시기본계획 정책방향과 부문별 계획의 가이드라인 성격이 약함'(10.3%), '서울 여건·정책 변화로 장기계획으로서 대응 어려움'(10.3%),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운영상의 강제성이 약함'(7.9%) 등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그림 1-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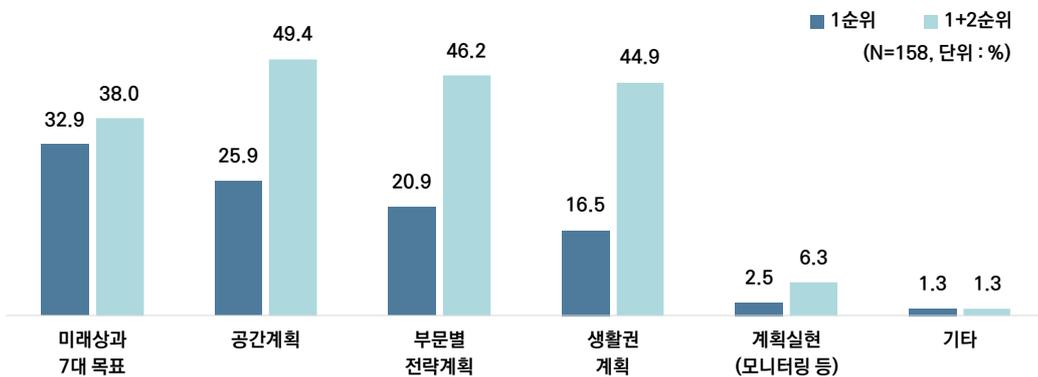
### (3) 업무·과제 수행에서 참조

- 업무 및 과제 수행 시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참조·검토’한다는 응답이 31.0%
  - 2023년 업무·과제를 수행할 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별로 참조·검토하지 않는다’(45.1%)가 가장 많았고, ‘가끔 참조·검토한다’(25.5%), ‘전혀 참조·검토하지 않는다’(23.9%), ‘자주 참조·검토한다’(5.5%) 순
    -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참조·검토하지 않는다’(69.0%)는 응답이 과반
  - 업무 분야별로 참조한다는 의견은 ‘주택/정비’(63.2%)가 가장 높고 ‘사회/문화’(14.5%)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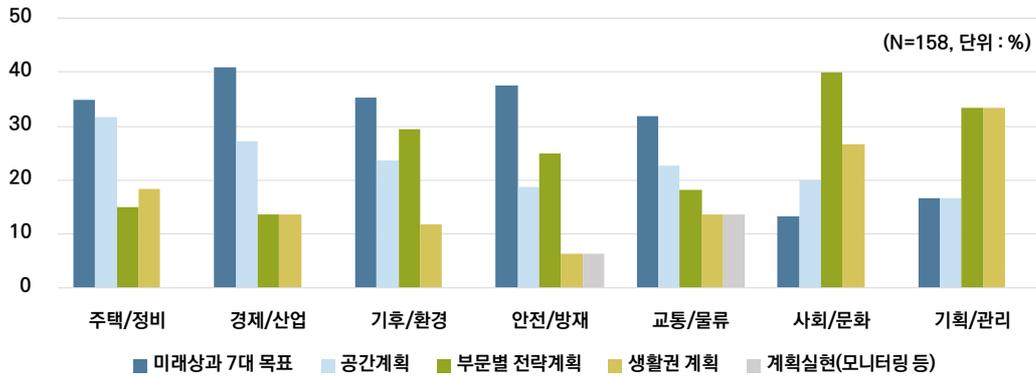


[그림 1-10] 업무·과제 수행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참조·검토 정도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참조·검토한 내용은 ‘미래상과 7대 목표’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참조·검토한 내용은 ‘미래상과 7대 목표’(32.9%), ‘공간계획’(25.9%), ‘부문별 전략계획’(20.9%), ‘생활권계획’(16.5%) 순
  - 복수 응답 기준으로 보면, ‘공간계획’(49.4%) 참조 비율이 가장 높고, ‘부문별 전략계획’(46.2%), ‘생활권계획’(44.9%) 등에 대한 활용도도 높은 편
  - 업무 분야별로는 ‘주택/정비’, ‘기획/관리’는 ‘공간계획’과 ‘생활권계획’을, ‘기후/환경’, ‘경제/산업’, ‘안전/방재’는 ‘부문별 전략계획’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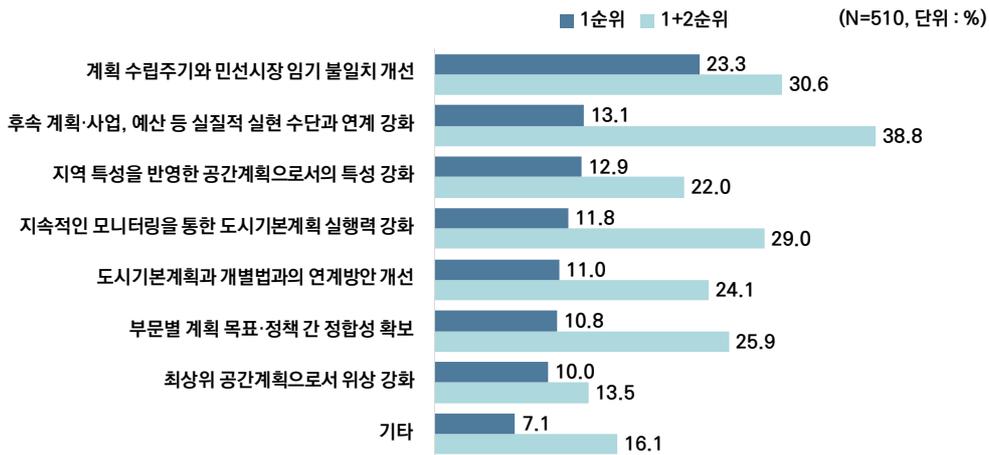
[그림 1-11]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참조·검토 내용



[그림 1-12] 업무 분야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참조·검토 내용

#### (4) 도시기본계획의 개선 사항

- 도시기본계획의 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계획수립 주기와 민선시장 임기 불일치’
  -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계획수립 주기와 민선시장 임기 불일치 개선’(23.3%)이 가장 높고, ‘실질적 실현 수단과 연계 강화’(13.1%), ‘지역 특성 반영한 공간계획의 특성 강화’(12.9%) 등이 높은 순위
  -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도시기본계획 실행력 강화’(11.8%), ‘개별법과 연계방안 개선’(11.0%), ‘부문별 계획 목표·정책 간 정합성 확보’(10.8%),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 강화’(10.0%) 등은 응답률에 차이가 크지 않음
  - 반면 복수 응답 기준으로는 ‘실질적 실현 수단과 연계 강화’(38.8%)가 더 많고,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도시기본계획 실행력 강화’(29.0%)도 비교적 많이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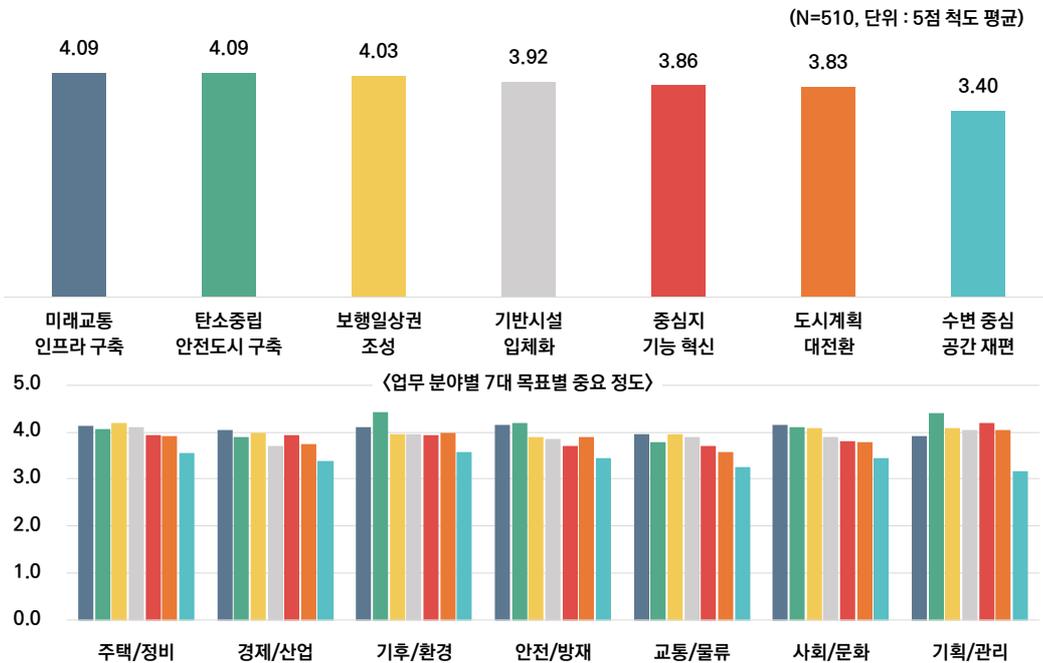


[그림 1-13]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개선 필요 요소

주: 기타 의견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행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3.5%, 8.2%),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방식 다양화’(2.9%, 6.9%), 기타(0.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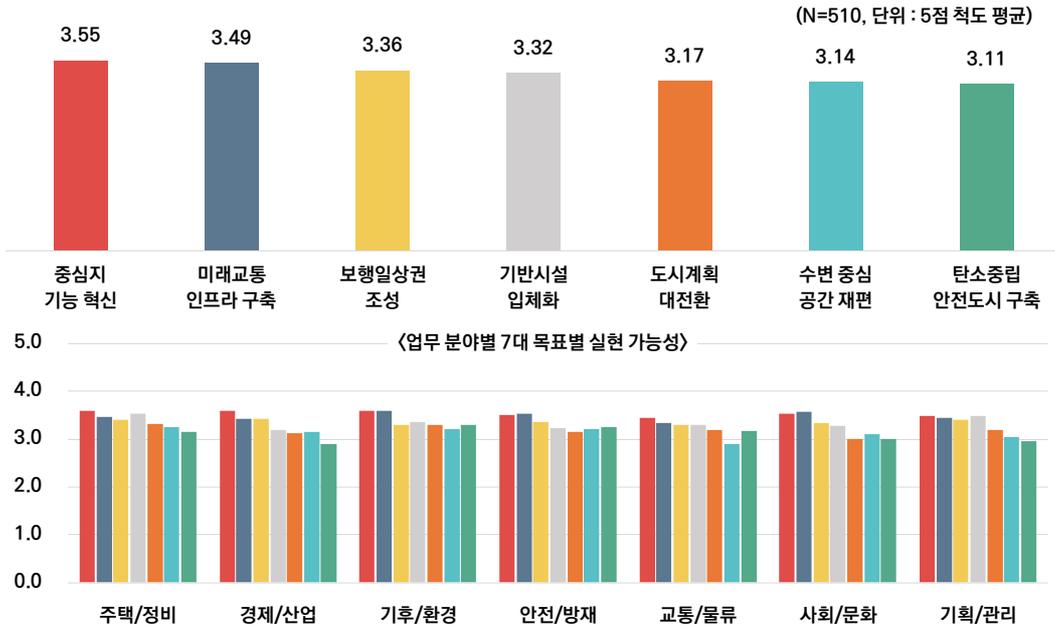
## 2) 7대 목표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 7대 목표 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이 상대적으로 중요
  - 서울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에서 7대 목표별 중요도(5점 척도)는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4.09점),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4.09점), ‘보행일상권 조성’(4.03점) 순이며, ‘수변중심 공간 재편’(3.4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 업무 분야에 따라 ‘주택/정비’는 ‘기반시설 입체화’를, ‘기후/환경’과 ‘기획/관리’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및 ‘도시계획 대전환’을, ‘안전/방재’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을 더 중요하게 인식
  - ‘기반시설 입체화’,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도시계획 대전환’은 업무 분야별 중요도 인식에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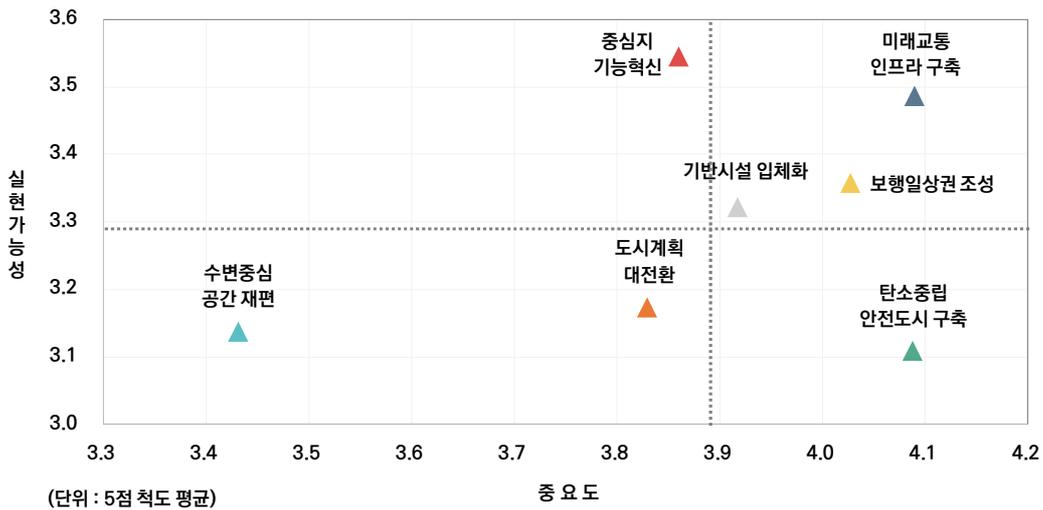
[그림 1-14] 7대 목표별 중요 정도

- 7대 목표 중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보행일상권 조성’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
  - 7대 목표에 대해 향후 20년 이내 실현 가능성을 평가했을 때(5점 척도), ‘중심지 기능 혁신’(3.55점),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3.49점), ‘보행일상권 조성’(3.36점), ‘기반시설 입체화’(3.32점) 순
  -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3.11점)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며, ‘수변 중심 공간 재편’(3.14점), ‘도시계획 대전환’(3.17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업무 분야에 따라 ‘기후/환경’, ‘사회/문화’, ‘안전/방재’는 7대 목표 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



[그림 1-15] 7대 목표별 실현 가능성

- 7대 목표 중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
  - ‘보행일상권 조성’, ‘기반시설 입체화’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모두 높게 인식
  -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 ‘도시계획 대전환’, ‘수변 중심 공간 재편’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 ‘중심지 기능 혁신’은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되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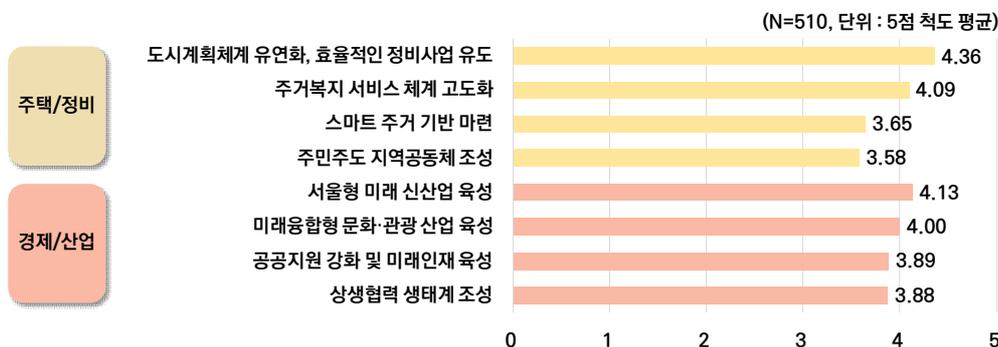


[그림 1-16] 도시기본계획 7대 목표에 대한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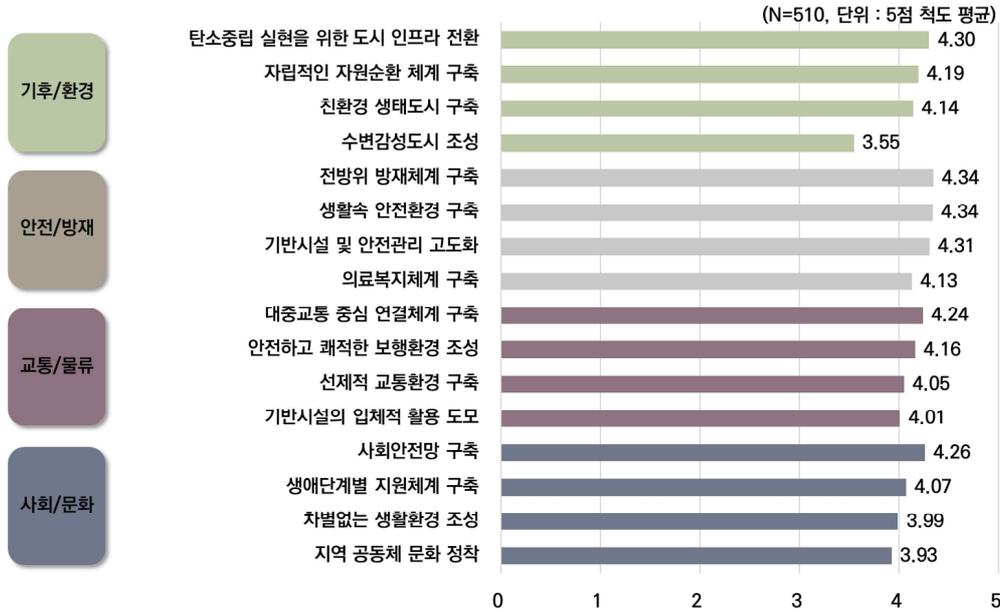
### 3) 부문별 전략계획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 (1) 중요도

-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주택/정비’ 부문은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중요도(5점 척도)는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4.36점), ‘주거 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4.09점),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3.65점), ‘주민주도 지역 공동체 조성’(3.58점) 순
- ‘경제/산업’ 부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4.13점),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4.00점),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3.89점),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3.88점) 순
- ‘기후/환경’ 부문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이 가장 중요한 목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4.30점),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4.19점),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4.14점)에 비해 ‘수변감성도시 조성’(3.55점)은 중요도가 가장 낮음
- ‘안전/방재’ 부문은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과 ‘생활 속 안전환경 구축’을 중요하게 인식
  -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4.34점),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4.34점),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4.31점), ‘의료복지체계 구축’(4.13점) 순이며, ‘안전/방재’ 부문의 전략계획 목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문의 목표보다 중요도 점수가 높게 도출
- ‘교통/물류’ 부문은 ‘대중교통 중심 연결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목표
  - ‘대중교통 중심 연결체계 구축’(4.24점)을 비롯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16점)도 중요성이 높게 인식
  -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4.05점)이나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4.01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목표
- ‘사회/문화’ 부문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사회 안전망 구축’(4.26점),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4.07점), ‘차별없는 생활 환경 조성’(3.99점),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3.93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17]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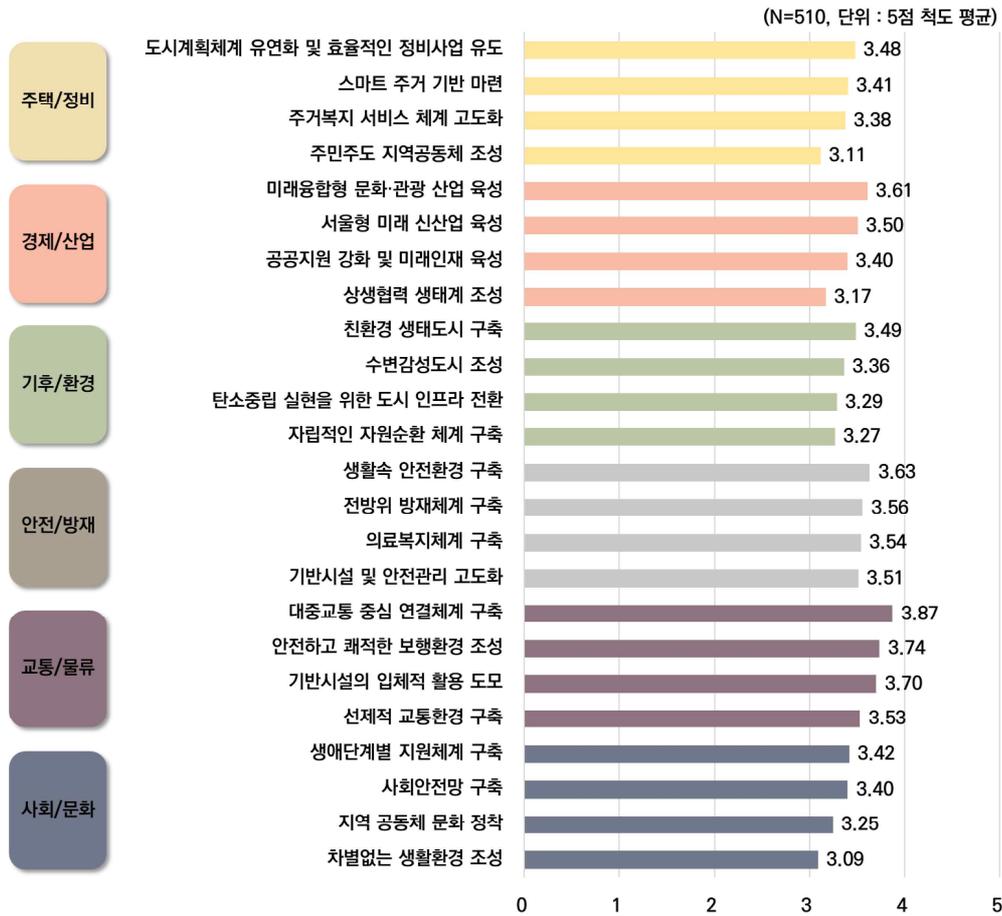
[그림 1-17]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중요도(계속)

## (2) 실현 가능성

-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향후 20년 이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한 결과를 보면, ‘주택/정비’ 부문은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 정비사업 유도’가 가장 높음
  -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 정비사업 유도’(3.48점),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3.41점),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3.38점),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3.11점) 순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게 인식
- ‘경제/산업’ 부문은 ‘미래융합형 문화·관광산업 육성’이 가장 높음
  - ‘미래융합형 문화·관광산업 육성’(3.61점),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3.50점), ‘공공 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3.40점),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3.17점) 순으로 도출
- ‘기후/환경’ 부문은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
  -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3.49점), ‘수변감성도시 조성’(3.36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3.29점),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3.27점) 순으로 평가
- ‘안전/방재’ 부문은 ‘생활 속 안전환경 구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
  - ‘생활 속 안전환경 구축’(3.63점),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3.56점), ‘의료복지체계 구축’(3.54점),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3.51점) 순으로 나타남
- ‘교통/물류’ 부문의 ‘대중교통 중심 연결 체계 구축’은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 전체 중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인식
  - ‘대중교통 중심 연결체계 구축’(3.87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3.74점),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3.70점),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3.53점) 순

○ ‘사회/문화’ 부문은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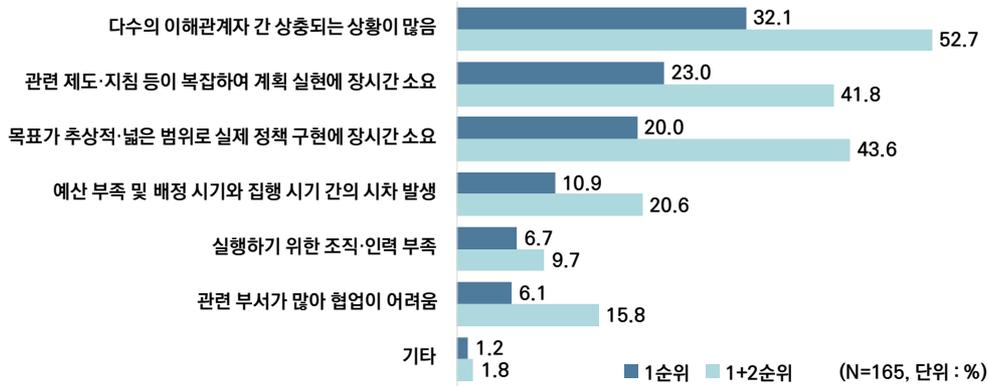
-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3.42점), ‘사회 안전망 구축’(3.40점),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3.25점), ‘차별없는 생활환경 조성’(3.09점) 순으로 실현 가능성을 인식



[그림 1-18] 각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실현 가능성

○ 서울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상황이 많다’는 응답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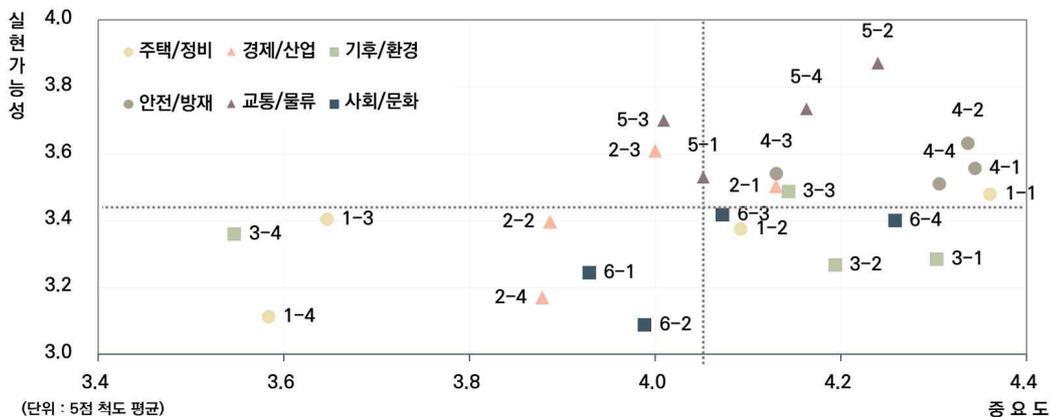
-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상황이 많다’(32.1%), ‘관련 제도·지침 등이 복잡하여 계획 실현에 장시간 소요’(23.0%), ‘목표가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로 실제 정책 구현에 장시간 소요’(20.0%) 순
- 예산이나 조직, 부서 협업 등 실행 관련 사항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비중 있게 거론되지 않음
  - ‘예산 부족 및 배정 시기와 집행 시기 간의 시차 발생’(10.9%), ‘실행하기 위한 조직·인력부족’(6.7%), ‘관련 부서가 많아 협업이 어려움’(6.1%) 등



[그림 1-19] 전략계획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인식한 이유

### (3)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교차 분석

- ‘안전/방재’ 및 ‘교통/물류’ 부문은 중요도·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은 목표가 상대적으로 많음
  - ‘주택/정비’ 및 ‘경제/산업’ 부문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모두 낮은 목표가 비교적 많고, ‘기후/환경’ 부문은 중요도가 높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정비’ 부문은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이 모두 높음
  - 목표 중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과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경제/산업’ 부문의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및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은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이 모두 낮음
  - 반면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기후/환경’ 부문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과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점수는 낮음
  - ‘수변감성도시 조성’은 중요도가 매우 낮고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인식되는 목표
- ‘사회/문화’ 부문의 목표는 대부분 중요도가 높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음
  - ‘주택/정비’ 부문의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과 유사하게 ‘사회/문화’ 부문의 ‘지역공동체 문화 정착’도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모두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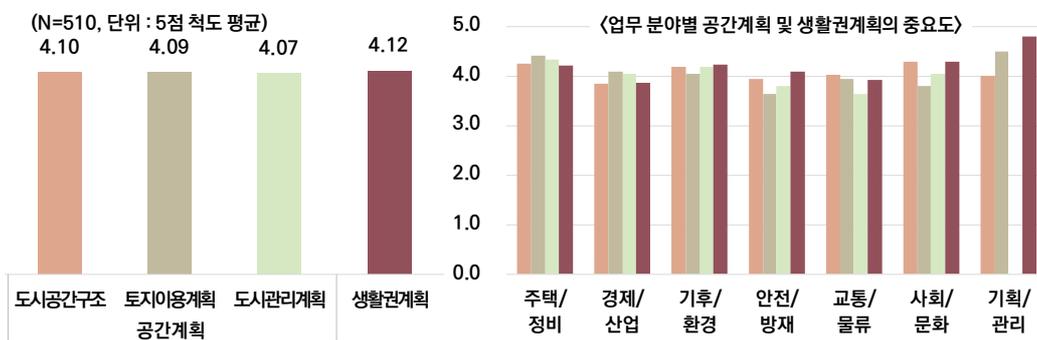


부문	전략계획 목표	구분	부문	전략계획 목표	구분
주택/정비	도시계획체계 유연화·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1-1	경제/산업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2-1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1-2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2-2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1-3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2-3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1-4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4
기후/환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	3-1	안전/방재	전방위 방재체계 구축	4-1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	3-2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	4-2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	3-3		의료복지체계 구축	4-3
	수변감성도시 조성	3-4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	4-4
교통/물류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	5-1	사회/문화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	6-1
	대중교통 중심 연결체계 구축	5-2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	6-2
	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 위한 기반시설 입체적 활용	5-3		시민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6-3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5-4		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6-4

[그림 1-20] 도시기본계획 부문별 전략계획 목표에 대한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교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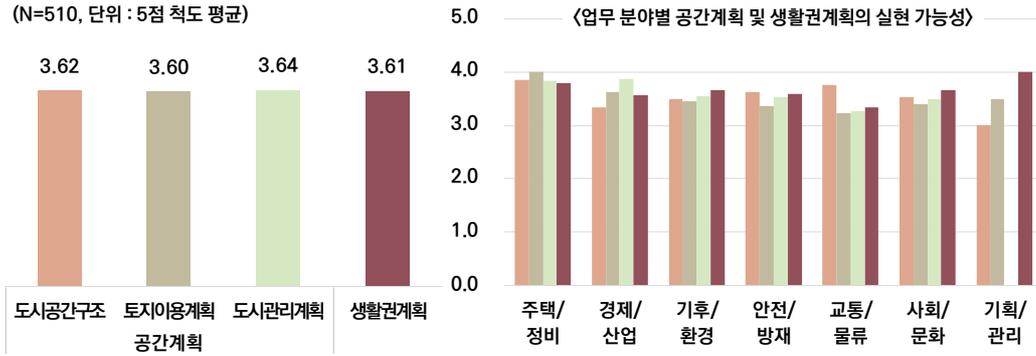
#### 4) 공간계획·생활권계획의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 공간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생활권계획’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음
  -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생활권계획’(4.12점), ‘도시공간구조’(4.10점), ‘토지이용계획’(4.09점), ‘도시관리계획’(4.07점) 순
  - 업무 분야별로는 ‘주택/정비’가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요도에 대해, ‘기획/관리’가 ‘토지이용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중요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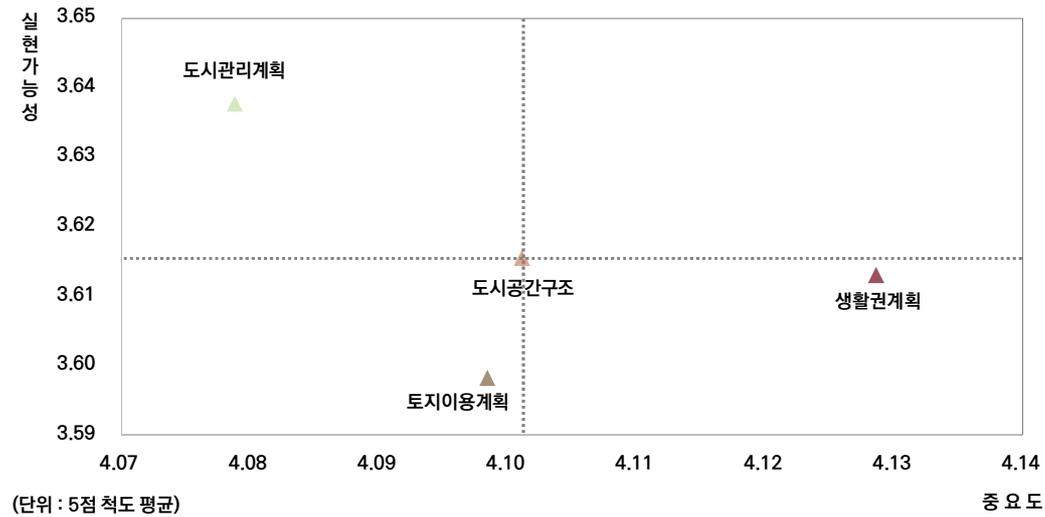
[그림 1-21]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중요도

-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향후 20년 이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공간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이 가장 높으나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5점 척도 평균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3.64점), ‘도시공간구조’(3.62점), ‘생활권계획’(3.61점), ‘토지이용계획’(3.60점) 순
  - 중요도와 비교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



[그림 1-22]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실현 가능성

-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 중 중요도와 실현 가능성 둘 다 높게 인식된 계획이 없음
  - ‘생활권계획’은 중요도는 높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낮음
  -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은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도시관리계획’은 중요도가 가장 낮으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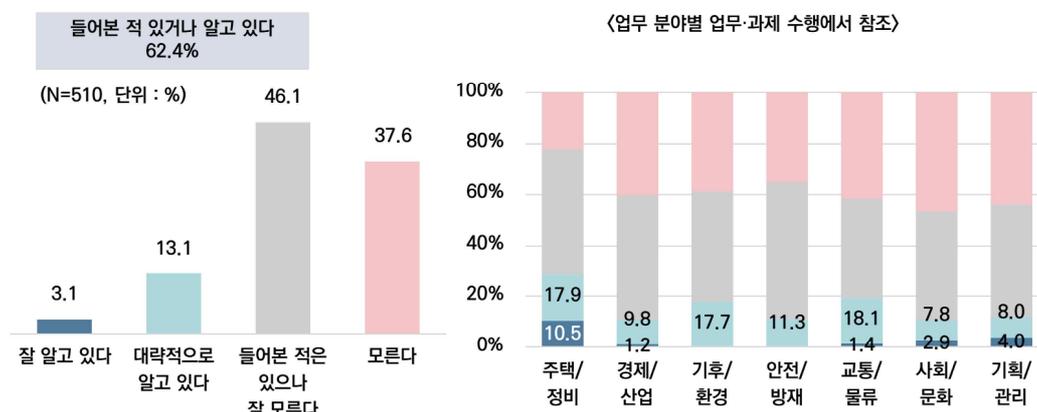


[그림 1-23]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에 대한 중요도 및 실현 가능성 교차 분석

## 4\_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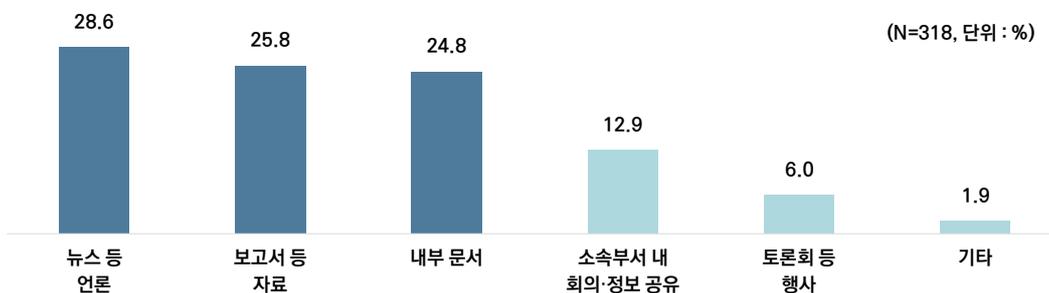
### 1) 인지 및 활용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62.4%
  - 서울시 공무원 중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46.1%)는 응답자가 가장 많고, ‘모른다’(37.6%)도 상당히 많음
  -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13.1%), ‘잘 알고 있다’(3.1%) 등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률은 16.3%로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
  - ‘주택/정비’ 및 ‘교통/물류’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획/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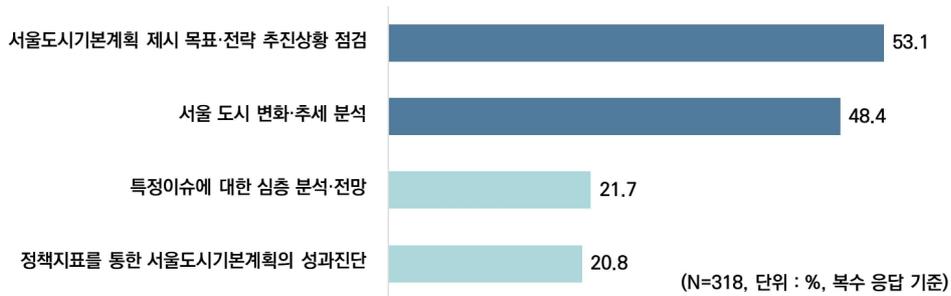
[그림 1-24]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인지 정도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인지 경로는 ‘뉴스 등 언론’ 및 ‘보고서 등 자료’, ‘내부 문서’ 등이 대부분을 차지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게 된 경로는 ‘뉴스 등 언론’ (28.6%), ‘보고서 등 자료’(25.8%), ‘내부 문서’(24.8%), ‘소속부서 내 회의·정보 공유’ (12.9%), ‘토론회 등 행사’(6.0%)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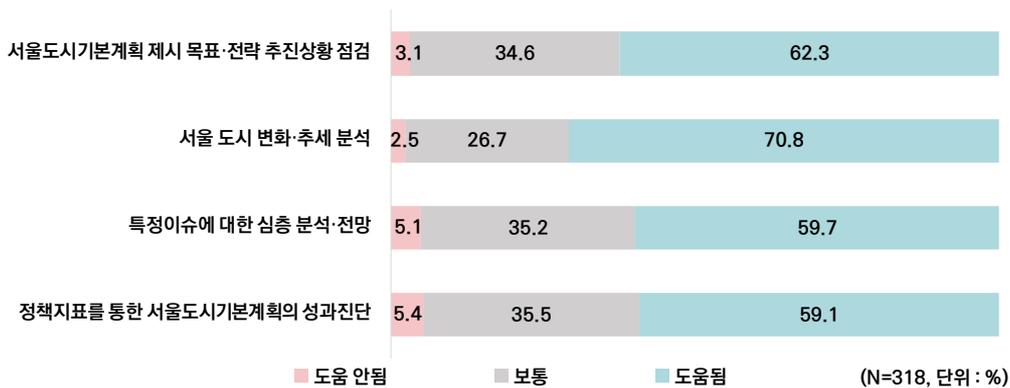
[그림 1-25]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인지 경로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 중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서울 도시 변화 및 추세 분석’ 위주로 인지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 중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사항은(복수 응답 기준) ‘서울 도시기본계획 제시 목표 및 전략 추진 상황 점검’(53.1%), ‘서울 도시 변화 및 추세 분석’(48.4%)이 많은 응답 차지
    -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전망’(21.7%)이나 ‘정책지표를 통한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성과진단’(20.8%)은 상대적으로 적음



[그림 1-26]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인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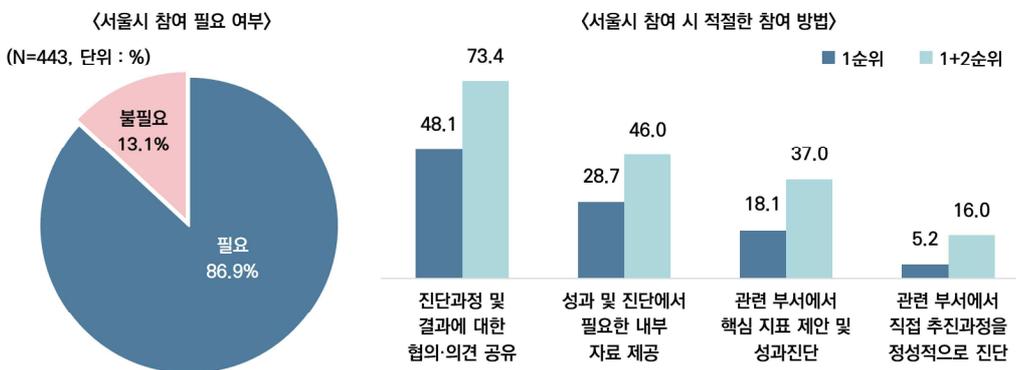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이 계획수립·시행에 유용하다는 의견은 내용별로 모두 과반을 차지하며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을 내용별로 보았을 때 ‘서울의 도시 변화와 추세 분석’(70.8%)이 가장 많음
  -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전략 추진상황 점검’(62.3%), ‘서울이 직면한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59.7%), ‘정책지표를 통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성과 진단’(59.1%) 순



[그림 1-2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내용별 유용 정도

## 2) 서울시 공무원의 참여

-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성과 진단의 서울시 관련 부서 참여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 필요성 인식
  -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실현 정도를 진단할 때 서울시 관련 부서의 직·간접적인 참여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6.9%
- 서울시 관련 부서의 적절한 참여 방법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진단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협의·의견 공유’
  - 서울시 관련 부서의 적절한 참여 방법은 ‘진단 과정·결과에 대한 협의·의견 공유’(48.1%), ‘성과진단에서 필요한 내부 자료 제공’(28.7%), ‘관련 부서에서 핵심 지표 제안 및 성과진단’(18.1%), ‘관련 부서가 추진과정을 정성적으로 직접 진단’(5.2%) 순



[그림 1-28] 서울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성과 진단 관련 서울시 참여 필요 여부 및 적절한 참여 방법

## 3) 역할의 강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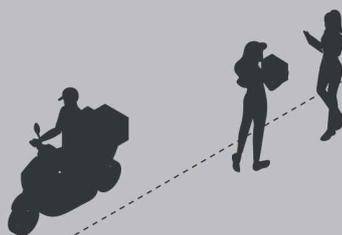
- 향후 강화해야 할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역할 1순위는 ‘성과·추진과정 진단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 향후 강화해야 할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역할은 ‘성과·추진과정 진단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43.9%), ‘현 도시기본계획 성과·과제 모니터링’(23.1%), ‘이슈·과제 발굴’(21.2%), ‘정기적인 도시변화 진단’(11.8%) 순으로 응답



[그림 1-29] 향후 강화해야 할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역할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보고서 및 단행본

- 교육부, 2023, 「202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2022.12.31.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2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 맹다미 외, 2023,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2년도)」, 서울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 2022, 「2022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서울관광재단, 2023, 「2022 서울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서울연구원, 2023, 「도시계획 개념사전」
- 서울문화재단, 2023, 「2021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 서울연구원, 2020,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 서울특별시, 2014,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7~2021, 「주거실태조사」
- 서울특별시, 2021, 「2040 서울특별시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22, 「2021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202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0년도분)」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022, 「2022년 수도권 여객 O/D 전수화 공동사업 최종보고서」
- 서울특별시, 2023,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 서울특별시, 202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23, 「서울 창조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21년도분)」
- 서울특별시, 2023, 「제2차 서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 2023,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시행계획 : 2023~2027」
- 서울특별시, 2023, 「제3차 서울시 도시안전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23, 「2022 서울서베이」
- 서울특별시, 2024, 「2023 서울서베이」
- 행정안전부, 2023, 「2022 재난연감(사회재난)」
- 행정안전부, 2023, 「2022 재해연보(자연재난)」
- 신상영 외, 2016,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양혜원, 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희지 외, 2021, 「다세대·다가구주택지 과밀개선 위한 연계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화 방안」, 서울연구원

## 사이트

국세통계포털: [tasis.nts.go.kr](http://tasis.nts.go.kr)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www.nlic.go.kr](http://www.nlic.go.kr)  
 국토교통부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open.eais.go.kr](http://open.eais.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koroad.or.kr](http://taas.koroad.or.kr)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dict.aik.or.kr](http://dict.aik.or.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http://law.go.kr)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www.smes.go.kr/venturein](http://www.smes.go.kr/venturein)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  
 스마트 서울뷰 - 약자동행지수: [scpm.seoul.go.kr/companion](http://scpm.seoul.go.kr/companio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http://kosis.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www.reb.or.kr/r-one](http://www.reb.or.kr/r-on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http://ecos.bok.or.kr)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http://data.go.kr)  
 Noun Project: [thenounproject.com](http://thenounproject.com)

## 기타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빅데이터캠퍼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국가교통DB,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 현황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 건축물허가대장  
 국토교통부, 토지특성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통계연보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지표 조사연구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통계  
 서울연구원, 2022, 서울인포그래픽스, '2022년 8월 집중호우, 서울시의 강우량과 피해특성은?'  
 서울지방경찰청,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임대주택통계

서울특별시 수변감성도시과, 연도별 서울시 불투수면적 현황

서울특별시, 2023, 「서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공동주택지원과, 정비사업 통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 정비사업 통계

서울특별시, 시정통계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시스템, 버스운행노선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지하철 운행현황 통계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시내버스 현황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연료별 자동차 등록 현황

서울특별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약자동행지수 지표정의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 정비사업 통계

서울특별시 친환경건물과, 내부자료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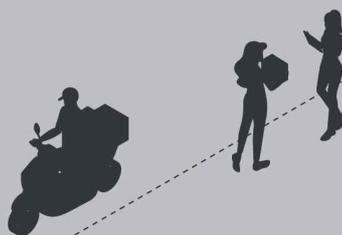
질병관리청, 법정감염병 발생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카드빅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현황 통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 부록





## 부록: 설문조사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서는 2023년 1월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한 바 있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획으로,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정도와 집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의 현황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모니터링을 정례화하였습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2015년부터 매년 서울연구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목적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모니터링의 ① 인지도, ② 활용실태, ③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를 통해 종합된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 및 모니터링 수립 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해 주신다면,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더불어 귀하의 개인정보 및 설문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오니 안심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기관

서울연구원

조사수행기관

파트너스알앤씨

### 설문대상 설정을 위한 질문

[문1]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실·국·본부를 아래의 보기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다 順)

실·국·본부				
① 경제정책실	② 관광체육국	③ 균형발전본부	④ 기술심사담당관	⑤ 기획조정실
⑥ 기후환경본부	⑦ 노동공정상생정책관	⑧ 도시계획국	⑨ 도시교통실	⑩ 디자인정책관
⑪ 디지털정책관	⑫ 문화본부	⑬ 물순환안전국	⑭ 미래공간기획관	⑮ 미래청년기획단
⑯ 복지정책실	⑰ 소방재난본부	⑱ 시민건강국	⑲ 약자의 동행추진단	⑳ 여성가족정책실
㉑ 재난안전관리실	㉒ 주택정책실	㉓ 평생교육국	㉔ 푸른도시여가국	㉕ 행정국
㉖ 기타 ( )				

[문2]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부서명은 무엇입니까? (부서명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 )과 ( )팀

## Part A. 서울의 현재와 미래 모습

[문1] 귀하께서는 서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대중교통 이용 편리         | ② 다양한 문화시설과 즐길거리     |
| ③ 대학 집중, 우수한 교육환경    | ④ 북한산, 한강 등 풍부한 자연환경 |
| ⑤ 생활서비스 및 복지시설 이용 편리 | ⑥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보유      |
| ⑦ 안전·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 ⑧ 다양한 일자리와 고용기회      |
| ⑨ 경제·국제교류의 중심        | ⑩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문2] 귀하께서는 서울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상습적인 교통혼잡과 교통체증         | ②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생            |
| ③ 강남북 간 지역격차의 심화          | ④ 난개발로 인한 경관, 역사문화자원 훼손   |
| ⑤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부족 | ⑥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          |
| ⑦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 문제      | ⑧ 재난, 시설물, 감염병 등 재해·재난 문제 |
| ⑨ 범죄, 치안 등 도시안전 문제        | ⑩ 이웃·주민공동체 의식의 약화         |
| ⑪ 청년, 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 부족     | ⑫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시설 부족    |
| ⑬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문3] 귀하께서는 서울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에서 살기 좋은 정도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점수: ( \_\_\_\_\_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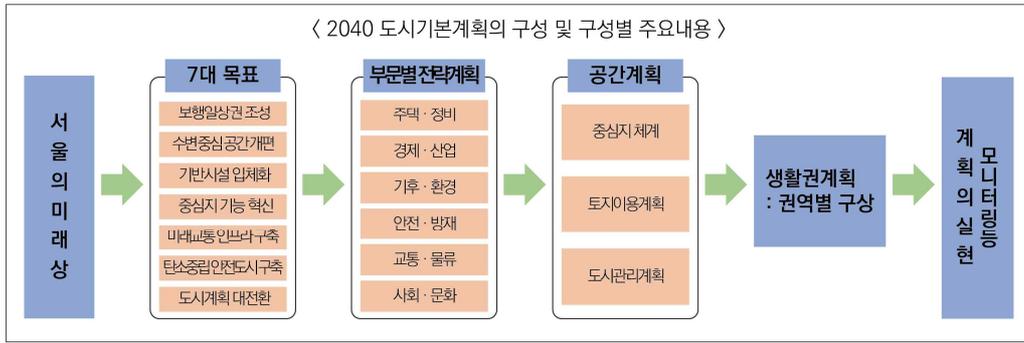
[문4] 앞으로 서울이 직면할 다음의 여건 변화 중 서울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가속화되는 저출생·초고령화               | ② 일상의 반강제적 디지털 전환에 대응         |
| ③ 반복되는 팬데믹에 공간적 대응             | ④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
| ⑤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 ⑥ 미래교통수단의 등장과 첨단 인프라 요구 증대    |
| ⑦ 시가지 공간의 포화, 개발가능지의 부족        | ⑧ 높아가는 서울 도시 정비의 정채에 따른 환경 악화 |
| ⑨ 경직된 서울,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증대 | ⑩ 수도권 광역화 현상 가속               |

[문5] 향후 20년 후에 귀하께서 원하시는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주택 양·질을 담보하는 주거가 안정된 서울           | ②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 서울       |
| ③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서울                  | ④ 일상생활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많은 서울     |
| ⑤ 지역별 특성이 있는 서울                     | ⑥ 재해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울           |
| ⑦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 ⑧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
| ⑨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할 수 있는 서울 | ⑩ 장애인, 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인 서울 |





[문4-1] 귀하의 업무와 과제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어떤 내용을 참조하거나 검토하셨습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 ① 미래상과 7대 목표
- ② 부문별 전략계획
- ③ 공간계획
- ④ 생활권 계획
- ⑤ 계획의 실현(모니터링 등)
- ⑥ 기타(\_\_\_\_\_)

[문5] 귀하께서는 현행 도시기본계획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계획의 수립 주기(5년)와 민선시장 임기(4년)의 불일치 개선
-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으로서의 특성 강화
- ③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방식 다양화
- ④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의 위상 강화
- ⑤ 도시기본계획과 개별법과의 연계방안 개선
- ⑥ 부문별 계획 목표 및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 ⑦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강화
- ⑧ 후속 계획/사업/예산 등 실질적 실현 수단과 연계 강화
- ⑨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행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 ⑩ 기타(\_\_\_\_\_)

[문6] 귀하께서는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관련 정책 및 계획에 방향성 제시
- ② 서울시의 기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미래상) 제시
- ③ 시정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 정책의 기반 마련
- ④ 개별법에 의한 계획과 행정계획 간 협의·조정 역할
- ⑤ 기타(\_\_\_\_\_)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의 미래상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7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b>보행일상권 조성</b>	주거·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b>수변중심 공간 재편</b>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b>기반시설 입체화</b>	도심 속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b>중심지 기능 혁신</b>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기반 마련
<b>미래교통 인프라 구축</b>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b>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b>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공간계획의 주요원칙을 확립,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b>도시계획 대전환</b>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문7] 2040 서울시기본계획의 7대 목표 중에서 귀하의 업무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7대 목표	주요 내용	1순위	2순위
1. 보행일상권 조성	주거·일자리·여가문화·상업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2. 수변중심 공간 재편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3. 기반시설 입체화	도심 속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4. 중심지 기능 혁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5.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6.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공간계획의 주요원칙을 확립,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7. 도시계획 대전환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8. 해당 없음	업무 특성상 상기 부문별 목표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문8] 서울의 미래상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했을 때, 각 7대 목표별로 중요한 정도와 향후 20년 이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대 목표	중요도 실현가능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낮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중요/ 다소 높다	매우 중요/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1) 보행일상권 조성 (다양한 일상생활을 도보 30분 내에서 향유)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2) 수변 중심 공간 재편 (물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 중심으로 재편)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3) 기반시설 입체화 (도심 속 새로운 공간 창출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반시설 입체화 추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4) 중심지 기능 혁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심지 기능 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기반 마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5) 미래교통 인프라 구축 (신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한 미래교통 기반시설 마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6) 탄소중립 안전도시 구축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공간계획의 주요원칙을 확립, 기후변화 및 신종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서울로의 전환)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7) 도시계획 대전환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체계로의 전환)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7대 목표별로 순차적으로 질문 제시)

(※ 중요도 질문 : 5점 척도 보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다소 중요 / 매우 중요' 보기로 제시)

(※ 실현 가능성 질문 : 5점 척도 보기에서 '매우 낮다 / 다소 낮다 / 보통 / 다소 높다 / 매우 높다' 보기로 제시)

[문9]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전략계획 중에서 귀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부 문	주요 목표	1순위	2순위
1. 주택·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li> <li>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li> <li>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li> <li>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li> </ul>	①	①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경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li> <li>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li> <li>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li> <li>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li> </ul>	②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3. 기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 인프라 전환</li> <li>건강한 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자립적인 자원순환 체계 구축</li> <li>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li> <li>다양한 수변을 경험할 수 있는 수변감성도시 조성</li> </ul>	③	③
4. 안전·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변화 및 산중 대형재난 대처를 위한 전 방위 방재체계 구축</li> <li>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 속 안전 환경 구축</li> <li>안정적 도시생활을 보장하는 의료복지체계 구축</li> <li>도시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및 안전관리 고도화</li> </ul>	④	④
5. 교통·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교통수단과 융합을 위한 선제적 교통환경 구축</li> <li>도시 이동성 효율화를 위한 대중교통 중심의 연결체계 구축</li> <li>스마트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의 입체적 활용 도모</li> <li>보행자 친화 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li> </ul>	⑤	⑤
6.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이 함께 사는 환경을 위한 지역 공동체 문화 정착</li> <li>모두의 동등한 생활을 위한 차별 없는 생활환경 조성</li> <li>시민 일상생활의 여유를 위한 생애단계별 지원체계 구축</li> <li>고령사회대응과 세대통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li> </ul>	⑥	⑥
7.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 특성상 상기 부문별 목표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C1번으로 이동)</li> </ul>	⑦	

[문10] 귀하께서 이전 문항에서 선택한 부문별 전략계획의 목표입니다. 다음 중 귀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목표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B9에서 1~2순위로 응답한 부문만 목표 보기로 제시)

부 문	주요 목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목표 (모두 체크)
1. 주택·정비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input type="checkbox"/>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input type="checkbox"/>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input type="checkbox"/>
2. 경제·산업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형 미래 신산업 육성	<input type="checkbox"/>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input type="checkbox"/>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input type="checkbox"/>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input type="checkbox"/>

(후략)

[문11] 서울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했을 때, 각 부문별 목표의 중요성과 향후 20년 이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부문별 목표		중요도 실현가능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낮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중요/ 다소 높다	매우 중요/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주택· 정비	•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체계 유연화 및 효율적인 정비사업 유도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여유로운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 고도화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첨단 주거문화 정착을 위한스마트 주거 기반 마련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경제· 산업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조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혁신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및 미래인재 육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경제· 산업	•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융합형 문화·관광 산업 육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후략)

(※ 부문별 목표별로 순차적으로 질문 제시)

(※ 중요도 질문 : 5점 척도 보기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 별로 중요하지 않다 / 보통 / 다소 중요 / 매우 중요' 보기로 제시)

(※ 실현 가능성 질문 : 5점 척도 보기에서 '매우 낮다 / 다소 낮다 / 보통 / 다소 높다 / 매우 높다' 보기로 제시)

(※ 문11번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①, ②)에 응답한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만 문11-1번 질문)

[문1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목표 중에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신 항목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낮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 ① 관련 제도·지침 등이 복잡하여 계획을 실현하는데 장시간 소요
- ② 관련 부서가 많아 협업이 어려움
- ③ 실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부족
- ④ 예산 부족 및 배정 시기와 집행 시기 간의 시차 발생
- ⑤ 다수의 이해관계자 간 상충되는 상황이 많음
- ⑥ 목표가 추상적이며 범위가 넓어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장시간 소요
- ⑥ 기타(\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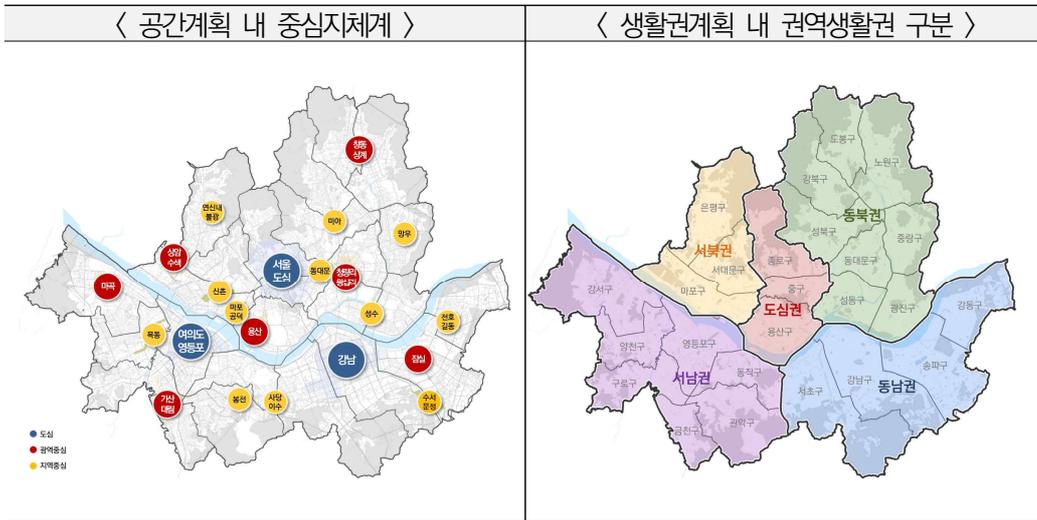
[ 공간 계획 ]

공간계획은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는 중심지 체계, 광역교통축, 산업·경제축, 공원·녹지·수변축 등 서울의 도시 공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는 2040년 서울의 미래상·7대 목표를 실현할 토지이용 혁신방안, 기성시까지 및 보존관리대상지의 토지이용 차별화와 같은 토지이용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관리의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 관리 및 조정 원칙과 용도지구·구역·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및 운영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활권 계획 ]

생활권계획은 2030 생활권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여건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습니다. 5대 권역의 권역별 발전방향과 계획과제를 도시공간, 주거환경, 기반시설, 공원녹지, 지역특화로 구분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문1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 중에서 귀하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까지 선택해주시요.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부 문	주요 목표	1순위	2순위	
공간 계획	도시공간구조	• 중심지 체계, 광역교통축, 산업·경제축, 공원·녹지·수변축 공간에 대한 계획	①	① ✓
	토지이용계획	• 서울의 미래상·7대 목표를 실현할 토지이용 혁신방안 마련 • 기성시까지 및 보존관리대상지의 토지이용 차별화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다양한 경관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높이관리로 전환	② ✓	②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관리, 조정 원칙, 용도지역별 관리방향 • 용도지구 관리방향, 용도지구별 운영방향 • 용도구역 관리원칙 및 운영방향, 주요 추진과제 • 도시계획시설 관리원칙 및 운영방향, 주요 추진과제	③	③
생활권계획	• 권역별(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획과제를 미래상, 부문별 전략계획 및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권역별로 도시공간, 주거환경, 기반시설, 공원녹지, 지역특화 등에 대한 계획 제시	④	④	
해당 없음	• 업무 특성상 상기 부문별 목표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C1번으로 이동)	⑤	/	

[문13] 서울시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했을 때, 각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의 중요성과 향후 20년 이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택해주시시오.

공간계획 및 생활권계획		중요성/ 실현 가능성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낮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다소 낮다	보통	다소 중요/ 다소 높다	매우 중요/ 매우 높다
				①	②	③	④	⑤
공간 계획	도시 공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심지 체계, 광역교통축, 산업·경제축, 공원·녹지·수변축 공간에 대한 계획</li> </ul>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토지 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의 미래상·7대 목표를 실현할 토지이용 혁신방안 마련</li> <li>기성시가지 및 보존관리대상지의 토지이용 차별화로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li> <li>다양한 경관이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높이관리로 전환</li> </ul>	중요도	①	②	③	④	⑤
			실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문14]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 또는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 Part C.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관련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조)



[문1]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실현과정을 진단하고 보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다
- ②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다 (☞ 문1-1 ~ 문1-2번 질문)
- ③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 (☞ 문1-1 ~ 문1-2번 질문)
- ④ 모른다 (☞ 문2 번으로 이동)

[문1-1] 귀하께서는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에 대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소속 부서 내 회의 및 정보 공유
- ② 내부 문서
- ③ 보고서 등 자료
- ④ 토론회 등 행사
- ⑤ 뉴스 등 언론
- ⑥ 기타(\_\_\_\_\_)

[문1-2] 다음은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 귀하께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서울의 도시변화와 추세 분석 (인구, 산업, 토지이용 등 변화분석)
- ② 서울이 직면한 특정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심층진단)
- ③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전략의 추진상황 점검(계획, 정책, 사업 등)
- ④ 정책지표를 통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성과 진단(수치화된 지표 활용)

[문1-3] 다음은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요 내용	도움 정도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	매우 도움	
1) 서울의 도시변화와 추세 분석 (인구, 주택, 산업, 토지이용 등 변화분석)	①	②	③	④	⑤	
2) 서울이 직면한 특정이슈에 대한 심층분석과 전망(심층진단)	①	②	③	④	⑤	
3)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및 전략의 추진상황 점검(계획, 정책, 사업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책지표를 통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성과 진단(수치화된 지표 활용)	①	②	③	④	⑤	

[문2]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추진 과정과 실현 정도에 대한 진단을 성과진단지표(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안) 등을 토대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단에 서울시 관련 부서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성과 및 추진과정 진단에 서울시 관련 부서의 참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문3] 귀하께서는 향후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필수), (2순위 : 선택)

[문4]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건의 또는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통계처리를 위한 질문**

[문1] 현재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시
- ② 서울 외 지역

[문2] 귀하의 성별

- ① 남 성
- ② 여 성

[문3] 귀하의 연령

- ① 30세 미만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 ⑤ 60세 이상

[문4] 서울시 근무 기간(근무기간 전체 기준)

- ① 5년 미만
- ② 5 ~ 10년 미만
- ③ 10 ~ 15년 미만
- ④ 15 ~ 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2023년)

서울연 2023-IR-04

---

**발행인** 오균

**발행일** 2024년 3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리포트

2023년

